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2. 21.(목), 13:00 ~ 17:3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찬희, 정광용, 정정남, 최지음(탄원)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공개 |
| 2 |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공개 |
| 3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 | 공개 |
| 4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 공개 |
| 5 | 상주 북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5차) | 공개 |
| 6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천관전 건립(2차) | 공개 |
| 7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 공개 |
| 8 |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 공개 |
| 9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상현묘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2차) | 공개 |
| 10 |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공개 |

【검토사항】

| | | |
|----|-------------------------------|----|
| 11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공개 |
| 12 |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지정명칭 변경 검토 | 공개 |

【보고사항】

| | | |
|----|--|----|
| 13 |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소위원회 결과보고 | 공개 |
| 1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21건)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조명시설 정비(태양광) -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1종) 신축(변경허가) - 안성향교 대성전 주변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 | 공개 |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변경허가)
- 부산 운수사 대응전 주변 임도구조개량사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천은사 진입 교량 정비
- 충주 고구려비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백화산 등산로(청조루~태을암) 정비
-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백운동 야영장 리모델링 정비
- 창녕 석빙고 주변 전주 신설
-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응전 주변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및 전송로 설치
- 영광 불갑사 대응전 주변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충주 고구려비 주변 농업용수 관로 공사
- 부산 운수사 대응전 주변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묘사채 철거 및 승방 복원
- 여수 진남관 탁본
-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01

1.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영남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23.10.19.)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1.02~'12.01)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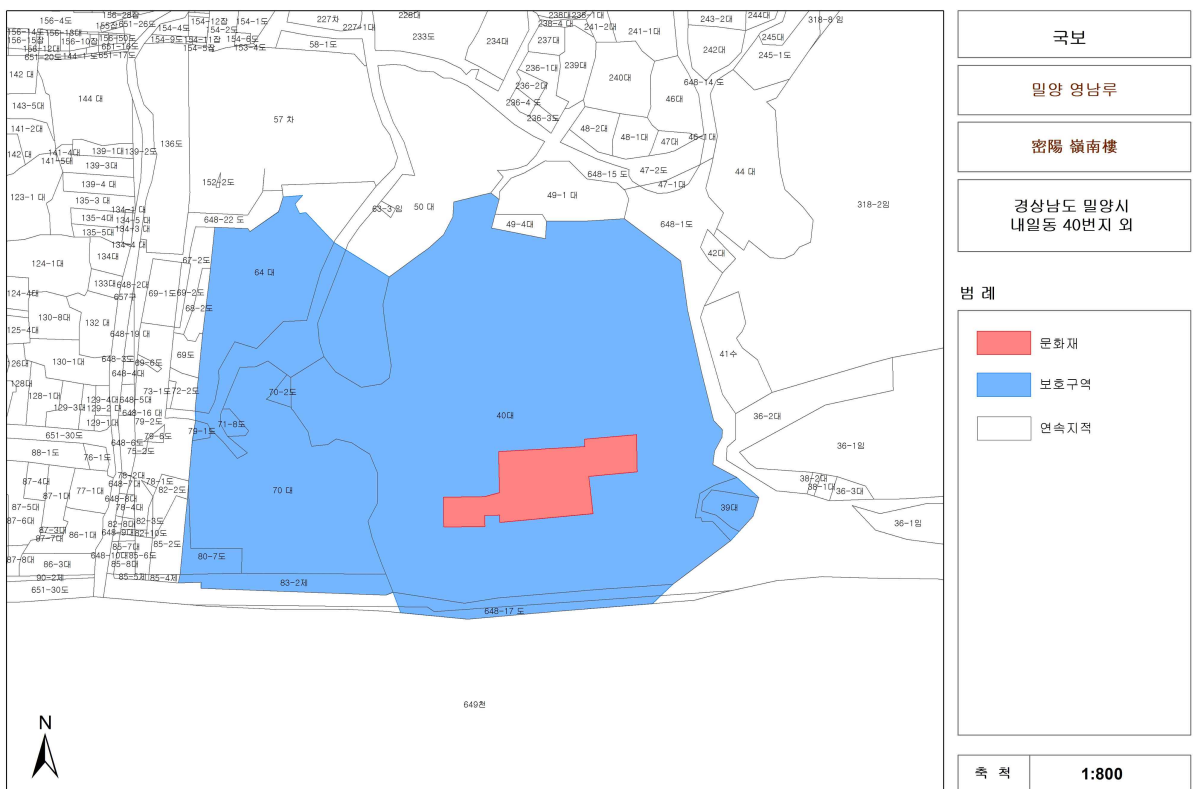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밀양 영남루(密陽 嶺南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 지정면적 : 693.60㎡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3.17.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17 |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건축역사 |
| | 소 속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밀양 영남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에 위치한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대 밀양 도호부의 객사에 부속된 관영 누정으로, 중앙에 ‘영남루’라 편액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대루(大樓)를 두고, 좌우에 부속 시설인 능파각(凌波閣)과 침류각(枕流閣), 그리고 대루와 침류각을 잇는 층층각인 여수각(麗水閣)을 포함한 일군의 건물을 이룬다.¹⁾ 영남루와 객사 등이 자리한 절벽 위의 평평한 대지(臺地)는 밀양강(또는 南川江, 凝川)의 북면 높은 절벽 위에 있으며, 북쪽과 서쪽으로는 밀양 읍내를 내려다보고, 동쪽으로는 아동산(衙東山, 88.1m)이 있고 남쪽으로는 밀양강과 건너 들판 주위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승지이다. 따라서 강변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영남루는 최초 그 자리에 누정이 세워졌다는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에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는 명소로, 밀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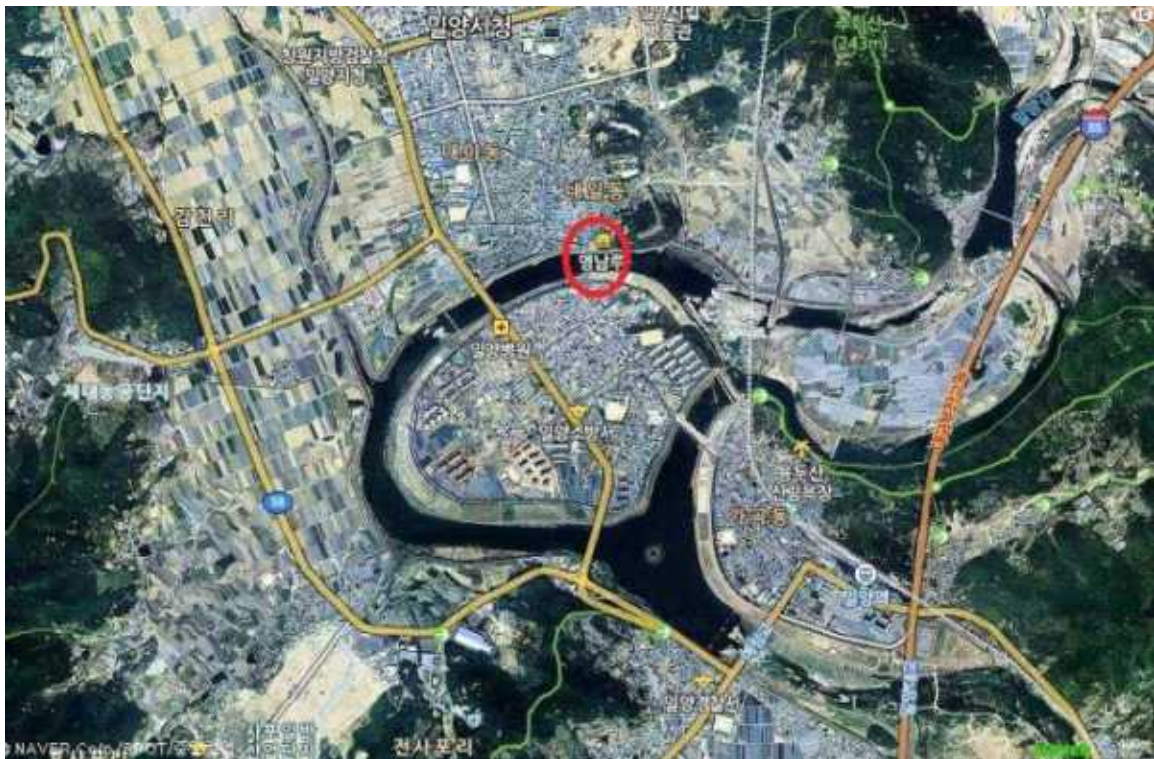


그림 1 영남루의 위치와 현재의 밀양 시가지 개발 상황, 영남루의 북편이 과거의 밀양 읍내이고, 밀양강 아래 쪽은 근래에 개발된 신시가지이다. KTX밀양역 역시 밀양강 남편에 자리한다.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신청 보고서』(밀양시, 2023, 이하 『보고서』로 약함)에서 전재)

조선시대 밀양의 관아는 현재의 시청이 위치한 아북산(衙北山, 118.6m) 아래 남사면에

1)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밀양대호뿌 누정조에 지금의 침류각의 전신인 소루(召樓)를 영남루와 별개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대루만을 영남루라고 기재하고 있어, 좁은 범위에서 영남루라고 하면 대루만을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있었으며, 관아의 앞에서 남쪽으로 뺀 대로가 밀양읍의 중심축이 되고, 객사와 영남루는 밀양읍성 내 남문을 들어와 바로 동편 언덕 위에 있다. 이처럼 객사와 관아가 떨어져 있는 것은, 대개 객사가 읍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 옆에 관아가 있는 일반적인 읍성의 구조와 다르다. 이는 영남루가 갖는 위상을 보여줌과 함께, 객사를 통 채로 이곳에 건립할 정도로 이 장소가 누정을 건립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양 객사의 본 건물들은, 영남루가 자리한 대지의 북변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영남루와의 사이엔 마당이 있다. 객사의 정청 건물이었던 천진궁(天真宮)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공포를 가진 단층 팔작집이고, 객사의 내삼문이었던 만덕문(萬德門)은 정면 3칸의 솟을삼문 형식을 가지며, 지붕은 역시 팔작지붕이고, 공포는 특이하게 다포계의 공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동산으로 오르는 비탈진 경사지가 있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시내로 내려가는 경사지가 있다. 영남루 권역으로 오르는 주 출입은 서쪽의 경사를 이용하는데, 서쪽의 경사지에 놓은 계단 위에 객사와 영남루의 외대문인 사주문이 있다. 사주문은 직사각형 평면에 4개의 기둥만으로 팔작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하방이나 지방, 벽체 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쾌활한 인상을 준다.

영남루의 동쪽 강변으로 조금 내려간 비탈지엔 전설 속의 열녀 아랑(阿娘)을 기리는 아랑각이 있으며, 늦어도 고종 연간에는 건설되었으리라 추정한다. 아랑각의 동쪽, 성 밖의 비탈에는 무봉사(舞鳳寺)라는 사찰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또 아동산 위에는 밀양 읍성의 동남 모퉁이에 자리한 망루인 무봉대(舞鳳臺)가 있고, 아동산에서 직각으로 꺾인 성벽은 절벽을 따라 영남루 앞을 지나가 서쪽에서 남문으로 이어진다.

영남루 일원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현재에도 이어져서, 아동산 기슭에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의 동상(1971년), 밀양아리랑 노래비(1989년), 20세기 중반의 유명한 대중가요 작사가인 박시춘 노래비와 생가(2001년) 등의 기념비들이 있으며, 시에서 행하는 각종의 문화 행사들이 영남루 앞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시에서도 이 장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변에 난립하였던 많은 주택과 건물들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변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림 2 『여지도』 중 「밀양부지도」(조선후기, 『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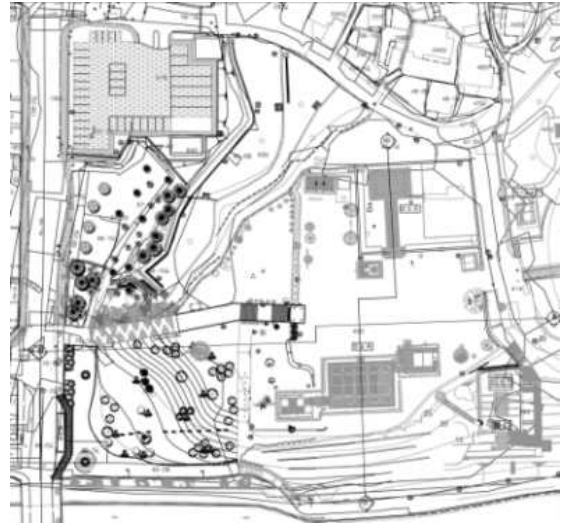


그림 3 영남루 일원의 배치현황도(『보고서』에서 전재) 왼쪽의 남북으로 뻗은 도로가 과거 밀양읍의 중심축이다.



그림 4 밀양강(남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영남루 전경. 전면에 밀양읍성의 남벽이 있고, 성벽 너머로 침류각과 여수각, 대루, 능파각이 나란하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랑가. 그리고 그 위에 언덕위에 있는 것이 무봉사이다. (2023.03.17. 촬영)

2. 연혁

이 장소에 영남루(嶺南樓)라고 이름한 관영의 누정이 창건된 것은 고려말 공민왕 14년, 1365년의 일이다. 그러나 일찍이 12세기까지 이르는 고려시대의 여러 시문을 통해 이곳에 영남사(嶺南寺)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으며, 그 사찰 부속의 종각인 금벽루(金壁樓) 혹은 소루(小樓)나 죽루(竹樓)라고 부르는 작은 루가 있었고, 또 그 소루(죽루)를 그냥 간단히 영남루라고 부르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루는 비록 관영의 누정은 아니었지만, 승경지에 자리하여 시인 묵객의 탐방 장소로 사랑받았다는 점에서 이후 영남루의 성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후 고려말에 이르러 1365년 밀양의 지군(知郡)으로 온 김주(金湊, 1339-1404)가 폐사가 된 영남사의 소루가 낡은 것을 보고 이를 헐고, 진양(晉陽) 축석루(矗石樓)의 제도를 좇아 새로 누정을 짓고, 영남사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명명하였다고 한다.²⁾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김주는 1389년에는 도평의사사 신청사의 건축공사를 감독하고, 1391년에는 도성(개성)의 수축에 관여하였으며, 조선 개국 초에는 계룡산 하의 신도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등 건설 사업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김주는 1389년 관찰사가 되어 다시 영남루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였다.

조선 개국 후에는 부사 안질(安質, ?-1447)이 대루를 중수하고, 천순 경진(天順 庚辰)년 즉, 1460년(세조 6) 부사 강숙경(姜叔卿, 1428-1481)이 재차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내용은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영남루기(嶺南樓記)」에서 확인된다. 이 기문에서는 특히, “영남에 고을이 60여 개로 이들 중 누각이나 정자(樓榭臺觀)가 없는 곳이 없으나, 오로지 이 집만이 ‘영남’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경치의 아름다움이 영남에서 으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미 조선 전기에도 영남루의 빼어남은 널리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 안질이 영남루를 중수할 때 대루의 서쪽 옆에 작은 루를 추가로 지었는데, 특별한 이름 없이 민간에서 그저 소루(小樓)라고 불리던 것을, 1442년(세종 24) 영남 도사 권기(權技, ?-?, 1432년 식년시)가 주나라 때의 유명한 관리이자 목민관의 모범과 같았던 소공(召公)³⁾의 이름이 마침 발음이 같은 것에 착안하여 소루(召樓)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부사 이충걸(李忠傑, 1465?-1527?)⁴⁾이 임경당(臨鏡堂)으로 개명하였다고 하

2) 「嶺南樓重修記」 (1365, 金湊) (『密州誌』 卷之一, 「嶺南樓條」 소수)

3) 주 왕실의 일족으로, 주공(周公)과 함께 무왕을 도와 상(商)을 무찌르고 주를 세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연(燕)을 분봉받아, 전국 칠웅의 하나인 연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소공식(召公奭), 소백(召伯), 소강공(召康公), 주소공(周召公)이라고도 불린다. 주나라 초기 주 왕조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공이 크고, 특히 그가 다스리던 주나라의 서쪽 지역에선 후백에서 서인까지 실직자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여러 글에서 모범적인 목민관의 모델로 인용되는 것을 보면, 권기가 굳이 소루라고 명명한 것은 이곳이 관영의 누정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4) 李忠傑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상에 李世傑의 개명으로 등장한다. 이세걸은 이충걸 외에 李忠純의 이름도 사용한 것

니, 지금의 침류각(枕流閣堂의 전신이다.

또, 연산군 때인 홍치(弘治, 1488-1505) 연간에는 부사 김영추(金永鍾)⁵⁾가 대루의 동북 모퉁이에 망호당(望湖堂)을 지어 빈객들의 숙소로 삼았는데, 이것이 능파각(凌波閣)의 전신이다. 이처럼 늦어도 15세기 말에는 지금 영남루를 구성하고 있는 세 건물의 전신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중종 37년(1542)에는 대루의 보수가 있었고, 같은 해에 망호당을 지금처럼 대루 가까이로 옮기고 바닥의 높이도 대루에 맞추어 축대를 쌓아 올리고, 규모도 한 칸 더 키워서 새로 짓고 능파각이라 이름하였으며,⁶⁾ 임경당(소루) 역시 중수하고 침류각으로 개명하였다. 모두 부사 박세후(朴世煦, 1494-1550)의 일이다.⁷⁾

이때가 현재 남아있는 영남루의 세 누정 건물의 체제가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밀양십이경도」(또는 今是堂十二景圖,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308호) 중 영남루의 그림이 이러한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적고 있으나, 낙관의 상태나 화풍 등으로 볼 때 이 그림을 18세기 경의 작품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림 5 「밀양십이경도」 중 「영남루」
(『보고서』에서 전재)

하지만 영남루는 임진왜란 때 객관과 함께 모든 부속 시설이 소실되고, 이후 중창과 중

로 나온다. 여기의 생물년은 이세걸의 것을 따른 것이고, 이세걸은 장수 이씨로, 1486년(성종 17) 식년시에 병과로 등과하였고, 벼슬은 대사헌과 전라감사 등을 지냈다.

5) 金永鍾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을 쓰는 인물로는 신안동 김문의 중흥기 중심인물인 김계권(金係權, 1410-1458)의 오형제 가운데 5자로 영천군수와 사헌부 장령을 지낸 김영추가 있다.

6) 「凌波堂小記」(申光漢, 1542)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때 비로소 대루와 연결되는 난간을 만들고 삼면에 단청을 하였다.

7) 박세후는 1540년부터 1544년까지 밀양 부사를 지냈다.

수를 거듭하였다. 객사는 정유재란 후인 1599년(선조 32) 임시로 초옥을 능파각 터에 지어서 역석당(億昔堂)이라 편액하였고, 1608년(선조 41)에는 침류각과 능파각을 중건하기도 하였으나, 1642년(인조 20) 소실되고, 그 직후 곧바로 대루를 중건하고 1651년(효종 2)에는 대루의 서북편에 객사를 새로 지어 공진관(拱辰館)이라 편액하였다.

영남루는 이후, 1661년(현종 2), 1724년(경종 4)⁸⁾, 1793년(정조 17)⁹⁾, 1806년(순조 6)¹⁰⁾, 1825년(순조 25)¹¹⁾, 1832년(순조 32)¹²⁾ 등에 크고 작은 중수 공사가 있었다. 또 ‘崇禎後再甲辰仲春(1724년)’, ‘乾隆十四年乙巳仲春都瓦匠金運明의(1749)’ 등의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이들 시기의 중수 기록들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1806년(순조 6)의 공사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64일간 재목 290여 개와 공장 1,139명이 동원된 대규모 수리 공사로서 섞은 서까래를 갈아 끼우고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남은 물력으로 능파각을 수리하고 읍승지정(揖升之亭)을 개건하고, 담장에 기와를 올리고 문에 채색을 하였다. ‘읍승(揖升)’이란 사례(射禮)에서 절하고 당에 오르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읍승정이란 사정(射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남루의 마지막 화재는 1834년(순조 34)에 일어났으며, 영남루 경내의 모든 건물을 태웠다. 이에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1843년(헌종 9) 공사를 시작하여 1844년(헌종 10)에 마쳤다. 이때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각과 침류각을 복원하는 한편, 여수각을 짓고, 객사인 밀주관(密州館)을 크게 확장하여, 비장청(裨將廳), 동해(東廡), 서해(西廡), 공주(公廚), 대문 등 수백 칸을 지었다. 이때의 「중건상량문」은 당시의 세도가 안동 김흥근(金興根, 1796-1870)이 지었으며,¹³⁾ 2002년 능파각 번와공사시에는 「능파각상량축문」(1844)이 발견되었다. 이때가 최종적인 영남루의 현황 조성기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변화는 주변 영역의 변화는 있었지만, 영남루 자체에는 커다란 현상 변화 없이 수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890년(고종 27)의 수리가 있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 일본 헌병대의 주둔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후 고종 대에 화재가 있기도 하였으나, 영남루의 주요 구성 건물은 화재를 피하였다. 객사의 제도가 혁파되면서 객사와 그 부속 시설들의 변화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영남루에 대한 가치는 일찍부터 인정되어, 1917년에 총독부에 의한 수리공사가 있었고¹⁴⁾, 1918년 조선총독부는 영남루 전체에 대한 수

8) 「嶺南樓重建記」(李熙疇, 1724)

9) 「嶺南樓重修記」(金光默, 1793)

10) 「嶺南樓重修記」(金載華, 1806)

11) 「凌波堂記」(李和淵, 1825)

12) 「嶺南樓修重上樑文」(趙基復, 1832)

13) 「嶺南樓重建上樑文」(金興根, 1844)

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수리의 대상으로 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과 정문(사주문) 등으로 삼았다. 나머지 부속 시설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영남루 북편에 자리하였던 객사는 중심 건물인 정청과 만덕문만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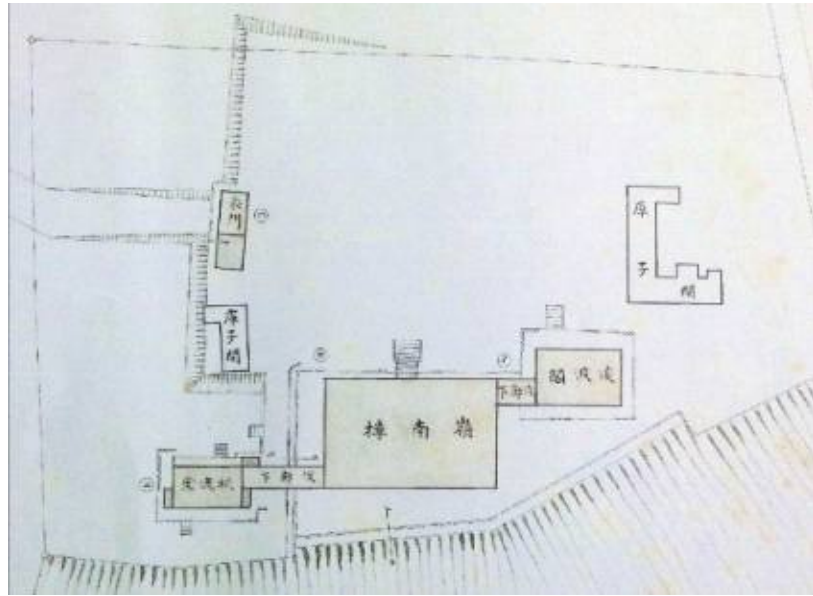


그림 6 밀양 영남루 배치도 (1918년경, 국가기록원 소장, 『보고서』에서 전재) 표문(表門)이라 표기한 정문 외에 고자각(庫子閣)이라 표기한 창고건물들이 부속되어 있다.

이후 1926년에는 민간인의 회사로 전등이 설치되고,¹⁵⁾ 1929년 임시 수선공사가 있었고,¹⁶⁾ 1930년에는 군수 최두연(崔斗淵)의 주도로 민간의 문화유산 보존조직인 밀양보승회(密陽保勝會)가 설립되어,¹⁷⁾ 영남루의 보존에 힘쓰는 등의 노력으로 총독부의 지원과 민간의 모금으로 1930~31년에 걸쳐 대대적인 중수 공사가 행해지고, 1931년에는 조선 16경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1932년에는 일본 공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혼다 세이로투(本多靜六) 박사에 의해 공원화 계획이 만들어지기도 했다.¹⁸⁾

1936년 5월 23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때 함께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은, 京城 文廟, 京城 東廟, 修德寺 大雄殿, 開心寺 大雄殿, 寶林寺 大雄殿, 通度寺 大雄殿, 深源寺 大雄殿, 龍門寺 大藏殿, 觀龍寺 藥師殿, 安州 百

14) 「釜山日報」 1917년 10월 14일자.

15) 「每日新報」 1926년 7월 6일자.

16) 「동아일보」 1929년 6월 26일자.

17) 「동아일보」 1930년 11월 19일자.

18) 「每日新報」 1932년 8월 16일자.

祥樓, 安邊 駕鶴樓, 道岬寺 解脫門, 江陵 客舍門, 成川 東明館, 海印寺 藏經板庫 등으로, 관영 누각 가운데, 안주 백상루 및 안변 가학루, 성천 동명관과 함께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¹⁹⁾ 또 단일 건물이 아닌 여러 건물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 곽(郭)으로 표기하고 있다.²⁰⁾ 그러나 1936년 여름 장마에 피해를 입고, 빈민과 립펜들이 모여드는 등의 상황에서 수리를 촉구하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되는 중 마침내 1938~9년에 걸쳐 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영남루 일원은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행사가 일어나는 공공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영남루와 구 객사만 남은 경내의 빈터를 이용하여, 1920년경 밀양 박씨의 시조단인 밀성대군지단(密城大君之壇)이 설치되고, 이때에도 공원화 구상이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940년에는 아동산 자락에 일본 신사가 설치되면서 그 오르는 길 한편에 누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해방 후인 1952년에는 민간에서 단군봉안회가 조직되어 구 객사의 정청을 수리하여 단군 봉안전으로 바꾸어 요선관(현 天眞宮)으로 편액하였다. 1960년에는 영남루 경내에 지어진 민가들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고, 1962년 새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신법 제정 이전 1955년 영남루는 국보 제245호로 승격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제강점기의 구법령에 따른 ‘보물’을 일괄적으로 ‘국보’로 조정하는 조치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1936년의 지정 목록 그대로를 따라 심지어 북한에 소재하는 것까지를 함께 재지정하였으며, 단지 한국전쟁 후 전소된 寶林寺 大雄殿만을 제외하였다.

이후 주변 정비사업과 영남루에 대한 보수 사업이 1967년, 1982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6년 2001년, 2004년 등 계속 진행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처럼 밀양 영남루는, 그 기원은 고려 중기에 세워진 사찰 영남사의 누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말 1365년에 영남루라 이름한 관영의 누정이 최초 건립되었고, 조선 개국 후인 15세기 중엽에 여러 차례 중수와 확충 공사가 이루어진 후, 1542년에는 마침내 영남루의 특징적인 구성인, 대루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익루를 두는 복합누정군을 이루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영남루와 객사는 모두 전소하고, 17세기의 여러 대에 걸쳐 중건해 옛 모습을 되찾았으나, 1834년 다시 한번 큰불로 전소한 것을 1844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 1936년 지정은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령」에 따른 2차 지정이고, 1937년 의주 통군정과 진주 축석루가 3차 지정 때 보물로 추가된다.

20) 「朝鮮總督府官報」 제2806호 (昭和11년 5월 23일)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한 자리에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비슷한 형식의 누정이 운영된 것은, 영남루가 위치한 장소가 가지는 특별함과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이자 빈객이 유숙하는 객관의 역할을 겸한다고 하는 기능상의 요구가 만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남루가 위치한 남천강 북변 절벽 위의 평평한 대지는 누정을 지을만한 최적의 장소이며, 보통의 객사 건물이 궤패와 전패를 모신 정청을 가운데 두고 그 양옆에 빈객의 유숙을 위한 동서 익헌을 두는 것과 달리, 여기선 동서 익헌을 두지 않고 그 유숙처를 영남루 대루 옆에 지은 능파각 및 침류각으로 대신한 것도 이러한 장소가 갖는 특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혁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고려말 이래 조선 시기에 걸친 거의 모든 중건 및 중수기록이 상량문과 중건기, 중수기 등의 형태로 세세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기문의 작성자가 지역의 인물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명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영남루와 관련된 문학 작품은 조려 전기의 문신 정지상(鄭知常, ?-1135)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며, 영남루를 노래한 한시 작품이 고려말 이래 조선시대에 걸쳐 468명, 974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밀양에 오면 이 누각에 올라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하물며 밀양은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였으므로 영남루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의 도해 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조선의 누정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미 1930년 군수와 관내 유지 등이 밀양보승회를 만들어 영남루의 보호에 진력하였으며, 이에 동조한 전 군민의 참여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남루를 밀양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 가꾸어 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영남루의 보존과 관리, 현양 사업에 관내의 모든 민간 단체와 사회 조직이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점으로 특기해 둔다.

3. 건축적 특징

1) 건물 구성

영남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루를 가운데 두고 그 좌우에 작은 건물 두 개를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익루 또는 익헌을 갖는 경우는 남원의 광한루의 예가 있으나, 광한루가 하나의 익루를 갖는 것과 달리 영남루는 좌우에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작은 건물 즉, 능파각(동)과 침류각(서)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단층집으로, 누각 이라기보다는 온돌과 마루를 갖는 단층의 정사(精舍)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큰 다락집과는 우선 건축 형태부터 크게 차이가 나며, 두 건물 사이에도 위치 뿐 아니라, 시단의 높이, 실내 공간 구성 등에서 차이를 가져서 그 성격과 용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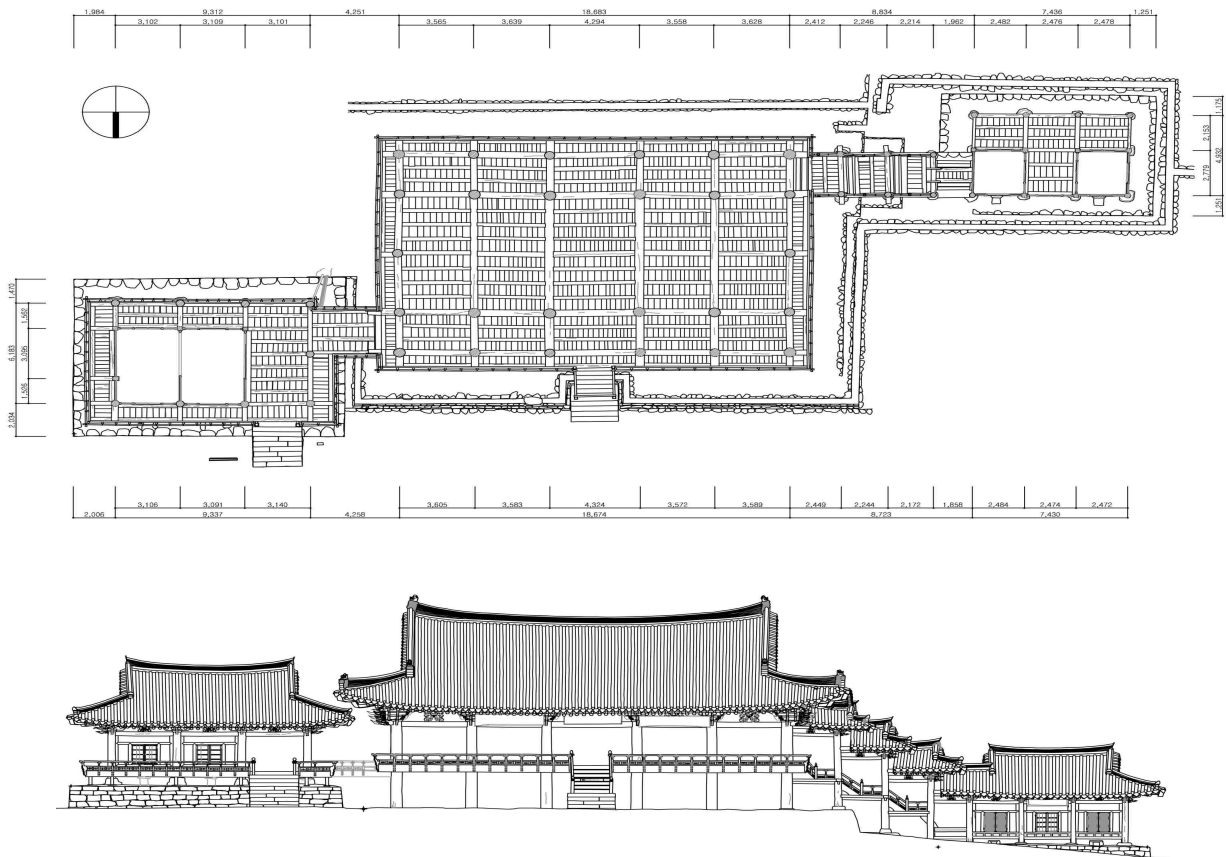


그림 7 영남루 평면도와 북측(마당쪽) 입면도 (왼쪽부터 능파각, 대루, 여수각, 침류각, 『보고서』에서 전재)

먼저, 능파각은 대루와 같은 높이의 대지 위에 있으며, 능파각 아래로 높은 석축형 기단을 쌓아 실내 바닥 높이를 대루와 비슷하게 맞추고, 두 건물 사이를 난간을 둘러싼 현랑으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대루에서 언제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대루에서 행사를 하는 동안, 혹은 그 전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적이고 난방이 되는 공간(온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침류각은 좀 더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단 침류각이 세워진 장소는 대루 및 능파각에서 한단 아래로 내려온 장소여서, 기단을 높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실내 바닥의 높이를 대루와 맞추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침류각은 일반적인 기단의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루와의 연결에는 계단을 덮은 층층각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폭 한칸 길이 세칸의 층층각은, 매칸마다 지붕과 바닥틀의 높이를 달리한 층층각으로 꾸미고, 그 바닥틀 위에 계단을 설치한 독특한 것이다.

평면의 구성에서도 능파각은 사방으로 난간을 두른 뒷마루를 두고, 거의 한 가운데에 3칸을 온돌 두 칸과 마루 한 칸으로 꾸몄는데, 침류각은 앞뒤 두칸폭을 전후로 구획하여, 밀양강에 면한 전면의 세 칸은 다 마루로 하고, 후열의 세 칸은 가운데칸만 마루로 하고 양 옆칸은 온돌로 하였다. 이러한 침류각의 구성은 영남지역에 있는 계변(溪邊) 누정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말하자면, 능파각은 실내 공간 전체가 탁 트인 마루로 되어 있는 대루가 완전한 누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폐쇄적인 실내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보조적인 건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이 비슷한 사례가 남원의 광한루에도 있다. 한편, 침류각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강변 누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대루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로 보인다. 이는 능파각이 대루와 같은 높이로 연결하는 현랑의 제도가 이미 1542년에 만들어진데 비하여, 침류각을 대루와 연결하는 월랑은 영남루의 현랑 조성기인 1844년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연혁과도 상통한다.

2) 대루

각 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당당한 다락집으로, 정면 5칸은 가운데 정칸만 14.4척(4,295mm)으로 크게 하고, 좌우의 협칸과 퇴칸은 모두 12척(3,579mm~3,679mm)으로 맞추어 전체 길이가 18.7m에 이르고, 측면 4칸은 가운데 두 칸은 정면의 협칸과 같이 12척(3,619mm~3,644mm)으로 한 대신 앞뒤의 두 협칸은 크기를 줄여 8척(2,454mm~2,486mm)으로 하여 전체 12.3m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3:2의 비례를 갖는다. 전체 바닥면적은 약 70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의 경회루(289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누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이다. (표1. 참조) 사방으로 마루를 1.1m 정도 튀어 나간 현

함을 만들고 계자각 난간을 둘렀기 때문에 실제 공간은 더 넓어 보인다.

표 1. 주요 누정의 규모 비교 (보물로 지정된 것 중 발췌)

| 건물명 | 칸수 (정면×측면) | 정면 크기 (mm) | 측면 크기 (mm) | 가로/ 세로 비 | 면적(㎡/ 평) |
|---------------|---------------|------------|---------------|-------------|-----------------|
| 밀양 영남루 (대루) | 5×4 | 18,688 | 12,278 | 1.522 | 229.45 (69.5평) |
| 제주 관덕정 | 5×4 | 17,402 | 12,920 | 1.347 | 224.83 (68.1평) |
| 남원 광한루 (본루) | 5×4 | 15,420 | 10,821 | 1.425 | 166.86 (50.6평) |
| 창덕궁 주합루 | 5×4 | 13,662 | 9,312 | 1.467 | 127.22 (38.6평) |
| 강릉 경포대 | 5×5 | 11,960 | 9,770 | 1.224 | 116.85 (35.4평) |
| 정읍 피향정 | 5×4 | 11,860 | 8,260 | 1.436 | 97.96 (29.7평) |
| * 경북궁 경회루 | 7×5 | 33,797 | 28,246 | 1.197 | 954.63 (289.3평) |
| ** 구례 화엄사 각황전 | 7×5 | 26,661 | 18,222 | 1.463 | 485.82 (147.2평) |

기단은 막돌 허튼층 쌓기로 하였는데, 북쪽의 마당쪽과 남쪽의 강변 사이에 원지형의 고저차가 약 1.5m 정도 있어서, 경사형 기단으로 쌓아 그 윗면을 평탄하게 하였다. 기둥열의 구성은 누하에서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주망의 교차선에 모두 기둥을 세워 모두 30본의 누하주를 두었고, 누상에서는 종도리 선에 맞추어 한 가운데 있는 내고주 4분을 감주하였기 때문에, 둘레의 평기둥이 모두 18본, 전후의 내고주가 8분 해서 모두 26본의 기둥이 사용되었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 사용되었고, 누하주는 대개 지름 550mm~600mm 의 것을 사용하였지만, 측면 변주에서는 이보다 한 치 이상 작은 것도 사용하였고, 특별히 두치 이상 큰 것도 있어서 일정치 않다. 높이도 2,427mm~2,636mm 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편차가 큰데, 이는 자연석 주초와 지면의 높이차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상주의 경우 둘레기둥은 지름 489mm~504mm로 비교적 균질하고, 다만 네모통이의 우주는 545mm~585mm로 큰 지름의 것을 사용하였다. 높이는 2,655mm~2,708mm로 하여 누하주보다 조금 가늘고 높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내고주는 지름을 529mm~593mm 정도로서 누하주나 우주와 비슷하지만, 높이는 둘레기둥보다 약 1m 가량 높은 것을 사용하였다. 주심도리와 하중도리 사이의 높이차가 1,330mm~1,403mm 정도 있기 때문이다.

상부 가구는 2고주 7량가의 구성을 갖는데, 평주 위에서 내고주 위로 걸리는 뒷보는 우미량과 같이 큰 곡률을 가진 보가 사용되었고, 특히 좌우 측면의 중앙 기둥 위에서 사용된 층량은 그 내단이 대들보 위에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곡률이 크다. 그 외 측면 협간에 있는 층량은 내단이 내고주 위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뒷보와 같은 곡률을 갖는다. 즉, 층량과 뒷보가 비슷한 모양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뒷보가 수평으로 뻗어 내고주의 상부에 꼽히는 것을 감안하면, 뒷보가 층량을 따라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내고주 위에 걸구된 뒷보의 내단 보뿔목에 용두를 초각한 것 역시, 일반적인

뒷보의 경우와 다르고, 층량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특히, 측면 가운데 들레기둥 위에 있는 곡률 선 층량은 대들보 선에 맞추어 가설한 눈썹 천장을 뚫고 올라가 그 내단부가 대들보 위에 걸치는데, 그 끝을 용두로 조각하여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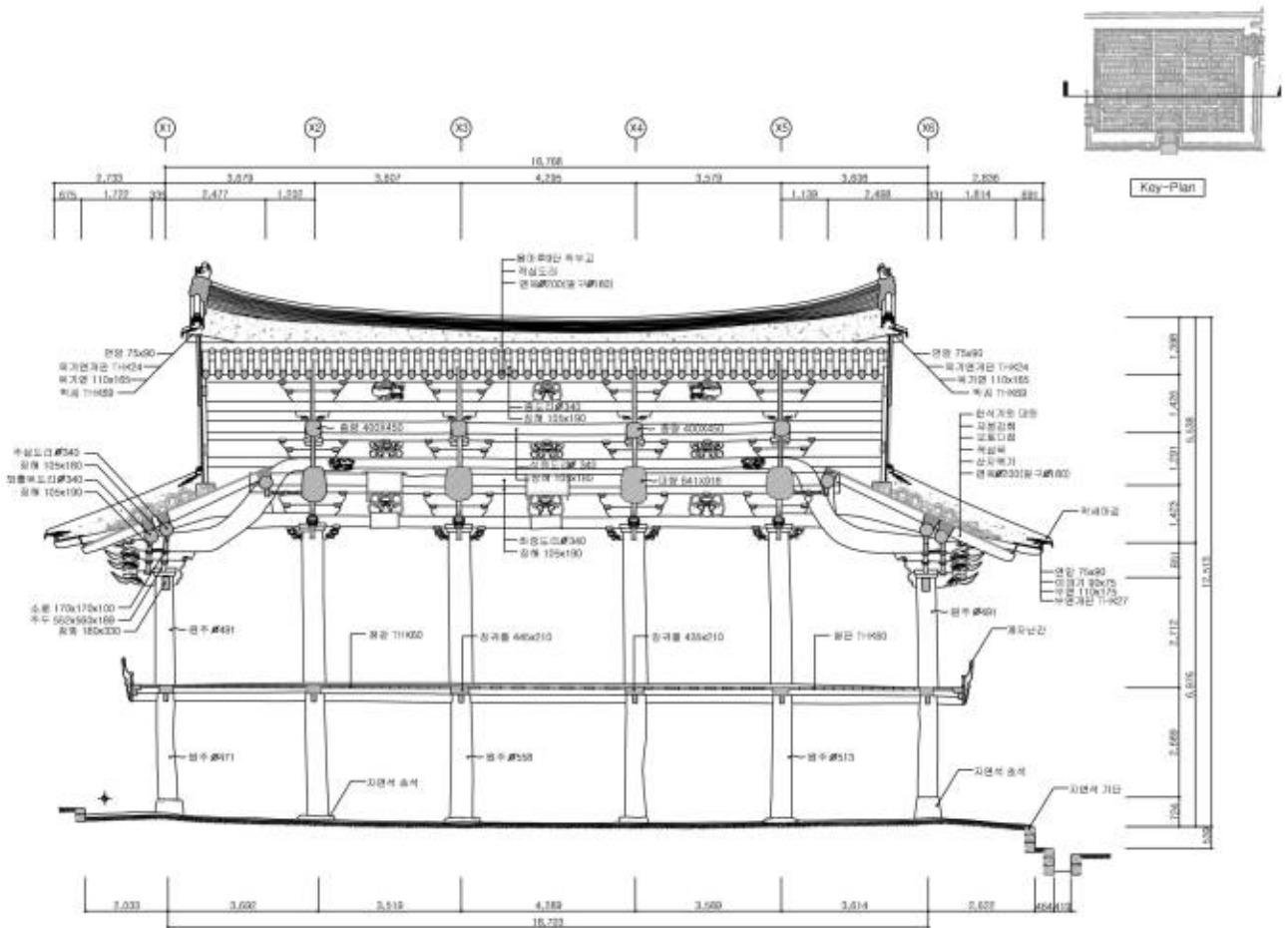


그림 8 영남루 대루의 횡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독특한 곡률의 측면 중앙의 층량과 별장여 등의 도리 방향 보강재, 첨차, 화반, 대들보와 종보의 구성 등을 볼 수 있다.

지붕틀은 대들보의 양단에서 하중도리를 받치고, 그 윗면 중간에 2분의 판재와 첨차로 짠 동자주를 두어서 상중도리와 종보를 받친 다음, 종보 윗면 한 가운데에 대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치는 7량가의 구성이다. 내고주가 들레 기둥에 비해 1m 가량 높지만, 그것만으로 필요한 도리의 높이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고주 위에 다시 뒷보의 내단과 짜이는 뜯 장여를 두고, 그 위에 대들보 보아지와 짜이는 2단의 첨차를 쌓은 다음, 하중 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다. 상중 도리와 종대공 아래의 판대공에도 역시 직각 방향으로 첨차를 두어 짜임을 단단히 하고 있다. 또, 보칸의 길이가 12m가 넘기 때문에, 서까래는 하중도리에서 처마도리 사이의 장연 외에, 하중도리와 상중도리 사이에, 그리고 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각각 단연을 두는 3단 구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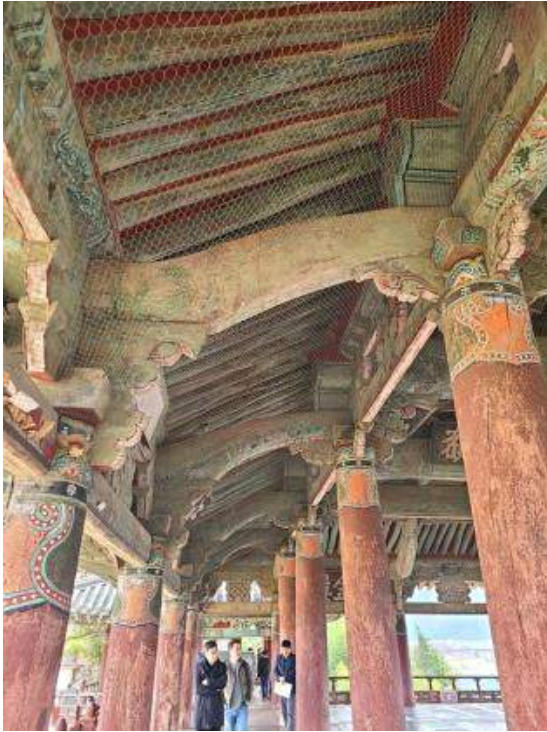


그림 9 전면(북측면) 뒷보의 모습. 마치 일반적인 층량처럼, 둘레 기둥 위에서 내고주 위로 곡률을 가지고 걸쳐져 있다.(2023.03.17. 촬영)



그림 10 측면 중앙 기둥 위에 있는 층량의 모습, 내만곡한 곡선을 이루며 눈썹지붕을 뚫고 올라가 대들보 위에 걸려 있다. (2023.03.17. 촬영)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형식을 갖는다. 익공 외단의 초각은 모두 양서형 위에 연화와 연봉 등을 덧붙여 화려하게 가공하고, 내단은 주두 아래에서부터 보 아래까지 한 몸으로 운궁 보아지 형태로 짜고 2익공 위에 연봉을 초각하였다. 귀포에서는 전각포를 사용하였으며, 귀한대의 가공은 다른 익공과 같이하고, 출목 소침과 대침은 좌우대를 사용하였다. 3익공 위 보빨목에 봉두를 초각하여 붙였고, 전각포에서는 같은 자리에 역시 봉두를 초각을 한 4익공을 끼워 외목도리의 짜임을 받쳤다. 주심도리 아래엔 가침 장여를 붙여 출목도리의 장여 선에 맞추어 순각판을 설치하였다.

침차는 주심 침차와 출목 침차의 하단 초각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주심 소침과 대침의 경우 소로 아래를 직선으로 수직 및 경사지게 가공한 소박한 형태로 한 데 비해, 출목 소침과 대침은 양단부에 익공의 내외단에서 볼 수 있는 연봉을 초각한 화려한 형태로 초각한 점이 다르다. 크기는 소침 대침 모두 주심 침차가 출목침차보다 크다.

채주두를 두지 않은 점, 외1출목에 화려하게 추각한 소침차와 대침차를 사용한 점 등은 조선후기 출목익공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익공의 가공을 판재를 이용한 평면적 가공에 충실하게 한 점, 익공의 초각을 양서와 연화가 함께 있는 모양으로 한 점 등 역시 조선후기 다포계 공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여, 이러한 공포 형식은 1844년

중수의 시점과 부합하는 양식사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1 들레 기둥 위에 있는 1출목 3익공의 공포 (2023.03.17. 촬영)



그림 12 귀포에 사용된 진각포의 모습. (『보고서』에서 전재)

공포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조선 후기의 장식화 경향이 보인다. 내고주의 상부에서는 텃보(혹은 충량)과 하중도리의 장여가 주두 위에서 직각으로 짜이는데, 이 주두 아래 보아지 겸 장여받침의 역할을 하는 부재에도 익공 제공에서와 비슷한 초각이 보이고, 동자주 및 대공에 사용된 보아지 혹은 첨차와 화반 모양으로 가공한 판대공과 동자주 자체에서도 비슷한 초각이 사용되었다. 또 측면 중앙의 충량 2본과 전후면 가운데에 있는 모두 8본의 텃보 내단에 용머리를 입체적으로 가공하여 실내 공간을 꾸미고 있고, 귀면(鬼面), 서수(瑞獸), 화병(花瓶)과 연화 등 다양한 장식문양으로 초각된 화반이 사용되었다.

용모양은 대들보의 단청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진기한 사례이다. 또 네 모퉁이 있는 선자연의 아랫부분에 녹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를 그려 넣었는데, 이 역시 다른 예를 찾기 힘들다.



그림 13 영남루의 천장 지붕틀의 구성 (2023.03.17. 촬영)



그림 14 추녀 선자연 하부에 그려진 사신도 단청 (2023.03.17. 촬영)

3) 능파각

능파각은 높은 석축형 기단 위에 있는 단층의 팔작지붕 집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갖는다. 그러나 실내 공간의 구성은 동측의 2칸은 한 칸 반 크기의 온돌방과 반 칸 크기의 뒷마루로 구획해서 사용하고, 맨 서측 한 칸은 두 칸을 터서 통칸의 개방적인 마루로 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서쪽에 있는 대루와 이어지는 공간이어서 그 과정 공간, 준비 공간의 역할을 위해 전체를 마루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루와의 사이에 한칸 폭의 연결마루인 현랑이 있는데, 대루의 바닥과 높이차가 있어서, 대루쪽에 붙여서 2단의 계단이 있다.

한편 뒷마루가 없는 나머지 3면, 즉 동서의 양 측면과 마당으로 향하는 북쪽 면에는 추가로 기둥 바깥으로 현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집 전체로 계자각 난간이 딸린 현함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남쪽에 있는 뒷마루의 폭은 1,510mm이고, 나머지 세면에 있는 현함은 1,390mm의 폭으로서,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석축형 기단의 높이는 마당측(북쪽)이 1,148mm, 강변에 있는 남측이 1,584mm이고, 마당에서의 진입은 서쪽의 마루방 앞으로 난 9단의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계단을 이용하여 단면에 실내 바닥의 높이까지 오르게 하였는데, 이처럼 기단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은 이례적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근대 이후의 개변으로 보고 있다.

주칸은 정면과 측면 모두 매칸 3,043mm~3,109mm로 큰 차이가 없어, 시공 오차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모두 같은 칸치수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쪽 2칸과 서쪽 1칸의 실내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둥의 배열 역시 이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였다. 서쪽 마루가 있는 부분은 원래의 주망에 맞추어 기둥을 배열하였지만, 온돌방이 있는 동쪽 부분은 방의 크기에 맞추어 기둥을 두었다. 이 기둥은 다른 기둥과 달리 대들보(서측면의 경우 충량)와 직접 짜이는 것이 아니라 대들보 아래를 지탱하는 셋기둥으로 처리하였으며, 따라서 기둥의 형태와 규격도 다르게 하여, 240mm 사방의 각기둥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기둥이 400mm~450mm 지름의 원기둥이 사용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이 셋기둥은 모두 4본이 사용되었는데, 서측벽을 이루는 부분에는 원기둥이 하나도 없이 중도리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자리에 한 쌍의 셋기둥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각기둥은 온돌방의 전면 뒷마루와 만나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셋기둥은 중도리선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상부 구조와 하부의 공간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즉 지붕틀의 도리 간격은 북쪽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가 1,941mm,

두 개의 전후 중도리 사이가 2,159mm, 그리고 중도리에서 남쪽 주심도리까지가 2,097mm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 변작의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뒷마루의 폭은 1,551mm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팔작지붕의 합각부분을 받치기 위한 충량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측면의 경우 중앙의 원기둥 위에 충량의 외단을 두면 되지만, 동측면의 경우 충량의 외단을 받칠 기둥이 없다. 그래서 동측면에서는 충량의 외단을 동측면 중앙의 두 각기둥 사이에 있는 장여 위에서 받치고 있다.



그림 15 대루에서 본 능파각의 모습 그림 16 능파각의 익공 (2023.03.17. 촬영)
(2023.03.17. 촬영)

전체적으로 들레 기둥은 전후면이 각 4본씩 8본, 그리고 동측면엔 각기둥으로 해서 2본, 서측면은 원기둥이 1본 등 총 11본이 사용되었으며, 이 11개의 바깥 들레 기둥 위에 이익공식 공포가 사용되었다. 기둥머리에서 초익공이 창방과 짜여서 주두를 받치고, 그 위에 이익공이 주심첨차와 짜여서 주심도리 장여를 받친다. 익공의 외단은 모두 양서형의 초각과 연봉을 조합한 화려한 초각을 하였고, 주심 첨차는 대루의 주심 첨차와 같이 직선으로 가공하였다. 역시 재주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익공 위 대들보의 뿔목에는 봉두를 초각하여 끼웠고, 동서 양측벽에서는 측면 주심도리 장여의 끝을 돌출시켜 봉두를 초각하였다. 내주로 사용된 두 개의 각기둥으로 된 셋기둥에는 공포가 사용되지 않고, 다만 보아지와 주두를 두어 대들보를 받치고 있고, 익공이 차지하는 높이만큼 높은 기둥을 사용하였다.

중도리 아래의 동자주와 중도리 아래의 대공 모두 판대공으로 짜서 받치고 이에 직각으로 장여아래에 첨차를 두어 결구를 단단히 하였다. 기둥 사이엔 독특한 모양의 호반을 매 주간에 사용하였다. 천장은 온돌방에서는 지천장으로 서까래를 가렸고, 마루에서는 합각의 아래 부분을 가리기 위한 눈썹천장을 우물천장 형식으로 짜넣었다. 창호는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는 4분합의 들어열개를 동측벽의 두 각기둥 선에 맞추어 설치하였고, 온돌방의 남측과 북측벽엔 머름을 둔 위로 쌍여단이 살창을 중앙에 두었다. 온돌방 두 칸 사이벽에도 미단이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문열굴만 남아있다.



그림 17 능파각의 온돌방 내부 (2023.03.1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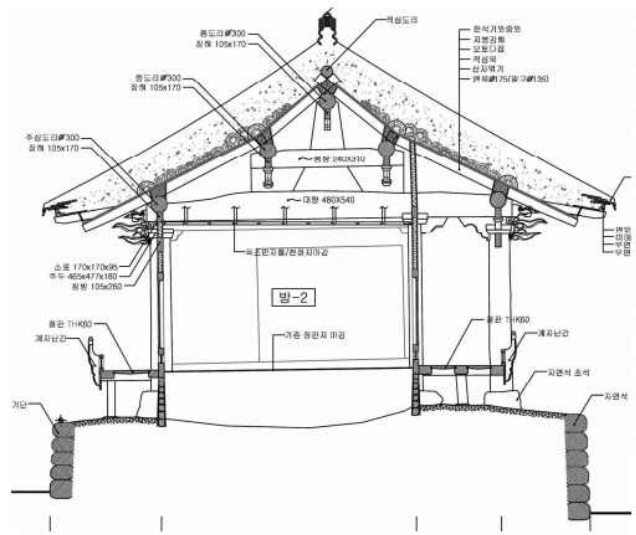


그림 18 능파각 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4) 침류각

침류각은 대루의 서편 한 단 낮은 지대에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집이다. 대루와의 사이엔 도리칸 4칸, 보칸 1칸의 층층각인 여수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칸수는 능파각과 같으나, 칸치수는 도리칸으로는 모두 2,476mm~2,482mm, 즉 8자를 기준으로 하고, 보칸으로는 남쪽의 마루쪽은 2,153mm(7자), 북쪽의 온돌방이 있는 곳은 2,779mm(9자)로 하여서 능파각이 가로세로 모두 10자를 기준으로 칸살이한 것보다는 조금 작다. 전체적인 평면의 가로세로 비례는 약 3:2로 대루, 능파각과 모두 같다.

평면의 구성은 능파각과 확연하게 달라서, 밀양강을 향한 남쪽의 3칸은 전무 마루로 되어 있고, 북쪽의 3칸은 가운데 칸만 마루로 하고 양옆에 온돌방을 들였다. 이러한 구성은 전면은 계곡으로 열린 경치를 감상하고, 후면 중앙의 마루는 출입구로 사용하며, 그 좌우의 온돌방으로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고 좀 더 사적인 용도에 대응하는, 영남 지역의 계변(溪邊) 정자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식이다.

건물 전체는 낮은 기단 위에 있고, 건물이 놓인 곳의 미세 지형이 대루쪽이 높고 서쪽

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 데, 이것을 기반으로 극복하였다. 기단은 거칠게 방형으로 다듬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는데, 동측은 한 단으로 쌓고, 서측은 돌의 크기에 따라 2~4단을 이루고 있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전후 바깥 열에 위치한 8분의 기둥은 원기둥으로, 가운데 열에 위치한 4분의 기둥은 각기둥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익공으로 된 공포는 바깥 둘레에 있는 10분의 기둥 위에는 모두 두고, 안에 있는 2분의 내주에는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 2분은 다른 기둥들보다 그만큼 높이가 더 높다.

익공의 초각도 능파각과 비슷하게 연봉과 쇠서를 조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였고, 대들보와 층량의 뿔목에 봉두를 초각하여 끼운 것도 같다. 전각포를 사용하였으며, 귀한대 익공 위에도 봉두를 초각하였다.

상부가구는 전후의 바깥 둘레기둥에 걸쳐 대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역사다리꼴의 판자형 동자주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종보 위에서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으로 중도리를 받치는 5량가의 구성을 갖는다. 도리의 간격은 후면(남쪽)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가 1,637mm, 두 개의 중도리 사이가 1,580mm, 전면 중도리에서 전면(북쪽) 주심도리 사이가 1,738mm로서, 조금 오차가 있지만 대개 3분 변작법을 기준으로 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능파각과 같다.



그림 19 영남루의 전경. 오른쪽에서부터 침류각, 여수각, 대루, 그리고 멀리 능파각이 보인다. 자연의 원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단과 층층각 등을 이용하여 전체를 연결하고 있다. (2023.03.17. 촬영)

천장은 온돌방에만 종이반자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상부의 지붕가구가 그대로 노출된다. 전후의 동자주 위에서 종보가 짜이고, 그 위에서 중도리와 장여를 받치는데, 종보의 채목 규격이 도리와 비슷하고, 또 대들보와 달리 정방형에 가까운 모를

죽인 방향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보가 아니라 창방재처럼 보인다. 나아가 중도리 아래엔 장여가 있고, 이를 다시 동자주와 직각으로 짜인 침차가 받치고 있는데 비해, 종보는 단독으로 동자주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치 보보다 도리가 강조되는 묘한 구성을 갖는다. 또, 중앙에 일렬로 위치한 각기둥 4분의 사이엔 창방을 두어서 온돌방의 천장이 짜이는 틀을 만들고, 구조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도리 방향의 부재들이 돋보이는 구성이다.

중도리는 좌우로 연장되어 외기도리와 왕지로 짜이고, 외기도리는 측면의 기둥 위에서 대들보에 걸친 층량 위에서 동자주로 받치고 있다. 층량도 종보와 같은 모양으로 가공하였다. 외기도리 안쪽으로도 따로 눈썹천장을 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중도리와 판대공이 보인다.



그림 20 침류각의 상부 가구 구성. 중도리 아래에 직각 방향으로 (2023.03.17.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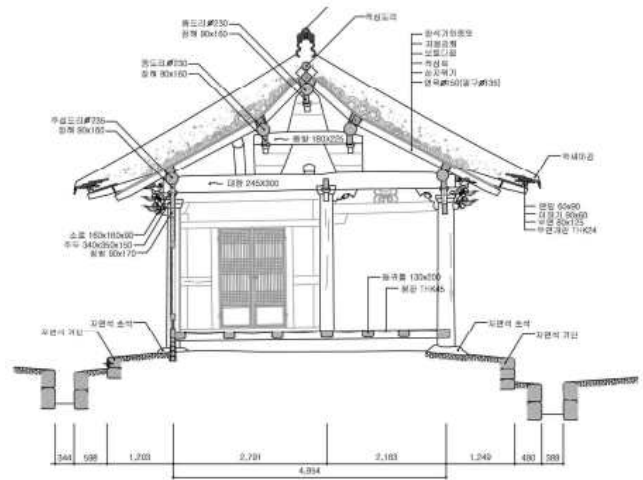


그림 21 침류각의 단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창호는 두 온돌방에는 전후와 서쪽 온돌의 서쪽벽 등 외부와 면하는 곳은 모두 아래에 머름을 둔 쌍여단이 세살창을 달았고, 동쪽 온돌의 동측벽, 즉 여수각과 접하는 벽은 전체를 흙심벽으로 막았다. 그리고 두 온돌이 가운데 마루에 면하는 사이벽에는 세살문을 두어 출입에 사용하였고, 가운데 마루의 후면벽만 판장문으로 하였다.

5) 여수각

여수각은 서로 높이차가 나는 침류각과 대루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과 이를 지붕으로 덮은 길이 4칸, 폭 1칸의 월랑이다. 폭 방향의 칸치수는 2,469mm로서 대루의 서측면 협칸의 치수에 맞추었는데, 침류각의 동측면 칸치수와는 일치하지 않아서, 침류각 쪽에서는 한쪽 도리는 기둥 위에 놓이지만, 다른 한쪽 도리는 기둥이 아닌 창방 위에 걸쳐 있다. 길이 방향 각 칸의 치수는 대루 쪽에서부터 차례로, 2,412mm, 2,246mm,

2,214mm, 1,962mm의 크기를 갖는다. 대루와 침류각이 먼저 있었고, 그 두 건물의 외곽 벽면선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3칸으로 나누면 너무 크고, 4칸으로 나누면 좀 작아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 실제로 4칸 길이지만 지붕은 3단으로 나누었는데, 침류각에 접한 마지막 제4칸은 여수각의 제3칸의 지붕과 침류각의 처마로 겹쳐 덮였다.

전체 구조는 간단하여 가운데 3쌍의 기둥을 나란히 두고, 양 끝은 각각 대루와 침류각의 기둥 및 창방에 기대어 상부 가구를 짜서 전체 4칸의 몸체를 만든 다음, 매 칸마다 층바닥을 먼저 짜고, 그 위에 계단을 2단씩 두어 차례로 오르내릴 수 있게 연결한 것이다. 제일 아래층의 층바닥은 다시 침류각 기단 면에서 2단의 계단을 올라와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층바닥 4단과 계단 10단(즉 5x2단)을 합하여 모두 14단의 계단을 만들어서 침류각의 기단 면과 대루의 바닥면을 연결하였다. 침류각의 기단면에서 대루의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약 4.6m가 되므로, 각 단은 30cm 가량의 높이를 갖는다.



그림 22 여수각의 남측 입면 (『보고서』에서 전재)



그림 23 여수각 내부 계단 (2023.03.17. 촬영)

평면 구성이 간단한 것과 달리, 지붕들은 팔작지붕을 3층 겹쳐 이은 대단히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단칸의 폭에 팔작지붕을 이어야 하고, 계다가 한쪽은 박공이고 다른 쪽은 합각을 갖는 반쪽 팔작지붕을 좁은 간격으로 위아래 겹쳐 쌓아야 하고, 또 그 양 쪽 끝에 있는 대루 및 침류각의 처마와 충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남원 광한루 전면의 월랑과 비교할 만 한데, 광한루의 월랑은 길이 3칸에 지붕도 3층이지만, 위의 두 층은 맞배지붕으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영남루의 여수각에 비하면 한결 단순한 처리 방식이다.

단칸 폭에 합각을 갖는 팔작지붕을 올리기 위해 여수각에서는 좌우의 칸 사이의 서로 높이차가 있는 주심도리 위에 곡선으로 경사진 마루대를 걸고, 이에 지탱하여 추녀와 선자서까래를 걸쳐 놓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마루대의 사용은 농가의 부엌이나 모정 등의 소규모 초가집에서 우진각 지붕(모지붕)의 지붕틀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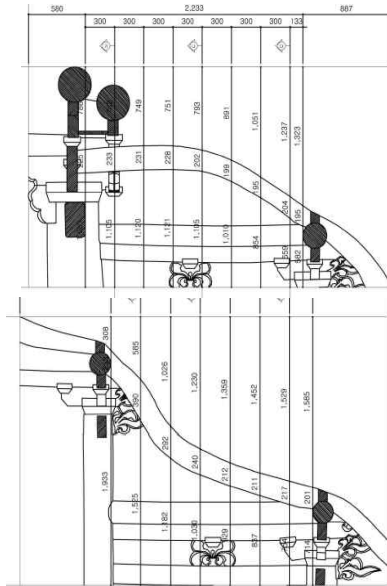


그림 24 동측 제1칸과 제3칸에 사용된 곡선의 마루대((『보고서』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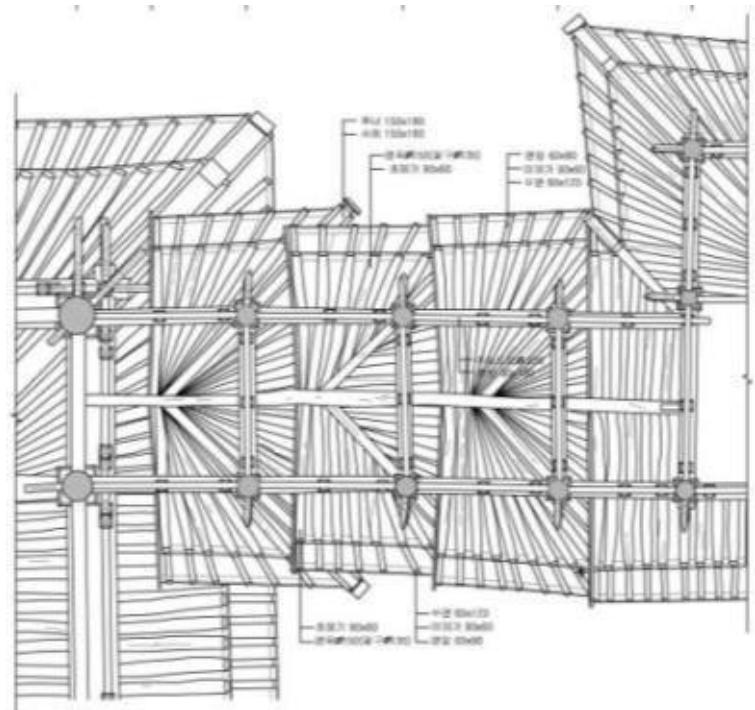


그림 25 여수각의 천장 양시도 (『보고서』에서 전재)

여수각의 가운데 있는 3쌍의 기둥 중 대루 쪽에 있는 것은 대루의 기단 위에, 침류각 쪽에 있는 것은 침류각의 기단에 초석을 두고, 기둥의 길이를 달리하여 전체적인 높이를 맞추었으나, 한 가운데 있는 한 쌍의 기둥은 이를 위한 별도의 석축형 기단을 쌓고 기단면을 만들어 초석을 두고 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영남루의 다른 건물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무출목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였다. 여수각은 1844년이라는 명확한 연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 목조건축의 구법을 이용하여, 경사진 계단실을 수용하는 층층각이라는 독특한 기능의 건축물을 만들어내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지붕을 여러 층으로 분절하고, 단칸 폭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기 좋은 팔작지붕을 겹쳐 쌓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건축 전통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특기할만하다.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밀양강의 북변 절벽 위에 서 있는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으로서, 중앙에 대루를 두고 그 좌우에 능파각과 침류각을 나란히 늘어놓고, 그리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현랑과 월랑으로 구성된 복합 누정이다.

영남루가 서 있는 장소는 밀양읍성의 남단, 밀양강에 면한 절벽 위의 경승지로, 일찍부터 이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어 불교 사찰이 있기도 하였으며, 고려말 공민왕 때 처음 관영의 누정이 만들어지고 영남루라 이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확장되어, 역대 밀양 부사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중축과 중수가 이루어져서, 1542년(중종 37)에는 현재와 같이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의 세 건물의 구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임진왜란을 만나 전소하고, 곧바로 중건하고 중수를 거듭하였으나, 또다시 1844년(순조 34)에 대화재로 소실된 것을, 1844년(헌종 10)에 중건한 것이 현재에 이른다. 이때 침류각과 대루 사이에 여수각을 설치하였다.

영남루의 명성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치고 영남루를 올라가 시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밀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현재 영남루 안에 걸려있는 많은 편액과 더불어, 영남루를 제한 시문만 해도 모두 468명이 지은 874수에 이른다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반증하며, 멀리 중국 명말의 백과사전인 『삼재도회』에도 우리나라 누정 가운데 유일하게 등재될 정도로 영남루의 명성은 높았다.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당당한 팔작 다락집으로, 궁궐을 제외한 관영의 누정 가운데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가운데 열의 기둥을 감주하고 도리 방향으로 가로채를 보강하여 간결하고 힘있게 구성한 2고주 7량가의 상부 가구 짜임, 우미량 형태를 갖는 뒷보와 거꾸로 만곡된 층량 등 축 부재의 크기와 형태, 용과 사신도의 단청과 용머리 초각 등의 세부 의장의 측면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힘찬 세부 기법이 돋보인다.

능파각과 침류각은 그 자체로는 작은 누정 및 정사와 같지만, 대루와 더불어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이 가져야하는 기능을 완성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들이 각각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 누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으로서 가치가 크다.

층층각인 여수각은 그 구성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여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외연을 확장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영남루는 1844년 중건된 것으로서 현황 조성 시기는 조금 뒤이지만, 같은 이름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 존재해왔으며, 그 장소가 갖는 탁월한 경관과 어

우려져 수많은 인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고 시문을 남기는 등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누정 건축의 역사성을 평가하는데 인문적, 경관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 관영 누정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루와 좌우의 익루,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현랑과 월랑 등으로 된 복합누정이라는 점과 상부 가구의 구성과 세부 의장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이 돋보여서, 가히 지방 관영 건축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영남루의 공간을 가꾸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정성이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의 밀양보승회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후의 복구사업과 여러 수해 피해의 복구사업, 그리고 현재의 영남루 일원 정비사업 등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역사문화자산이 지역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밀양 영남루의 국보 지정승격이 적당하다고 추천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랑과 월랑인 여수각을 포함한 건축군 일체의 구성.
대루에 남아있는 부재 초각과 단청 등의 세부 의장.
대루에 남아있는 각종의 현판과 시문의 편액.
영남루가 자리한 장소 주변의 자연과 식생 및 사주문과 구 객사 등의 부속 시설.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경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17. |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건축 |
| | 소 속 | ○○○○○○○학교 | 직위(직책) | 부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밀양 영남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밀양 영남루는 영남대로(嶺南大路)와 낙동강수로(洛東江水路)가 지나가는 밀양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알려져 왔다. 15세기 중엽 이후에 조선 초 왜구 문제가 해결된 다음 통신사의 왕래가 본격화되고 경상도 남부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동래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첫 번째 도시이자 경상도 남부의 중심에 자리한 밀양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밀양 읍성은 이 시기인 1479년(성종 10)에 축조되었는데, 동북쪽으로는 자연 지형을 이용하고 서남쪽의 평지에 길이 4,670척, 높이 9척의 성벽을 쌓았다. 밀양 영남루는 밀양 읍성의 남쪽 가운데를 차지하고 남천강에 면해 있다. 읍치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쪽으로는 가파른 지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밀양 영남루는 자연과 도회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밀양의 객관(客館)이 자리했는데, 영남루는 객관의 부속 누각으로 기능했지만 규모와 입지 조건이 오히려 객관의 정청을 능가할만큼 당당한 위용을 자랑했다. 특히, 객사의 양 익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누각의 익루가 담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밀양 영남루는 빼어난 경관과 교통로 상의 수월한 접근성으로 인해 수많은 관료들과 문인들이 방문하여 글을 남기는 명소가 되었다. 직접 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글을 보고 상상 속에서 글을 짓기도 하였다. 심지어 영남대로와 낙동강수로를 통해 사행(使行)하는 일본인들까지 시를 남긴 경우도 있었다. 밀양 영남루 제영(題詠) 시문 작품 중에서 문헌으로 확인되는 초기의 작품은 고려시대 정지상(鄭知常, ?~1135)의 한시 작품이며, 고려 중기 임춘(林椿, 1148~1186)이 영남루의 전신인 영남사(嶺南寺)의 죽루(竹樓)를 제재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영남루에 대한 글은 한시 작품이 가장 많지만,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도 적지 않고, 서사 작품과 한글 가사, 시화와 탐방기 등도 전한다. 글의 작자는 조선 전기까지는 관료문인들이 중심이 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일반문인들로 확대되었고, 또 밀양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들뿐만 아니라 밀양 출신 문인들까지 참여하였다.

영남루 제영 시문작품은 한시작품이 468인에 의한 973수, 산문작품이 24인에 의한 27편, 아랑전설 5인 5편으로, 총 497인이 1,005편을 남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341인이고, 시호를 받은 사람이 111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당대의 중앙문단을 주도하던 인사들이었고, 그중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인사들도 적지 않다. 영남루 제영 한시작품은 고정된 운자를 사용한 엄격한 제약을 바탕으로 발전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제약이 작자들의 창작 의욕이나 경쟁 심리를 더욱 고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밀양 영남루는 조선 전기부터 일찍이 시(詩)로 이름을 떨치는 누각, 곧 시루(詩樓)로서 명성이 높았다. 평양의 부벽루(浮碧樓)가 중국 사신과의 수창(酬唱)에 집중하고,

진주의 축석루(矗石樓)가 삼장사(三壯士)와 논개(論介)로 주제가 특화된 것에 비해, 밀양 영남루는 누각 자체가 시상(詩想)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밀양 영남루의 명성은 중국까지 알려져 명나라의 『삼재도회(三才圖繪)』에도 소개되었다.

2. 연혁 · 유래 및 특징

(1) 밀양 영남루의 건축연혁

고려시대 영남루는 사찰 영남사(嶺南寺)에 속한 작은 누정이었다. 정지상(鄭知常, ?~1135)은 고려 예종대(1106~1122)에 쓴 한시 「영남사루(嶺南寺樓)」에서 영남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야경(夜景)을 표현했다. 또, 서하 임춘(西河 林椿, 1148~1186)이 1175년 봄에 남긴 「영남사죽루(嶺南寺竹樓)」라는 시도 전한다. 이처럼 영남사의 작은 죽루는 일찍이 빼어난 경관으로 사랑을 받았던 누정이었으며, 영남사가 폐사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이에 고려 말 밀양군수로 부임한 김주(金湊)는 낡고 훼손된 누각을 중창하기로 마음먹고, 관장(官匠)에게 진주 축석루의 건축제도를 보고 오도록 했으며, 이윽고 1365년에 영남루를 크게 중창했다. 당시 김주가 쓴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1365)에는 집을 반듯하게 넓히고 처마를 겹쳐서 깊게 하니 마루와 기둥이 넓고 높아서 바람과 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단청을 하니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김주가 새로 지은 영남루는 영남사 죽루의 원래 자리가 아니라 동쪽에 새로 터를 만들어 지은 것이었다.

조선 초기에 밀양부사 안질(安質)은 영남루를 크게 중수하고, 서편의 옛 영남사루 터에 다시 소루(小樓)를 지었다. 소루의 한자는 1442년(세종 24)에 경상도사 권기(權技)가 소루(召樓)로 바꾸어 고대에 선정을 베푼 소부(召父)와 소백(召伯)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밀양부사 이충걸(李忠傑)이 소루를 증축하고 편액을 임경당(臨鏡堂)으로 고쳤다. 1460년(세조 6)에는 밀양부사 강숙경(姜叔卿, ?~1481)이 영남루를 2칸 증축하고 기둥을 교체하고 단청했다. 보한재 신숙주(保閑齋 申叔舟, 1417~1475)가 써준 「영남루기」(1460)에 따르면, “지금 새롭게 하여 무릇 세 기둥에 주위를 둘러 마룻대를 추가하고, 단청을 베푼니 사치하지도 누추하지도 않다.(今爲新之. 凡三楹, 周以補棟. 施以丹雘, 不侈不陋.)”고 하였다. 이것으로 당시 건축형식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정면 3칸의 구조에 사면으로 퇴를 두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면 5칸, 측면 3~4칸 정도의 규모로서, 현재 영남루의 규모와 유사하다.

이후 1542년(중종 37)에 밀양부사 박세후(朴世煦)가 영남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했으며, 이때 대루 서쪽에 있던 임경당도 함께 중수하여 당호를 침류당(枕流堂)으로 바꿨다. 한편 대루 동북쪽에는 밀양부사 김영추(金永鍾)가 홍치(弘治, 1488~1505) 년간에 지은 망호당(望湖堂)이 있었는데, 이를 대루 곁으로 옮겨 1칸을 증축하고 빈객들이 오르내리는데 편리하도록 했다. 망호당의 당호는 능파당(凌波堂)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능파당 동북쪽 모퉁이에 처마를 맞댄 3실(室)을 건축하고 각각 심약검율방(審藥檢律房), 사성종자방(使星從者房), 포진의약고(鋪陳醫藥庫)로 사용했다. 이 과정은 기재 신광한(企齋 申光漢, 1484~1555)이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1542)에 기록했다. 이로써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익루(翼樓)를 거느린 대형 누각이 되었다. 현 영남루의 건축 구성은 이때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피해로 영남루와 경내 부속건물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1608년(선조 41)에 밀양부사로 부임한 기효복(奇孝福)이 먼저 침류당과 능파당을 중건했다. 1642년(인조 20)에 밀양부사 심기성(沈奇成)은 화재로 소실된 능파당을 복구하면서 대루를 함께 재건했다. 1651년(효종 2)에 밀양부사 김응조(金應祖, 1587~1667)가 대루 서북쪽에 전패(殿牌)을 봉안하는 객사를 건축하고 공진관(拱辰館)이라 했다. 밀양읍성의 남문 안에 있었던 객사가 영남루의 서북편으로 옮겨 중건되면서, 영남루 대루 및 익루들에 객사의 성격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능파당과 침류당은 객사의 익현으로 인식되었다. 1661년(현종 2)에 밀양부사 이지온(李之濶)이 능파당의 마루를 수리하고, 대루·능파당·침류당·공진관 등 경내 주요 건물에 모두 단청을 올렸다.

1722년(경종2)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대루와 익루가 모두 불에 탔다. 그해 가을에 부임한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가 공진관을 이건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객사로 사용했다. 1724년(경종 4)에 비로소 영남루 대루와 침류당을 중건할 수 있었다. 당시 수리공사는 이희주가 「영남루중건기(嶺南樓重建記)」에 기록하였다. 이로부터 70년이 경과한 1793년(정조 17)에 밀양부사 조휘진(曹翬振)이 대대적인 중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1806년(순조 6)에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 ?~1807)가 영남루 대루의 동편 대량(大樑)을 해체하고 수리했으며, 부식한 서까래를 교체하고, 퇴색한 단청을 새로 칠했다. 1825년(순조 25) 가을에 밀양부사 이화연(李和淵)이 능파당을 수리하였고, 1832년(순조 32)에도 밀양부사 조기복(趙基復)이 기와와 동량(棟樑)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수리가 있었다.

1834년(순조 34)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가 다시 전소하였다.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1843년(현종 9)에 영남루 중건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844년(현종 10)에 공사를 마쳤다. 이때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대루 서편에 여수각(如水閣)을 지어 대루

와 침류각을 연결했다. 밀양도호부 객사 밀주관(密州館) 또한 크게 확장하였다. 1890년(고종 27) 봄에 밀양부사 정병하(鄭秉夏, 1846~1896)가 2개월 동안 누각을 수리했다. 1894년(고종 31)에는 일본헌병대가 영남루를 옥사(獄舍)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후 밀양군수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경내를 정비하고 손상을 입은 대루를 수리했다. 1936년에 밀양 영남루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화폐 4천원을 투입하여 크게 수리했다. 1955년에 국보 제245호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보물 제147호로 재지정되었다.

(2) 밀양 영남루의 건축적 특징

밀양 영남루는 중앙의 대루가 남향하고 있고, 동쪽에 능파각이, 서쪽에 침류각이 부속되어 있다. 언덕 아래 위치한 침류각은 여수각이 연결하고 있다.

대루(大樓)는 규모가 큰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 누각으로,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이다. 정면 길이는 약 18.6m, 측면의 길이는 약 12m로서, 평면비는 약 3:2 정도이다. 칸 치수는 정면에서 정칸이 14척이고 차칸과 협칸이 12척씩이다. 측면에서는 중앙 두 칸을 12척씩 잡고 퇴칸은 8척으로 삼았다. 누상 기둥은 6개의 기둥을 4열 배치하고, 양 측면 중앙에 각각 하나씩 더해 총 26개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누하에는 용마루선을 따라 중앙부의 마루 하부에도 기둥을 배치하여 총 30개의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모두 약한 민흘림이 있는 원주이며, 자연스럽게 휘어진 재목도 그대로 사용했다. 초석은 모퉁이의 우주 하부에만 장주형 초석을 사용하고, 그 외 기둥에는 주로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은 형태의 키가 작은 초석을 사용했다.

대루의 상부가구는 이고주 칠량가 형식이다. 전후 고주 사이에 굽고 긴 대량을 올리고, 고주와 평주 사이에 퇴량을 걸어 지붕틀을 형성하였고, 양 측면에는 충량을 걸었다. 대량 위에는 포대공 형식의 받침을 만들어 종량을 지지하도록 했다. 대량은 상부에 2~3개의 재목을 포개 올리는 수법으로 단면이 큰 부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단면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대개 상부보다 하부의 단면이 더 큰 향아리 모양과 유사하다. 대량의 윗면은 평평하고 바닥면은 전체를 약하게 둥글려 사용했다. 대량의 중앙부는 폭이 약 610mm, 출이 약 808mm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며, 단면비는 약 1:1.3 정도이다. 퇴량의 머리는 평주 상부의 삼익공 위에서 주심도리를 받치고, 뒷몸은 고주 위에 놓여 중대공을 받친다. 퇴량의 형태는 충량과 유사하며, 내외 기둥의 높이차에 맞추어 재목을 우미량(牛尾樑)의 형태로 다듬어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내단에 사실적인 형태의 용두(龍頭)를 조각했

는데 조각 수법이 뛰어나다. 층량은 측면에 3개씩 사용되었는데, 가운데 층량은 대량 위에 내단을 걸치고 용두를 끼웠으며, 나머지 층량은 고주의 주두 위에서 뜯장여과 결구되었기 때문에 높이가 서로 다르다. 층량의 형태는 높이 차를 고려하여 우미량의 형태로 치목하였으므로 주변 퇴량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대루의 공포는 일출목 삼익공식으로 구성했다. 익공살미의 외단은 쇠서가 길게 뻗어 나온 양서형이며, 쇠서 안쪽에 연봉을 조각했다. 익공살미의 내단은 끝을 초각한 보아지형이다. 세 겹의 판재형 익공살미를 짜 올린 다음 맨 위에 봉두(鳳頭)를 놓아 장식했다. 침차는 대침차와 소침차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주심침차와 출목침차의 형태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주심침차는 다포식 침차처럼 마구리를 사절(斜切)했으며, 출목침차는 침차의 하단에 연봉 등을 새겨 장식했다. 우주 상부에 사선 방향으로 걸린 귀한대는 익공 살미가 되어 출목침차와 견고하게 짜였다. 귀한대가 결구된 부분에는 사각형의 접시소로가 놓이고, 귀한대 위에는 용두(龍頭)를 조각했는데, 다른 위치의 익공 위에 봉두를 둔 것과 차이가 있다. 익공 사이 매 칸의 중심에는 화반이 놓였다. 여섯 종류의 방형 화반은 판재를 사용하여 측면 가장자리를 아름답게 초각한 것으로, 화반의 중앙 상부에 1개의 소로를 두었다. 화반에 사용된 문양은 호랑이, 연꽃, 해태 등 모두 여섯 종이다. 단청은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한 우수한 단청으로 평가되며, 특히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四神圖)가 특색이 있다.

능과각은 대루의 동쪽에 자리한 익루로서, 객사의 익헌 기능은 물론 때때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던 관아(官衙)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능과각의 평면은 동측에 치우쳐 2칸 온돌방을 두고, 그 서측에 개방된 대청을 꾸민 형태이다. 칸 치수는 모두 10척으로 구성했고, 퇴칸은 이를 반분한 5척으로 잡은 정면 3칸의 전후퇴집이다. 전체적으로 가로 30척, 세로 20척의 규모가 된다. 온돌방과 대청의 남측에는 폭이 좁은 뒷마루가 길게 놓여 있고, 남측을 제외한 삼면에는 쪽마루로 헌함(軒檻)을 꾸며, 대루와 마찬가지로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능과각 대청 북쪽에는 건물로 오르는 폭이 넓은 돌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을 이용하면 대루로도 출입할 수 있다. 온돌방 북측에는 헌함 하부에 아궁이를 두었다. 상부가 구는 오량가로, 중도리의 위치를 삼분변작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퇴칸의 크기와 상부 도리 배열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분변작은 대개 처마를 키우기 위한 수법이며, 삼면을 둘러 헌함을 꾸몄기 때문에 더 넓은 처마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과각의 처마는 주심으로부터 약 2m 가까이 내밀었다.

침류각은 대루의 서쪽에 자리한 익루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평면은 가운데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둔 형식이다. 정면 3칸의 치수는 각각 8척씩이고, 측면

은 통로가 되는 남측을 7척, 방을 드린 북측을 9척으로 잡았다. 기둥의 위치는 상부가구와 무관하게 공간의 크기에 따라 설정되었고, 밀양강과 전방의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마루를 넓게 잡은 것이 특징이다. 공포는 이익공식으로 연화(蓮花)를 초각한 양서형 쇠서에 봉두(鳳頭)를 결합했으며, 내단은 판재에 연봉을 조식한 보아지형으로 꾸몄다. 매 주칸의 창방과 처마도리 사이에는 화반을 놓아 도리가 처지지 않도록 했다. 침류각에 사용된 화반은 한 종류로, 꽃병에 만개한 꽃이 꽃혀 있는 모양이며, 이는 능파각에 사용된 화반과 유사하다.

여수각은 대루와 침류각 사이에 위치하는 월랑(月廊)으로, 1843~1844년의 영남루 재건 공사에서 새로 지은 건물이다. 여수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독특한 3단의 층단형 공간을 형성한다. 빈객(賓客)들이 대루에서 침류각으로 출입할 때 사용했다. 주칸은 대루의 서측 퇴칸 크기인 8척에 맞추어 0.5척 정도를 줄여가며 조절했다. 여수각의 지붕 구조는 높이차에 맞추어 종도리를 우미량 모양으로 처리한 점이 특징이다. 공포는 이익공식으로 능파각,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며, 연화쇠서형을 기본으로 상부에 봉두를 달았다. 주간에 놓인 화반 역시 침류각의 것과 같으며, 판재를 사용하여 초화문을 새겼으며, 상부에 소로를 두고 처마도리 받침장여를 지지한다.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고려시대 사찰의 작은 누각에서 출발했지만, 빼어난 입지 조건과 절경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구성을 강화해왔다. 밀양 영남루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관영 누각의 복합적 이용 양상을 보여준다. 밀양 영남루는 대루의 좌우에 능파각과 침류각을 거느린 모습으로 기능한다. 능파각과 침류각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성립한 익루로서 밀양을 찾는 빈객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영남루 일대가 객사로 활용되면서 두 익루는 객사의 좌우 익헌(翼軒)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17세기 중엽의 밀양 객사 정청인 공진관은 좌우 익헌이 생략된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의 대루와 침류각, 능파각은 부사의 집무처, 관리 및 빈객의 숙영처의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조망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누각의 건축적 특징에 더해 양 익루로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는 월랑(月廊)과 현랑(軒廊) 등의 건축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범국가적 누정 문단의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고려 시대 이후 문과 급제자 341인과 시호를 받은 인사 111인이 포함된 쟁쟁한 문사(文士)들이 영남루를 방문하여 시문을 남겼다. 현재 확인된 바 영남루에 관한 제영 시문은 한시 작품은 468인에 의한 973수, 산문은 24인에 의한 27편, 아랑전설 5편 등이 있다. 나아가 일본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중국 문헌에 소개되는 등 시루(詩樓)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글의 작자는 조선 전기까지는 관료문인들이 중심이 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일반문인들로 확대되었고, 또 밀양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들뿐만 아니라 밀양 출신 문인들까지 참여하였다.

셋째, 조선후기 목조기술의 화려한 발전상을 대표한다. 밀양 영남루 대루의 공포는 일출목 삼익공식으로 주심첨차는 다포식에 가깝고 출목첨차는 익공식을 취했으며, 쇠서는 상하에 연화와 연봉을 장식하고, 보머리에 봉두를 끼워 장식하였다.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의 세부가 가미된 익공식 목조의 절충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견실하게 구조된 목조에서 뒷보에 용신을 단청하고, 내단에는 용두를 조각하여 위엄있는 내부를 형성했다. 익루와의 연결을 위해 각루를 확장하였는데, 특히 침류각을 연결하는 여수각의 층단 지붕과 특징적인 상부구조는 독창적인 발상으로 평가된다. 대량 부재를 여러 목재를 합성해서 만든 것 또한 조선후기에 발생한 기술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면적 약 235㎡의 누각으로서,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경북궁 경회루 등 특수하게 거대한 누각 다음으로 대형 누각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의 건축물이 비록 1844년에 중건된 결과이나 공간의 기능과 구성은 과거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밀양 영남루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종합해볼 때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17 |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소 속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밀양 영남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2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밀양 영남루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0번지에 위치한 중층 누정건축이다. 밀양 영남루는 아동산(88.1m) 서쪽 구릉에 주변으로 산과 강이 둘러진 밀양강(凝川江)변 절벽에 위치하여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밀양시청에서 2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시청로를 따라 817m 이동 후 중앙로에서 영남루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735m 이동하여 밀양관아지를 지나 89m 정도 가서, 영남루1길을 방면으로 143m 정도 이동하여 이르거나, 100m 가서 계단을 통해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남루 주변에는 경남도기념물 제167호인 밀양읍성¹⁾이 아동산을 감싸 돌며 지나고, 영남루 북쪽 후면 60여 m 거리에 경남유형문화재 제117호인 천진궁²⁾ 및 만덕문(舊 밀양 객사 내삼문)이 있고, 영남루 아래 동쪽 50m 거리의 대숲 속에 경남도문화재자료 제26호인 아랑각과 동쪽 150m 거리에 보물 제493호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그 외에 북서쪽 20여 m 거리에 사주문, 북동쪽 75m 거리에 박시춘옛집과 그 후면 60m 거리에 사명대사유정동상 등이 있다. 아동산을 중심으로 영남루를 비롯한 천진궁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영남루 후면 35m 거리에 만덕문 서쪽 밀성박씨(密城朴氏) 시조인 밀성대군을 추모하는 ‘밀성대군비’가 자리잡고 있는데 추후에 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덕문 동쪽 4~5m 거리의 마당에는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들어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밀양강 벼랑 위에 천진궁 영역 앞으로 마당을 두고 영남루 영역을 이루고 있다.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에 익루인 능파각, 침류각이 인접 배치되어 있고, 대루와 침류각 사이에 층층각 형태의 여수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의 객사(천진궁)와 부속 누각(영남루)의 배치와 공간구성 및 건축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던 공간이고, 대루를 사면으로 개방하여 사방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도록 한다. 밀양천이 굽이 돌아가는 절벽 위에 자리하여 밀양 영남루에서 조망되는 경관은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되었지만 영남루십경이나 밀양십경 등으로 불리고 있어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³⁾. 대루가 높은 절벽에 자리하여 침류각 사이의 연결통로는 지형을 이용한 층층각

1) 조선 말기까지 영남루의 남측 절벽 위에는 밀양읍성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근대 이후에 철거되었다.

2) 천진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117호. 조선후기에 지은 객사 정청으로, 공진관(拱振館)이라고도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식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에 단군 이래 역대 팔 왕조의 시조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리는 공간으로, 매년 음력 3월 15일 어천대제 음력 10월 3일 개천대제(開天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3)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9권 1호 22호, 2000년 3-6월, 8쪽. 1931년 총독부 주관으로 16경의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으로 지형적 누각으로서의 구성이 돋보이고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밀양 영남루에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를 비롯하여 밀양 향토사 관련 문헌인 밀주구지(密州舊誌), 밀주지(密州誌), 밀주징신록(密州徵信錄), 향토사자료집(鄕土史資料集) 등이 있다. 그리고 건축 기사와 중수기문 외에도 영남루를 다녀간 시인 묵객들의 제영(題詠), 고지도, 그림 등을 통해 누각의 연혁 및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기 밀양도호부 객사에 속한 관영누각으로, 사신이나 문인 등을 접대하거나 접빈객 등을 하던 건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密州誌 등의 기록⁴⁾에 영남사 유래설⁵⁾, 해우(廡宇) 동쪽 누각설⁶⁾ 등이 있다. 영남사에 부속된 작은 누각이던 영남루가 규모가 크고 독립된 누각이 된 것은, 고려 말 김주(? ~ 1404)의 중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예종 때 정지상(鄭知常, ?~1135)의 「영남사루(嶺南寺樓)」⁷⁾에서 야경을 시로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에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1175년 봄에 임춘(林椿)은 ‘영남사죽루(嶺南寺竹樓)’, ‘제영남사(題嶺南寺)’ 그리고 서하집(西河集)에 실려있는 ‘二月十五夜對月并序’라는 서문⁸⁾을 통해, 영남루의 전신으로 보이는 죽루(竹樓)가 영남루의 전신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남루라고 부르고 있다. 1344년 성원도의 기록과 1354년 이인복의 칠언율시 등을 통해, 김주가 1365년에 중창하기 이전에도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성원도가 영남루를 복주(福州, 현 안동)의 영호루(映湖樓), 울주(蔚州)의 대화루(大和樓), 금주(金州)의 연자루(燕子樓), 진주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成元度の 시 “내가 사방을 유람하면서 좋은 누관을 관람한 것이 많은데... 至正 갑신년(1344) 봄...”

『보한집(補閑集)』 卷下, 守大尉 崔滋 撰한 내용에 “...鄭舍人(정지상)의 「영남사루(嶺南寺樓)」와 같은 것이니...”

5) 東國輿地勝覽에 “옛날 영남사의 작은 누각이었는데 절은 없어지고 1365년(공민왕(恭愍王)14, 乙巳)에 김주(金湊)가 밀양의 지군(知郡, 군수)으로 와서 본래 있던 작고 초라한 누각을 철거하고 진양(晉陽, 현 진주) 축석루의 제도를 본떠서 개창(改創)하여 영남사(嶺南寺)의 이름을 따서 영남루라 했다.”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밀양의 邑誌인 密州誌에 “(영남루는) 무봉산 아래에 있다. 곧 옛날 영남사의 작은 누각인데 절이 없어졌다. 고려 1365년(공민왕 14)에 김주가 지군(知郡)이 되어 예전대로 고쳐 세우고 절 이름을 따서 嶺南樓라 하였다. 김주(金湊)의 기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國譯 密州誌 地理篇 嶺南樓)

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III) 樓亭 嶺南樓條, 민문고, 1989.

..在客館東。卽古嶺南寺之小樓, 寺廢。至元乙巳, 金湊爲知郡, 因舊改創, 因以寺名名之, 後府使安質重修。天順庚辰, 府使姜叔卿又重修, 恢拓舊規, 壯麗無比。高麗金湊記: “密城在慶尙爲名區, 而其廡宇東有樓曰嶺南...”

7) 최자, 보한집(補閑集). 一溪明月灑欄夜 萬里清風捲箔天

8) 영남사에 놀면서 저녁에 누각(영남루)에 올라 망월(望月)을 하면서 시를 지었다는 언급이 있다. 시구(詩句)에서 “今春二月十五夜 我向嶺南樓上適”이라며 영남루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晉州)의 축석루(矗石樓), 합주(陝州, 합천)의 함벽루(涵碧樓), 단양의 봉소루(鳳韶樓)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⁹⁾고 한 것은, 비교되는 누정을 보면 큰 규모로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영남루’라고 한 것은 작은 누각이었지만 입지 때문에 경관이 뛰어나, 문인들과 관리들의 장소로 이용되어 커졌으며, 고려 초부터 영남사(嶺南寺)에 속한 누각을 부르던 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1365년(공민왕 14) 김주의 중창으로 영남루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의 주변 경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경으로 (무)봉산 기슭에 있고 영남사는 대밭 속에 있으며 강가에는 용암의 바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¹⁰⁾ 중경과 원경은 성원도가 “내가 사방에 돌아 좋은 누관(樓觀)을 본 것이 많으나 전망이 확 트이고 끝이 없기로는 이만한 데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산과 강이 사방으로 펼쳐진 전망하는 파노라마 뷰를 언급하고 있다. 이인복은 “산은 서쪽으로 꺾여 구름 끝에 비껴 있고, 물은 동쪽에서 흘러와 기슭을 에워쌌네(중략)”라고 하여 풍수지리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남루는 붉게 단청한 난간이 있고 주렴이 있는 누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남사의 작은 누각으로 단청한 난간과 주렴을 있는 건축적 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 경관이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영남루에 대한 글에서 나타나는 경관 요소로는 간략하게 살펴보면 긴 회수의 강, 줄지은 산봉우리, 큰 들판, 포구, 마을 다리, 배, 언덕 대숲 등이고 달, 노을, 저녁연기, 밭농사, 가축, 고기잡이 등을 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밀양 영남루의 기원은 1365년 지군사(知郡事) 김주(金湊)가 영남사(嶺南寺)에 부속된 낡은 누각을 중창¹¹⁾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말 김주(金湊)의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365)에 따르면 김주는 진주 축석루를 보고 온 관장(官匠)을 시켜 영남루를 크게 중창하게 한 것이다. 우선 군노(郡奴) 중에 좋은 공장(工匠)을 진양(晉陽)에 보내서 축석루(矗石樓)의 제도를 그려오게 하여 재목을 거두고 척도(尺度)를 헤아려 승묵(繩墨)을 보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중창한 후에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누각을 네모지게 넓히고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하니, 마루와 기둥이 넓고 높아서 바람과 비를 물리치게 되었다. 이윽고 단청을 하니,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하여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둥을 높이고 주간도 더 넓히고 있다. 또한 추녀를 겹쳐서 깊게 한 것은 겹쳐마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단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주의 중수는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를 넓히고 주고(柱高)를

9) 吾遊於四方，觀覽樓觀之勝者多矣。不離跬步，登臨眺遠，豁然無極者，莫斯樓之若也。南方之美者有福之映湖、蔚之大和、金之燕子、晉之矗石、陝之涵碧焉，皆不能竝肩於斯樓...(新東國輿地勝覽), 제26권 밀양도호부(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樓亭條, 嶺南樓, 민문고, 1989.

1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誌, 449쪽). 이연중, 「사박치암혜차(謝朴趾庵惠茶)」, “少年爲客嶺南寺 茗戰屢從方外戲 龍巖岩畔鳳山麓 竹裏隨僧摘鷹嘴”

1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嶺南樓.

높이고 주간(柱間)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겹처마에 단청을 하여 축석루를 바탕으로 한 규모나 양식에서 격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개국 이후 영남루는 화재와 전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 및 중수를 거듭하였다. 조선 초기에 밀양부사 안질(安質)이 영남루(대루로 추정)를 중창하면서 대루 서편 옛 터에 소루를 지었다. 1442년(세종 24)에 경상도사 권기(權技)가 당호를 소루(召樓)라 하고, 소루기(召樓記, 1442)를 지었다.¹²⁾ 그 후 밀양부사 이충걸(李忠傑)이 소루(召樓)를 증축하고 편액을 임경당(臨鏡堂)으로 고쳐 지금의 침류당(枕流堂, 침류각)이 된다.¹³⁾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기문에 따르면 1460년(세조 6)에 밀양부사 강숙경(姜叔卿, ?~1481)이 영남루 대루의 규모를 2칸 증축하고 기둥을 교체하고 단청을 하고 있다.¹⁴⁾ 연산군 때 밀양부사 김영추(金永鍾)는 영남루의 대루(大樓) 동북쪽에 부속건물인 망호당(望湖堂, 현 능파각)을 지어 빈객들의 숙소로 삼고 있다.¹⁵⁾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영남루는 대루(大樓)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翼樓)인 능파당(凌波堂, 현 능파각)과 침류당(枕流堂, 현 침류각)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 되고 있다.(「밀양십이경도-남루화동도」 참조) 그러나 좌우의 건물을 침류당과 능파당이라고 하면, 능파당은 인접해 있으나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1542년(중종 37)에 밀양부사 박세후(朴世煦)가 전(前) 부사 강 숙경이 중수하고 80여년이 경과하여 기울고 퇴색한 대루(大樓)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¹⁶⁾ 대루의 서편에 있던 임경당(臨鏡堂¹⁷⁾, 옛 소루도 중수하고 당호를 침류당(枕流堂)으로 바꾸고 있다.¹⁸⁾ 1543년 망호당(望湖堂)¹⁹⁾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²⁰⁾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다.²¹⁾ 그

12)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III) 樓亭 嶺南樓條, 민문고, 1989 : 嶺南樓題詠詩文, 밀양문화원, 2002, p.271-272.

13)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枕流堂條’

14)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密陽都護府 樓亭 嶺南樓 :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신숙주의 기문’. 신숙주(申叔舟)의 영남루기(嶺南樓記, 1460) 密陽守姜君叔卿 既新嶺南樓 書遺僕曰 樓爲邑勝觀 而窄陋傾側不稱於名. 今爲新之 凡三楹 周以補棟 施以丹雘 不侈不陋...

15) 密州誌, 卷之一, 凌波堂條. 홍치 연간(弘治, 1488~1505)

16)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申光漢의 기문’ : 嶺南樓題詠詩文, p.274.

17) 臨鏡堂은 지금의 침류각(당)의 전신으로, 小樓·召樓, 瀛洲閣 등으로도 불렸다.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6권 樓亭 嶺南樓 『기재집(企齋集)』 企齋文集卷之一 記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 1542) 신광한(申光漢).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 1542) 樓之東北隅 舊有堂 名曰望湖. 在弘治年中 府使金永鍾創之 爲賓客燕寢之所. 固爲美制也. 然堂卑而樓高 賓客地由是樓按宿者 甚妨於步降. 且作之日月既舊 基圯棟傾 殆不愜居處. 朴侯病之 撤其舊少移于南 築石臺 崇其址. 視舊制 增加一間. 堂始得與樓聯楹. 飾其三面而丹雘之. 虛其南 以臨江流 改名曰凌波堂. 高明爽豁 正所謂於焉嘉客者也.

19) 望湖堂은 지금의 능파각으로 凌波堂, 蓬萊觀 등으로 불렸다.

20)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嶺南樓 ‘朴世煦의 중창기’. (밀양강)강류(江流)에 임했다는 뜻에서 망호당이란 당호를 능파당(凌波堂)으로 바꾸었으며, 기문은 부사 박세후가 지었다.

리고 능파당 동북쪽 모퉁이에 처마를 맞댄 3실(室)을 건축하고 각각 심약검율방(審藥檢律房), 사성종자방(使星從者房), 포진의약고(鋪陳醫藥庫)로 사용했다.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경내에는 납청당(納淸堂, 북별실) · 전월당(餞月堂, 서별실) · 연훈당(延薰堂, 남별실) · 신당(新堂) 등의 부속건물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영남루 및 경내 부속건물들이 소실되고 있다. 1599년(선조 32)에 부사이영(李英, ?~1616)이 폐허가 된 경내의 능파당 터에 임시로 초옥(草屋)을 지어 처음으로 객사(客舍)로 사용하고 있다. 1608년(선조 41)에 밀양부사 기효복(奇孝福)이 객사와 영남루 복구 계획을 세우고, 1637년(인조 15)에 먼저 침류당(각)과 능파당(각)을 중건하고 있다.²²⁾ 1642년(인조 20)에 화재로 능파당이 불에 타자 밀양부사 심기성(沈奇成)이 대루(大樓)를 중건하고 능파당도 새로 짓는 등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651년(효종 2)에 밀양부사 김응조(金應祖, 1587~1667)가 영남루 대루(大樓) 서북 편에 전패(殿牌)을 봉안하는 공진관(拱辰館)을 짓고 있다. 1661년(현종 2)에 새로 지은 능파당에 또다시 화재로 마루 청판(廳板)이 불에 타 밀양부사 이지온(李之鬮)이 능파당의 마루를 수리하고, 재정난으로 미루어 놓았던 영남루 대루(大樓) 및 능파당 · 침류당 · 공진관(객사)에 단청을 하고 있다. 1722년(경종 2)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대루(大樓)와 능파당 · 침류당 등의 부속 건물이 소실되고, 가을에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가 먼저 공진관(객사) 건물을 이건(移建)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객사(빈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1724년(경종 4)에 2차로 영남루 대루(大樓)와 침류당을 중건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²³⁾ 영남루 지붕 귀면의 암막새에 ‘崇禎後再甲辰仲春’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24년 기와임을 알 수 있다. 1749년에도 ‘乾隆十四年乙巳仲春都瓦匠金運明’이라는 명문 암막새를 통해 기와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93년(정조 17)에 밀양부사 조휘진(曹翬振)이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1806년(순조 6)에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 ?~1807)가 영남루 대루의 동편 대량(大樑)을 해체하고 수리하고 있다. 이때 부식한 서까래는 교체하고, 퇴색한 단청도 새롭게 했으며, 남은 물력으로 능파각, 읍승정(揖升亭, 여수각으로 추정)도 수리하고 있다.²⁴⁾ 1825년(순조 25) 가을 밀양부사 이화연(李和淵)이 영남루에서 빈관(賓館)으로 사용하는 능파당(각)을 수리하고 있다. 1832년(순조 32, 임진)에 밀양부사 조기복(趙基復, 생몰년 미상)이 번와 및 동량(棟樑)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해체 수리

21) 기재집(企齋集)』企齋文集卷之一 記 능파당소기(凌波堂小記,1542) 신광한(申光漢)

22) 國譯 密州誌 地理篇 府內面 ‘凌波堂條’와 ‘枕流堂條’

23) 嶺南樓題詠詩文, p.279. 밀양부사 이희주(李熙疇)의 영남루중건기(嶺南樓重建記, 1724)

嶺南樓 卽嶺南第一名勝 而載於輿地者也. 樓居中間傑然高出 而凌波閣枕流堂爲左右翼 宏構勝觀 足以貴飾江山 而爲一路之所艷稱矣. 歲壬寅春 不幸被回祿之災 樓與凌波枕流 同時延燒 (중략) 卽召匠謨之 先起凌波一閣 役數旬始斷手. 時日南至也 是夕外表弟尹侍讀遊 掌試左道 試訖 取迂路來訪, 靈山倅李君師尹 自如丞李君重觀 皆會焉. 相與劇遊於是閣 盃酒之歡 絲管之樂 亦浮世難得事也. 數君因以樓之不可無 勸余重成甚勤. 余亦唯唯 而歲適大侵民事重困於興作 事有未遑焉.(하략)

24) 밀양부사 김재화(金載華)의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06)

를 하고 있다.²⁵⁾ 거듭되는 중수로 정비하였으나 1834년(순조 34, 甲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소실 전 경내에는 영남루, 능파당, 침류당을 비롯하여 객사, 납청당(納淸堂, 北別室), 전월당(錢月堂, 西別室), 연훈당(延薰堂, 南別室), 신당(新堂) 등이 있었으나 건축시기와 배치형식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²⁶⁾ 다만 1834년 소실 전 18세기 당시 밀양 읍성 내에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密州館), 하선관(遐仙館)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당 등의 모습은 『해동지도(18c)』²⁷⁾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24년도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도 옛 모습대로 중건하였다면 1642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43년(헌종 9)에서 1844년(헌종 10)까지 밀양부사 이인재(李寅在)가 영남루를 중건하고 있다. 이때 대루(大樓)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翼樓)로 삼고 있다. 또한 대루 서편에 여수각(如水閣, 층층각)을 지어 대루(大樓)와 침류각을 연결하고 있다. 영남루가 부속되어 있는 밀양도호부 객사 밀주관(密州館)을 크게 확장하여 비장청(裨將廳), 동해(東廡), 서해(西廡), 공주(公廚), 대문 등 수백 칸의 건물을 짓고, 관원(官員), 빈객(賓客)을 접대하고 이들이 유숙(留宿)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²⁸⁾ 1844년 중건 이후 수리기록과 건축도면을 통해 고종연간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영남루 대루와 능파당, 침류당 외에 객사 일부 건물만 남게 된다. 1844년 중건 이후 고종연간 소실되기 전의 과정과 상태는 『영남루중수기, 1844』, 『영남루중건상량문, 1844』, 『능파각상량축문, 1844』²⁹⁾, 『영남루중수기, 1848』, 『남루기, 1890』, 『광여도, 18c』, 『1872년의 지방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영남루는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여수각을 갖춘 1843~1844년에 중건한 모습으로 객사의 누각 기능을 하면서 읍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면 임란 소실 후 복원한 1642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임란 소실 이전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능파각)과 침류당(침류각)을 갖추었으나 위치는 알기 어렵다.

25) 嶺南樓題詠詩文, p.300, 김홍근의 영남루 중건상량문 참조.

26) 이호열, 앞의 논문.

27) 규장각소장 『해동지도, 海東地圖, 18c』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密州館), 하선관(遐仙館)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각이 묘사되어 있는데, 능파각은 건물명칭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유휘문(柳徽文)의 『유영남루기(1768)』(국역)의 중 ‘...영남루는 동편으로 능파각과 통하는데...’라는 내용과 함께 대루 좌우에 전각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28) 영남루 제영 시문(嶺南樓題詠詩文), p.306. 병조판서 유관(遊觀) 김흥근(金興根, 1796~ 1870)이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을 지었다. 향사(鄕土) 유남 이장한(李章漢)도 따로 상량문을 지었다.

29) 『능파각상량축문』의 경우 2002년 10월 능파당 번와 공사 때 마룻대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나 축문 형식으로 자세한 수리 내역은 알기 어렵다.

30) 조인영(趙寅永), 『운석유고(雲石遺稿)』 권10,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68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건축역사연구> 제9권 1호, 2000, 조인영(趙寅永), 『운석유고(雲石遺稿)』 권10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 1844), 1868김홍근(金興根) 『유관집(遊觀集)』 권7 경상도함안군총쇄록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 1844) 『능파각 상량축문(凌波閣上樑祝文, 1844)』은 2002년 10월 능파당 번와 공사 때 마룻대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16C 중반에는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침류각)과 능파당(능파각)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가 되었다고 추정된다.³¹⁾

1890년(고종 27) 밀양부사 정병하(鄭秉夏, 1846~1896)는 봄 누각의 단청, 난간, 창, 추녀, 편액 등을 2개월 동안 수리하여 회복하고 있다. 1894년(고종 31, 甲午)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고종 때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대루(大樓)와 능파당, 침류당, 여수각 및 요선관(邀仙館, 밀양부 객사 부속건물), 동해(東廡), 사주문, 일주문 등은 화재를 면하고 일부만 훼손되었을 때도 지속되고 있다. 밀양군수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화재로 황폐된 영남루의 경내를 정비하고 손상을 입은 대루를 수리하고 있다. 1910년 이후에는 일본 관헌(官憲)에서 영남루를 함부로 사용하여 건물에 비가 새고 바람이 쳐서 도괴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여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는 수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루를 비롯 동쪽의 능파각(凌波閣), 서쪽의 침류당(枕流堂), 여수각, 정문(사주문) 등을 대상으로 침류당과 문사(門舍)에 접한 부속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³²⁾ 주변의 부속건물을 철거 정비하여 지금처럼 구(舊)밀양부 객사(현 천진궁과 만덕문)과 영남루(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및 서측의 사주문만 남게 되었다. 당시 영남루를 명소로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라고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1920년 초까지만 해도 영남루와 일부 공간을 행사나 다른 용도로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추정된다. 1920년대 밀양박씨 문중에서 밀성대군지단(密城大君之壇)을 조성하는 등 객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1930년 밀양군수 최두연(崔斗淵)이 대규모의 영남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현존하는 대루, 능파당, 침류당 등 주 건물은 물론 여수각(층층각), 사주문, 객사(邀仙館), 일주문 등이 중수되고 있다. 1931년 영남루는 조선총독부 주최하는 조선의 16경중의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1933년 대풍수해로 경내 건물이 무너지고 박락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서 급하게 수리하고자 현장에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1933년 8월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245호'로 지정되고, 4천원을 투입하여 크게 수리하고 있다. 1940년을 전후하여 무봉산(아동산) 자락에 일본신사가 건립된 후 영남루는 신사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신사가 철거되고 방치되는 가운데에서도 문화재 보존 운동이 일어나 영남루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52년 '단군봉안회'를 발족하여 침류당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53년 대루 북쪽에 있는 객사 정청과 삼문(현 만덕문)을 전면 보수하고 주위에 담을 쌓아 정청을 단군 봉안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객사가 천진궁(天真宮)으로 공간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1955년 6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영남

31) 영남루의 독특한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은 1542년 중건 시 처음 나타난 후 중건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권 1호, 2000년, pp.17-23.) 그러나 1543년 이후로 추정된다.

32) 자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루는 국보 제245호로 승격되고 있다. 1957년 '밀양고적보존회'에서 성금과 지방비, 국고 보조비 등 공사비 1,200만환을 마련하여 영남루의 지붕 변화, 기둥 교체, 단청 등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하고 있다. 그 후에도 국비 또는 지방비를 조달하여 대루와 사주문, 만덕문 등 부속건물을 보수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에도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존과 더불어 활용을 통하여 장소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에는 영남루 경내 민가 18세대를 철거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보물'로 재지정 된다. 1965년을 전후로 민가를 철거한 사주문 밖에 '충혼탑'을 세우고 능파당 동측에 독립의열사(獨立義烈士) 승모비를 세우고 있다. 1967년 대루와 침류당 사이의 여수각(如水閣, 충충각)의 계단마루와 기둥, 지붕 등을 보수하고 있다. 그 후 조경, 아자(亞子) 울타리 설치, 조명시설, 죽림(竹林)의 보호설비 등을 정비하고 있다. 1982년에 대루 남쪽의 부식한 마루 청판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탈락한 천정 양토를 보수하고 있다. 1988년 대루의 누하주 상부의 동귀틀 하부 보조목과 파손된 기둥을 각각 감잡이 쇠와 띠쇠로 감아 보강하고 있다. 또한 능파각의 마루를 드잡이하면서 귀틀·동바리기둥 및 마루 널을 교체하고, 침류당(각)도 연목 이상을 해체하여 수리하고 교체한 부재는 고색(古色) 땀 단청을 하고 있다. 1991년 영남루 대루의 지붕을 해체수리하면서 암수기와 45%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능파당 지붕도 해체하여 노후한 기와를 교체하고, 세살창 네 짝도 교체하고 고색(古色) 단청을 하고 있다. 1994년에 대루 주위 부식한 계자각 난간을 해체하여 신재로 교체하고 일부 부식한 기둥 4본은 수지처리하고 있다. 창방을 제외한 주두 하부 전 부재에는 고색 단청을 하고 있다. 1996년에 영남루 마당 서편의 사주문 지붕을 변화하면서 부러진 도리는 교체하고 기울어진 기둥은 드잡이하고 있다. 2001년 침류각을 기둥 이상 해체하고 일제에 의해 변형된 평면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밀양 영남루 수해 복구공사로 탈락한 지붕기와를 보수하고, 대루의 구조 안전진단 및 주변 정비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보존하고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연혁을 정리하면, 1365년 영남루 대루가 개창된 이후 1592년과 1722년에 소실되었지만 1642년 중건, 1793년 전면 중수, 1832년 해체 수리, 1844년 중건하고 있다. 능파각은 1488년 망호당으로 건축되어 1592년과 1722년 화재로 소실되고 1542년 이건, 1608년 중건, 1722년 중건하고 있고, 1661년, 1825년, 고종대, 1930년, 1988년에 보수하고 있다. 침류각은 조선 초기 건축된 후 1442년 중수, 1642년 복원, 1724년 재건, 1832년 전면 해체 수리, 1844년 중건하고, 1661년, 고종대, 1930년, 1975년, 1988년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현대의 보수공사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650여 년 동안 소실과 중창 및 중수를 거치는 변천과정을 통해 기본 골격인 객사와 부속누각인 영남루를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유형 등을 조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밀양의 서북쪽에 진산인 화악산이 흘러 옥교산을 타고 추화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동쪽으로 틀어 아북산으로 흐르고 있다. 동북쪽으로는 가지산을 주산으로 재약산으로 어이치고 운문산에서 구만산으로 흘러들고, 남동쪽은 천태산이 있다. 북에서 흘러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과 동쪽에서 흘러드는 단장천이 합류하여 추화산을 감싸돌며 태극모양으로 남쪽으로 응천이 흘러나가고 있다. 가까이는 밀양 영남루의 북쪽으로 아북산이 흘러 동쪽의 아동산으로 에워싸고 있고, 북서쪽으로 관아지가 있고 서쪽으로 구도심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밀양강 절벽 위에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축으로 능파각과 여수각·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으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또한 밀양읍성, 객사 정청인 천진궁 등은 밀양읍치와 관련되며 아랑각과 관련된 이야기, 지질과 관련된 석화 등의 다양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다른 관영누각에서 나타나는 죽죽선녀나 춘향이 그리고 논개 등과 같이 영남루에도 아랑의 정절을 기리는 아랑각이 자리하고 있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으며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남루에서 조망되는 중첩되는 산과 굽이도는 강과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있다. ‘영남루 십경(十景)’ 또는 ‘밀양십경(密陽十景)’으로 꼽히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16경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산의 능선에 동서축으로 능파각·대루·여수각·침류각이 지형을 따라 연결된 누각의 조형성이 밀양강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면서 안에서의 파노라믹한 경관과 밖에서의 조망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객사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고 전패를 두고 예를 표하는데 부속 누각인 밀양 영남루는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을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 나아가 대루 동서쪽에 배치되어 있는 능파각과 침류각이 객사 정청에 부속된 좌우 익현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관리나 빈객의 유숙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밀양부사가 업무를 보는 관아로도 사용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랑각과 연관된 아랑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각의 쓰임새 외에도 개창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 등을 거행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 앞으로 관영누각에서의 각종 의례를 밝히고 재현하여 관련 의례를 계승해가는 장소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밀양 영남루에서 북쪽 후면 마당을 두고 밀양부 객사(천진궁과 만덕문)와 함께 자리하고 있어 객사의 입지와 객사의 부속누각으로 배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객사 영역

은 밀양부 객사의 정청인 천진궁(밀주관) 앞에 마당을 두고 내삼문(현 만덕문)에 면해서 담장으로 둘러싸고 있다. 1599년 이영이 능파당 터에 초옥을 지어 객사로 사용하면 서부터 17세기 복구계획을 세워 대루 서북쪽에 전패을 봉안하는 공진관(拱辰館)을 지어, 소실 이후 밀주관으로 확장될 때까지 객사의 부속 누각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밀양 영남루는 객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대루와 익루의 배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밀양 영남루는 절벽 위에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밀양 영남루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³³⁾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보인다.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각과 침류각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하는 배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1844년 중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 누각으로 영남루인 대루, 능파각, 침류각과 객사인 천진궁(시도유형문화재), 내삼문, 사주문 등이 있다.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을 비롯한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고지도, 도면 등이 있다.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대루와 그 좌우에 능파각 및 침류각을 배치하고 여수각으로 연결하고 있는 수법은 영남루만의 특징이고, 규모면에서 현존하는 누각 중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현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

33) 1918년경에는 능파각 동북쪽에 고자각(庫子閣), 침류당 북쪽에 고자각과 서측에서 영남루로 출입하던 2칸 규모의 문이 있다.

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체도를 살피며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작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면과 측면은 약 1.5 : 1 정도로 전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간은 전후면 협간 12척과 뒷간 8.3척이고 정간은 14.4자로 추정된다. 큰 규모를 이루기 위하여 주간을 넓게 잡고 있으며, 정면 정간(14.4자)의 주간을 협간(12자)과 퇴칸(12자)보다 넓게 잡고 측면은 전후 협간(12자)은 같고 전후 뒷간(8.2자)은 좁게 잡고 있다. 정간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협간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협간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가 놓인 자리가 후면 마당보다 낮게 조성되고 있고, 기단 형식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면으로 외진주 중심에서 대략 2.8-3m 정도 처마선의 낙수면에 맞추어 둘러진 배수로로 통해 주변과 구별되고 있다. 누하 흠바닥의 기단면은 외진주에서 배수로 쪽으로 10-20cm 정도 구배가 있고, 남서쪽 침류각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배수되고 있다. 배수로는 자연석 막돌로 마감하고 있고 근·현대에 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단은 주변과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우천 시 지붕의 낙수를 고려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북쪽 정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4면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동쪽의 능파각과 서쪽의 침류각으로 연장하여 설치하고 있다. 초석은 외진주와 중앙부를 포함하는 내진주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 위치에 따라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외진주 초석(18개)은 기둥 단면보다 약간 큰 40cm 정도 높이의 거칠게 다듬은 높은 원형초석 형태이다. 내진주와 중앙부 4개의 초석(12개)은 낮고 평편한 자연석초석이다. 초석의 높이는 50~163mm(지상 돌출부) 정도이며, 북측이 높고, 동측, 서측, 남측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기둥은 초석이 놓인 것이 다르므로 누하와 누상이 차이가 있다. 누하주는 초석에 맞추어 정면 6주가 5열로 배열되어 3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덩병주초로 누하주는 비교적 단면이 작은 기둥을 세우고 있다. 누하주(42mm)는 누상주(39mm)보다 약간 크다. 누상주는 가운데 4개의 내진주를 감주하여 통칸으로 처리하고, 평주와 고주 각각 2열로 24개와 양측면 가운데 기둥을 부가하여 26주를 놓고 있다. 기둥은 목재의 형상을 살린 두리기둥으로 약한 민흘림이 있다. 누상의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고주는 평주보다 500mm 정도 높고 40mm 정도 굵은 고주이다. 밖으로는 대루의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난간은 계자난간을 두르고 동쪽 능파각과 서쪽 침류각으로 이어지는 여수각의 계단부분까지 연장되고 있다. 누하주에 멩에(120×180mm)를 걸고 장선(120×150mm)을 걸구한 다음 그 위에 장귀틀과 동귀틀로 마루귀틀을 짜고 청판을 끼우고 있다. 누상에는 내진주를 없애 가운데가 넓은 마루공간을 형성하고, 누마루를 높게 꾸미고 있다. 귀틀과 청판은 조선 후기 중창 당시의 구조 및 치목 기법 등이 잘 남아있다. 특이한 것은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은 점이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대루의 계자난간은 누하주의 기둥머리에 멩에를 파 넣고 되맞춤 걸구한 다음 장선을 멩에와 걸구한 형태이고 청방의 옆면에 처마널을 대고 설치하고 있다. 대루와 능파각의 2칸 마루 중 1칸이 서측으로 연장되어 연결되는데 대루의 계자각 난간과 같은 형식이다. 여수각에 접한 대루의 남서 측에도 계자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내진 고주를 세우고 종도리, 중상도리, 중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가 설치된 2고주 7량가 규모이다. 기둥 위에 창방을 설치하고 창방 위 중앙에 화반을 1개씩 33구를 설치하여 소로를 놓고 뜯장여나 장여를 받고 있다. 화반은 여섯 종류로 판재를 사용한 방형으로 촛가지를 초각하고 있다. 즉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으로 되고 있다. 주심도리를 받는 화반은 문양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고 화반의 너비와 높이도 다르다. 또한 주간이 좁은 양 측면 좌우 끝 칸의 화반은 크기가 작다. 이와 같이 화반은 사용 위치에 따라 문양이 다르고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평주 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퇴량과 도리 방향으로 충량을 걸고 있다. 내진고주와 외진주에 퇴량을 걸고, 양측면 기둥머리에 바깥쪽에서 내측 대량 위로 크게 곡선을 이루며 용두를 조각한 충량을 걸고 있다. 뒷보는 높이 차가 커서 우미량과 같이 보인다. 충량 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충량의 단부와 연결하고 있다.

외진 평주 상부의 공포와 내진고주 사이에 놓은 뒷보는 삼익공 위의 주심도리와 외출목도리 그리고 내진고주 위의 뜯장여와 걸구되어 중대공을 받고 그 위에 대량을 받고 있다. 중대공은 긴 판재형으로 외단을 직절하고 내단을 초각하고 있다. 퇴량은 충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향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

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대량 위에 포대공 형식의 종중대공을 놓아 장여 받친 상중도리와 결구되어 종량을 받고 있다. 종중대공은 파련대공처럼 초각한 3단 판재를 쌓고 도리방향으로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 그리고 좌두를 놓아 종량을 받치고 있다. 종량은 하부를 곡면으로 굴린 구형으로 종량의 양 단부에 홈을 파서 상중도리를 받고 있다. 종량 위에 도리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놓고 뜯장여와 장여 받친 종도리를 받고 있고, 보 방향으로 6단 판재를 쌓아 올려 짜 맞춘 판대공의 양단부를 초각한 파련대공 형식의 마룻대공을 놓고 장혀 받친 종도리를 효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공포는 익공계통으로 외진주 상부에 18기가 올려져 있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장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둥머리에 춤이 폭보다 큰 장방형 단면의 모서리를 굴린 창방을 결구하고 주두를 올려 도리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올리고 있다. 주심침차 위에 장혀와 별장혀를 놓고 그 위에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다. 외출목출목침차는 초익공 위에 소로를 놓고 소침차 위에 대침차를 올려 장혀 받친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출목침차는 마구리에 상세하게 연봉을 초각하여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보 방향으로 연화와 연봉을 초각한 판재형 살미를 삼중으로 놓고 보머리에 봉두를 올리고 있다. 익공의 내단은 초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심도리 하부의 별장여와 외목도리 받침장여 사이의 소로 상부는 판재형 순각판을 설치하고 있다. 귀포는 우주 상부에 45° 방향으로 익공 살미의 귀한대를 놓아 외1출목 침차와 결구하고 그 위에 용두조각을 놓고 있다. 침차는 마루대공과 중대공은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가 사용되고, 종중대공도 마루대공과 중대공과같이 장여와 뜯장여 사이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짜고 있다. 중대공에 사용된 대침차는 침차 중 가장 길고, 춤이 마룻도리나 종중도리보다 커서 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퉁이 내진고주 상부에는 퇴칸 쪽에 퇴량과 뜯장여 그리고 총량이 결구되는데 총량과 뜯장여의 결구부의 소침차 춤을 줄여 상면을 맞추어 올리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외기에는 우물반자의 외기반자로 정교하게 치목한 선자연을 걸고 있다. 우물반자는 소란반자 형식의 정방형 격자반자틀이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까래는 장연(長椽), 단연(短椽), 동연(棟椽) 등이 있고 장연과 부연 그리고 단연과 동연의 수가 같다. 장연은 끝부분을 걸어 올린 형태로 다듬은 다음 마구리를 직절하고, 부연의 마구리는 역사다리 꼴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 끝에 막새를 설치하고 있다. 기와는 대와로 북쪽 정면을 새기와를 얹고 나머지는 옛기와이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를 올리고 그 위에 8단으로 적새를 쌓고, 용마루 양단부에는 적새를 12단 쌓아 양곡을 잡고 있다. 내림마루는 용마루에 접한 4단 적새에서 끝에는 10단 적새로 증가시켜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귀마루는 부고 위에 5단 적새에서 망와 부근에서 10단으로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용마루와 정면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의 용두 망와는 마지막 번와 때 교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에 사용된 망와, 막새기와 등이 발견되어 여러 차례 중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³⁴⁾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변화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최대 만곡점이 동쪽 1/4 지점으로 치우치거나 튀어나오는 등 많이 변형된 형태이다. 추녀는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으로 추녀 뒷뿌리는 하중도리와 외기도리가 교차되는 부위에 놓여있고 뱃바닥이 위로 휘어 오른 형태이고, 추녀의 마구리는 밑면 가운데가 약간 배부른 형태이다. 추녀 부분은 방구매기에 가까운 형태이다. 처마 내밀기는 일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북쪽이 2,627mm로 크고, 서측이 2,611mm로 짧다. 추녀 위의 사례는 대개 뒷 뿌리의 폭이 마구리보다 약간 더 크고, 마구리면에 귀면와를 설치하여 부식을 막고 있다. 사례의 내밀기는 916mm 정도로, 가장 짧은 남서쪽 추녀가 836mm, 가장 긴 북서쪽 추녀가 993mm이다. 합각 머리 부분이 넓고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만곡된 박공널을 맞댄 부분에 지내철을 설치하고 있다. 목기연은 동측은 후대에 교체하고, 풍판은 졸대를 촘촘히 설치하고 있다.

영남사(嶺南寺) 누각이었을 당시에 단청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며 1365년 중창하면서 단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1834년 소실되면서 1844년 중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청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루의 외부 단청은 1971년 개철된 것으로 추정되나 내부의 부재 문채는 내부 도리, 종량, 퇴량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843년 중건 시 단청 양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변형된 부분은 추후 고증에 의해서 원형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능파각(능파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1488년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소실되어 1661년(현종 2)에 중건한 후 소실되어 1843~44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능파각은 능파당, 망호당, 봉래관 등으로 불리며 부사가 업무를 보거나, 사신이나 빈객의 유숙 기능 및 작은 연회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밀양객사는 일반적인 객사가 좌우에 익헌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정청만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객사의 익헌의 기능을 대루에 접한 능파각과 침류각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루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량과 월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객사와 관련되며 변천 과정에서 여기만의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인접한 능파각은 객사의 좌익헌의 기능을 하면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추

34) 망와 중 “道光二十年六月”명문망와(1830년 중건 전에 제작), 귀면문양 망와(여수각과 대루의 동쪽 측면에 막새로 사용), “甲辰夏平洞李等內重建” 암막새 명문 세 종류(1844년 중건), ‘甲辰’명문 수키와(1844년 여름 평동 이등내(平洞 李等內) 제작), ‘癸酉’ 명문 기와(서 측면 지붕, 1873년 제작) 등이고, 여러 종류의 막새기와의 와당 문양, 인물문 막새 등도 있다.

정된다.

배치는 대루보다 북쪽 마당쪽으로 나와 있고, 남쪽으로 규모가 작아서 대루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서쪽의 1칸 현랑(연결마루)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동쪽부터 2칸 온돌방, 1칸 개방된 대청으로 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남쪽으로 전퇴를 놓고 있다.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는 현함(軒檻)을 꾸미고 대루의 난간과 같은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의 서쪽 대청 북쪽으로 폭이 넓은 자연석 계단을 놓아, 대청으로 오르고 연결마루를 통해 대루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주간은 어칸과 양협칸이 10척으로 같아 같은 영조척을 사용하고 대루와 같은 295~313mm 정도의 영조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과 측면의 비는 1:1.5로 조형미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간살은 서측면이 2칸이고, 동측면이 남쪽에 전퇴를 꾸미면서 공간사용을 위한 후퇴도 부가된 형태로 추정된다. 후퇴는 온돌방에 통합되어 있으나 벽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벽장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복구하면서 온돌방으로 통합되어 공간사용을 잃은 것이 아쉽다고 판단된다.

계단은 기단까지 오르도록 설치하고 기단면에 디딤돌을 놓아 대청마루로 올라가도록 하지만, 능파각은 지면에서 대청마루로 바로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있다. 객사와 마주해 있고 객사의 축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나 있지만 정면에서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좌익헌으로서의 위계를 갖는 건물이라고 추정된다. 방과 마루로 구성된 익헌을 꾸미기 위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루에 오르던 계단과 같은 형식으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세밀한 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의 연결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장치로 추정되며 자연스럽게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1543년 망호당(望湖堂)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능파각은 전후좌우면의 높이 차가 있는 지형을 고려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형 막돌, 잡석 등을 섞어 쌓은 높은 기단을 조성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정면 기단은 서측면과 남측면쪽으로 갈수록 기단이 높아지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 위에 거칠게 다듬은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두리기둥 하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초석이고 네모기둥에는 방형에 가까운 거친 자연석을 사용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둥은 모두 평주로 남·북·서측면 외진주에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온돌방 남면과 내진평주만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북·서측에 사용된 두리기둥은 마루의 상하로 구분되지만 남측 외진주는 통재를 사용하고 있다. 두리기둥은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고 동측은 공간

사용에 따라 네모기둥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흘림율은 두리기둥이 1치 정도이고 네모기둥은 그보다 작다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진의 평주 머리에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의 창방을 걸고 직교하여 초익공과 결구하고, 주두를 놓은 후 그 위에 이익공을 올리고 그 위에 봉두를 조각한 대량을 얹고 있다. 익공에는 연봉을 조각하고 있으며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귀솟음으로 익공이 드러나 보이므로 날렵하게 보이기 위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으로 무출목 이익공이다. 이는 삼익공계통의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위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창방 위 주간에 화반을 놓고 소로를 올린 후 장여 받친 되를 받치고 있다. 연봉형 익공, 봉두, 화반 조각 등이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간략하게 장식하여 차별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는 긴보 5량가이다. 이익공계통의 공포 위에 대량을 건너지르고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받고 대량 위에 삼분변작하여 외단은 직절되고 내단은 안으로 빗 자른 판대공 형식과 조각된 첩차로 결구된 중대공을 설치하여 장혀 받친 중도리와 종량을 결구하고 있다. 대량과 같으나 크기가 작은 종량 위에 판대공형식의 마룻대공을 설치하여 장여 받친 중도리를 받치고 있다. 폭보다 춤이 크고 모를 굴린 장방형 단면의 대량은 보 방향으로 외진 평주를 건너지르면서 도리 방향으로는 동서측 층량을 받고 있다. 층량은 가운데가 휘어 오른 홍예형으로 외단으로 외진주의 주두와 보아지 위에 놓여 주심도리를 받고 내단으로 대량 위에 올리고 있다.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층량이 대청의 조형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도리는 굴도리이고 온돌방 남측에는 납도리이다. 도리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 등이고 도리의 하부에는 폭보다 춤이 큰 통장여를 설치하고 있다.

대청은 연등천장이고 외기도리 안쪽에만 소란반자의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남측 툇마루와 서측 남쪽 1칸을 제외하고 현함을 설치하고 있다. 대청마루와 현함을 구분하여 위계적인 동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함은 북측에는 보 방향으로 장귀틀을 걸고 도리방향으로 동귀틀을 걸어 청판을 끼우고, 동·서측은 보 방향으로 동귀틀을 걸어 방향이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서측 남쪽 1칸 현랑(연결마루)도 우물마루이다. 사면의 계자난간은 마루틀 위에 지방을 대고 그 위에 난간동자인 계자각을 세우고 난간두겹대를 두른 형태이며, 계자각 사이에는 안상을 새긴 궁창 널을 끼워 막았고 있다. 창호는 동측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되고, 2칸 온돌방 사이에도 귀갑살의 사분합미서기 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면서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온돌방 전후 면의 창호는 머름 위에 시설하여 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청방간(廳房間)에도 주선을 꾸미고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2칸 온돌방의 북측에도 방형 문얼굴을 형성하기 위해 문인

방과 머름중방 사이에 문설주를 세웠으며, 상하 인방재와 문설주는 고식의 연귀맞춤을 하고 있다. 겹창으로 내측에 두 짝의 완자살 미단이창을 설치하고, 바깥에 띠살창(남측) 또는 널창(북측)을 달고 있다. 대청에서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들문은 두 짝씩 접어 들쇠에 들어 올려 고정하는 사분합문이다. 문짝은 방형 불발기가 있는 들문으로 맨 하부에 세살대신 궁창널을 끼운 형태이다. 온돌방 북측의 쪽마루 하부에는 아궁이를 설치하고 굴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온돌방 앞 시간에 설치하고 있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루로 대루 북동쪽 정면 협간과 능파각 서측 배면쪽 협간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능파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연결마루는 대청마루 장귀틀을 경계로 하여 도리방향으로 동귀틀을 놓고 청판을 설치하고 있다. 대루와 능파각은 누마루 레벨차가 있어 2단의 목계단(木階)을 설치하여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서까래는 곡척 0.9~1.2자 정도를 기준으로 장연과 단연 그리고 합각부를 구성하는 허가연(덧서까래)으로 구성되고 네 귀는 선자연이다. 가지부연이 없이 서까래와 부연은 각각 126개로 북측 36개, 남측 37개, 동측면 25개, 서측면 28개이다. 대루 쪽으로 화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처마 폭보다 큰 장방형의 추녀는 사래 끝에 토수를 끼우고 있다. 추녀는 북서측을 많이 내밀고 사래는 북동쪽을 많이 내밀고 있다. 추녀 내밀기는 원래 7.0자(尺), 사래내밀기가 2.5자(尺), 전체 내밀기는 9.5자(尺)로 추정된다. 남동측의 추녀와 사래가 202mm 정도 짧아 양곡과 안허리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림마루는 전후면 서측면이 전면 77mm, 후면 130mm 정도 약간 높고, 길이도 동측이 서측보다 약간 크다. 또한 처마 내민 길이는 대루와 접한 서측면이 적게 나타나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귀마루는 전면은 북서측이 108mm 정도 높고 후면은 남동측이 64mm 정도 남서측보다 높아 귀솟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지붕 물때는 전후면 바닥기와의 수직 길이와 수평 길이가 거의 1:2 정도로 전통한옥의 물때와 같은 5치(寸) 물때이다. 지붕은 중앙부보다 약간 위쪽으로 전면 110mm, 후면 165mm 정도로 약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합각은 양 측면 외진기둥 열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박공널에는 끝부분이 약간 휘어 오른 재목을 사용하고, 목기연은 박공널마다 3개씩 배열하고 있다. 합각부의 벽은 박공널 안쪽에 위치하며 종도리가 합각벽 밖으로 노출되고, 그 밑에 원통형의 통기구가 있다. 지붕에는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막새, 망와 및 귀면와가 사용되었다. 귀면와는 사래 끝에 고정되어 있으며, 본래 4개가 사용되었다. 귀솟음은 외진 평주보다 꺾기둥이 약간 높지만 대루와 연결되는 서측의 꺾기둥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서측면 가운데 기둥의 높이보다 북쪽 꺾기둥이 높고 남측 꺾기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단과 초석의 부동침하로 변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대루에 접하고 있어서 귀솟음을 크지 않게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를 중심으로 귀솟음 정도를 살펴보면 북측 47mm, 남측 65mm 정도로 남측(밀양강 쪽)보다 북측의 귀솟음이 뚜렷하여 주요 조망점이 북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측은 밀양강이나 강

건너편에서 보았을 때 대루의 귀솟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의 안솔림은 귀솟음과 같이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 우주의 안솔림이 동북측 우주보다 적게 나타나다. 이는 대루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초매기와 이매기의 양곡은 남북측면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크게 나타나 자체적으로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조형적 통일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면의 양곡은 북쪽이 남쪽보다 크게 나타난 마당으로 대루가 돌출해 있으므로 시각적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마곡선도 남북측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치켜 올라가게 처리하여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을 하면서 좌익헌으로서의 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중앙이 가장 낮고 좌우로 가면서 안쪽으로 들어 처마를 유려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 남동측의 추녀와 사래가 다른 쪽보다 작고, 서측은 대루 끝선보다 안쪽 부분과 북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 안허리곡이 차이가 난다. 대루에 접한 부분에 맞추어 안허리곡을 형성했기 때문이고,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진 것은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는 익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보정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단청은 간결한 모로단청으로 대루와 같이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고, 능파각의 기능과 성격에 맞는 단청을 하고 있다. 이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체 성격이 잘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대루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침류각(枕流閣)은 조선 초 소루라고 명명하면서부터 枕流堂, 臨鏡堂, 小樓·召樓, 瀛洲閣 등으로 불리며 소실과 중창 및 중수를 거듭하면서 1442년 1843~44년에 중건된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객사에 정정만 있고 좌우에 익헌이 없어 침류각이 사신이나 관리 등의 유숙 등을 하는 익헌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객사와 대루와 능파각을 현랑이 연결하고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침류각은 대루 서편 지형이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침류각이 자리한 지형도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능파각이 대루 동쪽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현랑으로 연결한 것과 달리 침류각은 서쪽의 낮은 지형에 배치하여 여수각을 통해 지형을 극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마루를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있다. 정면과 측면의 평면비는 약 1.5:1로 대루와 비슷한 비를 보이고 있다. 주간은 정면이 동측 협칸 2,481mm, 정간 2,478mm, 서측 협칸 2,464mm이고, 측면이 뒷마루가 놓인 전면 칸 2,150mm, 후면 온돌방 2,770mm이다.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온돌방이 전면의 뒷마루보다 2자 정도 넓지만 뒷마루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밀양강 쪽 남향으로 전면 1칸에 넓은 뒷마루로 이어져 정면과 사면으로 삼분하고 측면까

지 파노라믹한 경관을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산수뿐만 아니라 동서로 흐르는 밀양강의 흐름을 연속되게 조망하는 평면계획으로 추정된다. 전퇴와 정간 후면은 우물마루를 깔고, 후면 협간에 온돌방을 놓고 있다. 정간을 남북으로 열고 전면과 측면으로 마루를 크게 설치하여 숙소와 연회 그리고 조망에 잘 대응하고 있다. 방에는 동쪽면을 제외한 사면에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 동측으로는 여수각을 통해서 대루와 연결되어 다양한 공간사용에 대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동에서 서쪽으로 급하게 흐르는 지형에 대응하여 경사진 지형에 따라 아랫단을 조성하고 서측을 높게 쌓아 수평이 되도록 윗단을 조성하여 2단으로 쌓고 있다. 전후면 기단은 지형에 따라 1-3단의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경사가 적은 부분에 작은 돌을 사용하고, 큰 부분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있다. 서측 기단은 지반고가 가장 낮아 맨 아래에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자연석을 눕히거나 세워쌓는 방식으로 자연석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3~4단을 조성하고 있다. 동측 배면은 자연석 외벌대기단으로 조성하고 폭을 좁혀 여수각의 기단부분과 맞추어 연결하고 있다. 동측은 여수각과 접해 배수로가 기단 역할도 하고 있다. 경사진 지반에 2단의 기단면도 고르지 않아 초석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다. 초석은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넓고 편평한 자연석을 사용한 덩벙주초이다. 덩벙주초 위에 외진에 평주와 내진에 고주를 올리고 있다. 기둥은 외진주에는 두리기둥과 정간 마루 양쪽과 측면 가운데에는 네모기둥이다. 기둥은 약한 민흘림이 있고 자연스러운 곡면을 살려 치목하고 있다. 남쪽은 밀양강이나 들판에서 보게 되므로 같은 형식과 간격으로 하고 있다. 반면 북쪽은 정간의 기둥이 네모기둥(232×240)이고 우주가 두리기둥(293-314mm)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같은 간격이지만 정간의 기둥이 상대적으로 작아 넓고 단일 건물로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머리의 창방과 처마도리 사이에 가운데 꽃병에 만개한 꽃이 꽃혀있는 모양의 화반을 놓고 상부에 소로를 놓아 처마도리 받침 장여를 처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능파각의 화반과 같은 형태이지만 능파각 화반이 가로로 긴 형태인데 비해 가로와 세로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러한 의장은 능파각의 좌익헌에 대해서, 침류각은 우익헌으로 같은 의장적인 처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균형이 잡힌 의장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5량가로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이다. 전후면의 평주 위에 대량(245×300)을 걸고 그 위에 삼분변작하여 3단으로 판재를 내단으로 빗 자르고, 외단으로 직절판 판대공 상단에 침차와 소로를 짜서 장여 받친 중도리와 결구하여 폭보다 춤이 큰 모굴린 장방형의 종량을 받고 있다. 그 위에 제형판대공을 놓고 상단에 침차와 소로를 짜서 장여 받친 중도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양 측면 장여 받친 처마도리에 종량의 외단을 결구하고 내단을 대량과 직교하여 올리고 있다. 서측면의 전후열을 보방향으로 터서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 칸은 현재 통칸으로 구성하고 있고, 동측면의 전면칸 상부에는 여수각의 마루대가 연장되어 도리와 같이 보이는 부재를 대어 여수각과 결구되고 있다.

방은 동·서측면의 전면 칸을 대량 상부에서 벽체로 막고, 고주창방 하부에 수평으로 막아 천장을 꾸미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칸은 연등천장의 마루로 조성하여 방과 마루를 결합하고 있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이다. 기둥머리에 연봉수서형의 초익공 살미와 창방을 직교하여 결구하여, 그 위에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연화 양서형 쇠서의 이익공을 도리방향 주심침차와 직교하여 짜 올리고, 그 위에 장여 받침 처마도리와 봉두를 조각한 대량 뿔목을 결구하고 있다. 귀포는 기둥머리에 창방 뿔목에 연화를 조각한 양서형 쇠서를 직교하여 끼우고, 주두를 놓아 침차가 외기로 연화를 조각한 양서형 쇠서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그 위에 처마도리 받침 장여 뿔목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과 화반의 조각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고 봉두나 봉화 등은 조선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도리의 굴도리이고 위치에 따라 크기가 차이가 있다. 지붕 하중을 받는 처마도리에 단면이 큰 부재를 사용하고 있고, 여수각과 접하는 침류각 동측 주간의 상부에는 여수각 종도리가 연장되어 있어 마치 침류각 내부에 도리를 하나 더 쓴 것처럼 보인다. 여수각의 종도리는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에 놓여 서까래를 직접 받으며, 여수각 대량 위에 동자주 대공(직경 210mm)을 세워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장여는 모를 죽이지 않은 각재의 통장여로 크기는 위치에 상관없이 폭은 90mm(3푼), 춤은 150mm(5푼) 정도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동쪽 배면 2/3 정도는 여수각과 중첩되는 부분은 맞배지붕이다. 침류각 기둥머리에서 도리와 창방을 여수각 기둥에 연결하고 있다. 침류각 위로 여수각의 지붕이 겹치도록 하고 처마는 흘처마이다. 동측은 여수각의 종도리와 나란히 짧은 중도리를 걸고 남북 방향으로 연목을 걸고 있다. 동측 합각부 아래에 남동 측 귀마루와 같은 방향으로 회침골을 만들어 우수를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화된 지붕의 형식과는 달리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조화를 이루도록 자의적인 지붕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침류각은 대루와 능과각보다 간결한 단청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 간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까래는 끝을 걷어 올리고 마구리를 사절하여 330mm 정도 간격으로 놓고 있다. 부연은 서가래 수와 같으며 마구리가 역사다리꼴 각재로 연단(緣端)을 조금 후리고 마구리를 사절하여 345mm 정도 간격으로 놓고 있다. 천장은 가운데 마루만 연등천장이고, 좌우 온돌방의 천장은 종이반자 형식이다. 선자연의 내단이 모이는 네 귀의 외기반자는 보 방향의 대량과 외기도리 받침장여 사이, 도리방향 중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반자틀을 만들고 반자청판으로 막아 놓은 우물반자 형식이다. 침류각의 처마 양곡을 살펴보면, 초매기 양곡은 중앙부가 가장 낮고 동, 서쪽 추녀 쪽으로 갈수록 휘어 오르는 양곡을 형성하고 있다. 전후면 좌우 처마높이 차를 살펴보면 전면(남측)의 좌우 높이 차는 167mm, 후면(북)의 높이 차는 79mm로 건물의 중앙부를 중

심으로 서(西)측으로 갈수록 더 들려지고 동(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측면 역시 정상적인 양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북측(후면), 남측(전면)의 처마높이에 차이는 40mm 정도로, 건물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다. 침류각 처마의 양곡과 안허리곡은 오랜 기간 동안의 이루어진 구조 변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확도에 의문이 있다. 귀솟음은 미미하게 나타난 오랜 기간 건물이 변형되었거나 수리 시 기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의 기울기는 전면(남) 12mm, 동 측면 38mm, 후면(북) 43mm, 서측면 30mm로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12-48mm의 안쏠림이 있어 영조척 약 1치(寸) 정도로 추정된다. 서측면 처마의 안허리곡은 가장 많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서까래 195mm, 부연 207mm이다.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대체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림마루와 귀마루에서는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붕과 구조부에 변형이 확인된다. 용마루의 와곡(瓦曲)은 내림마루의 최대 깊이가 좌측이 173mm, 우측이 192mm이고, 귀마루의 와곡은 좌측이 75mm, 우측이 78mm 정도이다. 지붕의 양 측면 합각부에는 합각벽이 있는데, 큰 원호를 이루는 만곡형의 박공널을 두고 상부에는 목기연을 걸고 하부를 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암·수막새 와당의 문양은 모두 화문(花紋)이나 세부 형태는 다르다.

기둥과 인방 사이의 바름벽은 심벽 구조로 방의 안쪽만 벽지로 마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단청하고 있다. 동서 측면 전면 칸의 대들보와 고주창방 상부의 바름벽 그리고 보와 도리 위의 서까래 사이를 막은 당골벽 회삼벽이고, 하인방 하부의 고막이벽도 회로 마감하고 있다. 합각부의 합각벽은 바름벽 위에 붉은 칠로 마감하고 있다. 온돌방에는 주로 세살창을 설치하고 마루 배면에는 고졸한 형식의 두 짝 울거미 널문을 설치하고 있다. 동·서측 온돌방은 전후 면과 청방간(廳房間)에만 창호가 있다. 전후 면에는 벽 중앙에 창호를 설치하고 방 밖에는 두 짝 띠살 창과 안쪽에 두 짝의 용자살 미단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온돌방과 마루 사이의 청방간(廳房間)에는 하부에 궁창널이 있는 두 짝의 키 큰 띠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대루(大樓)의 서편 낮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침류각은 입지와 건축 규모, 형식 및 기록 등으로 살펴볼 때 주 건물인 대루나 동의현인 능과각보다 낮은 위계를 반영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의 단청은 침류각을 해체하여 수리하고 2002년에 시공한 것이다.

여수각(如水閣, 層層閣)은 대루와 침류각을 잇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계단식 월랑으로 1843~1844년 중건한 건물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한 대루와 서측 낮은 지형에 위치한 침류각을 연결하는 독특한 형태의 누각이다. 대루의 남서측 퇴칸과 침류각의 동측면 전퇴로 주간에 단을 이루어 계단참을 형성하여 빈객들이 대루와 침류각을 계단으로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대루의 서측면 협칸과 연결되면서 지붕이 이어

져 있고 침류각과 중첩된 부분은 침류각 지붕의 모양을 조정하여 중첩하고 있다. 목조 계단과 단마다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른 높이 차이를 3단의 층단형의 여수각으로 연결하여 독창적인 형태의 월랑을 형성하고 있다. 침류각에 접한 서쪽 주간은 7.0척이고 대루에 접한 주간은 8.0척으로 지형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한 비례를 구성하고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으로 형성하고 있다. 중간 기단은 대루 기단의 자연석보다 작은 자연석과 활석을 섞어 쌓고 있다. 기단 좌우에 배수로를 만들어 우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측은 침류각 기단에 맞추고, 동측은 대루 기단과 같이 맞추어 층단을 이루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초석은 자연석을 일부 잔다듬한 높은 원형주초이다. 하층각의 고주를 받는 초석은 침류각 기단 상면에 놓고, 중층각의 기둥을 받는 초석은 중간 기단에 놓고 있다. 대루 기단면의 누하기둥을 받는 초석은 대루와 같은 높은 원형주초이고, 중층각과 침류각 기단에 고주를 받치는 초석은 자연석을 다듬어 침류각 초석에 맞추어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 높이차를 고려한 303mm 정도의 약한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으로 누상주보다 누하주를 굵게 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구형식은 변형된 3량가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귀틀로 결구하고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있다. 하층각은 고주 머리와 누상주 중간에 창방을 결구하여 무출목 이익공의 공포와 화반을 올려 남북서쪽으로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걸고 그 위에 연목을 걸고 있다. 종도리 대신 하층각 주심도리 가운데에서 중층각의 주심도리 가운데로 우미량을 걸어 지붕가구를 받고 있다. 다시 중층각도 하층각과 같은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 상층각은 고주 머리와 대루의 누상주에 창방으로 결구하고 이익공의 공포와 화반을 올려 남북서쪽으로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걸고 그 위에 연목을 걸고 있다. 종도리 대신 상층각 주심도리 가운데에서 대루 서측면의 창방 위 화반 가운데로 우미량을 걸고 있다. 우미량은 모서리를 굴린 형태로 하층각과 상층각은 약하고 중층각은 자연 재를 약간만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팔작지붕과 달리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하여 지붕가구를 받고 있어 지붕 높이가 다른 층각의 주심도리를 건너지르고 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파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다. 초익공은 창방뿔목에 연화형 익공살미를 새기고 그 위에 주두를 놓고 다시 보 방향으로 연화쇠서형의 이익공살미와 내단의 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와 도리가 서로 직교하여 왕지도리를 짜고 뿔목으로 처리하고 장여뿔목에는 봉두를 초각하고 있다. 이익공과 직교하는 주심침차의 양단에는 이갈소로를 놓아 장여 받친 주심도리를 받고 있다. 쇠서는 수평에 가까운 연봉수서형으로 침류각과 같은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대루의 삼익

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간 사이 창방과 장여 받친 주심도리 사이에 설치된 연화를 새긴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에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고 있다. 팔작지붕의 가지부연 없이 서까래와 부연을 같은 수로 간격을 조정하고 반을 사절한 팔작지붕계통으로 팔작지붕과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하층각과 상층각에 전후면의 말굽서까래 외에는 전자서까래이고, 중층각에 3면은 추녀와 말굽서까래로 구성하고 있다. 가운데에서 추녀귀까지 말굽서까래를 평행하게 놓은 형식은 초가에 보이는 형식이다. 기와는 대루와 능파각, 침류각과 동일하고, 사례 끝에 끼워져 있는 귀면와는 능파각과 동일하다. 귀솟음도 미미하고 갈모산방 없이 주심도리 위에 연목을 배열하여 처마 양곡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층각의 처마 내밀기는 하층각이나 상층각보다 9치(寸), 5치(寸) 정도 적게 하여 처마내밀기가 같으면 중층각의 지붕이 앞으로 전출되어 보이는 시각보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참은 우물마루로 전후면 장귀틀을 경계로 동귀틀을 짜서 청판을 끼우고 있다. 장귀틀은 층각의 경계를 이루며 하부에는 장여 모양의 청방을 사용하고 있다. 보 방향의 장귀틀은 청방과 같이 빨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쪽 끝에는 목조 계단과 계단참이 놓여 있고, 계단참의 전후 면에는 각각 2단의 디딤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층각·중층각·상층각의 장귀틀에 2단의 계단 디딤판과 마루청판을 결구하는 방법으로 목조 계단과 마루를 만들어 오르내리도록 했다. 계단의 너비는 다양하며, 단 높이도 지형 레벨 차와 부재의 치목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수각은 계단 기둥 사이에 평난간을 설치한 ‘평란 층제(層梯)’의 건물이다. 장귀틀 위에 엄지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기둥 사이에 지방을 대고 중앙에 동자주를 세우고 그 위 누상주와 엄지기둥 사이에 돌란대를 시설한 형태이다. 동자기둥과 엄지기둥, 동자기둥과 누상주 사이에 띠장을 놓고 그 가운데 안상을 새긴 궁창널을 끼웠다. 난간의 구조는 각층의 계단이 시작되는 곳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좌우에 1개씩 난간동자를 세운 고졸한 형식이다. 단청은 부재 끝에 머리초를 그린 모로단청으로 능파각과 침류각과 유사하다. 도리와 장여를 하나로 묶어 단청 문양을 그려 넣고, 머리초는 연화머리초 문양이다. 기둥 상부에는 직휘 띠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 지붕의 연목 단청은 가칠단청으로 하였고 우미량과 첨차는 굿기단청을 하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밀양 영남루에 관련된 역사적 가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를 비롯하여 밀양 향토사 관련 문헌인 밀주구지(密州舊誌), 밀주

지(密州誌), 밀주징신록(密州徵信錄), 향토사자료집(鄕土史資料集) 등의 문헌기록, 『영남루중수기(嶺南樓重修記)』(1365), 『영남루중건상량문(嶺南樓重建上樑文)』(1844) 등의 조영기록, 제영(題詠), 고지도, 그림, 일제강점기 도면, 근현대 보수기록 등을 통해 누각의 연혁 및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2세기 정지상의 ‘嶺南寺樓’, 임춘의 ‘嶺南寺竹樓’와 ‘西河集’서문 등에 영남루의 전신으로 보이는 영남사의 죽루(竹樓)가 영남루의 전신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남루라고 부르고 있다. 영남사의 소루 14세기 성원도의 기록과 이인복의 칠언율시 등을 통해 김주가 1365년에 중창하기 이전에도 영남루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영남루’라고 한 것은 작은 누각이었지만 입지 때문에 경관이 뛰어나 문인들과 관리들의 장소로 이용되어 커졌으며 고려 초부터 영남사에 속한 누각으로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1365년 김주의 중창으로 영남루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의 중수는 이전의 누각보다 규모를 넓히고 주고를 높이며 주칸을 넓혔고, 겹처마에 단청을 하여 축석루를 바탕으로 한 규모나 양식에서 격식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 안질(安質)이 영남루(대루)를 중창하면서 대루 서편 옛 터에 소루를 지은 이후 화재와 전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 및 중수를 거듭하였다.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영남루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지만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부속건물들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임란으로 소실된 능파당 터에 임시로 초옥을 지어 객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6세기 복구 계획을 세워 침류당(각)과 능파당(각)을 중건하고 있다. 17세기 중반에는 화재로 능파당이 불에 타자 심기성이 대루를 중건하고 능파당도 새로 짓는 등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8세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대루와 능파당 · 침류당 등의 부속 건물이 소실되고, 이희주가 먼저 공진관(객사) 건물을 이건하고, 능파당을 복원하여 빈객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2차로 영남루 대루(大樓)와 침류당을 중건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고 조휘진도 대대적인 중수 공사를 하고 있다.

19세기초 수리와 중수가 거듭되어 영남루, 능파당, 침류당을 비롯하여 객사, 납청당, 전월당, 연훈당, 신당 등이 있었으나 1834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영남루 경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18세기 해동지도와 같이 밀양 읍성 내에 동쪽 객사에는 밀주관, 하선관을 비롯하여 영남루, 침류당, 능파당 등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1843년에서 1844년까지 이인재가 영남루를 중건하면서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로 삼고 대루 서편에 여수각(층층각)을 지어 대루와 침류각을 연

결하고 있다. 현재의 영남루는 「밀주관(密州館)」 일곽의 건물을 정비하고자 원형대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와 부속누각 일곽이 남아 있고 영남루와 부속누각을 연결하여 일체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수 후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고종 때 화재로 많은 건물이 소실되고 대루와 능파당, 침류당, 여수각 및 요선관, 동해, 사주문, 일주문 등만 남게 된다.

20세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수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루를 비롯 동쪽의 능파각(凌波閣), 서쪽의 침류당(枕流堂), 여수각, 정문(사주문) 등을 대상으로 침류당과 문사(門舍)에 접한 부속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주변의 부속건물을 철거 정비하여 지금처럼 구(舊)밀양부 객사(현 천진궁과 만덕문)과 영남루(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및 서측의 사주문만 남게 되었다.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행사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객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1930년 최두연이 대규모의 영남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존하는 대루, 능파당, 침류당 등 주 건물은 물론 여수각(층층각), 사주문, 객사(邀仙館), 일주문 등이 중수되고 있다. 조선의 16경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933년 보물 제245호로 지정되었고, 1955년 6월 국보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1월 10일 보물로 재지정 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보존하고 다양한 행사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밀양강 절벽 위에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측으로 능파각과 여수각 · 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으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기에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산의 능선에, 동서측으로 능파각 · 대루 · 여수각 · 침류각이 지형을 따라 연결된 누각의 조형성이 밀양강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이면서 안에서의 파노라믹한 경관과 밖에서의 조망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객사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고 전패를 두고 예를 표하는데 부속 누각인 밀양 영남루는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을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 나아가 관리나 빈객의 유숙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밀양부사가 업무를 보는 관아로도 사

용되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랑각과 연관된 아랑의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누각의 쓰임새 외에도 개창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 등을 거행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 앞으로 관영누각에서의 각종 의례를 밝히고 재현하여 관련 의례를 계승해가는 장소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밀양 영남루는 절벽 위에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밀양 영남루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현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보인다.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각과 침류각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1844년 중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 누각으로 영남루인 대루, 능파각, 침류각과 객사인 천진궁(시도유형문화재), 내삼문, 사주문 등이 있다.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양 영남루에 대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을 비롯한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고지도, 도면 등이 있다.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대루와 그 좌우에 능파각 및 침류각을 배치하고 여수각으로 연결하고 있는 수법은 영남루만의 특징이고, 규모면에서 현존하는 누각 중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현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

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제도를 살펴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작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칸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협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협칸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주변과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우천 시 지붕의 낙수를 고려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초석은 외진주와 중앙부를 포함하는 내진주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 위치에 따라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기둥은 목재의 형상을 살린 두리기둥으로 약한 민흘림이 있다. 누상의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고주는 평주보다 500mm 정도 높고 40mm 정도 굵은 고주이다. 밖으로는 대루의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귀틀과 청판은 조선 후기 중창 당시의 구조 및 치목 기법 등이 잘 남아있다. 특이한 것은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은 점이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내진고주와 외진주에 퇴량을 걸고, 양측면 기둥머리에 바깥쪽에서 내측 대량 위로 크게 곡선을 이루며 용두를 조각한 충량을 걸고 있다. 뒷보는 높이 차가 커서 우미량과 같이 보인다. 충량 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충량의 단부와 연결하고 있다. 퇴량은 충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항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보 방향으로 익공살미를 끼우고, 주두를 놓고 살미와 주심첨차 그리고 출목첨차(행공첨차)를 직교되게 중첩하여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머리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살미의 외단은 양서형으로 쇠서 하부에는 연봉과 상부에는 연꽃을 초각하고, 내단은 보아지형으로 끝을 초각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 보 방향으로 살미나 익공재가 짜이고 도리 방향으로 첨차가 짜이지만, 영남루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살미를 놓고 도리 방향으로 주심첨차와 출목첨차를 설치해 놓았다.

공포의 구성에서 마구리 부분을 사절한 주심첨차와 첨차 하부를 조각한 출목첨차의 형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목첨차도 위치에 따라 장식된 조각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화반은 여섯 종류로 판재를 사용한 방형으로 좃가지를 조각하고 있다. 즉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으로 되고 있다. 화반은 사용 위치에 따라 문양이 다르고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처마끝에 막새를 설치하고 있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번와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번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능파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1488년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소실되어 1661년(현종 2)에 중건한 후 소실되어 1843~44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객사의 익헌의 기능을 대루에 접한 능파각과 침류각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루가 능파각, 침류각 그리고 현랑과 월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객사와 관련되며 변천 과정에서 여기만의 방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인접한 능파각은 객사의 좌익헌의 기능을 하면서 밀양부사가 정사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서쪽의 1칸 현랑(연결마루)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동쪽부터 2칸 온돌방, 1칸 개방된 대청으로 되어 있고, 경관이 좋은 남쪽으로 전퇴를 놓고 있다.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는 현함(軒檻)을 꾸미고 대루의 난간과 같은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의 서쪽 대청 북쪽으로 폭이 넓은 자연석 계단을 놓아 대청으로 오르고 연결마루를 통해 대루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측면 간살은 서측면이 2칸이고 동측면이 남쪽에 전퇴를 꾸미면서 공간사용을 위한 후퇴도 부가된 형태로 추정된다. 후퇴는 온돌방에 통합되어 있으나 벽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벽장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복구하면서 온돌방으로 통합되어 공간사용을 잃은 것이 아쉽다고 판단된다.

객사와 마주해 있고 객사의 축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나 있지만 정면에서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좌익헌으로서의 위계를 갖는 건물이라고 추정된다. 방과 마루로 구성된 익헌을 꾸미기 위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루에 오르던 계단과 같은 형식으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세밀한 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의 연결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장치로 추정되며 자연스럽게 대루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1543년 망호당(望湖堂)을 옛터에서 남쪽으로 옮겨 대루의 동북쪽으로 옮겨 능파당이라고 하고, 이때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였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온돌방 북측의 쪽마루 하부에는 아궁이를 설치하고 굴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온돌방 앞 시간에 설치하고 있다. 능파각은 전후좌우면의 높이 차가 있는 지형을 고려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형 막돌, 잡석 등을 섞어 쌓은 높은 기단을 조성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정면 기단은 서측면과 남측면쪽으로 갈수록 기단이 높아지고 있다.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두리기둥 하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초석이고 네모기둥에는 방형에 가까운 거친 자연석을 사용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리기둥은 주요 조망점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고 동측은 공간사용에 따라 네모기둥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출목이 없는 이익공계통으로 무출목 이익공이다.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귀솟음으로 익공이 드러나 보이므로 날렵하게 보이기 위한 처리라고 추정된다. 이는 삼익공계통의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위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연봉형 익공, 봉두, 화반 초각 등이 대루와 같은 형식이지만 간략하게 장식하여 차별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는 긴보 5량가이다.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중량이 대청의 조형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서까래와 부연은 대루쪽으로 화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림마루는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귀솟음은 외진 평주보다 컷기둥이 약간 높지만 대루와 연결되는 서측의 컷기둥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대루에 접하고 있어서 귀솟음을 크지 않게 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밀양강 쪽)보다 북측의 귀솟음이 뚜렷하여 주요 조망점이 북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은 밀양강이나 강 건너편에서 보았을 때 대루의 귀솟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의 안솔림은 귀솟음과 같이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 우주의 안솔림이 동북측 우주보다 적게 나타나 대루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양곡은 자체적으로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보정을 위한 조형적 통일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면의 양곡은 북쪽이 남쪽보다 크게 나타난 마당으로 대루가 돌출해 있으므로 시각적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처마곡선도 남북측 모두 동쪽이 서쪽보다 치켜 올라가게 처리하여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을 하면서 좌익현으로서의 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루에 접한 부분에 맞추어 안허리곡을 형성했기 때문이고,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진 것은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는 익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보정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단청은 간결한 모로단청으로 대루와 같이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고, 능파각의 기능과 성격에 맞도록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체 성격이 잘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대루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침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객사에 정정만 있고 좌우에 익현이 없어 침류각이 사신이나 관리 등의 유숙 등을 하는 익현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객사와 대루와 능파각을 현랑이 연결하고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온돌방이 전면의 뒷마루보다 2자 정도 넓지만 뒷마루를 넓게 하여, 밀양강 쪽 남향으로 전면 1칸에 넓은 뒷마루로 이어져 정면과 사면으로 삼분하고 측면까지 파노라믹한 경관을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정간을 남북으로 열고 전면과 측면으로 마루를 크게 설치하여 숙소와 연회 그리고 조망에 잘 대응하고 있다.

기단은 동고서저 지형에 대응하여 아랫단은 지형에 따라 조성하고 윗단은 서측으로 약간 높여 수평으로 쌓아 2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사가 적은 부분에 작은 돌을 사용하고, 큰 부분에는 큰 돌을 사용하고 있다. 덩벙 주초 위에 외진에 평주와 내진에 고주를 올리고 있다. 기둥은 외진주에는 두리기둥과 정간 마루 양쪽과 측면 가운데에는 네모기둥이다. 남쪽은 기둥이 형식과 간격이 같고, 북쪽은 정간의 기둥이 네모기둥이고 우주가 두리기둥으로, 정간의 기둥이 상대적으로 작아 단일 건물로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화반은 능파각과 같지만 가로로 긴 능파각보다 가로와 세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능파각의 좌익현에 대해서, 침류각은 우익현으로 같은 의장적인 처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균형이 잡힌 의장을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5량가로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이다. 동측면의 전면칸 상부에는 여수각의 마루대가 연장되어 도리와 같이 보이는 부재를 대어 여수각과 결구되고 있다. 익공과 화반의 초각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고 봉두나 봉화 등은 조선 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동쪽 배면이 여수각과 중첩되고 맞배지붕으로 침류각 기둥머리에서 도리와 창

방을 여수각 기둥에 연결하고, 여수각의 종도리와 나란히 짧은 종도리를 걸고 남북 방향으로 연목을 걸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화된 지붕의 형식과는 달리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조화를 이루도록 창의적인 지붕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침류각은 대루와 능파각보다 간결한 단청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 간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귀솟음은 미미하고 우주는 약 1치 정도의 안솟림이 있다.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대체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형적인 조건이 대루보다 낮은 지형이고 경사지형에 놓여 의도적으로 약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여수각의 서쪽 끝이 침류각 동측 벽에 막혀 있어 침류각 안으로 바로 출입할 수 없다. 여수각과 침류각의 연결부의 마감 및 개변(改變)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른 높이 차이를 3단의 층단형으로 연결하여 독창적인 형태의 월랑을 형성하고 있다. 여수각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으로 형성하고 있다. 서측은 침류각 기단에 맞추고, 동측은 대루 기단과 같이 맞추어 층단을 이루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중간 기단은 대루 기단의 자연석보다 작은 자연석과 활석을 섞어 쌓아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대루 기단면의 초석은 대루와 같은 높은 원형주초이고, 중층각과 침류각 기단에 고주를 받치는 초석은 자연석을 다듬어 침류각 초석에 맞추고 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파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다. 쇄서는 수평에 가까운 연봉수서형으로 침류각과 같은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대루의 삼익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간 사이 창방과 장여 받친 주심도리 사이에 설치된 연화를 새긴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여수각의 화반은 침류각의 것과 같으며,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주 건물인 대루에 사용된 화반은 전반적으로 세밀하고 화려한 문양이 특징인데 반해 여수각의 화반은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여수각은 일반적인 팔작지붕과 달리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하여 지붕가구를 받고 있어, 지붕 높이가 다른 층각의 주심도리를 건너지르고 있다.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가지부연 없이 서까래와 부연을 같은 수로 간격을 조정하여 팔작지붕과는 다른 형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남루는 12세기 영남사의 작은 누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1365년 고려말 부사 김주에 의해 축석루를 바탕으로 개창된 후 수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843-1844년 부사 이인재에 의해 영남루를 포함한

객사 일원을 증진한 것이다.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춘 현재와 같은 규모의 누각이지만,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침류당은 대루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밀양 영남루는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되고, 부속건물들이 있어 웅장한 규모의 밀양 객관(客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1843년에서 1844년까지 증진하면서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고 능파당과 침류당을 동서 익루로 삼고 대루 서편에 여수각(층층각)을 지어 대루와 침류각을 연결하고 있다. 현재의 영남루는 「밀주관(密州館)」 일곽의 건물을 정비하고자 원형대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증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와 부속누각 일곽이 남아 있고 영남루와 부속누각을 연결하여 일체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33년 보물 제 245호로 지정되었고, 1955년 6월 국보로 승격되었으나, 1962년 1월 10일 보물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절벽 위에 자리하여 조선시대 유명한 누각들에서 볼 수 있는 입지이나 사면에 대응하는 탁트인 조망이 뛰어나다. 또한 남쪽으로는 밀양강(凝川 또는 南川江)이 굽이치면 돌아나가는 절벽 위에, 누각으로 대루를 중심으로 동서 축으로 능파각과 여수각 · 침류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누각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 등에 한시 973수, 산문 27편 등이 전하고 있다.

또한 밀양 영남루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 구조 내에 밀양도호부 객사 부속 누각이다.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누각이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하고 객사와 더불어 부속누각으로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배치는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이 자리하고, 능파각과 대루 사이에 연결 마루(軒廊)인 여수각을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접대 및 향연 등을 위한 대루와 휴식을 위한 익루가 지형 차이를 극복하고 월랑과 헌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은 탁월하다고 판단된다.

군을 형성하는 영남루의 독특한 배치와 건축구성은, 이경홍의 『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에는 여수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랑과 헌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객사 부속누각으로 입지와 배치 및 일체화된 건축 공간을 이루고 있다.

밀양 영남루는 객사 부속의 관영 누각으로 밀양부사가 정사를 보거나 각종 의례 및 접빈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대형 누각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외1출목 삼익공식의 공포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능파각과 현랑(연결마루)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과 월랑(복도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이 지형에 따라 낮아지면서 침류각과 연결되어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있다.

곡강변(曲江邊) 단구형 입지에 축석루의 제도를 살펴 중창한 기록과 같이 입지, 규모, 지붕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진주의 축석루와 비슷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변천과정에서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영남루만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져 독창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큰 팔각지붕 누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정칸을 크게 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뒷간을 헐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면에서 헐칸과 뒷간을 같은 주간으로 잡은 것은 객사와 마주하고 마당에서 보았을 때 뒷간 사이에 측면 기둥이 중첩되어 시각보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밀양강 쪽이나 사주문에서 보았을 때 측면이 뒷간을 좁게 한 것은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루는 밖으로는 난간을 돌리고 사면을 개방하여 사방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으로는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서측 면 퇴칸에 사용된 청판의 수가 적고, 다른 부분의 청판보다 폭이 넓은 청판을 사용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된다고 가정하면 위계가 높게 구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구형식은 내진 고주를 세운 통칸의 2고주 7량가 규모이다. 화반은 종도리 하부에 호랑이, 주심도리 하부에 해태, 그 외에 위치에 따라 다른 연화문 등으로 되어 문양의 종류에 따라 위계적인 의장을 하고 있다. 퇴량은 중량과 유사하나 내외 기둥의 높이 차에 맞추어 우미량(牛尾樑)과 같이 보이고 있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몸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하고 있는데 의장적으로 사실적이다. 대량은 대부분 춤이 폭보다 큰 향아리형 단면으로 단일부재가 아니라 2~3개의 목재를 합쳐 큰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흔하지 않은 수법으로 조선 후기 조성 당시 목재 수급이 어려워 목재를 적층하여 일체화하는 구조적 단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형식이다. 기둥머리에 보 방향으로 초익공 살미를 끼우고, 주두를 놓고 살미와 주심첨차 그리고 출목첨차(행공첨차)를 직교되게 중첩하여 결구하고 있다. 그 위에 보머리에 봉두를 조각하고 있다. 익공 살미의 외단은 양서형으로 쇠서 하부에는 연봉과 상부에는 연꽃을 조각하고, 내단은 보아지형으로 끝을 조각하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 보 방향으로 살

미나 익공재가 짜이고 도리 방향으로 침차가 짜이지만, 영남루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살미를 놓고 도리 방향으로 주심침차와 출목침차를 설치해 놓았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포의 구성에서 마구리 부분을 사절한 주심침차와 침차 하부를 초각한 출목침차의 형태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목침차도 위치에 따라 장식된 초각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작자 이름이 기록된 1844년 중건 외에도 1873년 변화가 있고 1830년 중건 때 변화가 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은 밀양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영남루는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육색(肉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각 머리초 먹기화 시분을 동시에 시채(施彩)한 것 등 고급 채화로서 화려하게 단청하고 있다. 특히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만덕문 앞에 석화(石花)가 드러나 있고 영남루 남서쪽 강가에도 같은 바위가 드러나 암반으로 이어져 있어 영남루는 바위 위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구역 및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덕문 서쪽 밀성박씨(密城朴氏) 시조인 밀성대군을 추모하는 ‘밀성대군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합의견>

밀양 영남루는 누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만이 아니라 치목이 건실하게 결구된 누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가 잘 나타나고 사방으로 탁트인 조망도 뛰어나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당과 침류당의 익헌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6C 중반에 대루, 침류당, 능파당 그리고 터를 높여 영남루-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랑과 현랑으로 세 건물을 연결하여 군을 형성한 조형미를 갖춘 누각으로 완성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된다.

일체화된 구성 내에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조형성이 나타난다. 지형을 따라 대루와 능파각, 대루와 침류각을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조형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대루와 익헌과 함께 연결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세부 요소들을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축형식과 구조, 공포, 단청, 조형 등에서 조선후기의 건축양식

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역사적인 측면

- 12세기 영남사의 작은 누각에서 유래하여 1365년 고려말 부사 김주에 의해 축석루를 바탕으로 개창된 후 수차례 중건과 중수가 있었고, 현재의 건물은 1843~1844년 부사이인재에 의해 영남루를 포함한 객사 일원을 중건한 연혁의 명확성
- 15세기말~16세기 초에 이르러 대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익루인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추고 16C 중반 객사의 별관으로 중앙의 대루와 좌우에 침류당과 능파당이 배치하고, 1843년에서 1844년까지 대루 동서에 능파당과 침류당을 익루로 현랑과 여수각(층층각)으로 연결한 4동 일체형의 대형 누각으로 중건
-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누각에 대하여 한시 973수, 산문 27편 등이 전하는 인문적인 공간
- 객사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 따른 부속누각으로서의 장소성과 능선을 따라 대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능파각, 서쪽에 침류각을 현랑과 월랑으로 연결된 누각군을 형성한 배치 특성
- 건축군을 형성한 것은 17~18세기로 추정되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대루를 중심으로 능파당과 침류당을 갖추고, 16C 중반에 대루 능파당의 오고감에 불편함을 줄이는 배치 및 일체화된 구성 형성
- 능파각은 대루와 현랑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침류각은 대루와 월랑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지형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고, 여수각은 여러 단의 지붕을 지형에 따라 낮아지는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

학술적, 예술적 측면

- 지형에 따라 층간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 독창적인 장소성
-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대형 누각으로 솔직한 구조형식의 조형미
- 평면에서 정간을 크게 한 위계적인 구성과 뒷간을 헐칸보다 좁게 잡아 시각보정
- 위치와 문양에 따른 화반, 청판, 출목첨차 등에서 대루와 위계적 표현
- 퇴량은 층량과 유사하나 높이 차에 맞춘 우미량과 같고, 내진 고주 위의 뒷보 뒷뿔 내단에 세밀한 용두를 조각한 사실적 의장
- 대량은 2~3개의 목재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단면을 갖도록 하는 특성
- 창방은 세로가 긴 장방형으로 모서리를 모두 궁글린 형상으로 조선중·후기 형식
-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공포로 조선 중기 이후의 일출목과 같으나 3출목으로 장식화

되는 경향

- 살미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쇠서가 길게 돌출한 모습 등은 조선후기의 장식화 경향
- 우물반자로 위계를 부여하고 소란반자 형식으로 의장적으로 처리
- 지붕은 안허리곡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지역성
- 단청은 고급 채화로서 대량머리초의 용실 문양과 선자연에 표현된 사신도 등은 섬세하고 독창적인 조형미
- 능파각은 대루 동쪽에 위치한 좌익헌으로 헌랑으로 연결되고 서쪽 칸에 장대석 계단 설치
- 전망을 고려한 전퇴와 공간사용을 고려한 후퇴를 부가
- 계단은 객사에서 대청으로 바로 오르도록 하면서 대루의 높이와 차이를 두는 계획적 고려
- 높이가 차가 다른 지형을 반영하고 대루의 높은 누마루와 맞추기 위한 높은 기단 조성
- 기단 내밀기는 서북측이 가장 커서 출입 및 대루와의 연결을 고려
- 두리기둥 하부의 원형 초석과 네모기둥 하부의 자연석 초석으로 위계적인 구성
- 두리기둥의 흘림이 서측이 큰 것은 대루와의 관계 고려
- 우주의 초익공 쇠서는 수서형, 이익공은 양서형으로 처리
- 익공계통 공포와 세부 등이 대루와 같지만 간략하게 차별을 주는 조선 후기의 경향
- 중앙부가 위로 굽은 대량과 위로 굽은 층량이 대청의 조형미
- 대루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장적인 처리
- 내림마루는 대루의 지붕과 맞추고자 하는 의도
- 북쪽을 귀솟음이 뚜렷하고, 서까래와 부연은 대루쪽으로 화려하게 처리
- 우주의 안솔림은 대루와 연결된 서북측이 동북측보다 약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고려
- 양곡은 팔작지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루와 연결되므로 시각적인 보정
- 처마곡선은 동쪽을 치켜 올라가게 하고 서쪽을 대루와 일체감있는 구성
- 남측과 북측면을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져 대루의 처마선에 맞추기 위한 보정
- 침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객사에 부속된 우익헌
- 객사와 연계되어 대루와 능파각을 헌랑, 침류각을 여수각으로 연결하는 유기적 관계 형성
- 정면 주간은 같은 주간이지만 측면 주간은 뒷마루를 넓게 하여 파노라믹한 경관을 조망
- 기단은 동고서저 지형에 대응한 2단으로 구성 하고 남쪽은 기둥의 형식과 간격을 통한 안정감 부여
- 공포와 세부 형식 등은 대루와 유사하나 간략하게 표현하는 조선후기 양식
- 화반은 능파각과 같지만 능파각의 좌익헌에 대한 침류각은 우익헌으로 의장적인 처리
- 여수각과 이어지면서 다른 형식을 취한 독창적인 지붕형식
- 대루와 능파각보다 간결한 단청으로 위계적 표현
- 여수각은 경사지에 지형 변화에 따라 3단의 층단형으로 연결한 독창적인 형태
- 경사지에 위치하여 층단형 기단과 흘림기단을 절충한 형식


-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계통으로 능과각이나 침류각과 같은 형식이나 대루의 삼익공 형태보다 간결하게 위계적으로 표현
- 화반도 침류각과 대루의 화반과도 유사하지만 대루보다 간략하게 처리하여 위계적인 구성
- 지붕은 높이가 다른 층각을 건너지르는 종도리 대신 우미량과 같이 휘어 올라간 곡재를 사용
- 지붕은 층단마다 팔작지붕 형식과 우진각지붕을 혼합한 형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


<밀양 영남루 현판>


1) 편액(扁額)


| 편액사진 | 번역 |
|---|--|
|  | <p>송하 조운형-영남루(嶺南樓)</p> <p>송하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서체인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각 체의 글씨에 능했다. 특히 획이 굳세고 예스러운 해서와 초서·예서를 잘 썼다. 원교의 스승인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의 사위이기도 한 그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1766년 글씨로 벼슬길에 올랐다. 원교를 이어받아 진경시대 글씨를 빛낸 대가인 그는 정조가 가장 총애했다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림에 정선과 김홍도가 있다면, 글씨에는 조운형이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다. 이처럼 글씨로 벼슬을 할 정도로 당대 명필로 이름이 났던 송하는 당시 관청의 금석과 편액 글씨를 도맡아 썼다고 한다. 진주 축석루(矗石樓) 편액, 수원 화성행궁의 신흥루(新豐樓), 봉수당(奉壽堂), 낙남헌(洛南軒), 영주 풍기의 금선정(錦仙亭), 공주 마곡사의 심검당(尋劍堂), 김천 직지사의 황악산직지사(黃嶽山直指寺) 편액 등이 남아 있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유원-‘교남명루(嶠南名樓)’ 및 ‘강좌웅부(江左雄府)’ 이 두 개의 편액의 글씨는 굴산(橋山)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작품으로 송하 조운형의 ‘영남루(嶺南樓)’ 양 옆에 두 개의 편액이 나란히 걸려 있다. 수려한 예서 작품으로, 판자를 12개씩이나 붙여 만든 대형 편액이다. 좌측의 ‘교남명루(嶠南名樓)’는 문경새재 이남, 즉 영남지역의 유명한 누각이란 뜻이다. 우측 ‘강좌웅부(江左雄府)’는 낙동강 왼쪽에 있는 아름답고 큰 고을이라는 의미다. ‘영남루’ 편액과 반대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편액이라 서로 잘 어울린다.</p> <p>굴산은 고종 초에 좌의정에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해 좌천되었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다시 영의정까지 오른 문신이다. 학문에도 능해 ‘임하필기(林下筆記)’ ‘굴산문고(橋山門稿)’ 등을 남기기도 한 그는 서예에서는 예서에 특히 능했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현석-영남루(嶺南樓) 영남루에 오르면 여러 개의 대형 편액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편액은 ‘영남루(嶺南樓)’와 ‘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이다. ‘영남루(嶺南樓)’ 편액을 보면 7세 아이가 썼다는 기록이 있다. ‘癸卯初夏澣李玄石七歲書(1843년 초여름 이현석이 7세 때 쓰다)’라는 글귀이다.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이 편액 글씨는 서예가들로부터 불가사의한 필력으로 회자되어 왔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증석-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 누각 안 중앙 대들보에 걸려 있는 ‘영남루제일루(嶺南樓第一樓)’ 편액은 ‘영남루(嶺南樓)’를 쓴 이현석의 형인 이증석이 11세 때 같은 시기에 썼다. ‘癸卯初夏澣李憎石十一稅書(1843년 초여름 11세의 이증석이 쓰다)’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 이 두 형제는 건물을 중수할 당시 밀양부사로 있던 이인재(李寅在) 부사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다. 서예 신동으로 불리던 이 어린 형제에게 편액 글씨를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44년 누각을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글씨는 1년 전 준공 전에 쓴 것이다. 두 편액 글씨는 비슷한 필체의 해서체이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강성여화(江城如畫) 영남루 대루 북쪽 도리에 걸려 있는 강성여화(江城如畫) 편액. 가림지조(嘉林之趙)와 동당한관(東堂漢館)이란 낙관이 있다. 격안리공명월(隔岸里共明月)이란 두인(頭印)이 이채롭다. 강성여화(江城如畫)’는 밀양강과 밀양읍성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그림과 같다는 의미이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상억- 현창관(顯敞觀) 대루 대들보에 걸린 현창관(顯敞觀) 편액. 병인(丙寅) 5월 이상억(李象億)의 필적이다. 현창관(顯敞觀)은 영남루에 오르니 넓고 높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의미이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용금루(湧金樓) 대루 동편 도리 위에 걸린 용금루(湧金樓) 편액, 산하(山河)라는 낙관이 있다. 용금루(湧金樓)는 높은 절벽에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누각이라는 뜻이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하동주-영남루(嶺南樓) 1931년 대루 보수공사 때 星坡 하동주(河東州)가 쓴 영남루 편액. 대루 남쪽 정면에 걸려 있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배수환-능파각(凌波閣) 및 침류각(枕流閣) 능파각과 침류각의 건물명인 '능파각(凌波閣)', '침류각(枕流閣)'이라고 새긴 편액이 이들 건물 정면에 걸려있다. 두 편액은 1957년(단기 4290)에 배수환(裴綉煥)이 쓴 것이다.</p> |


2) 제영(題詠)

| 필자 | 번역 |
|--|--|
| <p>임춘(林椿)의 시-題嶺南寺 임춘(1148~1189) 고려 명종 때의 문인</p> | |
| 원문 | |
| <p>樓閣玲瓏駕巨鼇 鼇傾海動群仙駭 茫茫失去一峯高 飛來恍惚移於斯 磅礴千古當古壕 突起連空如疊玉 百丈清潭橫鴨綠 水泛桃花出洞中 居人宛如泰餘俗 青山影裡兩三家 垂柳陰中千萬屋 日暮郊原牛馬歸 春深洲渚鳧鷖浴 漁舟之子棹如飛 溪岸不知盤幾曲 洛城遷客來何時 樓上欲窮千里目 山耶雲耶遠一色 應點長空行斷續 天涯晚色正蒼然 其奈思家必更速 不用重來登此樓 煙波好處使人愁</p> | <p>(題 영남사) 누각이 영롱히 큰 자라 등에 세워졌는데 자라가 기울이니 바다가 흔들려 여러 신선이 놀랐고 높은 봉우리 하나를 아득히 잃어버렸다지. 그것이 날라와서 황홀히 이곳으로 옮겨져서 옛 성 해자 앞에 천고동안 웅크리고 있네. 우뚝 솟아 하늘에 닿아서 옥을 겹친 듯하고 백 길의 맑은 연못에는 질푸른 물이 비끼고, 물에 뜬 복숭아꽃이 골짜기 속에서 나오니 사는 이들은 완전히 진(秦)나라의 남은 풍속이 있네.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두 세 집이 있고 수양버들 그늘 안에는 천만 집이 있네. 해 저무는 교외 들판에 소와 말은 돌아오고 봄 깊은 물가에는 물오리가 헤엄치네. 어부가 젓는 배는 나는 듯한데 계곡을 몇 구비나 돌았는지 모르겠구나. 서울을 떠난 손은 어느 때 떠나왔나, 누각 위에서 천 리 먼 곳까지 다 보려하네. 산인가? 구름인가? 아득히 한 빛인데 기러기는 긴 하늘을 점점이 끊겼다 이어지며 가네. 하늘가의 저녁 빛이 정히 어스므레 한데 집 생각은 어찌 그리 또한 바쁜가? 다시는 이 누각에 오르지 않으리라. 풍경 좋은 곳이 시름을 자아내나니.</p> |

| 필자 | 번역 |
|---|--|
| <p>성원도(成元度)의 시서-嶺南樓 성원도(1344년경). 도침의찬성사, 집현전 태학사를 지낸 성사홍의 본 이름이 원도라 함.</p> | <p>붉은 난간이 우뚝 솟아 구름 하늘에 닿아 있고 즐지은 산봉우리가 눈앞에 다 모여 있네. 아래에는 긴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남쪽에는 큰 들판이 끝없이 드넓네. 마을 다리에는 온 숲의 비에 버들이 어둡고 관로(官路)에는 십 리 안개 속에 꽃이 밝구나. 올라가 풍경을 감상하려 하지 않나니 사람들이 환영 잔치를 베풀까 두려워서라네.</p> |
| <p>원문</p> <p>朱欄突兀出雲天 列岫連峯湊眼前 下有長江流不盡 南臨大野闊無邊 村橋柳暗千林雨 官路花明十里烟 不欲登臨賞風景 恐人因此設歡筵</p> | |

| 필자 | 번역 |
|---|---|
| <p>이인복(李仁復)의 시-嶺南樓 이인복(1308~1374). 충숙왕 13년 문과 급제 및 충혜왕 복위 3년 원나라의 제과(制科) 급제</p> | <p>더위에 부대끼다 오르니 가을이 하늘에 가득한데 눈 앞의 장관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네. 산은 서쪽으로 꺾여 구름 끝에 비껴 있고 물은 동쪽에서 흘러와 기슭을 에워쌌네. 관현악 흥겨운 곡조에 세월이 한가롭고 긴 숲 무성한 풀에 바람과 안개가 좋구나. 좋은 경치 속에 머물러 있으니 무슨 일이 꺼리끼랴? 흠뻑 취해서 끝내 비단 자리를 밟으리라.</p> |
| <p>원문</p> <p>觸熱登臨秋滿天 眼中壯觀覺無前 山從西折橫雲表 水自東流繞岸邊 急管繁絃閑日月 長林豐草好風煙 留連光景何妨事 爛醉終須踏錦筵</p> | |

| 필자 | 번역 |
|--|--|
| <p>이색(李穡)의 시-嶺南樓 이색(1328~1396). 고려 말의 문신이며 학자.</p> | <p>영남루 아래로 큰 내(川)가 비껴 가을 달 봄바람이 태평이로다. 문득 눈앞에 삼삼한 은어, 사문의 웃음소리 귀에 들리는 듯. 목은 이색</p> |
| 원문 |  |
| <p>嶺南樓下大川橫 秋月春風屬太平 忽得銀魚森在眼 斯文笑語可聞聲 牧隱</p> | |

| 필자 | 번역 |
|--|---|
| <p>문익점(文益漸)의 시-嶺南樓 문익점(1329~1398). 경남 산청 출생으로 고려시대의 학자이며 문신</p> | <p>신선이 사는 곳에 있었던 골짜기를 여섯 자라 머리에 이고 이 앞에 옮겼다지. 개인 내의 우거진 풀에는 산들바람 일고 외로운 따오기 지는 노을은 석양 가에 있네. 넓은 들에 말과 소는 나그네의 길을 분간하고 먼 마을 닭과 개 짓는 소리 인가가 이어졌네. 특별한 곳 풍경을 말로 다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그려다가 임금님께 바치려네. 문익점</p> |
| 원문 |  |
| <p>聞說神仙有洞天 六鰲頭戴忽移前 晴川芳草好風裡 孤鷺落霞斜日邊 曠野馬牛分客路 遠村鷄犬接人煙 別區光景言難竟 畫取吾將獻御筵 文益漸</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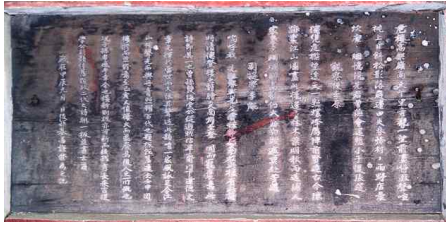
| 필자 | 번역 |
|---|---|
| <p>이승인(李崇仁)의 시-題嶺南樓 이승인(1349~1392).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정몽주 등과 성균관의 학관 역임</p> | <p>높은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하늘에 오른 듯한데 경치가 어지러이 앞뒤로 변화무쌍하구나. 청명한 바람과 달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십 리의 강과 산은 가운데와 가을 따라 있네. 가을 깊은 관도(官道)에는 단풍이 비취고 해 저문 어촌에는 흰 연기가 이네. 나그네 오래도록 읊어도 시를 짓지 못하는데 사군의 잔치 상은 손님 맞아 반듯하네.</p> |
| 원문 | |


| 필자 | 번역 |
|--|---|
| <p>도원흥(都元興)의 시-嶺南樓 성주 도씨로 고려 공민왕 때 밀직부사로서 정몽주의 당파로 몰려 유배되었던 도흥으로 추정.</p> | |
| 원문 | <p>단청한 밝은 누각이 물을 누르고 있는데 지난날 누가 이 누각을 봉우리 앞에 지었나? 장대 하나 어적(漁笛)은 빗소리 밖에 들리고 십 리의 행인은 산 그림자 가에 있네. 난간으로 들어오는 구름은 무협(巫峽)의 새벽에 생기고 물 따라 흐르는 꽃잎은 무릉(武陵)의 연기에서 나오네. 모래 벌의 갈매기는 양관곡(陽關曲)을 들을 뿐이니</p> |
| <p>金碧樓明壓水天 昔年誰構此峰前 一竿漁笛雨聲外 十里行人山影邊 入檻雲生巫峽曉 逐波花出武陵煙 沙鷗但聽陽關曲</p> | |

| 필자 | 번역 |
|---|---|
| <p>유관(柳觀)의 시-嶺南樓 유관(1346~1433). 1371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리정랑, 성균사예를 역임, 조선 개국 후 대제학을 거쳐 세종 때 우의정 역임.</p> | |
| 원문 | <p>올라온 것이 바로 가을 9월인데 끝없는 봉우리들이 앞뒤를 감싸네. 외로운 따오기는 노을 너머 가지런히 날고 기러기는 석양 무렵에 놀라 일어나네. 붉은 난간 푸른 기와는 모래밭에 달빛 맑고 큰 들판 평평한 숲은 푸른 안개에 비껴 있네. 기둥에 기대어 시를 읊다가 언뜻 잠이 드니 꿈속에서 경연(經筵)에 들어가 임금을 모시네.</p> |
| <p>登臨正是九秋天 無限峰巒獲後前 孤鷺齋飛落霞外 斷鴻驚起夕陽邊 朱欄碧瓦淡沙月 大野平林橫翠烟 倚柱吟詩成一睡 夢中時復侍經筵</p> | |

| 필자 | 번역 |
|---|--|
| <p>하륜(河崙)의 시-嶺南樓 하륜(1347~1416). 공민왕 14년 문과에 급제, 우왕 때 첨서밀직사사 역임. 조선 개국후 태종 때 영의정 역임.</p> | |
| <p>원문</p> | |
| <p>誰構岑樓上接天 壁間題詠盡廬前 流年滾滾臨川裡 往事悠悠倚柱邊 十里桑麻深兩露 一區山水老雲煙 晚來已見斜陽好 月滿長江更肆筵</p> | <p>하늘에 달을 듯한 높은 누각 누가 지었나? 벽에 걸린 제영은 모두가 전대의 시 넋가에 임하니 세월은 늙실늙실, 기둥에 기대니 지난 일 아득하네. 십 리의 우거진 들판은 비와 이슬에 젖었고 온 지역의 산과 물은 구름과 안개로 깊은데, 저물녘에 와서 석양의 아름다움을 이미 보았으니 달빛 가득한 긴 강가에 다시 술자리를 베풀네.</p> |

| 필자 | 번역 |
|--|--|
| <p>권근(權近)의 시-次密城嶺南樓韻 권근(1352~1409). 공민왕 16년(1367) 문과 급제, 우왕 때 성균 대사성, 예의판서를 역임, 조선 개국 후 예문관 대제학, 의정부 찬성사 역임.</p> | |
| <p>원문</p> | |
| <p>高樓百尺控長天 風景森羅几案前 川近水聲流檻外 雲開山翠滴簷邊 千畦壟畝禾經兩 十里閭閻樹帶煙 匹馬南遷過勝地 可堪登眺忝賓筵</p> | <p>(밀양 영남루 운을 따라) 일 백 척 높은 누대가 긴 하늘을 당기니 온갖 풍경이 책상 앞에 널려 있네. 시내가 가까워 물 소리가 난간 밖으로 흐르고 구름이 걷혀 푸른 산빛이 처마 끝에 떨어지네. 일 천 이랑 벼논은 비를 맞아 푸르고 십 리 여염집에 나무는 연기를 띠었네. 필마로 남방에 와서 명승지를 지나다가 빈객 자리 차지하여 올라 볼 만 하구려.</p> |

| 필자 | 번역 |
|--|--|
| <p>이원(李原)의 시-次嶺南樓詩 이원(1368~1429)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우왕 11년 문과 급제, 예조좌랑 등 역임. 조선 개국 후 세종 때 좌의정 역임.</p> | <p>(영남루 시를 따라)</p> <p>높다란 누각이 영남 하늘에 솟아 있어 십 리의 진기한 풍경이 한 눈에 보이네. 낮에도 고요하여 여울 소리가 배갯머리에 시끄럽고 해질녘의 소나무 그림자가 뜰 앞에 떨어지네. 농부들이 봄 농사에 분주하니 마을마다 비가 내리고 들판 주막에서 새벽밥을 지으니 곳곳마다 연기가 이네. 아버님께서 일찍이 잔치 열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도리어 내가 다시 잔치를 여는 것이 부끄럽구나.</p> <p>관찰사 이원</p>  |
| <p>원문</p> <p>危樓高架嶺南天 十里奇觀一望前 晝靜灘聲連枕上 日斜松影落庭邊 田夫春務村村雨 野店晨炊處處烟 憶得先君會過此 還慚小子復張筵 觀察使 李原</p> | |

| 필자 | 번역 |
|---|--|
| <p>하연(河演)의 시-題嶺南樓 하연(1376~1453). 조선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과 영의정을 역임.</p> | <p>영남루에서</p> <p>영남루는 낙동강 동쪽 하늘에 있어 왕명 받기 전부터 명승지라 들었네. 발 걸으면 달 오르고 바람이 들며 난간에 기대면 술개 날고 물고기 뜬다. 한 시내는 일 천 댕기 들에 굽이치고, 두 골짜기는 일만 그루의 숲을 나누었구나. 한스럽다 강하의 침석을 깔지 못하니 어찌 홀로 서늘한 곳에 자리 펼치리? 홍희원년 을사 8월 일 관찰사 경재 하연</p>  |
| <p>원문</p> <p>題嶺南樓</p> <p>嶺南樓在洛東天 勝地曾聞受命前 月到風來捲簾外 鳶飛魚躍凭欄邊 一川曲折千畦野 兩峽分開萬樹烟 却恨未陳江夏枕 豈宜涼處獨鋪筵 洪熙元年乙巳八月日觀察使敬 齋河演</p> | |

| 필자 | 번역 |
|--|---|
| <p>김종직(金宗直)의 시-嶺南樓次韻 김종직(1431~1492). 세조5년 문과 급제후 경상도 병마평사 역임. 성종 때 한성부윤, 형조판서, 지중추부사 역임.</p> | <p>(영남루 시운을 따라) 등림한 날이 정녕 기수에 목욕하던 모춘이라 기둥에 기대어 서니 얼굴에 뿌리는 바람이네. 남국의 산천경개는 바다에서 실어오고 사방의 관현악 소리는 구름까지 퍼지네. 들소는 코를 내놓은 채 나루터를 비껴 건너가고 해오라비는 새끼를 데리고 어둑한 밤 안개를 뚫고 가네. 바야흐로 내가 다니는 것이 외롭지 않음을 알겠거니 늘 어머님을 뵈러 올 때마다 손님 자리에 참여하네</p> |
| <p>원문 登臨正值浴沂天 灑面風生倚桂前 南國山川輸海上 八窓絃管鬧雲邊 野牛浮鼻橫官渡 巢鷺將雛割暝烟 方信吾行不牢落 每因省母忝賓筵</p> | |

| 필자 | 번역 |
|--|--|
| <p>김계창(金季昌)의 시-嶺南樓 세조 8년 문과 급제후 이조참판 역임</p> | <p>눈은 동남 만 리의 하늘에 탁 트였고 한 고장의 절경이 술병 앞에 있네. 시는 비내리는 무심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긴 강을 따라 끝없이 흥이 쫓아가는데, 갈매기에게 채인 놀랜 물결은 흰 물살을 일으키고 소가 졸고 있는 꽃다운 풀에는 푸른 이내가 이네. 주인께서 유람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웃으며 봄바람이 술취한 자리로 들어오게 하네.</p> |
| <p>원문 眼豁東南萬里天 一區形勝屬樽前 詩成片雨無心處 興逐長江不盡邊 鷗蹴驚波晴湧雪 牛眠芳草綠生烟 主人慣識遊人意</p> | |

| 필자 | 번역 |
|--|---|
| <p>신부(申溥)의 시-嶺南樓 신부는 고려 출신으로 신숙주의 아들임. 예종 원년 진사시에 합격. 관찰사 역임.</p> | <p>나그네 남쪽 고을에 오래 있어 한 해가 저무는데 몇 밤이나 화산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던가? 서리는 수국(水國)의 푸른 오리 밖에 날리고 나뭇잎은 강성(江城)의 흰 기러기 가에 떨어지네. 양쪽 기슭의 갈대밭에는 외로운 배에 비가 내리고 숲 너머 울타리에는 두어 집에서 연기가 나네. 실컷 놀아도 올라와 노는 흥이 다하지 않았는데 난간에 기대어 시 지으니 달이 잔치 자리로 올라오네.</p> |
| <p>원문 客久南州歲暮天 幾宵歸夢華山前 霧飛水國青鳧外 木落江城白鴈邊 兩岸蘆花孤艇雨 隔林籬落數家烟 倦游不盡登臨興 倚篇欄干月上筵</p> | |

| 필자 | 번역 |
|--|--|
| 일본인 용장(龍章)의 시-嶺南樓 | |
| 원문 | |
| 登臨絲管悅鈞天 袞袞談鋒舞袖前 晴靄遠攷山郭外 暝禽低下水村邊 蒹葭剩占三更月 桑柘平分萬戶烟 滿酌叵羅君莫讓 明朝海上憶離筵 | 등림하니 음악이 천상의 음악인 듯 황홀한데 춤추는 기생 앞에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네. 맑은 안개는 멀리 산 마을 밖에 걷히고 저녁 새는 나지막이 물가 마을로 내려오네. 갈대는 한밤의 달빛을 넉넉히 차지하고 뽕나무는 온 집의 연기를 고르게 나누었네. 가득 찬 술잔을 그대는 사양하지 마시오, 내일 아침이면 바다 위에서 이별 자리가 생각나리니. |


| 필자 | 번역 |
|--|--|
| 남효온(南孝溫)의 시-密陽嶺南樓謁 佔畢齋 남효온(1454~1492). 조선초 생육신의 한 사람. | |
| 원문 | |
| 甌峰道士下靑牛 紫府仙曹冠佩稠 千載一人金佔畢 百年勝地嶺南樓 城根浪打寒潭秀 沙岸霜淡栗葉秋 聾耳漸明歌管發 他鄉聽樂摠堪愁 | [밀양 영남루에서 점필재를 뵈옵고] 증봉(시루봉)의 도사가 푸른 소에서 내리니, 자부의 신선들 의관 패옥 가득하네. 천년의 한 인물은 점필재요 백년의 명승지는 영남루로다. 성 뿌리에 물결 치고 찬 못은 수려한데 모래 언덕 서리 깊어 밤나무 잎 가을일세. 노래 소리 일어나자 먹은 귀 점차 밝아지나 타향의 음악 소리 모두 근심인 것을. |

| 필자 | 번역 |
|--|---|
| 유순정(柳順汀)의 시-嶺南樓 유순정(1459~1512). 김종직의 문인. 연산군 때 평안관찰사 역임중 추국을 당한후, 중종반정에 참여, 경오년 영의정을 역임. | |
| 원문 | |
| 從倚湖山萬里天 依然身世廿年前 數村水竹牛鳴外 一簇雲嵐鳥去邊 夢斷落花江館雨 詩成斜日柳橋烟 白頭詞客偏懷舊 奈此尊傾月滿筵 | 호산(湖山) 만 리의 하늘을 떠돌아 다녀도 신세는 20년 전 그대로이구나. 두어 마을의 물가 대나무에는 소가 울고 한 덩어리의 구름과 이내에는 새가 날아가네. 꿈은 꽃 지는 강가 누각의 내리는 비에 깨고 시(詩)는 해지는 버드나무 다리의 연기에 지었네. 늙은 시인은 자못 옛날을 생각하는데 어찌 술잔을 기울임에 달빛이 자리에 차는가? |

| 필자 | 번역 |
|--|---|
| 이윤(李胤)의 시-嶺南樓 이윤(1462~?). 성종 병오년(1486) 문과 급제. 부제학 역임. | <p>홀로 높은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보니 한 점 봉우리가 줄지어 나는 기러기 앞에 있네. 현달한 사람은 고금의 목은 자취 속에 있고 강산의 그림은 이 누각 가에 있다네. 중첩한 숲의 나뭇잎은 가을비에 밝고 먼 마을의 인가에는 저녁 연기가 이네. 흠뻑 취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꺾꺾 웃나니 늙은이가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을 개의치 말라.</p> |
| <p>원문</p> <p>獨憑危檻望遙天 一點螺岑鴈陣前 賢達古今陳述裡 江山圖畫此樓邊 層林木葉明秋雨 遠巷人家裊夕烟 爛醉高歌仍大噓 白頭遮莫赴芳筵</p> | |


| 필자 | 번역 |
|--|---|
| 권벌(權機)의 시-嶺南樓次前人韻 권벌(1478~1548). 중종 2년 문과 급제. 무술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 | <p>높고 웅장한 누각을 영남 하늘에 높이 지어 이름난 고을의 절경이 한 눈에 다 보이네. 바쁜 중에 몸을 빼내어 먼길을 치달리고 돌아가는 기러기가 사라질 때까지 눈길 보낸다. 다하지 않는 긴 강은 비단처럼 평온하고 끝없는 들판 기운은 안개처럼 담박하네. 허공에 기대어 봄바람에게 알리노니 어찌 날리는 꽃잎을 춤자리에 들어오게 하는가?</p> |
| <p>원문</p> <p>高架雄樓嶺外天 名區形勝一望前 抽身長路馳驅裡 送眼歸鴻滅沒邊 不盡長江平似練 無垠野氣淡如煙 憑虛爲報春風道 肯遺飛花入舞筵</p> | |


| 필자 | 번역 |
|---|---|
| 주세붕(周世鵬)의 시-次嶺南樓韻 주세붕(1495~1554). 중종 17년 문과 급제. 백운동서원을 창건. 명종 때 도승지, 대사성을 역임. | <p>(영남루 운을 따라, 밀양으로 부임하는 사군 안태고를 전송하며)</p> <p>영남루의 풍경은 남방에서 으뜸이라 은하수 비껴 흘러 난간 앞을 감싼다네. 삼신산(三神山)의 구름과 노을이 다리 아래로 오고 하늘의 북두성(北斗星)이 머리 위에 가깝다네. 사물을 살찌게 하는 온 숲의 비는 사사로움이 없고 풍년 들어 집집마다 연기가 날 조짐이 있겠지. 전원에 돌아갈 날이 다만 지척인데 어느 때에야 사또의 잔치에서 흠뻑 취할꼬?</p> |
| <p>원문</p> <p>送安使君太古之任密陽 南樓風景冠南天 銀漢橫流繞檻前 三島雲霞來脚底 九霄星斗近頭邊 無私潤物千林雨 有象豐年萬戶烟 歸去田園纔咫尺 何時一醉使君筵</p> | |

| 필자 | 번역 |
|---|--|
| 퇴계 이황(1501~1570)의 시-嶺南樓 | <p>난간이 높다랗게 거울 속 하늘을 놀려 바라보면 남방 산천이 눈앞에 다 보이네. 강은 거친 들 밖에서 해문(海門)으로 밀려들고 땅은 왜국의 산 녹녹한 구름 곁에 끝난다. 시를 재촉하여 해 저물자 이슬비 내리고 그림인 듯 평림(平林)에는 가느다란 연기로다. 맑은 술잔 잡고 먼 경치 완상하니 박자 치며 좋은 자리 소란케 할 것 없네.</p> |
| 원문 | |
| <p>欄干高壓鏡中天 一望荆吳盡眼前 江蹙海門荒野外 地窮蠻嶺瘴雲邊 催詩晚日纖纖雨 入畫平林細細煙 好把清樽供遠賞 不須檀板鬧芳筵</p> |  |


| 필자 | 번역 |
|---|---|
|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시-嶺南樓 | |
| 원문 | |
| <p>歸雲拖雨渡江天 銀竹橫絲忽滿前 何處亂峯晴靄外 幾村燃火夕陽邊 英豪袞袞空遺躅 佳會忽忽似散煙 鄉思晚來禁不得 夜深愁坐月侵筵</p> | <p>돌아가는 구름은 비를 뿌리며 강을 건너는데 은빛 대나무는 가로 비껴 문득 앞에 가득하네. 맑게 갠 너머의 어지러운 봉우리는 어디인가? 석양 무렵에 불 사르는 연기는 몇 마을인가? 영웅들은 연달아 자취를 남겼는데 좋은 모임은 훌연히 흩어지는 연기와 같구나. 저물녘에 고향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깊은 밤에 근심스레 있노라니 달이 자리로 들어오네.</p> |

| 필자 | 번역 |
|--|---|
| <p>이안눌(李安訥)의 시-嶺南樓重題長律 이안눌(1571~1637). 선조 32년 문과급제. 정묘호란후 함경도관찰사 등 역임.</p> | |
| 원문 | |
| <p>嶺南樓重題長律 落日來登城上樓 海門天闊鳥飛愁 山如坐峽排雲出 川作邑江遶郭流 兩岸平沙白雨過 一郊寒樹碧煙浮 夜深孤月上遙渚 風露淒淒蘆荻秋</p> | <p>[영남루에서 다시 읊시를 짓다] 해질 무렵에 와서 성 위의 누대에 올랐더니 바다 문에 하늘 넓어 새가 근심스레 난다. 산은 무협 같아서 구름을 밀고 솟았고 내는 파강처럼 성곽을 돌아 흐르는데 강 언덕 백사장에 소나기 지나가니 온 들판 차가운 나무에 푸른 안개 떠오르네. 밤 깊어 외로운 달이 멀리 물가에 오르면 바람과 이슬은 가을 갈대밭에 처량하겠지.</p> |


| 필자 | 번역 |
|---|--|
| <p>임의백(任義伯)의 시 - 嶺南樓 임의백(1605~1667). 인조 27년 별시 문과에 급제, 효종 때 동래부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 6세손 익상이 만든 시판이 영남루에 걸려있음.</p> | <p>은빛 촛불 붉은 난간 밤은 깊어가는데 앉았더니 바람과 이슬 옷깃에 가득하다. 맑은 통소 한 곡조에 찬 강물 목이 메고 흐린 달빛 창창하게 고목 숲을 비춘다. 관찰사 임의백</p> |
| <p>원문</p> | |
| <p>銀燭朱欄夜向深 坐來風露滿衣襟 清簫一曲寒流咽 微月蒼蒼映古林 觀察使任義伯</p> |  |

| 필자 | 번역 |
|--|--|
| <p>조형(趙珩)의 시-嶺南樓 조형(1606~1679). 인조 8년 식년문과에 급제, 효종 5년 일본 통신사 통술.</p> | <p>이름난 명승지라 이 누각을 말하기에 지친 나그네 올라와 근심을 씻으려네. 먼 멧부리 병풍 되어 구름 가에 솟았고 긴 내는 들을 안고 난간 앞을 흐른다. 손으로 별을 만질 듯 하늘이 가깝고 시야가 동남으로 열려 땅의 형세 떠오르네. 굽은 난간에 옮겨 기대니 정신이 상쾌하여 계절마저 도리어 봄 가을을 잃어버릴 듯. 병신년(1655) 봄 통신상사 취병 조형</p> |
| <p>원문</p> | |
| <p>名區形勝說茲樓 倦客登臨爲滌愁 遠岵作屏雲際聳 長川抱野檻前流 手摩星斗天文近 眼豁東南地勢浮 徙倚曲欄精魄爽 四時還恐失春秋 丙申春 通信上使 翠屏 趙珩</p> <p>天地東南第一樓 洗來千古丈夫愁 雲開大野退青岵 江得長風湧碧流 疑是金鰲山上載 何如彩蜃海中浮 欲題墨沼重書後 吾祖詩垂不記秋 丁巳夏五世孫東海琮鎮謹積 戊辰榴夏六世孫靈山縣監雲漢謹書</p> | <p>천지 동남쪽에 첫째가는 누각이라 천고에 대장부의 근심을 씻어주었네. 큰 들에 구름 견히자 푸른 산이 물러나고 긴 바람 받은 강에는 푸른 물이 용솟음친다. 아마도 금오산 위에 있었던 누각이나, 떠 있는 신기루가 아닐런지. 시를 지어 거듬 뒤에 쓰나니 시를 영원히 전하러 하네. 정사년 여름에 5세손 동해 종진이 삼가 지음 무진년 유하(榴夏)에 육세손인 영산현감 운한이 삼가 쓴다.</p>  |


| 필자 | 번역 |
|--|--|
| <p>김창흠(金昌翕)의 시-嶺南樓贈主 李季常 김창흠(1653~1722). 안동출신.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며 영의정 창집(昌集)의 아우.</p> | |
| <p>원문</p> | |
| <p>賓主俱萍水 逢春第一樓 東風散華髮 南浦倚輕舟 岸竹搖簷影 江梅落棹謳 微望三浪口 溯可向頭流</p> | <p>객과 주인이 모두 부평초와 같은데 봄날 영남제일루에서 만났네. 동풍에 흰 머리카락을 날리고 남포에서 가벼운 배에 기대었네. 언덕의 대나무는 처마 그림자에 일렁이고 강가의 매화는 뱃노래에 떨어지네. 아득한 삼랑강(三浪江) 어귀 바라보니 거슬러가면 두류산에 갈 수 있다네.</p> |


| 필자 | 번역 |
|---|---|
| <p>권만(權萬)의 시-嶺南樓 권만(1688~1749) 영조 때의 문신. 안동 출신. 영조 1년 증광문과에 급제 후 병조정랑을 역임. 이 시편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있음.</p> | |
| <p>원문</p> | |
| <p>高樓聳出嶺南天 明遠詩成未到前 今古愁生山影裡 風塵夢醒水聲邊 孤城畫角晴殷月 古寺寒鍾晚翳烟 先祖桐鄉曾駐節 幾回春到遣華筵</p> | <p>영남 하늘에 높은 누각 치솟았는데 명원의 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 고금의 근심은 산 그림자 속에서 생기고 풍진세상의 꿈은 물소리 가에서 깨는구나. 외딴 성 화각 소리에 큰 달은 밝은데 옛 절 차가운 종소리 저녁 연기에 덮이네. 선조께서 부임하여 머무셨던 고을이라 몇 번이나 봄이 돌아 좋은 잔치 보냈던고?</p>  |

| 필자 | 번역 |
|---|--|
| <p>손병로(孫秉魯)의 시-嶺南樓會席拈韻得樓字 손병로(1747~1812). 정조 정유년(1777) 진사 합격.</p> | |
| <p>원문</p> | |
| <p>滄洲朗咏水調頭 中國三才圖上樓 納納乾坤容我輩 蒼蒼葭露又新秋 羨君霞思能標舉 憐我荷衫已蹙幽 欲知別後相思意 江水分明斷不流</p> | <p>[영남루 모임 석상에서 루자 운을 뽑아] 창주에서 수조가첫머리를 낭랑하게 읊나니 중국의 삼재도회에 올라 있는 누각이라네. 넓디넓은 하늘과 땅은 우리들을 용납하고 창창한 갈대와 이슬은 또 새로운 가을이네. 부럽다 그대는 노을 생각에 훌쩍 떠날 수 있지만 가련하다 나는 연잎에 절뚝거리며 숨었네. 이별한 뒤 그리는 마음을 알려고 하는지 강물은 분명하게 갈라져서 흐르지 않네.</p> |

| 필자 | 번역 |
|--|--|
| <p>김리탁(金履鐸)의 사(嶺南樓敬次三淵先祖板上韻) 안동출신. 삼연 김창흡의 증손. 1781년 밀양부사 부임. 이 시 네 수의 판은 현재 영남루에 걸려있음.</p> | |
| 원문 | |
| <p>娟娟江月幾回圓 憶上高樓二十年 遙夜鍾鳴花外寺 春風人坐鏡中天 城雲倒影清搖酒 水竹濃陰落滿船 彈罷瑤琴山海曠 使君幽思正泠然 樓陰碁局動隨身 雲水齊簷鳥近人 幽磬一聲明遠樹 長江九曲帶青蘋 夕陽帆過蓼花雨 流水盃行竹葉春 南國山川心賞愜 邀仙館裏養清眞</p> | <p>곱고 고운 강의 달은 몇 번이나 둥글었나? 높은 누각 오른 것이 이십 년만이로다. 멀리 밤의 종소리 꽃 너머 절에서 울리고 봄바람에 사람은 거울 속 하늘에 앉았네. 성의 구름 거꾸러진 그림자 술잔에 맑게 흔들리고 물가의 대나무 짙은 그늘 배에 가득 떨어지네. 거문고를 치고 나니 산과 바다는 넓은데 사또의 그윽한 생각 정녕 시원하구나. 누각 그늘 바둑판은 몸을 따라 옮겨가고 구름과 물이 처마 끝에 달아 새가 사람 가까이 오네. 그윽한 풍경 한 소리는 먼 나무에 밝고 긴 강 아홉 구비 푸른 마름을 띠었네. 석양에 돛단배는 여뀌꽃의 비 속에 지나가고 흐르는 물처럼 술잔에 죽엽춘 술을 돌리네. 남국의 산천을 마음 흡족히 감상하고 요선관 안에서 맑고 참된 기운을 함양하네.</p> |
| <p>吾祖題扁古 南州有此樓 鳥鳴篁竹岸 人依木蘭舟 水葦吹漁管 山花上野謳 海天杳無極 凭檻一江流</p> | <p>우리 조상 쓰신 편액 오래이더니 남방에 이 누각이 있었구려. 새는 강가의 대숲에서 울고 사람은 목란주에 의지하였네. 물가의 갈대는 고기잡이 피리를 불고 산의 꽃은 야인의 노래에 오르는데 바다 하늘 아득하여 끝이 없고 난간에 앉으니 한 강물이 흘러가네.</p> |
| <p>○○○○○ 蘭槳上游浮 月出松間寺 風來竹外樓 孤烟生馬島 積水暗蛟湫 延賞有眞境 江山宿雨收 曾孫府使履鐸</p> | <p><첫 구절은 빠짐> 난장을 저어 상류로 올라갔더니, 달은 소나무 사이 절에서 뜨고 바람은 대밭 너머 누각으로 오네. 한 가닥 연기는 마암 섬에서 생기고 고인 물은 교룡의 늪으로 어둡다. 감상을 하면 진정한 경계가 있으니 강과 산에는 묵은 비가 걷히네. 증손 부사 리탁</p>  |

| 필자 | 번역 |
|--|---|
| <p>조기복(趙基復)의 시-嶺南樓 3수 1831년 밀양부사 부임 후 상주목사 부임. 임진년(1832)에 영남루를 개건. 이 시는 조기복의 중수상량문 뒤에 첨부되었고 영남루에 시판이 걸려 있음.</p> | |
| <p style="text-align: center;">원문</p> | |
| <p>殘魂零落鬢成銀 去國登樓空復春 祇幸江山無定主 不關笙瑟有嘉賓 風吹漁火遙歸港 月滿仙槎近泊津 沈醉忽聞蕭寺磬 白雲深處會尋眞</p> <p>老病登樓若上天 坐來奇勝伍無前 飛甍復聳禪鍾後 幽石偏多畫艇邊 細白冰紈收暖汗 鷗黃○樹語涼烟 殊鄉未遽增悵恨 分付殘花媚酒筵</p> <p>綺閣重成此日功 居然雲物翼樓崇 名區未是無興廢 舊制仍非有異同 一望青煙橫馬島 四時繁吹蕩蛟宮 映湖矗石風斯下 今古江南許獨雄</p> | <p>쇠잔한 정신 영락하여 머리카락 은빛 되고 서울 떠나 누각 오르니 다시 부질없는 봄이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산에 정한 주인 없고 관련 소리 관계 없이 좋은 손님 있음이네. 바람 불자 어화는 멀리 포구로 돌아오고 달빛 가득 신선 배는 나루 가까이 대었네. 잔뜩 취해 홀연히 절간의 풍경 소리 듣고 흰 구름 깊은 곳에서 참된 경계를 찾았네.</p> <p>늙고 병들어 누각에 오르니 하늘에 오른 듯 자리에 앉으니 기묘한 경치 짝할 데 없네. 나를 듯한 기와지붕 선종이 울린 뒤 다시 치솟고 그윽한 바위는 그림배 곁에 많기만 하네. 가늘고 흰 깃으로 따듯한 땀을 닦고 피꼬리는 나무 숲에서 서늘한 연기와 이야기하네. 타향에서 갑자기 서글픔 더하지 못하는 것은 시든 꽃에게 분부하여 술자리 시중들게 함이네.</p> <p>화려한 누각 다시 이룬 오늘의 이 공으로 의연한 온갖 경물에 날아갈 듯 누각 솟았네. 명승지엔 본디부터 흥폐가 없는 법이나 옛 규모 지켜가는데는 같고 다름이 있네. 바라보면 푸른 연기 대마도에 비껴 있고 사시사철 바람 불어 인어 궁궐 뒤흔드네. 영호루와 축석루는 이 보다 아래이리니 고금의 강남 땅에 홀로 웅대함을 허락하리.</p> |
|  | |

| 필자 | 번역 |
|---|---|
| <p>장승원(張承遠)의 시-嶺南樓 장승원(1853~1917). 조선시대 문신. 영남루에 걸려 있는 이 시의 현판에는 관찰사로 왔을 때 지은 것으로 기록됨.</p> | <p>위태한 누각 영남 하늘에 높게 지어 아스라이 옛 성곽 앞에 등림하였네. 소 잔등의 석양은 넓은 들 너머요 시퍼런 봄 물결은 끊어진 다리 곁이로다. 일천 집 푸른 대는 강의 비를 매달았고 일만 리 천둥치는 수레는 바다 연기를 채어간다. 삼십 칠 년 만에 다시 온 나그네는 동풍에 꽃 지는 자리가 근심에 곁네. 관찰사 윤정 장승원</p> |
| 원문 |  |
| <p>危樓高架嶺南天 迢遞登臨古郭前 牛背斜陽平楚外 鴨頭春浪斷橋邊 天家翠竹懸江雨 萬里雷車掣海烟 三十七年重到客 東風愁殺落花筵 觀察使 雲庭 張承遠</p> | |

| 필자 | 번역 |
|---|--|
| <p>작자 미상 시-謹次板上韻 이 시는 영남루에 걸려 있으나, 시판의 아래 일부가 누락되어 전문판독이 불가해 번역되지 않음.</p> | |
| 원문 |  |
| <p>此樓迥出嶠○天 百里形觀○眼前 漁子○○微雨裏 行○○舶夕陽邊 ○○先得千峰○ ○水層生萬○○ 我欲凌波○○遠 聊將詩○○開筵 丁亥菊秋 完山人 李○○</p> | |

| 필자 | 번역 |
|--|--|
| <p>오횡묵(吳弘默)의 시-顯敞樓 오횡묵(1834~?). 1889년 이후 4년간 함안군수를 지내며 밀양을 집중적으로 다녀간 기록이 풍부함. 아래 시는 1890년 4월 16일 밀양부사 정병하에게 써 준 「현창루(顯敞樓)」 시인데, 현창루는 편액 '顯敞觀'을 지칭한 것으로 현창관을 직접 시제로 한 것은 이 시가 유일함.</p> | <p>현창의 높은 누각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만물이 화창함은 성인의 공덕이라. 초록 비단 같은 벼들은 태평세월 그림이고 백성들은 본디 태고의 기풍을 품었도다. 현가의 소리가 노나라 시절처럼 들리고 위아래 모두가 우공의 산하에서 나왔네. 부사의 후덕한 정사 분명함으로 칭송되듯 백리의 고을이 우로의 은택 흠뻑 받았구려.</p> |
| 원문 | |
| <p>顯敞高樓湧碧空 暢和萬物聖人功 秧如綠錦昇平○ 民是素襟太古風 魯區日月歌絃誦 禹貢山河上下中 使君德政稱分命 百里桑麻雨露通</p> | |

2. 삼척 죽서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 삼척시 소재 「삼척 죽서루」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23.10.19.)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3.11.02~'23.12.01)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원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삼척 죽서루」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등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
 - 명칭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등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247.1㎡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3.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가치 있음.

마. 지형도면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24 |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 | |
| 조사자 | 성 명 | ○ ○ ○ | 전공 분야 | 건축역사 |
| | 소 속 | ○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삼척 죽서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7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삼척 죽서루의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44(성내동9-3번지)이다. 죽서루는 삼척 객사인 진주관(眞州館)에 부속된 관영의 누정으로서, 조선시대의 삼척도호부 읍성안 서쪽의 오십천변의 절벽위에 있으며, 인접하여 객사와 관아터 등이 있다. 이 일대는 신라시대 이래 삼척 관아의 중심 치소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객사와 동헌 등이 있었으나, 죽서루 외에 다른 건물들은 모두 멸실되고,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삼척에 읍성을 쌓은 것은 고려시대의 일이나, 이때는 토성이었으며, 이를 석성으로 쌓은 것은 조선 전기인 1510년(중종 5)의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읍성이 토성이고 둘레가 540보라고 되어있던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읍성이 석성이고 둘레가 2,054척, 높이가 4척이며, 서편 성벽 431척은 절벽을 이용하였다고 하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¹⁾ 2010년부터 2016년 걸쳐 5차례 시행된 관아터 발굴조사와 구 지적도 등을 통해 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참조)



그림 1 삼척 관아지 일대의 배치 현황. 빨강색 네모 상자가 죽서루의 위치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자료-삼척 죽서루-』(삼척시, 2023)에서 전재, 이하 『신청자료』로 약함)



그림 2 삼척읍성(석성)과 객사 및 관아터. 오십천변에 관아터가 있다. (『신청자료』에서 전재)

1) 한 보(步)가 6척(尺)이니, 2,054척이면 342보가 되고, 절벽 구간을 합하여 2,485척이라고 해도 414보 밖에 되지 않는다. 단위의 변화가 없었다면 조선시대의 읍성이 고려시대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관아터는 현재 죽서루가 있는 읍성 내의 서쪽 절벽 옆 대지에 모여 있다. 죽서루는 객사의 부속 누정이므로 그 가까이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밀양 영남루와 같이 객사와 누정이 함께 있고 동헌과 따로 있는 경우, 남원 광한루와 같이 객사와 동헌은 읍성 안에 두고 누정만 읍성 밖에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이처럼 큰 관영의 누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객사와 동헌과 누정이 모두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십천변의 절벽이 경승지이면서 동시에 멀리 해구를 바라보는 높은 장소로서 방어에 유리하고, 삼척 읍성의 둘레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 객사 진주관(眞州館)은 죽서루의 북쪽에 있는데, 남향하여 외삼문과 담장으로 정면을 만들고, 그 뒤로 내삼문과 회랑을 두고, 그 안에 중정을 건너 정청과 동서의 익헌이 있는 구성이고, 그 서쪽에 죽서루와 같이 절벽 가에 응벽헌(凝碧軒)이라는 부속 누정이 있다. 응벽헌에 대해선 허목의 『척주지』에도 “절벽 위에 3개의 누가 있는데, 제일 장려한 것이 응벽헌으로, 진주관의 서헌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려하다는 표현은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518년(중종 13)년 현 자리로 이건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조선 후기까지 사용지만, 1902년에는 객사의 기능을 다하고, 1908년에는 삼척 군청사로 전용되었으며, 1934년 신청사를 지으면서 철거되었다. 최근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되었다.

관아의 중심 건물인 동헌과 내아로 추정되는 건물지는 국도 38호선 길 건너편에 있다. 남향을 주축으로 하는 중심 건물과 회랑 등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등이 발굴되었으나 정확한 위치 비정은 아직이다. 최만희의 『진주지(眞州誌)』에 따르면, 삼척 관아는 1685년(숙종 11) 향청의 옛터로 이전하였으며, 1730년(영조 6)에는 다시 동헌의 옛터로 이전하고, 1766년(영조 42)에는 다시 이전하는 등 여러 차례의 이건 기록이 있는데, 발굴조사에 나온 여러 시기에 걸친 중첩된 유구가 그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죽서루 앞마당의 남쪽,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민가들이 들어섰던 곳인데, 이곳의 발굴을 통해 고려시기와 조선시대의 여러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관아의 부속 건물로 생각된다. 이 구역에서, 역시 허목이 『척주지』에서 언급한 절벽 위 세 누정 가운데 하나인 연근당(燕謹堂)의 유구라고 추정되는 건물지도 발굴되었다.

죽서루는 이들 관아 및 객사가 군집한 관아지의 서편 오십천의 절벽 위에 있다. 오십천은 삼척시와 태백시의 경계인 백병산(白屏山, 1,259m)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도계읍 삼포리에서 북동동으로 흐르며 삼척시 마평동에서 동쪽으로 꺾여 동해로 빠져드는 길이 48.8km의 하천이다. 급한 경사가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면서 구비가 많고 절벽도 많은 다양한 지형을 보여준다. 죽서루가 위치한 지형은 오십천이 거의 끝나 바

다로 들어가기 전 삼척 시내를 관통하는 초입에 해당한다. 오십천은 원래 죽서루를 지나 다시 한번 북쪽으로 크게 만입하여 휘돌아나가는 형상이었으나, 1960년대에 진행된 남산 절단 공사로 흐름이 직선화되고, 원래 강이 흐르던 물길과 강이 돌아가는 길 안쪽의 땅은 매워져서 시가지로 개발되었다.

죽서루가 위치한 자리는 오십천이 크게 휘돌아가면서 만든 수직의 절벽 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강심은 깊고, 반대편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강 건너편에 모래밭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의 높은 산과 동쪽의 바다, 그리고 누정 앞을 흐르는 강과 절벽과 모래사장이 만드는 경치는 일찍부터 이름을 얻어서, 관동 팔경의 하나로 불리었다.

관동 팔경은 1군 1경의 원칙에 따라 북쪽으로부터, 통천의 총석정, 고성 삼일포, 간성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평해 월송정 등이다. 이 가운데 해변이 아닌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변에 위치한 것은 삼척 죽서루가 유일하며, 객사 부속의 관영 누정으로 사용된 것도, 관동 팔경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죽서루가 유일하다.

마수 허목은 「죽서루기」에서 관동의 여러 누정들이 모두 바닷가에 있는데 반하여, 죽서루는 바다와 떨어져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는 강가의 가파른 절벽 위에 있어서 그 경관이 관동 제일이라 하였고, 1710년(숙종 36) 부사 이성조(李聖祚)는 ‘關東第一樓’라는 편액을 써 걸었다.



그림 3 오십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죽서루. 왼쪽에 객사가 보인다. (2023.03.24. 촬영)

부사를 지낸 허목 뿐 아니라, 숙종과 정조 등의 두 임금, 이승휴, 율곡 이이, 송강 정철 등 이름난 문사들의 시문,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등의 그림 등 최고의 시서화가들의 작품 대상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예부터 죽서루를 그림 그림들은 오십천 건너편에서 절벽과 오십천을 한 화면에 담은 장면을 주로 그렸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죽서팔경이나 시문들에서는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건너편의 경관을 주로 노래하였다. 이외에도 죽서루에는 많은 현판과 기문의 편액들이 전하고, 죽서루가 자리한 자연 암반의 여기저기에는 ‘琴石’, ‘石壇濃陰’, ‘錦繡壁’, ‘射壇’, ‘觀德之所’, ‘眞珠壁’, ‘舞雩臺’, ‘老松亭’, ‘魯山松竹’, ‘龍門(또는 巖門)’, ‘凝壁潭’, ‘凝壁潭’, ‘第一壁’, ‘武夷九曲’, ‘朴灘의 시’ 등 많은 각자가 남아 있다.

이처럼 죽서루는 삼척 관아 읍치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 공간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경승지로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명소로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1962년 ‘삼척 죽서루’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2007년에는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이 명승 제28호로 지정되고, 2010년부터 시작된 5차례의 발굴조사의 결과 관아지의 유적을 확인하면서 2021년에는 ‘삼척도호부 관아지’가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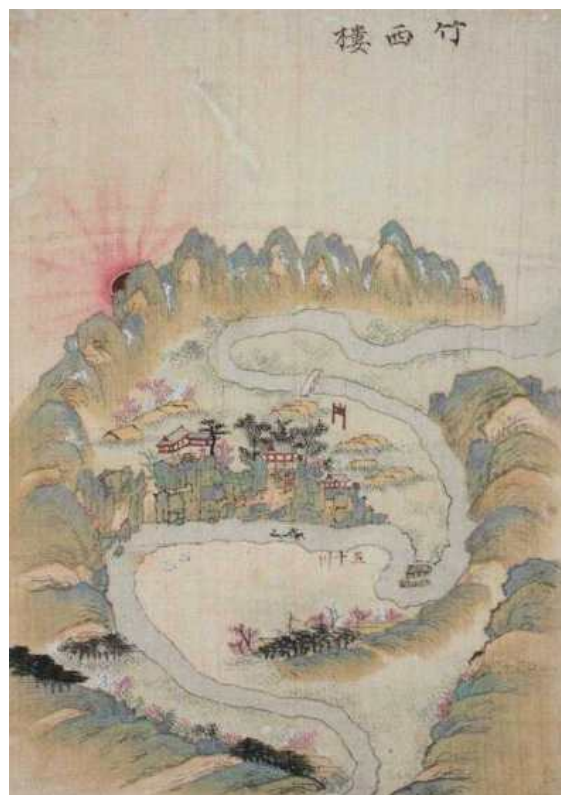


그림 4 「죽서루도」 『관동십경첩』, 서울대 규장각 소장 (『신청자료』에서 전재)

2. 연혁

12세기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의 시 두 편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있어, 이미 고려시대에도 누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편, 죽서루에는 1253년(고려 고종 40) 홀어머니를 뵈러 삼척에 왔다가 몽고의 침략을 만나 두타산 구동(頭陀山 龜洞)에 들어가 용안당(容安堂)을 짓고 10년 넘게 은거하며 『제왕운기』를 지었다는 이승휴(李承休, 1224-1300)와 관련된 고사와 함께, 그가 지었다고 전하는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俟)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라는 시가 남아있다. 다만 이때는 죽서루가 아니라 진주부(眞州府) 서루(西樓), 즉 삼척객사의 서루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서루(西樓)라고 칭한 시는 안축(安軸, 1282-1348)이 지은 「三陟西樓夜坐」도 있다. 죽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공민왕과 우왕 대에 활동하였던 이구(李玖)의 시 「趙副令出按關東記關東隱君子」이 처음이며, 이 시구 중에 “삼척의 관루(官樓)는 ‘竹西’”라고 분명히 하였다.

종합하면, 고려시대 삼척의 관영 누정은 12세기에 이미 있었으며, 처음에는 단지 객사의 서루, 혹은 삼척의 서루로 불리다가, 14세기 후반에 들어서 죽서루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찬의 기록에서 죽서루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 최초의 관찬 지리지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이다. 여기서, 죽서루는 읍성 안에 있으며, ‘죽서 8경’을 소개하는 정도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옮기자면, “죽서루는 객관의 서쪽에 있다. 절벽이 천 길에 이르고 기암이 뿔뿔이 늘어선 위에 날듯이 누를 만들었는데, 죽서루라 한다. 아래론 오십천에 면했고, 냇물이 휘돌아가면서 못을 만들었는데, 물이 매우 맑아 햇빛이 밑바닥까지 닿고, 헤엄치는 물고기도 날날이 헤아릴 수 있다. 영동의 절경이다”고 묘사하고, 고려시대의 정추(鄭樞, 1333-1382)와 김극기(金克己), 조선시대의 안성(安省, 1344-1421)의 시를 소개하고, 홍귀달(洪貴達, 1438-1504), 이육(李陸, 1438-1498), 정수강(丁壽崗, 1454-1527) 등의 시를 증보하였다. 이로써, 이미 세종 연간에는 죽서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죽서루의 창건 연대에 대해선, 조선 세종대에서부터 성종대에 걸쳐 활동한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문집인 『식우집(拭疣集)』에 실려 있는 「竹西樓丹青記」에 기록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죽서루는 영락(永樂) 계미(癸未) 즉,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같은 내용이, 역시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許穆, 1595~1682)의 시

문집인 『記言』(1689)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책 「棟宇」조에 실려 있는 「竹西樓記」에는, “官府故事, 樓不知作於何代, 而至皇明永樂元年, 府使金孝孫, 修廢墟起此樓”라고 하여, 누를 처음 지은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영락 원년 즉, 1403년(태종 3)에 부사 김효손이 폐허 위에 새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글에서 죽서루의 명칭에 대하여, 누 아래에 죽장사(竹穢寺)라고 절이 있었는데, 그 서쪽에 있는 누라고 하여 죽서루라 이름 붙였다고 하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창건을 비롯한 죽서루의 연혁에 관한 내용이 그가 편찬한 『척주지(陟州誌)』와 1662년(헌종 3)에 써서 달은 「죽서루기(竹西樓記)」 현판에도 반복되어 실려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이 옛터에 누를 만들고(作此樓), 1425년(세종 7) 부사 조관(趙貫, 1383-?)이 단청하고, 1471년(성종 2) 부사 양찬(梁瓚, 1443-1496)이 중수하였으며, 1530년(중종 25)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였고, 그 61년 후 1591년(선조 24) 부사 정유청(鄭惟淸, 1534-1598)이 다시 중수하였다.

이로써,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부터 누정이 있던 터에,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에 의하여 처음 죽서루란 이름의 관영 누정이 지어졌으며, 1530년(중종 25)에 남쪽 처마를 증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척주지(陟州誌)』의 전통은 1848년(헌종 14) 김종언(金宗彦, 1818-1888)의 『척주지』로 이어지는데, 김종언은 허목의 『척주지』의 편재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 표기하여 추가하는 등 허목의 책에 대한 속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樓亭條」를 신설하여 죽서루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긴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을 보면, 1726년(영조 2) 부사 최도문(崔道文, 1676-1729)이 중창하고, 그 후 부사 조재연(趙載淵)이 개조(改造)하고, 1788년(정조 12) 부사 서탁수(徐琢修, 1735-1794)가 뒤쪽 처마를 증축하고 【增作後檐】, 그 다음해인 기유년(1789)에 부사 김성규(金聖規)가 서울에서 화공 이대근(李大根)을 초빙하여 단청하였다고 한다.²⁾

여기서 특별히 ‘중창’과 ‘개조’와 ‘증작후첨’의 구절이 눈에 띄는데, 중창(重創)과 중수(重修)가 다분히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상황은 이미 여러 상량 기문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즉, 기둥부터 전부를 새로 세우다시피 한 것을 중수라 하기도 하는 한편, 겨우 서까래 이상의 지붕을 고쳐 지은 것을 중창이라고도 하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두 단어가 사용된다. 한편 개조라는 표현은 드문데, 형태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

2) (附)英廟丙午 府使崔道文 重創 竹西樓 其後 府使趙載淵 改造 正廟 府使徐琢修 增作後檐 後己酉 府使金聖規 超京畫工 李大根 丹青 (삼척시립박물관, 국역 척주지, 2001, 원문판. (김왕직, ‘삼척 죽서루의 건축사적 고찰’ 『신청자료』 소수,에서 재인용)

같은데, 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이, ‘증작후침’으로, 이는 앞선 『척주지』에서 ‘증작남침’이라 한 것과 짝을 이루어, 이제는 북쪽 부분을 증축한 것이 아닐까는 짐작을 하게 한다.

이후 1870년 부사 서증보(徐曾輔, 1813-?, 1844년 증광시)가 개수하고, 1898년 군수 이구영(李龜榮)이 중수 및 단청을 하였다.

해방 이후로도 여러 차례 중수와 개와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982년 대대적인 개수 및 변화작업이 있었고, 1998-9년에 걸쳐 실측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다섯 차례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8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비공사가 뒤따랐다. 가장 최근의 공사는 2021년의 외부 단청 공사와 난간 및 마루 정비사업이었다.

3. 건축적 특징

죽서루는 오십천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자연 암반 위에, 원 지형을 그대로 두고 그 윗면을 조금 다듬어 기둥을 세운 팔작의 다락집으로서, 전체 규모는 정면은 7칸이고, 측면은 남측면(향좌측)은 3칸, 북측면(향우측)은 2칸으로 서로 다른 구성을 갖는다. 게다가 가운데 5칸의 보칸 치수와 양측 단부에 있는 마지막 칸의 보방향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기둥머리를 연결하는 창방도 가운데 5칸에만 있고 좌우단의 증축한 부분에는 없다. 기둥의 구성도 가운데 5칸은 누하주와 누상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양측벽은 암반 위에 선 기둥 한 층으로 그치고, 공포의 형식도 달라서, 이 건물은 일찍부터 가운데 5칸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양단의 두 칸은 시차를 두고 후대에 따로 증축되었다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시기의 증축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측면의 칸수가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칸의 총 크기가 6,540mm 즉, 22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고, 이에 따라 상부 가구의 짜임 역시 둘레 기둥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고, 대공을 올려 중도리를 받치는 5량가의 간단한 규모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측면처럼 측면 2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측의 두 번째 칸, 즉 북측으로 한 칸이 증축되기 이전에는 측면 마구리였을 자리도 측면 중앙에 기둥을 두어 보칸을 2칸으로 구획하였다. 이것이 원래 건물의 측면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측면을 3칸으로 한 것이 상례를 벗어난 특별한 처리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는 남측면이 주 출입구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진입 정면에 중심성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3칸으로 나누어 가운데 정칸과 양측의 협칸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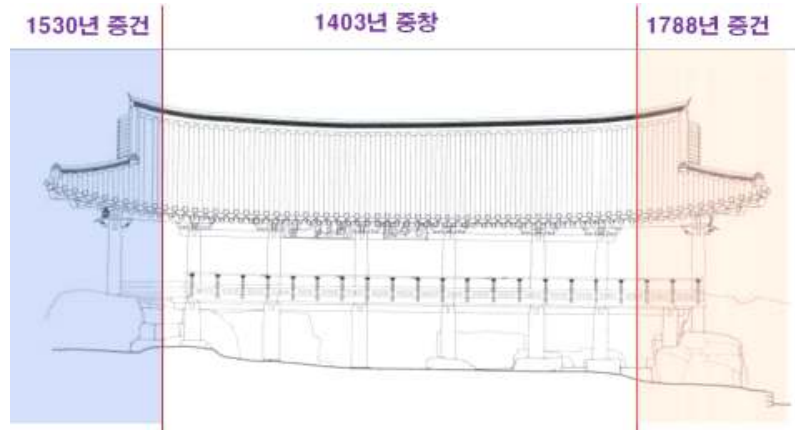


그림 5 죽서루의 증축 과정. 동편 마당에서 본 입면으로, 왼쪽이 남측, 오른쪽이 북측이 된다. (『신정자료』에서 전재)

게다가 그 증축한 남측 한 칸은 바닥에 마루를 깔지 않고, 자연의 암반을 그대로 둔 채로 출입을 돕기 위해 가운데 한칸 부분만 고르게 다듬은 돌을 깔았다. 1530년이라고 추정되는 증축의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는 아직 누를 오를 때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기존의 암반의 높이가 누의 마루높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또 주된 용도가 출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마루를 깔지 않고 바닥의 레벨을 조정하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마루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마루 공간과 같은 계자각 난간을 두지 않았고, 다만 절벽에 면한 서측 면의 기둥 사이에 중방을 2본 가로질러 낙하 위험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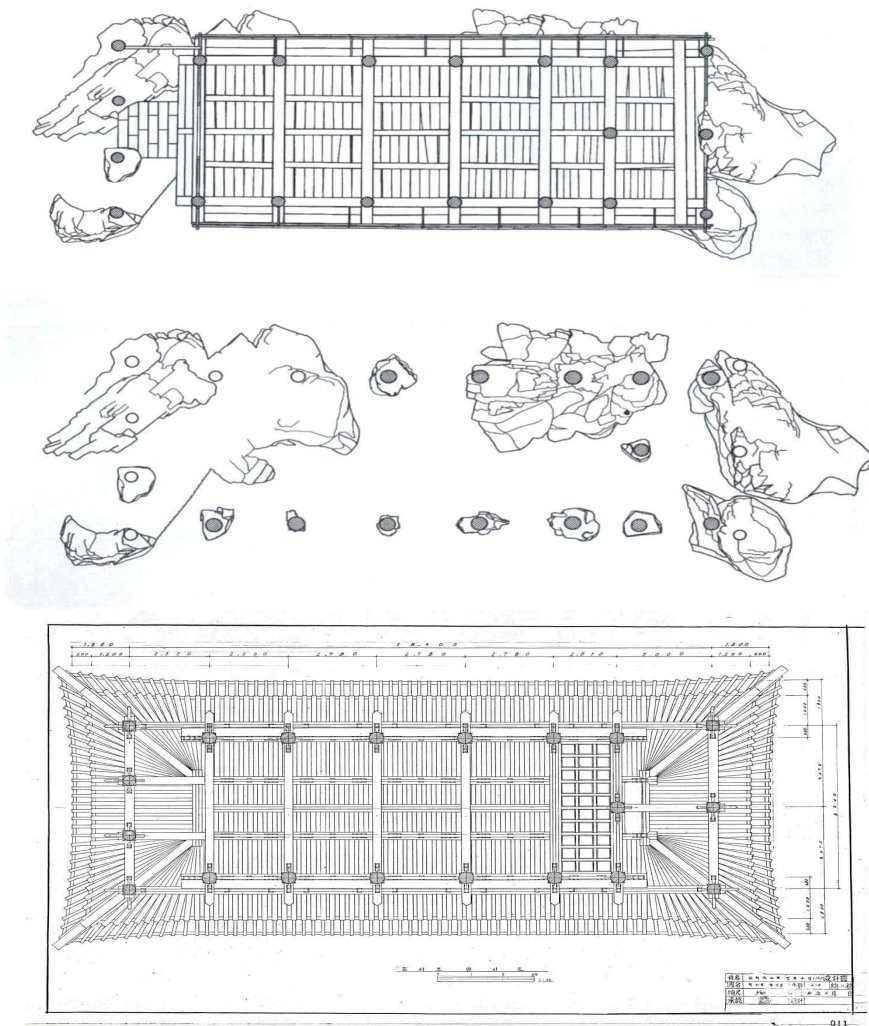


그림 6 죽서루의 누상층, 누하층 평면도 및 지붕 양시도 (『신청자료』에서 전제)

한편, 북측 마지막 칸은 이와 사뭇 다른데, 마지막 칸에도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가운데 기둥 좌우로 약 1m씩은 출입을 위해 비워놓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삼면을 둘러 가며 모두 계자각 난간을 두었다. 즉 이 공간 역시 자연 암반이 부분적으로 마루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서 진출입할 수 있지만, 그 출입은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실내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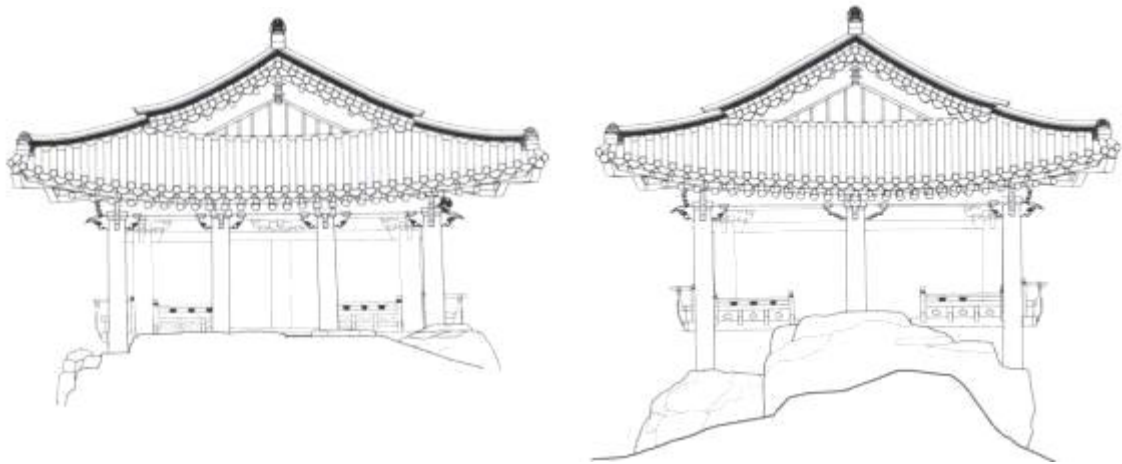


그림 7 죽서루의 남측과 북측 입면 (『신정자료』에서 전재)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측에서 두 번째 칸에만 천장을 가설하고 우물반자를 짜 넣었다는 점이다. 팔작지붕의 합각부를 가리기 위한 눈썹천장은 마지막 칸에 따로 있다. 이것은 이 공간이 죽서루 내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 즉, 상석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남측 단부에 있는 땅바닥으로 된 첫 번째 칸이 주 출입구로 사용된다면, 이곳은 출입하면서 대청을 건너 그 맞은편으로 바로 바라보이는 정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칸 뒤로 있는 마지막 칸, 즉 1788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증축된 칸은 상석의 기능을 보좌하는 배면의 부속 공간 겸 주인의 출입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전술하였다시피, 천장이 있는 칸의 북측에는 죽서루에서 유일하게 내주가 사용되었다. 이 내주의 사용에 대해서는, 옛 그림에서 그 존재가 엿보이는 방이 이 부분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은 천장에 우물반자를 사용한 점 외에도, 보방향으로 상인방이 있는 점에서도 보장된다. 이 상인방은 벽체나 문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원래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던 구조를, 남측은 한 칸 증축하면서 가운데 기둥을 없애는 대신, 단부를 3칸으로 구획하여 중심성을 갖는 주 출입구로 삼았고, 그보다 후에 북측은 기존 기둥을 그대로 둔 채로 한 칸을 덧붙여, 상석을 보완하고 부속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의 과정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먼저, 원래의 건물이었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5칸 부분은 양단부에 비하여 보방향의 전체 치수가 작다. 구체적으로, 가운데 5칸의 경우 보방향 칸치수가 2,790mm씩 2칸 해서 5,580mm이고, 양측 단부의 증축된 부분은 보방향의 칸치수가 전체 6,540mm여서 960mm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심열이 일치하지 않고, 창방도, 주심도리도 한 줄로

쪽 이어서 놓을 수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방은 가운데 5칸의 기둥 사이에만 있고, 양단부의 주심도리는 가운데 5칸의 출목도리와 같은 선에 놓인다. 양 단부의 주심도리 장여가 그대로 연장되어 가운데 5칸의 외출목 첨차가 되는 이상한 결구법이 만들어졌다. (그림 8. 참조) 남북측이 후대에 증축되었다는 『신청자료』의 내용을 따른다면, 남측 단부를 증축할 때, 측면을 3칸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외출목선에 맞추어 주칸을 조금 키운 것이라는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측 단부만 증축되어 측면을 3칸으로 만들고, 북측면은 아직 원 건물의 작은 치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지붕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즉, 북측 단부는 아직 증축하지 않은 채로, 측면 2칸으로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는 원래의 지붕 형식으로 추정되는 맞배지붕이었을지, 아니면 이때 이미 현황과 같이 팔작지붕으로 고쳤을지, 혹은 한쪽은 맞배로 다른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하였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측면 2칸의 경우에도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보칸 치수 3,700mm) 처럼 작은 치수로도 팔작지붕을 올린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 남측면을 3칸으로 만들면서 지붕을 팔작지붕에 맞추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림 8 좌우 측 마지막 칸의 기둥 구성 (2023.03.24. 촬영)

또 하나 어색한 점은, 도리칸으로도 주칸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편의상 남측(향좌측)으로부터 제1칸, 제2칸, 제3칸,... 으로 순서를 매겨서 표기하면, 도리칸의 치수는 제1칸(증축한 칸)이 2,550mm, 제2칸이 2,500mm, 제3칸과 제4칸, 제5칸은 모두 2,780mm이고, 제6칸(원 건물의 마지막 칸)은 2,010mm, 그리고 후대에 증축한 마지막 칸인 제7칸

이 3,000mm 이다.³⁾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원 건물의 도리칸 치수는 가운데 놓인 세 칸(제 3, 4, 5칸)을 9자에 맞추어 2,780mm으로 하고, 그 양쪽 단부(제 2, 6칸)를 조금 치수를 줄여 8자에 맞춘 2,500mm으로 할 것 같은데, 제6칸의 치수가 너무 작고, 대신 제7칸의 치수가 커졌다.

그런데, 제1칸과 제2칸을 합한 치수가 5,050mm, 제6칸과 제7칸을 합한 치수가 5,010mm로 거의 같다는 점에 착안하면, 북측을 증축하면서, 원래 있던 마지막 칸의 치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증축한 부분의 치수를 조금 더 키워서 좌우의 균형을 맞춘 것은 아닐까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북측 마지막 두 칸의 치수 조정이 혹시 팔작지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즉, 제7칸의 전후 두 칸을 최대한 정방형에 맞추어 짜서 추녀를 받기 쉽게 하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도리칸의 칸 치수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사실을 가지고 지붕의 형태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므로,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렇지만, 죽서루의 팔작지붕을 받치는 축부의 구성이 좀 어색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림 9 좌우측 마지막 칸의 상부 가구 구성 (2023.03.24. 촬영)

남측에서는 측면에 두 개의 기둥이 있으므로 두 개의 층량이 사용되었지만, 이 두 개의 층량은 제2칸의 대들보 측면에 꽂혀 있고, 그 위의 왕지로 짜인 외기도리를 받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는 층량이 하나밖에 없는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층량은 외기도리와 무관하게 축부의 강성을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그림 9. 참조)

대신 중도리와 왕지로 짜인 외기도리는 대들보 위에 놓인 두 개의 동자주가 온전히 받

3) 이 수치는 『신청자료』에 있는 양시도 치수를 읽은 것이다. 한편, 같은 자료의 다른 곳(김종기 토론문)에서는, 각 치수를, 2,464mm, 2,464mm, 2,772mm, 2,772mm, 2,772mm, 2,002mm, 2,926mm 로 적고 있다. 조금 차이는 있으나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이 수치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김종기 교수도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치고 있다. 이 동자주는 보방향으로 소침차와 대침차를 두고 그 위에서 보를 받쳤고, 도리 방향으로는 소, 중, 대의 3중으로 침차를 받쳐서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는 포 모양의 동자주이다. 이때 도리 방향의 3출목에 사용된 대침차가 충분히 커서 그 상단부의 소로가 바로 왕지를 받치고 있다. 그러므로 죽서루 팔작지붕의 합각부의 주된 하중은 결국 중량의 도움 없이, 대들보가 거의 온전히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기둥 배열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제7칸에서 누상주와는 별도로 2개의 누하주가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이다. 제1칸에서는 마루를 깔지 않았으므로 아예 누하주가 없다. 제7칸에 사용된 두 개의 누하주는 가운데 5칸의 누하주와 나란하여 같은 보방향의 쪽을 가지고, 다만 도리 방향으로만 측면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선 자리에 있다. 이러한 누하주의 배치가 그 자리에 있는 자연 암반의 울퉁불퉁한 굴곡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연 암반의 울퉁불퉁함이 비단 이 두 개의 기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형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상면에서는 이 누하주에 맞추어서 우물마루의 장귀틀과 동귀틀이 짜인다. 즉, 우물마루의 하중을 이 누하주가 받치고 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북측면 기둥이 있는 자리까지는 좀 더 간단히 장마루를 깔고 계자각 난간으로 막았다. 이것은 가운데 5칸 부분에서 앞뒷면의 기둥 바깥을 처리한 것과 같은 수법이다. 즉, 기둥 바깥의 현함(軒檻)과 같이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북측면의 누하주 역시 증축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쪽 칸의 증축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중수 과정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이처럼 증축한 양측면부는 구조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운데 5칸 부분과 다르고, 또 서로 차이를 갖는다. 이것이 여러 시기에 걸친 증축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된 세심한 고려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일부러라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가구 구법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여러 시기에 걸친 증축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는 매우 정밀하게 계획된 공간 사용 의도를 반영한 종합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서루가 여러 시기에 걸쳐 증축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기둥머리에 사용된 공포의 형식에서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죽서루에는 주심포식과 익공식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공포가 사용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들 각각 위치와 초각 등에서 차이를 갖는 세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심포식 공포는, 주두 아래에서 초제공이 있고, 주두 위에 이제공이 있는 2출목 공포라고 할 수 있으나,⁴⁾ 도리방향으로는 일출목에는 침차를 두지 않고, 2출목 소로 위

에 행공침차를 두었을 뿐이다. 즉, 바깥쪽의 공포 구성으로만 보면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릉 임영관 대문, 영암 도갑사 해탈문과 같은 헛침차 계열의 주심포식 공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서루에선 내부에도 똑같이 2개의 제공침차가 사용되며, 다만 내부로는 침차를 사용하지 않고, 초제공 침차의 단부를 이중 교두형으로 가공한 점 등에서 바깥쪽과 차이를 갖는다.

주심 침차의 크기를 외2출목에 있는 행공침차와 같은 규격의 것을 사용하였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창방 위에서 따로 소로를 두어서 주심침차 양 팔의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다. 주심 대침차는 통침차를 사용하였다. 초제공과 이제공 사이에 공간을 뚫어놓은 것과 그 사이를 매꾼 것이 섞여 있다. 이들 제공과 침차는 모두 창방과 같은 수장 쪽으로 가공한 것도 특징이다. 2제공 위에서는 삼분두 형식으로 가공한 보뿔목을 받치고 있는데, 폭을 줄이지 않고 대들보의 폭으로 그대로 내밀었고, 외 출목 도리 장여 하단에 맞추어 순각판을 달았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공포 형식이며,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의 주심포 및 다포계 공포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이 뒤섞여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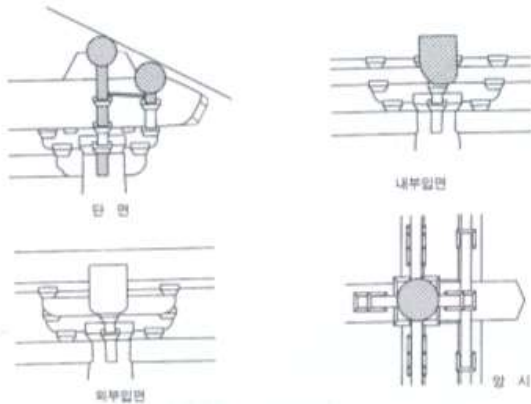


그림 10 동측면의 포작 (『신청자료』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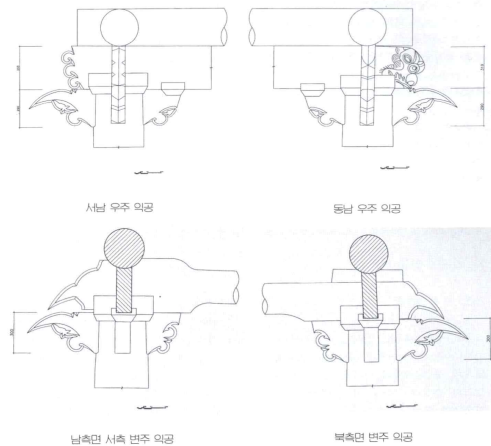


그림 11 남동측과 남서측 우주(위)와 남측과 북측의 변주(아래)의 익공 (『신청자료』에서 전재)

좌우측의 증축된 부분에서 사용된 익공식 공포는 초가지가 위쪽에서 아래로 둥글게 내려가는 수서형의 짧은 초가지 아래에 연봉을 가지고 있는 소박한 것으로 가공하고, 그 위에 놓이는 부재의 초각은 변주 익공과 우주 익공에서 서로 다르게 하였다. 일반적인 변주 위에서는 익공 위에 보(충량)이 없었는데, 그 끝을 마치 익공의 초가지 모양으로 초각하였고, 모퉁이에 있는 우주 위에서는 좌우 도리의 장여가 익공 위에 없었는데, 그

4) 주두 아래에 있는 초제공의 소로가 주두 위에 있는 2제공의 소로만큼 튀어나가지 못하고, 따로 침차를 가지지 못하니, 1출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길이가 다른 제공 2개가 사용되었고, 주심에서 튀어나간 소로의 위치도 2곳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2출목이라고 한다.

끝을 3개의 고리 모양으로 초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서측 우주 위에서만, 장여 끝에 황룡과 청룡의 조각을 달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기둥이 주 출입 동선에 접해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장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경주향교 대성전과 동무의 공포 (2020.09.08. 촬영)

이렇게 짧고 아래로 흰 초가지를 가진 익공은 경주 향교의 동서무(1604년 중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데, 세부 형태는 다르다. 또 죽서루의 가운데 부분에 사용된 주심포식 공포는 경주향교 대성전(1602년 중건)의 것과 제공의 초가지는 다르지만, 짜임은 유사하다. 아무튼 익공 역시 현 단계에서는 그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대개 16세기가 되면 초기적인 익공 양식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구성 자체가 단순하고 또 다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초각을 하고 있어서이다.

대들보와 종보는 모두 모를 죽인 장방형 단면의 부재를 사용하였고, 대들보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 그리고 뜯장여가 서로 직교하는 포 모양의 동자주를 놓고 종보와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양 측면 단부에서는 도리방향의 침와 장여 뿔목을 이용하여 외기도리의 왕지를 받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였다. 종보 위에서는 가운데가 볼록한 화반형의 판대공을 놓고 중도리 장여를 받치고 있다.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부 객사 진주관에 딸린 관영 누정이다. 주소지는 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44(성내동 9-3번지)이다. 죽서루가 자리한 곳은 객사와 관아 등이 모여있는 삼척의 중심부로, 죽서루는 이들 가운데 가장 서쪽 오십천변의 절벽가 자연 암반 위에 서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작 다락집으로서, 가운데 5칸을 먼저 짓고 그 후 양 끝으로 한 칸씩 더 늘려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가운데 5칸과 양단부의 두 칸은 기둥의 배열, 상부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차이를 갖는

다.

원래의 5칸 건물은 조선 개국초인 1403년(태종 3)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 고려시 대에도 이미 이 장소에는 ‘서루’라고 통칭되는 누정이 있었던 것을 시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남측의 한 칸이 증설된 것은 1530년(중종 25)의 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지만, 조선 중기 양란의 위협을 잘 넘겼으며, 1788년(정조 12)에 가서 북측으로도 한 칸이 증축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의 증축된 칸은 측면 3칸의 구성을 가지며, 바닥은 자연의 암반을 살린 채로 가운데 칸 앞에만 다듬은 돌을 깔아 출입에 이용토록 하였고, 북측의 증축된 칸은 원 건물과 같이 두 칸으로 처리하였다.

죽서루의 건축적 가치는, 자연 암반의 원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큰 루를 놓은 친자연적인 수법이 한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1403년과 1530년, 그리고 1788년이라고 하는 세 시기에 걸친 건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적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임진왜란 이전의 건축적 기법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고, 객사 및 관아터와 함께 조선시대 지방 읍성 내의 관영건축군의 구성을 보여주고, 관동지역의 누정 가운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면서 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영 누정이자 지역 명소로서 죽서루의 가치는 좁은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가치에 가둘 수 없고, 죽서루가 자리한 주변 장소가 갖는 가치, 그리고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인문적 활동의 가치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오십천변의 절벽이 만들어내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합하여 이룬 아름다운 경치는 그 자체로 이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숙종과 정조 두 명의 임금의 임금을 비롯하여 송강 정처, 미수 허목,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 등을 비롯하여 당대 최고 수준의 명사들이 두루 이곳의 경관을 대상으로 시와 그림과 기문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바위들에도 많은 각자를 남기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삼척 죽서루는 국보로 승격지정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죽서루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특별하게 중요한 주변 경관의 유지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를 위하여,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의 25동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관리번호 | 명칭 | 지정일자 | 건축 시기 | 유형 |
|------|-------------------|------------|----------|-------|
| 1 | 서울 숭례문 | 1962.12.20 | 1448년 중수 | 도성 문 |
| 13 | 강진 무위사 극락전 | | 1476년 | 불교 전각 |
| 14 | 영천 거조사 영산전 | | 1375년 | 불교 전각 |
| 15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 14세기 중수 | 불교 전각 |
| 18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 1376년 중건 | 불교 전각 |
| 19 | 영주 부석사 조사당 | | 1377년 | 불교 전각 |
| 49 | 예산 수덕사 대웅전 | | 1308년 | 불교 전각 |
| 50 | 영암 도갑사 해탈문 | | 1473년 | 불교 문 |
| 51 | 강릉 임영관 삼문 | | 14세기 | 관영 문 |
| 52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 1622년 중수 | 불교 전각 |
| 55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 1626년 중창 | 불교 전각 |
| 56 | 순천 송광사 국사전 | | 1501년 | 불교 전각 |
| 62 | 김제 금산사 미륵전 | | 1635년 | 불교 전각 |
| 67 | 구례 화엄사 각황전 | | 1702년 | 불교 전각 |
| 223 | 경복궁 근정전 | 1985.01.08 | 1867년 중건 | 궁궐 전각 |
| 224 | 경복궁 경회루 | | 1867년 중건 | 궁궐 루각 |
| 225 | 창덕궁 인정전 | | 1804년 중건 | 궁궐 전각 |
| 226 | 창경궁 명정전 | | 1616년 중건 | 궁궐 전각 |
| 227 | 종묘 정전 | | 1608년 중건 | 불교 전각 |
| 290 |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 1997.01.01 | 1645년 중건 | 불교 전각 |
| 304 | 여수 진남관 | 2001.04.17 | 1718년 중창 | 관영 루각 |
| 305 | 통영 세병관 | 2002.10.14 | 1605년 | 관영 루각 |
| 311 | 안동 봉정사 대웅전 | 2009.06.30 | 1435년 중창 | 불교 전각 |
| 316 | 완주 화암사 극락전 | 2011.11.28 | 1605년 중건 | 불교 전각 |
| 328 |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 2019.12.02 | 1655년 중수 | 불교 전각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죽서루 건물의 전체 구성과 축부 구성 및 상부 가구 및 지붕틀 전체 공포의 세부
- 죽서루가 서 있는 자연 암반과 주변의 지형
- 죽서루에서 보이는 오십천과 주변의 경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24. |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건축 |
| | 소 속 | ○○○○○○○학교 | 직위(직책) | 부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삼척 죽서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죽서루길 37에 있는 누각으로 태백산에서 발원한 오십천(五十川)이 동북쪽으로 흘러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하류 지점의 동쪽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누정(樓亭)조에 이르길, “죽서루는 객관 서쪽에 있는데, 절벽이 천 길이고 기암이 층층 섰다. 그 위에 날아갈 듯한 누각을 지어 죽서루라 했다고 한다. 아래로 오십천에 임했는데, 냇물이 흘러 모여 깊은 못을 이루었다. 물이 맑아 바닥까지 환하고, 햇빛이 아래로 비친다. 헤엄치는 물고기도 날날이 헤아릴 수 있으니, 영동의 절경이다. (竹西樓, 在客館西. 絕壁千仞, 奇巖叢列. 其上架飛樓, 曰竹西. 下臨五十川, 川匯爲潭. 水清徹底, 日光下透. 游魚歷歷可數, 爲嶺東絕景.)”라고 하여, 죽서루와 오십천의 경관적 장점을 기록했다.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 관아 건물 중 홀로 남아 있었으나, 주변 유적의 발굴 결과 객사인 진주관과 그 주변 시설들이 확인되어 관영 건축의 일부로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삼척 죽서루 일대의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수혈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관아 건물지와 석성 등이 확인되어, 이곳이 매우 오래 전부터 삼척 지역의 주요한 터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947년(정종 2)에는 삼척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에 이것이 토성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삼척 읍성이 삼면이 석성이고 둘레가 2,054척, 높이가 4척이며, 서편 성벽 431척은 절벽을 이용했다고 하여, 16세기 초에 다시 석성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는 석성을 쌓지 않은 서쪽 절벽의 천혜의 요새 위에 자리 잡았다. 삼척도호부의 객사는 원래 죽서루 아래에 있었는데 1518년(중종 13)에 부사 남순종(南順宗)이 북쪽으로 옮겨 짓고 진주관(眞珠館)이라 했다. 진주관은 정청이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동·서 익헌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었던 것을 나중에 정면 3칸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내삼문과 동서 익랑, 외삼문과 담장을 갖추고 있었고, 주위에 응벽헌과 죽서루 등 부속 시설이 있었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예전부터 널리 알려졌다. 관동팔경은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 간성(杆城)의 청간정(淸澗亭),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 삼척(三陟)의 죽서루(竹西樓), 울진(蔚珍) 망양정(望洋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을 가리키며, 때로 흙곡(歙谷)의 시중대(侍中臺)와 고성(高城)의 해산정(海山亭) 두 곳을 포함하여 관동십경(關東十景)으로 묶기도 한다. 관동팔경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유래하는데, 소상팔경은 중

국 호남성 장사현 영릉군(湖南省 長沙縣 零陵郡) 부근에서 소강과 상강이 만나는 지점의 여덟 경치로서, 팔경이 처음으로 그림과 시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팔경(八景) 개념은 고려 시대에 유입되었다. 고려 명종(明宗, 재위 1170~1197)이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을 주제로 시를 읊게 하고, 이녕(李寧)의 아들인 이광필(李光弼)에게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김극기(金克己, 1150?~1204?)의 「강릉팔경시(江陵八景詩)」를 필두로 고려 말 신홍사대부 계층에 의해 자신의 고향이나 부임지, 유배지 등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팔경시가 창작되었다. 이러한 팔경시들은 조선 초기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에 의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었으며, 서거정 자신도 27편의 팔경시 중 12편을 지은 작가이다.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은 죽서루를 단일한 대상으로 삼아 여덟 경치를 읊은 시로서, 팔경을 시로 읊은 초기의 작품 중 하나이다. 근재 안축(謹齋 安軸, 1282~1348), 가정 이곡(稼亭 李穀, 1298~1351), 제정 이달충(霽亭 李達衷, 1309년~1385)이 반복적으로 「삼척서루팔영」을 지었으며, 조선시대에 서거정도 차운하여 팔영시를 남겼다. 삼척 죽서루의 팔경은 죽장고사(竹藏古寺), 암공청담(巖控淸潭), 의산촌사(依山村舍), 와수목교(臥水木橋), 우배목동(牛背牧童), 농두업부(壟頭媿婦), 임류수어(臨流數魚), 격장호승(隔牆呼僧)이다. 이후 이름난 문인이나 관료들이 죽서루에 들러 기행을 남기는 전통이 생겼다. 근재 안축의 『관동와주(關東瓦注)』에는 경기체가 형식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이 수록되었고, 1553년 치재 홍인우(耻齋 洪仁祐, 1515~1554)가 일기체 형식의 「관동일록(關東日錄)」을 남겼으며, 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은 가사문학의 대표작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18세기에 금강산과 관동팔경이 가장 인기 있는 유람지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많은 기행이 창작되었다. 양양 낙산사가 사찰로서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소통했던 교류 공간이었다면, 삼척 죽서루는 관아에 딸린 누각으로 사대부들의 문학 창작의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조는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에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비롯한 영동지방 절경을 그려오도록 했다. 1788년에 그린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에서 삼척 죽서루는 어명에 따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함께 금강산을 유람했던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은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에서 삼척 죽서루를 전형적인 문인화의 기법으로 표현했다. 정조는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감흥을 얻어 칠언절구로 시를 지었다. 정조의 시에는 자신이 직접 죽서루에 가서 오십천 응벽담에서 뱃놀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남종문인화풍이 강하게 드러나는 연객 허필(烟客 許佖, 1709~1761)과 관호 엄치욱(觀湖 嚴致郁, 19세기)의 죽서루 그림이 유명하다.

2. 연혁 · 유래 및 특징

(1) 삼척 죽서루의 건축 연혁

현 삼척 죽서루 건축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식우 김수온(拭疣 金守溫, 1410-1481)이 지은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青記)」(1472)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죽서루는 영락(永樂) 계미(癸未)년인 1403년에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로 창건(因舊址而創之)’하였다고 한다. 김효손은 1402년부터 1404년까지 척주 부사를 지냈으며, 이때 죽서루를 창건하는 등 삼척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후 부사 조관(趙貫)이 1425년에 단청을 했고, 남포 양찬(蘭浦 梁瓚, 1443~1496)이 1471년에 단청을 새로 고쳤다. 죽서루 남쪽의 연근당(燕謹堂)은 원래 계해(癸亥, 1443)년에 부사 민소생(閔紹生, 1441~1444 삼척부사 재임)이 지은 것인데, 양찬이 여력이 있어서 단청을 함께 새로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죽서루의 연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이 쓴 「죽서루기(竹西樓記)」(1662)이다. 허목은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로 재임하였다. 「죽서루기」에 나타난 이전 연혁은 김수온의 「죽서루단청기」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후의 상황을 부가했다. 1530년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한 일, 1591년 부사 정유청(鄭惟淸)이 다시 중수한 일 등이다. 허목은 이후 약 70년이 지난 1662년에 죽서루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죽서루기」의 내용은 같은 해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陟州誌)』에도 수록되었다. 삼척시에서 발행한 『삼척죽서루정밀실측조사보고서』(1999)의 ‘죽서루 관리약사’에는 정유청의 중수 이후 1600년 부사 김권(金權)의 동변 2칸(東邊二間) 개수, 1619년 부사 이여검(李汝儉)의 중수, 1629년 부사 유시회(柳時會)의 중창이 추가되어 있다.

『척주지』는 1848년에 김종언(金宗彦)이 한 번 더 발행하였다. 기존 척주지의 내용을 본(本)으로 표기하고 이후 추가된 내용을 부(附)로 표기해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1726년 부사 최문도(崔道文)가 중창(重創)했고, 이후 부사 조재연(趙載淵)이 개조(改造)했으며,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뒤쪽 처마를 증축[增作後檐]했고, 1789년 부사 김성규(金聖規)가 서울의 화공 이대근(李大根)을 초청하여 단청을 했다고 한다. 이후 1870년 부사 서증보(徐曾輔)가 중수하였고, 1898년 군수 이구영(李龜榮)의 중수 및 단청, 1947년 중수, 1962년 단청, 1978년 보수 및 조경공사, 1982년 개수 및 번와 공사가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수는 대체로 새로 부임한 삼척 부사의 주도 아래 지역 유림들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누각 전면에 걸린 ‘죽서루(竹西樓)’와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은

1711년에 부사 이성조가 제액했고, 누 안의 ‘제일계정(第一 溪亭)’은 1662년에 쓴 부사 허목의 글씨이며, ‘해선유허지소(海仙遊戲之所)’는 1837년에 부사 이규현이 개칭한 것이다.

(2) 삼척 죽서루의 건축적 특징

삼척 죽서루의 기둥은 절반 이상이 자연 암반 위에 올라서 있다. 22개의 기둥 중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기둥이 13개이고, 9개는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받쳤다. 자연 암반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큰 암반에는 서너 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작은 것에는 한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22개 기둥 중 누하주는 모두 13개인데, 동측에 7개, 서측에 5개, 북측에 1개이다. 나머지 9개 기둥은 높은 암반 위에서 상층을 직접 받치는 기둥으로 일부는 하층의 기둥 열과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다. 상층에는 총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이중 양쪽 측면의 기둥들은 누상이 아니라 자연 암반 위에 직접 세운 것이다. 하층 기둥 직경은 직경 1.6척 정도를 사용하였고 미세한 흘림이 있다. 상층 기둥은 하층보다 조금 가는 1.4척 정도를 사용하였고 입구가 되는 남측면에는 이보다 조금 더 줄여 직경 1.2척 가량의 기둥을 사용했다.

삼척 죽서루의 평면은 남북 방향의 중앙 3칸을 정칸(正間)과 차칸(次間)으로 구성하고, 양옆으로 협칸(挾間)을 각 2칸씩 더한 형태로 총 7칸이 된다. 용척은 약 308mm로 추정된다. 이중 정칸과 차칸은 9척으로 구성하고, 남협칸은 각 8척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북협칸을 6.5척과 9.5척으로 구성한 점이 특별하다. 즉, 남협칸과 북협칸의 전체 너비는 16척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의 전체 형태는 정칸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북쪽 칸살이 부분적으로 비대칭이 되었다. 북협칸의 규모를 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대에 실을 드리면서 공간을 조정하였거나 팔작지붕을 증축하면서 개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자연 암반 위에 기둥을 두기 위한 방책일 가능성도 있다. 북협칸의 치수를 8척으로 맞추게 되면 두 암반의 사이에 기둥이 위치하게 되므로 기둥을 직접 세우거나 초석을 두기에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상층 마루는 길이 18척의 장귀틀을 전후면 기둥에 걸치고, 장귀틀에 동귀틀을 건 후 청판을 깔았다. 기둥 밖으로는 마루를 3척 정도 내밀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출입이 이루어지는 측면에는 계자난간 대신 평난간을 설치했다. 남쪽 협칸은 평평한 암반이 누마루의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루를 깔지 않았고, 북쪽 협칸에는 귀틀을 받치기 위해 별도의 누하주를 추가했다.

상부 가구는 전후면의 평주 사이 18척의 경간을 대량으로 가로지르고, 이를 삼등분한 위치에 중대공을 세워 종량을 올렸으며, 종량의 중심에 중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도록

구성했다. 전체적으로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은 무고주 오량가의 구성이지만, 북측 협칸에는 팔작지붕의 충량을 받치는 자리에 대들보 아래로 내주를 하나 설치했다. 외목도리와 주심도리의 간격은 1.5척, 주심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5.5척, 그리고 중도리와 종도리 간격은 3.5척이다. 중도리를 받치는 중대공은 대들보 위에 주두를 얹고 첨차를 십자로 교차시켜 두 단을 쌓은 포대공(包臺工)으로 구성했다. 주두 위와 중도리 받침장여 아래에는 뜯장여를 2단으로 설치했는데, 뜯장여를 중첩하는 구성법은 부석사 무량수전 등 고려시대 건물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유사하다. 중대공은 하부에 화반형 받침이 있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사용했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구성했으며,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를 조각하고, 중간은 당초문을, 상부에는 파련 모양을 조각했다. 복화반과 당초문의 형태에 고식의 자취가 있다. 중대공에는 뜯장여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들보는 단면에서 상단이 방형이고 하단의 두 모서리를 둥글린 형태이다. 정간에 사용된 2개의 대량은 너비 1.15척, 춤 1.5척 정도이고, 협칸에 사용된 4개의 대량은 너비 0.9척, 춤 1.25척 정도이다. 보머리는 대부분 삼분두 형태로 다듬어져 고식(古式) 목구조 양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량은 대량 상부에 하나씩 설치되어 총 6개이다. 종량 머리는 대량 위 포대공의 이제공 위에서 중도리 받침장여와 뜯장여에 직교하여 결구되었다. 종량의 길이는 약 9척이며 단면 치수는 협칸에 사용된 대량과 유사하다. 종량 상면에는 방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중도리를 받치는 구름받이에도 방형의 홈을 발견할 수 있어서, 과거에 솟을합장재를 설치했던 홈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측과 북측 측면에는 기둥과 대량 사이에 충량을 걸었다. 충량 위에 대공을 세워 외기를 받치는 통상적인 수법에 비해, 삼척 죽서루의 충량 위에는 어떤 부재도 결구되지 않았다. 외기도리를 받치는 것은 대량 상부의 포대공이다. 그러므로 죽서루의 충량은 상부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이 없으며 단순하게 수평력에 대응한다. 이러한 구성은 삼척 죽서루가 5칸 맞배지붕 건물에서 좌우의 협칸을 증축해서 7칸 팔작지붕 건물로 변모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증축의 흔적은 좌우 협칸의 도리와 장여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삼척 죽서루는 중앙 5칸과 좌우 협칸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다. 중앙 5칸의 측면에는 도리와 장여가 맞배집에서의 빼도리 형태로 드러나 있다. 도리를 뺀 길이는 약 3척 정도로, 맞배지붕의 구성이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기둥 머리의 창방은 너비 0.35척, 춤 0.7척 정도로서 단면비는 1:2인데, 창방 역시 중앙 5칸의 측면에서 뺄목으로 처리되었다. 창방 뺄목은 단부를 교두형으로 다듬고 상면에 소로를 얹어 주심첨차의 외단을 받치게 했으며, 그 위로 장여와 도리의 뺄목이 올라선다. 또한 기둥의 배열도 중앙 5칸의 기둥보다 양쪽 끝 칸의 기둥이 외출목 거리만큼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기둥 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증축된 부분에는 창방을 설치하지 않았고, 외목도리의 받침장여가 창방의 역할을 대신한다. 무엇보다도 중앙

5칸과 증축된 협칸은 공포 형식이 서로 다르다.

삼척 죽서루의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 두 가지 양식이 함께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동측과 서측의 긴 처마 아래에는 주심포 양식의 공포가 적용되었고, 북측과 남측의 측면에는 익공 양식이 적용되었다. 중앙 5칸에 사용된 주심포는 임진왜란 이전의 양식적 특징이 다분하다. 먼저 첨차는 도리방향의 주심첨차와 출목첨차, 보방향의 헛첨차과 대첨차 네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단부 처리 방식이 모두 교두형으로 동일하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보방향 첨차가 교두형으로 처리되고, 내단부에서 일체화된 보아지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고식 목구조에 가깝다. 또한, 장여 폭으로 만든 창방과 직교하여 헛첨차를 사용한 점 역시 고려말 조선초 주심포 형식의 특징과 상통한다. 헛첨차의 길이가 짧아 헛첨차가 받치는 소로의 위치가 외출목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심과 출목 사이에 놓인 것도 16세기 이후 건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 밖에도 주심첨차 위로 뜯장여를 보내고 다시 간격을 띄워 주심도리 받침장여를 설치한 점, 뜯장여 위에 설치된 소로의 위치가 주심첨차 양측 단부의 소로 위치보다 약간 더 바깥쪽에 자리잡아 장여까지 공포의 일부로 보이도록 한 점 등도 고식의 특징을 이룬다. 보머리를 삼분두 형식으로 하고 뺄목 부분의 폭을 줄이지 않은 것도 15세기 이전 건축의 특징이다. 그러나 동측과 서측의 주심포는 세부적인 양식에서 차이가 있다. 서측의 주심포에서는 헛첨차가 기둥높이에 맞추어 정리된 후 그 위에 소로를 두고 대첨차를 얹었다. 반면, 동측의 주심에서는 기둥머리에 끼워진 헛첨차가 주두를 감싸고 올라와 상부의 대첨차와 직접 접하며, 소로는 헛첨차의 옆면을 따내고 끼웠다. 그러므로 동측의 주심포는 익공계 공포의 특징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 두 주심포의 조성 시기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익공은 초익공 형식으로 구성했다.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방향 첨차와 보방향 익공을 직교해서 끼웠다. 익공은 춤이 높고 길이가 짧으며 위로 치솟아 강직하며 방아다리 사이에 연봉이 조각된 모습이다. 그 위에 주두를 놓고 장여와 충량을 설치했다. 쇠서는 수서 형태이고, 익공 부재의 뒷몸은 충량을 받치는 보아지가 된다. 충량의 보머리는 하부 쇠서와 비슷한 형태로 다듬어 마치 이익공 짜임처럼 보이게 했다. 꿇기둥은 장여 뺄목의 단부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동남쪽 꿇기둥 상부의 장여 뺄목은 청룡과 황룡으로 조각하였다.

삼척 죽서루의 처마는 겹처마이고, 처마 깊이는 출목도리 밖으로 서까래 4척과 부연 1.5척을 빼서 주심에서부터는 7척 깊이를 형성했다. 기와는 암키와, 수키와, 내림새, 막새, 망와가 사용되었으며, 용두나 잡상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기와는 규격과 와당 문양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친 자취를 남기고 있다. 전체적인 단청의 기본은 굿기단청으로 하였으나, 서까래와 부연에는 휘를 사용한 모로단청을 하였고, 출목도리의 순각판에는 흰 바탕에 먹선의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북측 협칸의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

리 받침장여 사이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했고,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는 눈썽반자를 설치했다.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는 순각반자를 설치했다. 이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을 적용했다. 실내에는 임금의 어제시를 비롯하여 유명한 시인과 명신들의 주옥같은 한시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는데,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많이 유실되었다.

3. 지정 가치 및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고려 중기에 창건된 이후 폐허가 되었다가 1403년에 새로 지어졌고, 1530년과 1788년에 남북 협칸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관동 지역의 대표적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각을 중심으로 하는 명승의 발생을 보여준다. 12세기에 고려에 도입된 팔경(八景) 개념은 「강릉팔경시(江陵八景詩)」를 필두로 고려 말 신홍사대부 계층에 의해 자신의 고향이나 부임지, 유배지 등을 대상으로 여덟 승경을 선정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 14세기에 안축(謹齋), 이곡(李穀), 이달충(李達衷) 등이 삼척 죽서루를 단일한 대상으로 삼아 여덟 경치를 읊은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은 누각을 중심에 두고 절경을 읊은 초기의 사례이다. 부사 허목은 1662년 ‘제일계정(第一溪亭)’ 현판을 썼고, 부사 이성조(李聖肇)는 1711년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을 썼다. 또한 정조는 김홍도(金弘道)를 파견하여 죽서루의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강세황(姜世晁)은 김홍도와는 다른 필치로 죽서루를 표현한 바 있다. 이처럼 삼척 죽서루는 관동 지방 최고의 누각으로서 명성을 지켜왔다.

둘째, 임진왜란 이전의 목구조 양식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의 정면과 배면에 사용된 공포는 조선 초기 이전 주심포 양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삼척 죽서루의 주심포는 보방향 첨차가 교두형으로 처리된 점, 헛첨차를 사용했지만 길이가 짧아 헛첨차가 받치는 소로의 위치가 외출목까지 이르지 못한 점, 공포 위에 뜬장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점, 보머리에 삼분두의 형태가 나타나는 점 등 15세기 이전의 주심포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후면 주심포에서 헛첨차의 접합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전통적인 기법을 계승하면서 익공 등의 후기적 수법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지속적인 중창 과정에서 공간의 확장과 기술의 누적을 반영하였다. 삼척 죽서루 건축의 기본틀은 1403년 부사 김효손이 지은 건물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중수와 단청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공사는 1530년에 부사 허확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

南檐]한 일과,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뒤쪽 처마를 증축[増作後檐]한 일이다. 즉, 정면 5칸의 맞배 지붕이었던 삼척 죽서루는 16세기와 18세기의 증축 공사의 결과로 팔작 지붕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증축한 부분은 주심포식이 아니라 익공식 공포를 취하였고, 남쪽과 북쪽의 칸수가 달라졌으며, 주심도리가 아니라 외목도리를 연장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예외적인 공간구성을 실험했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에 관동팔경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루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건물은 1403년에 건축된 목구조 양식을 일부 보존하고 있는 희소한 사례이고, 1530년과 1788년에 각각 남측과 북측 협칸이 증축되면서 공간구성이 복잡해지고 익공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현저하므로, 삼척 죽서루를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3.24 |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소 속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 | |
| | 문화재 명칭 | 삼척 죽서루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8 월 26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삼척 죽서루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에 있는 조선시대 중층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하나로 바닷가가 아닌 오십천변 기암괴석 단애 위에 건립되어 ‘관동제일루’라는 별칭처럼 첫 번째 경치로 주목을 받아왔다.

삼척시청에서 대학로로 우회전하여 성내동복지센터를 지나 성당길 우회전 711m 이동하여 우회전하면 위치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 주변은 죽서루라는 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시청, 은행, 우체국, 삼척문화원 등 공공기관과 삼척중앙시장 및 소규모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삼척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공간을 이루고 있다. 죽서루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1963년 보물 제213호 지정)되어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죽서루 주변에는 죽서루가 자리한 암반과 단애에 면해 태극 형태로 감아 돌아 바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의 오십천(삼척죽서루와 오십천, 명승 제28호, 2007.12.07. 지정), 북서쪽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와 고증을 통하여 복원된 삼척도호부관아지(사적, 2021.12.20. 지정) 그리고 죽서루 맞은편에 동헌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경관이 조성되고 있다. 죽서루는 울퉁불퉁한 자연암반 위에 조성되고 죽서루 동쪽 옛 연근당 자리 가까이에는 바위문(龍門, 행초서)이 있고 바위 상부에는 성혈 유적이 있다. 이렇게 죽서루 오른쪽에 연근당과 왼쪽에 응벽현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 주변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삼척 관아의 중심치소로 자리하여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관아건물지와 읍성(석성)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십천 건너편에는 가람영화관,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예술문화회관, 삼척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이 자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중기에 창건되고 1403년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재건되어 증축 및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본 모습을 지키고 있다.

삼척의 모산인 두타산(1,357m)이 동북쪽으로 돌아 뻗어내린 맥이 갈야산(葛夜山, 178.4m)까지 이르러 남동향하여 흐르는 자락에 죽서루가 위치하고 있다. 산자락이 흐르는 경치 좋은 절벽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연암반을 기초로 하고 있다. 죽서루에서 보이는 경관은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산(南山, 73.1m), 근산(近山, 505m), 봉황산(鳳凰山, 149m)이 솟아 있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라고 한다. 오십천은 백병산 발원지에서 동해바다까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른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죽서루 아래에서 물이 머물도록 응벽담(凝碧潭)이라는 깊은 소를 만들어 놓았다. 이중환이 『택리지』에 어떤 사람을 빌어 읍의 터가 공망혈¹⁾에 위치하므

1) 풍수(風水)가 묘터 또는 집터를 정할 때 쓰는 용어로 혈은 터라는 뜻이다. 공망혈에다 터를 잡으면 글자의 뜻 그대로 사람과

로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가 깊어 안보이는 구멍이 있는 것과 연결하는 듯하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을 내려다보면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관동팔경이 대부분 바다 풍경을 끼고 있지만 죽서루만은 오십천 풍경으로 봄가을로 백구(白鷗)가 노니는 모습은 풍경을 한층 더하게 된다. 죽서루의 맞은편에서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산과 물이 서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죽서루 주변에는 고려시대에 죽장사, 조선시대에는 진주관, 응벽헌, 연근당, 서별당 등의 건물을 지어 경관을 즐기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 북쪽의 진주관은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객사로 1908년 삼척군청으로 이용하다가 1934년 헐어 없애고, 응벽헌은 응벽담 위쪽 진주관의 서헌인데 1518년 부사 남순종이 창건하여 1908년 헐어 없앴다. 서별당은 연근당 밑에 있었으며 1586년 부사 강세윤이 창건했다가 없어졌던 것을 1661년 부사 허목이 다시 지어 독서당으로 사용했다. 연근당은 죽서루 남쪽에 있는데 세종 임술에 부사 민소생이 창건하였으나, 죽서루의 별관으로 대소객의 안식처로 사용되었으며 근년까지 있다가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죽서루 오른쪽에는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죽서루를 찬양하여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석”라는 시비²⁾가 서 있다.

문화재현황을 보면, 삼척 죽서루(보물, 1963.01.21.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내동 9-3),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2021.12.20.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죽서루길 37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2007.12.07.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죽서루길 61)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주변에는 응벽헌(객사 서헌 복원),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 표석 등이 있고, 동헌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³⁾, 동문루지(鎭東樓),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밖에 주변에는 죽장사지, 실직군왕릉(悉直郡王陵, 강원도기념물, 1971.12.16.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북동 43), 사금산 금표(四金山 禁標, 도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591)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토성 바깥쪽에 죽서루가 위치하나 조선시대 들어서 석성으로 바뀌면서 남문과 동문 내에 위치하고 오십천을 해자로 그 위에 죽서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축에 객사와 아사, 군창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⁴⁾

재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한다.

2) 1991년 2월을 송강 정철의 달로 정하고 우리나라 가사문학에 업적을 남긴 정철을 기념하는 표석을 2개소 중에 하나이다. 팔각형의 장대 표석과 8각형의 기단으로 이루어져 8각의 면마다 대표작과 진필, 수결, 세움말, 가사 창작의 배경을 담아 송강의 생애와 문학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3) 주차장 부지

4) 18세기에 편찬된 광여도(廣輿圖)에는 남문과 동문만 표시되어 있으며 중앙에 객사가 있고 그 서쪽으로 죽서루와 아사가 그려져 있다. 편찬연대가 미상인 여지도(輿地圖)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중앙에 객사가 있으며 남쪽으로 아사, 북쪽으로 창고가 있다. 조선후기 편찬된 지승(地乘)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중앙에 객사 동문 아래 죽서루와 아사가 있고 객사 북쪽으로 군창이 있다. 광여도와 일치한다. 18세기 편찬된 해동지도에서는 남문과 동문이 있고 동문 아래에 죽서루와 아사가 있고 중앙에 객사 그 위쪽에 군창이 그려져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는 남문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중앙에 읍기(邑基)라고 하여 중

중요 건축물은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지(三陟都護府官衙建物址)를 중심으로 하며 삼척도호부 내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客舍),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守令)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수령의 생활공간인 내아(內衙), 지방민을 대표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향청(鄉廳), 창고(倉庫)와 감옥인 옥사(獄舍), 기타 지방 통치에 필요한 여러 부속 건물⁵⁾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삼척 죽서루를 제외하고 삼척읍성(三陟邑城)과 함께 대부분 파괴되고 훼손되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를 통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를 통한 배치를 보면, 갈야산 자락을 배산하여 남동향하여 객사 건물인 정면 3칸, 측면 2칸의 진주관(眞珠館 : 陟州館) 정청(政廳, 殿廳)과 정면 5칸, 측면 2칸의 동서익헌(東·西翼軒, 翼舍)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직교하여 진주관의 서헌(西軒)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응벽헌(凝碧軒), 그리고 진주관 정청 앞으로 박석(薄石)이 깔린 안마당을 두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내삼문(內三門)과 좌우익랑(左右翼廊)을 배치하고, 서익랑에는 3칸의 북익랑을 날개채로 부가하고 있다. 그 앞으로 외삼문과 석축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의 남쪽 길 건너편에는 동헌 및 내아, 안마당에 박석, 보도, 석축 담장, 집수시설 등이 있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지속해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헌은 수령이 직무를 보던 중심 건물인 칠분당(七分堂)을 배산하여 설치하고 박석이 깔린 안마당으로 중심으로 뜰 口자 형태의 평면을 하고 있다. 남쪽에는 정면 5칸 및 측면 1칸의 규모 내삼문과 남행각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아전(衙前)이 직무를 보던 작청(作廳)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동행각과 서행각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관아유적(官衙遺蹟) 동헌 및 그 아청 배치와 유사하다.

동헌과 인접해 동쪽에 위치한 수령이 거주하는 내아는 정면 5, 측면 2칸 규모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동쪽에 안방을 배치하고 서쪽에 부엌과 그에 딸린 작은 방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 죽서루 담장 남동쪽으로 관아의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 5동이 확인되는데 기단 석축과 계단을 갖는 정면 8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이 죽서루의 별관인 연근당(燕謹堂)으로 추정된다. 많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연근당기’에 죽서루와 3보 거리에 온돌과 마루를 갖춘 손님을 위한 접객건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삼척도호부 문화경관 내에 죽서루 주변에는 동쪽 옛 연근당 자리 가까이에 바위문(龍門)과 성혈 유적 등과 동쪽으로 접근하는 진입로 그리고 죽서루 동쪽에 인접해서 객사에서 연결되는 계단형 진입시설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관아와 관련한 객사, 동헌, 내아, 연근당 등의 공간

층누각이 그려져 있는데 표기상으로 ‘邑基’라고 하였으므로 관아를 일괄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십천 절벽에 면해서 는 죽서루가 그려져 있다.

5)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허목(許穆)의 『척주지』(1662년), 『여지도서』(1757년), 『관동지』(1829~1831년),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1848년), 『강원도지』(1940년),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1963년) 등 여러 문헌과 읍지도(邑地圖) 참조

배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 관아의 변천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보면 죽서루도 조선시대 삼척도호부의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루(公樓)로서 공공의 성격을 갖는 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연회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삼척 죽서루 주변에는 유랑처로 각광받으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선비들이 방문하여 주변 바위벽에 방문자의 이름이나 관직 그리고 장소의 성격 등을 새긴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⁶⁾ 琴石, 射壇, 觀德之所, 石壇濃陰, 舞雩臺, 老松亭, 龍門(또는 巖門), 凝碧軒, 凝壁潭 등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장소에서의 활동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조경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武夷九曲과 비교할 수 있는 第一壁으로 錦繡壁, 眞珠壁, 魯山松竹 등으로 비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적인 성격을 심상으로 풀어내어 시로 읊은 朴灘의 시 등이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金克己, 1148~1209), 1266년(원종 7)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안집사(安集使) 진자후(陣子厚)와 함께 서루(西樓, 죽서루)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승휴(李承休, 1224~1300),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삼척부사로 부임한 1403년(태종 3)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金孝孫, 1373~1429), 1530년(중종 25) 삼척부사로 있으며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許確, 1466~1537), 1788년(정조 12년) 삼척부사로 있으며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徐琢修), 1662년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서루기(竹西樓記)」에는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許穆, 1595~1682),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관을 쓴 이규헌(李圭憲), 1580년(선조 13)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지은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鄭澈, 1536~1593) 등이 있다.

이러한 주변의 뛰어난仙境(仙境)을 바라보는 누각(樓閣)으로 삼척 죽서루(竹西樓)는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남기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가장 먼저 허목의 「죽서루기(竹西樓記)」에 동해안의 절경으로 통천의 충석정, 고성의 삼일포와 해산정, 간성의 영랑호,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

6)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암각자 학술조사 보고서』, 2015.

포대, 삼척의 죽서루, 평해의 월송정을 들고 있다. 숙종(肅宗)은 1군(郡) 1경(景)을 기준으로 관동팔경을 시로 읊고 있다. 관동지방은 북쪽의 흡곡부터 남쪽의 평해까지 9개 군으로 되어 있어 군마다 선정할 경우 9경이 되므로 가장 북쪽과 남쪽 중 하나를 제외시키면서 관동팔경을 구성하고 있다. 죽서루를 으뜸으로 치는 것은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어 오십천의 깊은 소에 그림자 드리우는 높은 암벽 위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양한 경관을 즐기는 포인트가 있어 죽서루 아래 오십천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죽서루를 올려다보는 즐거움이나 바다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로 이름이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를 필두로 이곡, 안축, 정추, 김구용, 김극기 등과 조선시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 하륜, 이륙, 심언광, 율곡, 양사헌, 차운락, 송강, 허목, 신수광 등의 명인대가의 시문이 200여수 남아 있어 시문의 터라 하겠다. 특히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죽서루를 크게 찬양하고 있다.⁷⁾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에 나타나고 있다. 죽서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한 김극기(金克己)의 2편 시문(詩文)으로, “...登樓喜得片時閑...”이나 “庾樓夕月侵床下 滕閣朝雲起棟間”이라고 하여 누각에 올라 누각과 주변 경관에 대한 감흥을 읊고 있다. 이를 통해 죽서루가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지리서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⁸⁾에 읍성 가운데 있는 객사의 부속건물로 죽서팔경을 노래한 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김극기, 안축, 이달충, 이곡 등의 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기의 관찬지리서(官撰地理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죽서루의 위치, 주변 경관 요소, 날듯한 외관 그리고 정추(鄭樞), 김극기(金克己) 등 고려시대 인물과 조선 전기 안성(安省)을 비롯한 신증(新增)으로 홍귀달(洪貴達), 이육(李陸), 정수강(丁壽崗)의 시를 언급하고 있다.⁹⁾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 읍지를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강원도 삼척도호부 「누정(樓亭)」조에 죽서루의 위치(관아의 서쪽, 성 안)와 위태로운 벼랑에 드높은 백척 누각으로 노래한 숙종의 어제시가 있다고 하고, 「제영(題詠)」조

7) 삼척시지, 1057쪽

8)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누정조. “竹西樓。在邑城中，有八景。竹藏古寺、巖控青潭、依山村舍、臥水木橋、牛背牧童、隴頭饁婦、臨流數魚、隔牆呼僧、多前賢題詠”

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강원도 삼척도호부 누정조. 竹西樓。在客館西。絕壁千仞，奇巖叢列，其上架飛樓，曰竹西。下臨五十川，川匯爲潭，水清徹底，日光下透，游魚歷歷可數，爲嶺東絕景

에 김극기, 김구용(金九容), 성석인(成石因)의 시와 함께 죽서팔경을 노래한 이달충(李達衷), 안축(安軸), 이곡(李穀)의 시 그리고 신증(新增)으로 울곡 이이(李珥)와 차운로(車雲輅)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¹⁰⁾ 1751년(영조 27)에 이중환이 쓴 지리지 『택리지(擇里志)』에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많이 있음을 소개하고, 오십천이 죽서루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뱃놀이를 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읍지(邑誌) 중 죽서루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는 차운로가 삼척부사에게 준 죽서루 시문을 소개하면서 죽서루의 역사와 두타산과 오십천, 남산 등 죽서루 주변의 경관을 소개하고 그곳에 객사에 소속된 응벽헌 연근당과 함께 죽서루가 있음을 기록하였다.¹¹⁾ 허목은 「죽서루기(竹西樓記)」를 지어서 다른 관동팔경과는 달리 강을 끼고 절벽에 자리한 죽서루가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 1848년(헌종 14)에는 김종언(金宗彦)이 쓴 삼척의 사찬(私撰) 읍지(邑誌)인 『척주지(陟州志)』에는 허목의 『척주지(陟州誌)』를 인용하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고 첨가하면서 누정조를 별도로 만들어 죽서루를 소개하면서 죽서루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시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은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으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는데, 이승휴, 정조, 울곡 등이 대표적이다. 죽서루를 노래 시문(詩文)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중기의 김극기(金克己)의 시이다. 고려 말기의 문인 안축(安軸)이 1330년 관동지방의 경관과 풍속을 읊은 『관동와주(關東瓦注)』에 죽서팔영(竹西八詠) 중 죽장고사(竹藏古寺)를 주제로 지은 시가 있고, 이후 죽서팔경은 이달충(李達衷), 이곡(李穀) 등 고려시대 문인들과 이원진(李元鎭), 민수천(閔壽千), 채세걸(蔡世傑), 최연(崔演) 등의 조선시대 문인들이 노래하고 있다. 고려시대 죽서루에 올라 당대의 최고의 문인들이 시로 표현하였는데 이승휴(李承休)도 안집사(安集使) 병부시랑(兵部侍郎) 진자사(陳子侯)와 함께 죽서루에 올라 판상(板上)에 있는 시의 운자(韻字)를 보고 그 운자대로 시를 지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휴식의 공간인 동시에 연향(宴享)의 공간으로 대표적인 시는 숙종과 정조의 시이다. 정조의 시는 실경(實景)을 보고 싶어 김홍도에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비롯한 영동지방 해산승경(海山勝景)을 그려오도록 하여 그림을 직접 보고 칠언 절구를 지으면서 오십천 응벽담에서 뱃놀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선인들이 죽서루를 노래한 시에 감동을 받아 차운을 한 울곡 이이의 시와 울곡의 시를 차운한 1728년(영조 4) 양정호(梁廷虎), 1804년(순조 4) 심공저(沈公著), 정규형(鄭奎亨) 등의 시가 있다. 죽서루를 노래한 기행문학 작품들은 고려 말기 문인 안축(安軸)이 지은 『관동와주(關東瓦注)』와 시집 안의 경기체가 「관동별곡(關東別曲)」, 조선시대 1553년(명종 8)에

10) 『輿地圖書』 上, 江原道, 三陟都護府, 樓亭條.

11) 허목, 『척주지(陟州誌)』 하(下) 매곡리(邁谷里).

홍인우(洪仁祐)가 쓴 「관동일록(關東日錄)」, 1580년(선조 13)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등이 있다. 18세기에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에 대한 기행유람기가 유행되었다. 삼척부사를 역임한 허균(許筠)의 「죽루부(竹樓賦)」를 비롯한 수많은 명유와 문인들의 시가 있다.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은 정선(鄭敼, 1676-1759)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죽서루도(간송미술관 소장),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죽서루도(서울대 규장각 소장), 김홍도(金弘道, 1745- ?)가 44세에 그린 『金剛四郡帖』, 竹西樓(1788, 개인소장), 강세황(姜世晁)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죽서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88년경, 33.0 ×48.0cm), 허필(許佖)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죽서루(선문대학교 박물관 소장),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죽서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가 있다. 그리고 죽서루에 걸려 있는 제액(題額) 현판은 누각의 동쪽에는 삼척부사를 지낸 이성조가 쓴 ‘죽서루(竹西樓)’라는 현판과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는 현판, 죽서루의 남쪽 측면의 ‘죽서루(竹西樓)’라는 현판, 삼척부사를 지낸 이규헌(李奎憲)의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제일계정(第一溪亭)’ 등이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죽서루는 오십천의 굽이치는 강물과 절벽, 퇴적지역의 하얀 모래톱 그리고 고기떼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이루고 있는 자리에 건립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관과의 관계에서 보면 오십천의 절벽 위에 지어진 죽서루는 관동팔경의 으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팔경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굽이치는 오십천은 곡류하천의 지형경관과 퇴적된 백사장 등이 이루는 구곡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림(園林)과 관련된 공루로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경관의 가치는 겸재 정선(鄭敼, 1676~1759), 표암 강세황(姜世晁, 1713~1791), 관호 엄치욱(嚴致郁) 등의 실경산수와 많은 시문을 통해서 죽서루를 중심으로 하는 두타산, 태백산, 봉우리, 일출 및 일몰, 달, 동해, 주변 산(갈야산, 봉황산 등), 물돌이 지형, 들판, 마을, 산기슭의 집,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이나 수목(대밭, 소나무 등), 소와 여울, 백사장, 푸른 바위, 고기떼, 절, 뱃놀이, 목교, 물건 운반용 줄, 사다리, 새(갈매기, 물총새, 고니 등), 낚시, 사람(시인, 묵객, 목동, 미녀, 스님, 밥나르는 아낙), 소리(목동 피리, 나무꾼 노래, 행군하는 소리) 등을 주변 경관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 요소를 재분류하면 원경은 두타산, 태백산, 봉우리, 일출과 일몰, 달, 동해, 오십천, 물돌이 지형 등이고, 중경은 이어지는 지형, 주변 산(갈야산, 봉황산), 굽이치는 오십천, 물돌이 지형, 들판, 마을, 산기슭의 집 등이고, 근경은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이나 수목, 소와 여울, 백사장, 푸른 바위, 고기떼, 절, 뱃놀이, 목교, 물건 운반용 줄, 사다리, 새, 낚시, 사람 등이다. 특징적인 요소는 굽이치는 오십천, 절벽 단애의 지형, 소와 여울, 백사장, 고기떼, 뱃놀이 등으로 죽서루에서 경관을 관리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좌향은 객사의 누각으로 객사를 중심으로 좌향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누각은 객사의 주축에서 오십천과 경관을 고려하여 좌향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 삼척 도호부관아의 부속건물인 죽서루를 중심으로 중요한 경관 요소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의 지역성을 담은 중층 누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1960년대 이후 자연곡류하천 형태가 변화되면서 퇴적층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변화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죽서루에서 오십천 건너편 퇴적지형에 들어선 삼척시립미술관, 삼척세계동굴엑스포타운, 삼척청소년수련관, 삼척문화예술회관, 교량 등으로 원지형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더 이상의 지형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는 건물 자체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조망점에서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루는 경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죽서루를 조망점으로 보는 경관도 조망 요소와 더불어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의 유래는 허목, 이승휴, 안축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 죽서루라고 지칭한 시를 이구, 정추, 안성, 서거정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를 지내며 진주관, 죽서루, 응벽헌에 편액을 올리고 쇠락한 관아건물을 수리하고 있다. 당시 「죽서루기」에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죽서루를 꼽고 있고,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아 이를 기록하여 죽서루기로 삼는다고 하여 기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¹²⁾ 허목은 『기언(記言)』에서 죽서루(竹西樓)라는 이름은 이 누각을 세울 당시 그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藏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으로 추정¹³⁾하고 있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허목의 『척주지(陟州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후의 기록을 ‘부(附)’라고 달고 첨가하면서 누정조를 별도로 만들어 죽서루를 소개하고 죽서루 명칭의 유래를 죽장사설(竹藏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는 1266년(원종 7)간행된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안집사(安集使) 진자후(陣子厚)와 함께 서루(西樓, 죽서루로 추정)에 올라 시를 지었다.’고 하여 이승휴는 죽서루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275년에 이승휴에 의해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을 이승휴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안거

12) 허목, 「竹西樓記」, 『記言』 卷13. … 樓下古有竹藏古寺樓有竹西之名蓋以此云仍誌之以爲竹西樓記 …

13) 허목, 記言, 卷之十三○中篇, 棟宇, 竹西樓記.

사집』에서 언급된 진자후와 죽서루에 편액된 한시에 나오는 진자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루는 죽서루를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 울긋불긋한 절벽, 푸른 바위 날아가는 고니, 물고기, 들판을 둘러싼 산이 만든 둥근 경계, 누각으로 유명한 고을 등이 주변 경관을 연상하게 하고, 용마루 기둥, 붉은 난간, 절벽에 높게 얹혀진, 높은 누각 등이 죽서루를 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에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관동와주(關東瓦注)』의 ‘三陟西樓八詠’과 『근재집(謹齋集)』의 ‘三陟西樓夜坐’란 시에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다. 누각에 올라 난간 굽어보며 물소리 듣는다(登樓俯檻聽江聲)는 표현이 죽서루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볼 때 난간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330년까지는 ‘서루’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되며 앞에 삼척을 붙인 것은 대표적인 루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예빈시승(禮賓寺丞)을 지낸 이구(李玖)는 심동로(沈東老, 1310~1380)에 대한 시를 읊으며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추(鄭樞, 1333~1382)는 ‘次三陟竹西樓韻’과 ‘三陟竹西樓’를 지었고, 안성(安省, 1344~1421)도 ‘登竹西樓’를 지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안축의 ‘삼척서루 팔영’에서 차운하여 ‘三陟竹西樓八詠稼亭韻’을 지었다. 이는 안축이 ‘서루’라고 하였지만 서거정은 차운하면서 ‘죽서루’라고 하여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두타산과 태백산이 이루는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산, 근산, 봉황산 등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이다. 그리고 오십천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르다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의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삼척 죽서루(보물)를 포함하는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주변에는 응벽헌,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표석 등이 있고, 동현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 진동루(동문루)지,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리고 주변 바위벽에 琴石, 射壇, 觀德之所, 龍門(또는 巖門) 등의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활용 그리고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 1266년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서루(西樓)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

승휴, 1403년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 1530년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 1788년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 1662년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판을 쓴 이규현, 1580년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 등이 있다.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로 이름이 있다.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은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이 있다.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는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이승휴, 정조, 율곡 등을 비롯하여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을 정도로 죽서루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이 있다. 그리고 정선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김홍도의 『金剛四郡帖』, 강세황(姜世晁)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허필(許泌)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 그리고 이성조의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이규현의 '海仙遊戲之所', '第一溪亭'등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현판 등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이 있다.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에 죽서루를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꼽으면서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한 것이나 『기언(記言)』에서 죽서루를 세울 당시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穢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 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죽서루의 유래를 죽장사설(竹穢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이승휴가 1275년에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은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고, 이구(李

玖)는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후 정추(鄭樞, 1333~1382), 안성(安省, 1344~1421),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죽서루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이 남아 있어 김극기의 시를 통해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당시에는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삼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죽서팔경 그리고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인 관동제일루로서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등의 터와 주변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고 있고 장소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을 통해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살펴본 연혁에서 건축과 관련된 연혁을 부가하여 다루고자 한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때 김극기의 시를 통해 창건연대가 고려 중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축의 근재집¹⁴⁾, 이곡의 가정집¹⁵⁾, 이달충의 제정집¹⁶⁾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언급이 없어서 초창 당시의 규모나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죽장사터 혹은 죽장이라는 옛 절터 서쪽 고려 중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식우집(拭疣集)』에는 1403년(永樂 癸未)에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 터에 새로 지었다(因舊址而創之)’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허목(許穆, 1595-1682)의 시문집인 『기언(記

14) 謹齋集, 卷二, 補遺○歌辭,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5) 稼亭先生文集卷之二十, 詞, 眞州新妓名詞, “客路春風醉不歸。笙歌緩緩夜遲遲。竹西樓迥月參差。行樂雅宜無事地。尋芳却恨未開時。他年誰折狀元枝”(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6) 霽亭集 卷一, 三陟八景, “右竹藏古寺○今爲燕謹堂、竹西樓, 卽竹藏廢址也”(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言』에서도 “…고을의 고사를 살펴보아도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명나라 영락원년(1403)에 부사 김효손이 폐허에 이 누각(죽서루)을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었으나 점차 소실되어 터만 남았던 것을 1403년에 김효손이 그 터에 새로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록으로는 초창 당시의 규모나 형식을 알기 어렵듯 중창 이후에도 알기어렵지만 다른 견해¹⁷⁾에도 불구하고 5칸의 형식이나 기둥 배열 등을 볼 때 죽서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맞배지붕의 누정으로 중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425년(洪熙 元年, 세종 7, 을사)에 부사 조관(趙貫)이 단청을 하였고, 1471년(성종 2, 成化 7, 신묘)에 부사 양찬(梁瓚)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1530년(嘉靖 9, 중종 25, 경인)에 부사 허확(許確)이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¹⁸⁾하여 정면 6칸, 측면 3칸(북측면 2칸)의 남쪽 팔작지붕이고 북쪽은 그대로 맞배지붕이었을 것이다. 남쪽이 팔작지붕으로 증축하면서 남쪽으로 출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788년 부사 서탁수(徐琢修)가 누각 뒤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하여 북쪽으로 출입이 이루어졌고 남쪽과 구분되었을 것이다. 이로서 정면 7칸, 측면 3칸(북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후 현대의 크고 작은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가 전하고, 1921년 이학규의 중수기, 1947년 홍백련의 중수기, 1971년 홍종범의 중건상량문, 1991년 김광용의 중수기 등이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삼척 죽서루의 중창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 구분 | 시기 | 내용 | 비고 |
|---------------|-----------------------------|--|--------|
| 조성기 | 고려 중기 이전 | 김극기의 시를 통해 창건시기 추정 | 김극기 시 |
| | 1403년(태종 3년) | 부사 김효손 새로 지음(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 중창) | 허목척주지 |
| | 1425년(세종 7년) | 부사 조관 단청 | 허목죽서루기 |
| | 1471년(성종 2년) | 부사 양찬 중수, 단청 | |
| 증작남침 | 1530년(중종 25년) | 부사 허확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 6칸 맞배+팔작 추정) | |
| | 1591년(선조 24년) | 부사 정유청(鄭惟淸) 중수 | |
| | 1600년(선조 33년) | 부사 김권(金權) 동편 2칸(東邊 二間) 개수 | |
| | 1619년(광해 11년) | 부사 이여검(李汝儉) 중수 | |
| | 1629년(인조 7년) | 부사 유시회(柳時會) 중창 | |
| | 1662년(현종 3년) | 부사 허목 중수 | |
| | 1696년(숙종 22년) | 부사 이국방(李國芳) 태을선(太乙船)을 중수 | |
| | 1711년(숙종 37년) | 부사 이성조(李聖肇) 중수 후 서액(竹西樓, 關東第一樓) | |
| | 1715년(숙종 41년) | 부사 정호(鄭澹) 죽서루 주변에 대나무 수전그루 식재 | |
| | 1726년(영조 2년) | 부사 최도문(崔道文) 중창(重期) 이후 부사 조재연(趙載淵) 개조(改造) | 김종언척주지 |
| | 1744년(영조 20년) | 부사 최상정(崔尙鼎) 단청 | |
| 1757년(영조 33년) | 부사 오수채(吳遂采) 태을연엽주(太乙蓮葉舟) 조성 | | |

17) 이희봉, 죽서루 : 한국건축의 모든 것, 한국학술정보, 2013, 244쪽. 원래부터 7칸으로 지어졌으며 증축설을 부정하고 있다.

18) 허목, 『척주지』와 죽서루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9) 삼척시,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1999. 35-36쪽. 김종언 척주지의 서탁수 중수기, 죽서루 편액 중수기 4편 참조.

| | | | |
|-----------|--|--|----------------|
| 증작후첩 | 1788년(정조 12년) | 부사 서탁수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 7칸 팔작) | 繼修 |
| | 1789년(정조 13년) | 부사 김성규(金聖規) 단청(京畫工 李大根) | |
| | 1830년(순조 30년) | 부사 이광도(李廣度) 기와를 새로 이음(蓋瓦) | |
| | 1837년(현종 3년) | 부사 이규헌(李奎憲) 서액(海仙遊戯之所) 제액 게첩 | |
| | 1870년(고종 7년) | 부사 서증보(徐曾輔) 중수 | |
| | 1898년(광무 2년) | 군수 이구영(李龜榮) 중수, 단청 | |
| | 1947년 | 중수 | |
| | 1960년 | 변와(飜瓦) | |
| | 1962년 | 단청 | |
| |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13호로 지정 | 보물 지정 |
| 1964년 11월 | 누각 아래 죽서루 표석비 건립 | | |
| 보수기록 | 1970년 | 죽서루 앞 출렁다리 설치 | |
| | 1978년 | 누각 보수 및 조경공사 | |
| | 1979년 | 단청 및 정화사업(안내판 및 화장실 1동 신축) | |
| | 1981년 | 담장공사 외 17건 | |
| | 1982년 12월 |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죽서루 개수 및 변와, 담장과 평삼문 | 경내 확장 |
| | 1984년 6월 | 담장 확장공사(68.9m) | |
| | 1987년 8월 | 누각 변와, 담장, 화장실, 평삼문 보수 | |
| | 1987년 12월 | 누각 전체 방충방연제 도포 | |
| | 1988년 3월 | 죽서루 안내표지판 설치 | |
| | 1988년 8월 | 안내판(A형) 보수 | |
| | 1990년 5월 | 벼랑 보호철책 196m 조성 | |
| | 1991년 4월~12월 | 화장실 보수, 배수로 조성, 송강 정철 가사터비 건립 | |
| | 1992년 10월 | 매표소 보수, 죽서루 앞 출렁다리 철거, 담장 보수, | |
| | 1993년 | 가로등 교체 및 누전 보수, 평삼문 위에 죽서루(일중 김충현) 제액 게첩 | 주차장 부지 231평 매입 |
| | 1995년 8월~11월 | 죽서루 보수공사(기와 해체보수) | |
| | 1997년 7월~8월 | 안내판 보수, 조명등 설치 | |
| | 1998년 8월~10월 | 죽서루 보수공사 - 화장실 보수, 담장 이축 | |
| | 1998년 ~ 1999년 | 죽서루 정밀실측조사 | |
| | 2005년 | 죽서루 산자 이상 해체 보수 | |
| | 2010년 | 죽서루 주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죽서루 주변 유적 시굴조사(토성, 건물지 등 21,780㎡) | |
| | 2010년 ~ 2021년 | 삼척 죽서루 주변유적 발굴조사(내아, 동헌, 석성, 객사 등) | |
| | 2015년 2월 |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암각지 조사 학술용역 | |
| | 2015년 3월 | 죽서루 주변 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 |
| 2016년 | 방염제 도포, 4차 죽서루 주변 유적 발굴조사(석성, 옹성 1,950㎡) | | |
| 2018년 | 주차장 조성공사 | | |
| 2021년 | 외부단청, 난간 및 마루 정비 | | |

이상과 같이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의 위치에 1403년 증창된 이후에 1530년 남쪽 처마를 내고 1788년 북쪽 처마를 내는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원위치에 증축 및 중수되어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고치면서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했을 때 누각 후면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혁을 통하여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최초 창건은 알 수 없지만, 김극기(金克己)의 죽서루에 관한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의 유래는 누각(樓閣) 동편에 죽죽선녀(竹竹仙女)의 집이 있었다 하여 죽서루라고 했다는 설도 있으나 누(樓) 동쪽에 죽림(竹林)이 있었고 죽림 속에 죽장사(竹臧寺)가 있었다 하여 죽서루라 했다는 설(說)이 유력하다.²⁰⁾ 죽서루는 1403년(태종 3) 부사 김효손(金孝孫)이 옛 터에다 중창한 후에 삼척도호부 관아와 객사인 진주관(眞珠館)에 부속된 건물로 수차례의 중건과 중창을 거듭하여 오가가 근대에 오면서 관아건물은 사라지고 죽서루만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탁수의 중수기에 “...1788년 7월에 진주관을 개축하였고, 9월에 계속해서 죽서루를 중수했다.... 그전의 규모를 살펴 보태거나 줄이지 않고 다음 해 봄에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²¹⁾”라고 기록하여 변화 없이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오십천이 굽이쳐 흘러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기 전 자른 듯한 기암괴석의 벼랑 자연암반 위에 자리하여 물과 절벽과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김종언의 『척주지(陟州誌)』에 나타나고 있다. 자연경관에 대한 입지와 배치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경으로는 태백준령이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지고 오십천이 굽이쳐 동해로 이어지고, 중경으로는 근산(近山)과 갈야산(葛夜山), 봉황산(鳳凰山)이 솟아 있어 삼신산(三神山)의 선계(仙界)와 같고, 근경으로는 오십천(五十川)은 누각 밑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응벽담(凝碧潭)을 이루어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경관 때문에 김극기(金克己), 이승휴(李承休), 이곡(李穀), 안축(安軸), 정추(鄭樞), 김구용(金九容), 정조(正祖), 하륜(河倫), 이륙(李陸), 심언광(沈彦光), 이율곡(李栗谷), 양사언(楊士彦), 정송강(鄭松江), 허목(許穆), 신광수(申光洙) 등의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주옥같은 수백편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 삼척도호부 관아는 발굴과 문헌을 통하여 객사, 동헌과 내아, 응벽헌, 연근당²²⁾, 서별당 등이 있었으며, 죽서루는 객사인 진주관에 딸린 부속건물로서 누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십천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 요소에 대한 많은 시문 등으로 보아 죽서루는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십천을 해자로 한 감시와 방비 등의 군사적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암반으로 구성된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바위로 된 오솔길을 따라 진입하는 공간구성은 우리 건축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바위 길 사이를 살짝 보이는 죽서루를 보면서 암반과 계단 그리고 흙바닥 등을 교차하면서 진입하고 있다. 연속되는 진입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남쪽 암반 사이의 꺼진 지형을 매워 인공석축을 쌓아 암반을 기단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공간을 형성하여 암반 사이 오솔길을 따라 올라 바

20)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

21) 김종언 『척주지』, 서탁수, 중수기, “...是年七月改建眞珠觀七月繼修竹西樓...前制度無所增減...”

22) 서탁수의 중수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죽서루 남쪽에 있던 죽서루 별관으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여 연회를 베풀기 적당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단 위에 3칸 남쪽 진입공간을 들어서면 가로로 긴 누정에 오르고 누정에서 왼쪽으로 돌면 펼쳐지는 태백산 준령의 에워싸고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남측을 3칸 팔작지붕으로 한 것은 주출입 방향을 유도하고 가운데 칸으로 진입하도록 좌우 협칸에는 평난간을 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측면을 주출입으로 하기 위하여 인공암반을 메워 기단을 조성하고 3칸을 조성하고 팔작지붕으로 하는 등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북쪽으로도 동쪽에서 진입하는 계단을 지나 진입하기 위한 암석을 올라 진입하고 있다. 북쪽 진입은 부진입으로 보이는데 증축하면서 쓰임새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죽서루를 배치할 때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조성된 자연암반을 활용하여 절벽 쪽으로 배치하고, 흠바닥인 동쪽으로 자연 암반과 같은 자연석 주초석을 보완하여 자리하고 있다. 극적인 구성을 위하여 절벽 쪽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평면구성은 상부를 기준으로 정면 7칸, 측면 북쪽 우측 2칸, 남쪽 좌측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상층과 하층의 중층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둥의 개수도 다르며 좌우측의 칸수도 다르고 그리고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 칸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층과 상층 기둥의 개수 차이는 하층 기둥 중 자연 암반을 초석으로 기둥을 기둥의 길이가 모두 다르게 세우면서 하층 기둥 없이 장주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측 칸수가 다른 것은 자연 암반이 놓여 있는 지형 자체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출입에 따른 이용자의 신분과 용도상의 기능과도 관련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남쪽을 주출입으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3칸 홀수 칸으로 하여 중앙 어칸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의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출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암괴석을 돌아보며 접근할 수 있도록 되고 어칸 부분에 박석으로 포장을 하여 출입에 편리하도록 되나 북쪽에는 가운데 기둥 좌우로 자연암반을 던고 오르게 되어 있다. 남쪽의 박석 포장은 근래에 시설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쪽과 비교하면 주출입구로서 북쪽보다 많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을 2칸으로 한 이유는 중앙 기둥을 기점으로 좌우로 분리 출입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보다 서쪽 주칸이 크게 조성되어 넓은 곳의 위계가 높다고 추정된다. 북쪽의 경우 북쪽의 2번째 칸이 부사가 착석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 뒤에 병풍을 쳐서 음식을 마련하여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음식이 대기하는 공간과 부사가 진입하는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쪽 진입 돌계단을 오르면 2개의 암혈(巖穴)에서 연회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북쪽 출입구로 들이기 위한 의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남측 하부 기둥 주칸을 2,177mm나 2,130mm의 협칸보다 어칸을 2,212mm로 크게 조성하고, 북측 전면 2,145mm보다 후면 주칸이 3,333mm로 넓어 위계

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 허확이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하고, 부사 서탁수가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을 하였다면 가운데 5칸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칸²³⁾에도 나타나는데 자연석 초석에 기둥을 배치하므로 동쪽에서 본 하층기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왼쪽부터 2,444mm, 2,746mm, 2,780mm, 2,749mm, 1,982mm로 나타나 정간은 2,780mm, 협간은 2,746mm와 2,749mm, 뒷간은 2,444mm와 1,982mm이다. 주칸은 정간을 협간보다 약간 크게 잡고 있으나 9척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뒷간은 작게 잡아 남쪽 8척과 북쪽 6.5척으로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측 주칸이 대칭은 아니지만 양단부 2칸의 길이는 16자로 같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정간이나 협간에 비해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의도적으로 시각보정을 위하여 작게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자연암반 위에 놓일 자리를 고려²⁴⁾하고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 그리고 북쪽을 상석으로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추정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의 공포는 교두형 첨차의 주심포 형식으로 좌우의 2칸의 초익공 형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운데 5칸에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교두형 첨차나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삼척도호부에서 접근하면서 동선체계를 보면 주로 남쪽 뒷간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남측면을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면의 기둥이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앞으로 나오면 약간은 커 보이게 되고 나온 만큼 뒷기둥이 넓은 칸에 보이게 되므로 시각에 대한 대응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좌 1칸 상부 주칸은 2,494mm이고 우 1칸 상부 주칸은 2,977mm이다. 좌 1칸은 1530년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한 것이라고 보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8척으로 잡은 것은 협간과 같은 용척으로 하였으나 뒷간은 넓어 보이므로 자연암반 위에 놓인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기는 어렵고 대신 기둥을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 앞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운데 5칸과 다른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788년 부사 서탁수가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한 것이라고 보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둥을 배치하면 북쪽 측면의 자연 암반이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으므로 전후면 2개의 기둥을 하층에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뒷간이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쪽 증축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았을 때 외부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23) 삼척죽서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pp. 82-86. 주칸의 기본단위척을 306-308mm 사이로 잡고 있어, 정밀실측보고서에서는 죽서루의 용척을 308mm로 보고 있다.

24) 이는 암반의 모서리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의도된 위치 설정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쪽 증축 부분에 따른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운데 5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1칸씩 증축하면서 자연암반에 기둥을 놓을 위치와 안정적으로 처마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시각보정을 통하여 주칸을 기존 건물의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주칸을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오십천 응벽담 기암괴석의 벼랑 위에 산재한 크고 작은 자연암반을 기초로 세우고 있다. 지형에 정면 7칸, 남측면 3칸, 북측면 2칸이므로 변주는 19개 되어야 하지만 하층에서는 자연암반 위에 설치되다 보니 이보다 적은 숫자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절벽 상부의 자연암반이 좌우 양쪽과 절벽 쪽에 자리하고 있어 13개소에 자연 석회석 암반을 초석대신 사용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땅을 이루는 곳에 앉히기 위하여 8개소에 자연석 초석인 석회석 덩벙주초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석 초석도 자연암반과 같이 형상과 크기를 불규칙하게 놓고, 암반과 자연석 초석에 기둥을 세워야 하므로 정교한 그랭이질을 하고 있다. 자연암반과 자연석 초석도 같은 재질로 하여 나뉠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서쪽의 절벽으로 암반 위에 붙여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죽서루가 놓이는 지형을 절벽 쪽에 선정한 의도대로 자연암반에 대응하여 그랭이질이라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연암반의 상부는 기둥을 그대로 앉히거나 기둥 놓을 자리를 약간 다듬어 놓고 있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이고 누하주는 민흘림이 있으며 누상주는 약한 배흘림이 있다. 자연암반과 자연석 초석의 높이가 모두 다르므로 누하주의 길이는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자연 암반이나 자연석 초석 위에 하층에는 13개의 기둥과 상층에는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하층에 13개 중에 5개는 자연 암반 위에 세우고 8개는 자연석 초석에 세우고 있다. 기둥의 길이가 차이를 보이지만 가운데 5개의 기둥은 1,640~2,000mm 정도로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5칸 규모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양측의 기둥을 제외한 기둥의 기준 치수는 1.6척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²⁵⁾ 상층과 하층은 대부분 같은 위치에 기둥을 세우고 있으나 북쪽 전후면의 2개 기둥은 하층에만 세우고 있다. 북쪽 측면의 기둥 3개 중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연 암반에 기둥을 설치하고 마루를 놓으면서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와 절벽 쪽 큰 자연 암반에는 3~4개의 기둥을 세우고 전면 좌우측 작은 암반에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 내진주는 북측 협칸 안쪽에 상·하층 모두 1개씩 세워져 있다. 자연암반의 형상에 맞추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네 모서

25)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보고서, p.96

리에 설치된 4개의 우주는 마루면보다 하부 자연 암반 위에 길이가 긴 부재로 세워 상부 하중을 받고 있다. 같은 단면 크기라고 가정하면 다른 기둥보다 길어지는 압축재가 되므로 장주(長柱)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층기둥은 전체적으로 직경 1.4척 정도에 9-41mm 정도의 굵기 차이를 보여 흘림 편차가 큰 민흘림이 있고 의도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흘림기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부 굵기에 대한 하층 기둥 길이의 비가 1: 1.79-4.38 정도로 상부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기둥은 우주 2,415~3,350mm, 남측면 변주 2,350mm와 2,390mm, 북측면 변주는 2,120mm, 내진주 2,105mm 그리고 정면과 배면의 변주들이 2,075~2,115mm이다. 308mm로 환산하면 우주 7.84~10.88척, 남측면 변주 7.63척과 7.76척, 북측면 변주 6.88척, 내진주 6.83척 그리고 정면과 배면의 변주 6.74~6.87척이다. 상부 기둥은 정면과 배면의 변주와 내진주는 6.8척(7척으로 의도된 것으로 추정)으로 의도된 계획이 보이거나 다른 기둥은 1~4척 정도 길게 자연 암반에 맞추고 공포 짜임에 맞추어 치수를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굵기를 비교하면 남측면 정간 2개만 1.2척 정도로 가늘고 나머지 기둥은 1.37척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주는 정면과 배면의 변주들에 비해 굵은 부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남측면 가운데 기둥을 가는 부재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남측면에서 우주가 굵어 보이도록 하고 있다. 서측면 우주 2개와 남측면 정간 동쪽 기둥 1개 그리고 내진주는 민흘림이 있고 나머지 기둥은 배흘림으로 되어 있다. 흘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둥은 재목의 생김새를 고려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다.

중층 누각이므로 우물마루 위의 상층 중앙의 기둥으로부터 모서리 기둥 방향으로 갈수록 기둥 높이를 4푼에서 8푼 정도 약간씩 높게 함으로써 지붕 양쪽 모서리의 추녀 부분을 중앙보다 높게 한 귀솟음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칸이었을 경우는 동쪽 정면에 1치 정도와 서쪽 배면에 1.5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다. 증축된 남측과 북측면의 기둥과 우주를 비교하면 1치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증축 과정에서도 귀솟음을 두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화과정에서 시각보정을 고려한 기둥 배치와도 연계된다고 추정된다. 북측 면만 상부가 하부보다 넓고, 나머지 삼면은 5푼 정도의 안쏠림을 주어 우주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양곡은 정간 부분에서 추녀 쪽으로 완만하게 휘어 오르다 추녀의 선자연에서 휘어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선자연 아래의 갈모산방을 설치하여 양단부가 중앙부보다 1.5~1.9자 정도의 양곡을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도리 방향 정면 0.9자 정도와 후면 1자 정도이고, 보 방향 남측면 0.7자 정도와 북측면 1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배면과 북측면이 곡이 많고 남측면 곡이 0.3자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중층누각으로 상층기둥은 우물마루 위에 세워져 있다. 죽서루는 남3협칸을 제외한 모든

칸에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상층바닥이 되고 하층의 천장이 된다. 누마루는 경간 18자의 장귀틀을 전후면의 평주에 걸고 장귀틀을 4등분하여 동귀틀을 걸어 24개의 우물을 만들어 청판을 설치하고 있다. 중측된 남측 끝 칸에는 자연 암반이 누마루와 높이를 맞추어 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북측 끝 칸에는 가운데 기둥의 초석이 높아 귀틀을 설치하기 어려워 북측 기둥에 150cm 정도 띄워 귀틀을 받는 별도의 기둥을 누하에 설치하고 그 위에 마루 귀틀을 걸고 있다.

정면과 배면의 기둥 바깥쪽으로 각 칸에 널 2장씩을 길이로 칸 장마루의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후면 기둥 밖으로 3자 정도를 돌출시켜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바닥은 동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청판을 끼워 넣어서 바닥을 구성하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자난간을 바깥으로 설치해 놓았다. 우물마루를 둘러싸고 전후면에 계자난간과 남북측면에 출입구를 제외하고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난간은 기둥 바깥으로 귀틀에 중방을 설치하고 중방위로 띠장을 설치하고 있다. 중방과 띠장의 바깥쪽으로 계자각을 설치하고 계자각 위로 계자각마다 하엽을 놓고 하엽 위로는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다. 계자각마다 중방 윗면과 띠장 아랫면에 난간공판을 설치하고 홈을 파고 있다. 평난간은 남측면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우주에서 가운데 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방을 설치하고 중방 위로 띠장을 설치하고 있다. 중방 위 우주 옆 남측면 출입구 북측면 출입구과 반대편 끝 쪽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중방과 띠장 사이에 난간동자를 설치하고 있다. 띠장 위로는 하엽을 놓고 하엽 위로는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다. 난간동자와 하엽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난간동자 사이 중방과 띠장 사이에는 난간공판을 설치하고 있다. 계자난간의 공판이 세련되어 보이는 것은 평난간이 고식의 느낌을 주고 있다. 기둥 위의 주두는 상층 기둥 위에 20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두는 굽받침 없는 사절된 빗굽주두이나 크거나 옆갈의 따냄 등이 차이가 있어 중수와 중창 과정에서 구부재와 신부재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계통의 두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주심포는 우주를 제외한 전후면의 동쪽과 서쪽 외진주 상부에 6틀씩 12틀이 짜여지고, 익공은 4틀의 우주 귀포를 포함하여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에 4틀과 북측면에 3틀 모두 7틀이 있다. 주심포는 내외 2출목 형태로 바깥쪽으로는 행공첨차가 결구되고, 내부 쪽으로는 도리 방향의 첨차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주심포는 기둥머리에 도리방향으로 창방을 결구한 후 직교하여 보방향으로 소첨차를 결구하고 그 위에 기둥머리 주두 위 대첨차를 직교하여 설치하고 있다. (보 방향 소첨차 내외 단부와 창방 위 주심첨차의 양측 단부 위에 소로를 설치하고, 주두 위에 도리 방향으로 보방향의 소첨차보다 긴 대첨차인 주심첨차를 설치하고 있다. 주심첨차에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 대첨차를 결구하고 주심첨차와 보방향의 대첨차 양측 단부 위에 소로를 설치하고 있다. 보 방향 주심 첨차 위

에는 뜯장여를 설치하고 바깥쪽 출목의 소로 위에 행공침차를 설치하고 있다. 뜯장여와 행공침차에 직교하여 소로를 놓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그 위에 대들보가 설치되고 있다. 뜯장여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있다.) 창방은 증축된 3협간을 제외한 정면과 배면의 정간, 그리고 남측과 북측의 2:3협간에만 설치되어 있다. 증축된 뒷간에 창방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익공계통으로 기존의 기둥보다 높게 설치되어 기둥머리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²⁶⁾은 결과론적인 추정이고 오히려 기둥열이 맞지 않고 대량보다 낮게 설치되면 비례가 달라지고 개방감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창방은 수장재와 비슷한 가로보다 세로가 긴 장방형 단면으로 칸마다 1개씩 전후면에 5개씩 모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가로보다 세로가 긴 장방형 단면의 네모서리를 둥글린 형상의 조선 중·후기와는 달리 장방형의 각진 그대로의 단면으로 조선 초기 이전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기둥머리에 짜인 보 방향 소침차의 높이는 전면에 대침차 아래까지 높으나 후면에 주두 하부에 맞추어져 있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면은 증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양식에 맞추지만 후면은 이전에 양식이 그대로 있는 경우를 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면은 익공계통의 특성을 보이고 후면은 주심포계통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침차는 도리 방향의 주심침차와 행공침차, 보 방향의 기둥머리에 짜인 소침차와 주두 위에 짜인 대침차이다. 침차의 형태는 교두형으로 내측 소침차는 중간에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고 다른 침차는 사분원의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길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죽서루의 주심포는 보 방향으로 기둥머리와 주두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결구하고 도리 방향으로도 주심침차와 행공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보 방향의 대침차는 교두형으로 내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대들보를 받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각된 보아지 형태로 변하기 이전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대침차에는 내외에 모두 공간이 새겨져 있고, 익공계통의 공포에는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으로 초각형 침차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재의 형식과 구성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주심포식 공포와는 다르지만 그 틀과 수법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⁷⁾

그리고 외1출목의 소로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중간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보 방향 내측 소침차는 내부에서 둔중해 보이므로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여 대침차까지 점승하는 듯 의장처리를 하고 있다. 주심침차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고 소로를 끼우면서 간격을 띄워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뜯장여 위에 간격을 띄우고 끼운 소로는 주심침차 양단부의 소로보다 더 바깥쪽에 설치하여 창방 위의 소로에서 주심침차 소로 그리고 뜯장여 위의 소로로 이어지는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26) 삼척 죽서루 정밀실측보고서, p.109

27) 조선 중기 이후에는 보 방향으로 살미나 익공계통의 공포가 결구되고 도리 방향으로 침차가 결구되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에는 보 방향이나 도리 방향에 같은 형태의 침차를 결구하고 있다.

있다. 주두 위의 주심첨차와 보 방향 첨차를 교차하여 소로 없이 그 위에 대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과 결구되는 뜬장여와 출목첨차 사이에는 소로를 설치하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놓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재의 형식과 구성은 조선 중기 이전의 특성을 간직하는 수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포의 형식과 구성은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심포의 구성 수법과 형태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는 주심포 형식을 기본 틀로 하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와 이전의 형식과 구성 수법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익공 계통의 공포는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의 공포와 우주 위의 귀공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 귀포를 제외한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에 공포는 초익공 계통이다.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 첨차와 직교하여 초익공을 끼우고 있다. 익공의 쇠서는 짧은 수서 형태이고 익공 내부의 뒷몸은 보아지 형태로 충량을 받치고 있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첨차의 양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도리를 놓고, 장혀에 직교하여 충량을 설치하고 있다. 주두 위 보뿔목은 쇠서와 같이 다듬어 초익공의 연속된 형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우주 위의 귀공포는 창방 없이 기둥머리에 익공계통과 초각한 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장여 받친 도리를 모두 초각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쇠서는 모두 수서로 되어있고, 익공이 설치된 우주에는 창방 없이 익공 계통의 공포가 직교하여 설치되어 있다. 동남쪽 우주의 장혀 뿔목은 황룡과 청룡으로 초각하고 직교하여 운문처럼 초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동쪽에서 접근하여 정면성에 대한 의장적인 처리이고 죽서루로의 주진입은 남쪽과 북쪽으로 진입하는데 남쪽으로 위계를 드러내는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익공계통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층축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로는 주두와 같이 사각형 빗굽소로로 굽은 사절되어 있다. 이갈소로는 창방 위 주심첨차의 하부, 출목첨차의 양단부,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와 뜬장여 사이, 서측 주심포 보 방향 소첨차와 대첨차 위 양단, 주심첨차 위 양단, 동측 주심포 보 방향 소첨차와 대첨차 위 양단 익공에 사용되고 있다. 사갈소로는 포대공에 사용되고, 부분적으로 큰 사갈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축부는 외목도리를 제외하고 삼분변작의 무고주5량가 1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면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삼분하여 5치 정도를 좁힌 위치에 주두를 놓고 소첨차와 대첨차를 직교하여 배치하여 뜬장혀와 결구하고 종보를 걸고 그 위에 장혀 받친 중도리를 놓고 있다. 종보 위 중앙에는 파련대공을 놓아 장혀 받친 중도리를 받고 있다. 장혀 받친 도리는 도리의 아랫면을 장여 상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다듬고, 장여 춤의 크기는 주심도리 장여, 중도리 장여, 종도리 장여, 외목도리 장여 순이다. 직경이 작았던 중도리는 받침장여를 키워 보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목도리 장여 뿔목은

동남 우주에 황룡과 청룡을 새기고 다른 우주에는 초각을 하여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구구성을 통해 포대공이 잘 짜여있고 5량가를 구성하는 비례와 균형, 하중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삼분변작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들보는 증축된 양 측면을 제외한 모든 양통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대들보의 단면은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으로 하부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어칸에 사용된 것이 험칸에 사용된 것보다 큰 것을 설치하고 있다. 보머리는 출목 바깥으로 빼서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고식(古式)을 보여주고 있다. 정간 동측 보머리는 처마 내밀기가 짧으므로 많이 내민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량은 대들보 위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양쪽 머리는 대들보 상면에 세워진 포대공의 이 제공 위에 놓여 중도리 받침장여와 뜯장여에 직교하여 결구 되어있다. 종량의 단면 형태는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너비보다 축이 긴 장방형이며, 하부 두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이다. 단면 규격은 대들보가 어칸과 험칸에 차이를 두었던 것과는 달리 6개 모두 비슷한 규격이다. 포대공은 대들보 위에 오린 사면 옆갈 주두 위에 소침차와 대침차를 보 방향으로 2단을 올리고, 도리 방향으로 뜯장여와 대침차를 십자로 반턱 맞추기를 하여 설치하고 있다. 크기가 다양하여 주두의 유형과 형태와 같이 중수와 중창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대들보 위에서는 종보를 받치는 포대공을 사용하고, 종량 위에서는 장혀 받친 중도리 하부의 마루대공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뜯장여는 주심도리 받침장여 하부에 1단과 중도리 받침장여 하부에 2단이 설치되어 있다. 뜯장혀를 길게 하나로 건너지르고 초각이나 투각 없이 교두형의 소침차와 대침차로 간결하게 구성하면서 침차에는 공안을 표현하는 것 등이 다른 포대공의 사례와 비교해서 고려시대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 누정의 공포와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한 고려시대의 양식을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 초기의 형식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선 초기에 건립된 당시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포대공을 설치하여 뜯장혀를 겹쳐서 사용하는 가구법은 측면의 횡력에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고 현존하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주심포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대들보 위에서는 종보를 받치는 포대공을 사용하고, 종량 위에서는 장혀 받친 중도리 하부의 마루대공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마루대공은 북측 2번째 종량에서만 판대공을 설치하고, 나머지 종량에는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 초각, 그 위로 당초문 형태의 초각, 상부에 파련 형태의 초각을 하고, 테두리에도 초각을 하고 있다. 복화반과 중당초문 초각에서 고식(古式)의 흔적으로 보이고 있다.

총량은 장방형의 하부 두 모서리를 궁글린 형태로 남측에 2개와 북측에 1개 모두 3개가 사용되고 있다. 보머리 쪽에 측면 주두 위에 결구되고 꼬리 쪽은 대들보에 홈을 파서 걸치고 있다. 5칸의 맞배지붕에서 그대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측면 기둥에서 대들보

와 연결시키는 역할 정도만을 하고 있다. 보머리는 하부의 익공 쇠서와 유사한 형태로 다듬어 놓아 이익공처럼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보머리 너비는 쇠서처럼 줄이지 않고 몸통과 같이 다듬고 있다. 남측 배면 쪽의 층량의 형태는 주두에 짜여지는 쪽에 도리 위에 구름받이를 설치하지 않고 보아지 길이 정도까지만 층을 높여 처마도리의 하부 일부가 직접 층량 상부와 결구되고, 나머지 2개의 층량은 층량 위에 다시 구름받이를 놓아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외기는 대들보 위에 중도리 위치에 주두를 놓고 긴 뜯장혀를 뺄목으로 처리하고 첨차를 놓아 층이 높은 장방형의 통장혀를 놓고 직교하여 첨차를 3단으로 짜올려 장혀 받친 중도리와 직교한 장혀 받친 중보를 받치고 있다. 맞배지붕의 가구가 외기에 드러나고 있어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은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지만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등천장을 주로 하고 다양한 기능적인 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우물반자는 북2협칸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설치되고, 눈썹반자는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순각반자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 설치하고 있다. 순각반자는 일반적으로 다포식에 많이 사용하지만 주심포 기둥 위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등천장을 주로 하면서 위계가 높은 부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연등천장과 우물정자 모양으로 마감된 우물천장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단연을 걸고 주심도리와 중도리에 장연을 걸어 물매를 잡고 있다. 정간과 협간의 연목은 평행서까래이고, 귀처마는 선자서까래로 배열하고 있다. 지붕 합각부는 목기연으로 솟을각의 것과 박공널마다 4개씩 설치되어 9개이다. 부연과 마찬가지로 끝건기와 불접기를 하고 있다. 추녀는 층이 너비보다 큰 장방형 부재를 배 바닥에 곡을 주어 다듬고, 뒷몸은 중도리와 외기도리가 교차하는 부분에 걸쳐있다. 사례의 너비는 추녀와 비슷하나 층은 사례가 추녀보다 커서 사례가 추녀보다 길게 돌출됨으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형태적 의장성을 고려하고 있다. 공포의 차이나 가구 특성이 차이가 있어 도리칸이 5칸인 맞배지붕에서,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으로 된 6칸 그리고 7칸으로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이 팔작지붕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운데 주심포이고 증축 부분은 익공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맞배지붕의 출목도리에 팔작지붕의 처마도리를 맞도리 형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양측면의 두 번째 기둥의 바깥쪽 상부 구성은 주심도리 그리고 장혀와 뜯장혀가 층단으로 뺄목으로 결구되어 맞배집 우주 구성과 같이 꾸미고 있다. 남측과 북측면의 층량은 대들보에 홈을 파서 끼워 증축에 따른 방식으로 보인다. 5칸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변화된 것은, 동쪽으로 진입하는 5칸 맞배지붕에서 남쪽으로 증축하면서 바위 사이로 진입하도록 하여, 정면을 남쪽으로 변화하면서 3칸의 팔작지붕

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의 후면인 북쪽으로 남쪽과 같이 증축하면서 완성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축으로 인한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5칸 맞배지붕으로 사용하면서 주변 자연암반을 활용한 진입과 위계 및 활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증축하여 수평성이 강조된 팔작지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굿기단청으로 하였으나 서까래와 부연에는 휘를 사용한 모로단청이고 출목도리의 순각판에는 흰 바탕에 먹선의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죽서루의 구조와 조형을 살펴보면, 오십천의 응벽담 절벽 위에 남서북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 암반을 인공석축 및 자연석 주초석으로 보완하여 자리하고 있어 절벽 쪽으로 배치하여 극적인 구성을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진입공간은 3칸 남쪽을 주진입으로 하여 바위로 된 오솔길을 따라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바위 기단 위에 놓인 누정에서 태백산 준령의 에워쌈과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북쪽을 2칸 부진입으로 동쪽에서 진입하는 계단을 지나 진입 암석을 올라 진입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7칸, 측면 북쪽 우측 2칸, 남쪽 좌측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자연암반을 기초로 하여 하층 17개 중 8개를 놓고 상층에 20개 기둥을 놓아 기둥의 개수도 다르고, 증축과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좌우측의 칸수와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칸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중층을 구성하면서 자연암반의 지형 조건에 따라 기둥을 자연암반에 놓거나 자연 초석을 놓아 올리고, 하층 기둥 없이 장주를 올리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좌우측 칸수가 다른 것은 자연 암반의 지형에 따라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출입에 따른 이용자의 신분과 용도상의 기능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면을 3칸 홀수 칸 중앙 어칸으로 드나들도록 유도하여 주출입을 조성하고, 북쪽을 2칸으로 중앙기둥을 기점으로 분리 출입하도록 부진입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남측 하부 기둥 주칸을 어칸을 크게 조성하고, 북측 전면보다 후면 주칸을 넓게 조성하여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가운데 5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칸에서 정간을 헐간보다 약간 크게 9척으로 잡고 뒷간은 남쪽 8척과 북쪽 6.5척으로 작게 잡고 있다. 이는 정간이나 헐간에 비해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의도적으로 시각보정을 위하여 작게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뒷간을 작게 잡은 것은 자연암반 위에 놓일 기둥 자리를 고려하고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이나 북쪽을 상석으로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의 공포는 교두형 첨차의 주심포 형식으로 좌우의 2칸의 초익공 형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운데 5칸은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교두형 첨차나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 형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에서 보면 좌 1칸은 1530년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하면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진입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둥을 배치하고, 협칸과 같은 8척으로 잡은 것은 뒷간이 넓어 보이므로 자연암반 위에 놓인 기둥의 위치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 앞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하고 긴 처마를 받치고 있는 우주의 위치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진입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리와 장여 뺄목을 고려하여 3칸으로 구성하고 맞배에서 팔작지붕으로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북쪽에 실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도호부에서 접근하면서 주로 남쪽 뒷간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남측면 시각보정을 위하여 가운데 칸의 기둥을 얇은 것을 사용하여, 우주가 상대적으로 굵어 보이고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앞으로 나오면서 더 굵어 보이도록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나온 만큼 뒷기둥이 넓은 칸에 보이게 되고 남측 진입에서 남측면의 우주는 굵어 보이도록 시각에 대한 대응을 했으며, 처마가 길게 뻗어 우주가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지도록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가운데 5칸과 다른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으로 증축(增作後檐)하면서,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기둥을 배치하면 북측면의 자연 암반이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으므로 2개의 기둥을 전후에 하층에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측 주칸이 대칭은 아니지만 남측과 같이 단부 2칸의 길이를 16자로 맞추고 있다. 또한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았을 때 외부쪽 출목으로 내어 좁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쪽 증축 부분에 따른 중기 이후의 초익공 계통의 공포 형식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가운데 칸과 양쪽 측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운데 5칸에서 남쪽 처마 증축(增作南檐)과 북쪽 처마 증축(增作後檐)을 1칸씩 하면서, 자연암반에 기둥을 놓을 위치와, 안정감 있게 지붕을 받치기 위하여 시각보정을 통하여 주칸을 기존 건물의 외목도리선에 맞추어 주칸을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 협칸은 6.5척(2,002mm)으로 정칸과 비교하면 2.5척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입면에서 다소 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물천장으로 구성되어 부사가 착석하는 위계가 높은 자리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간살을 보면 북측 협칸이 좁아 남쪽 협칸(2,464mm)과 뒷간(2,464mm)에 대응하기 위해서 뒷간을 2,926mm로 넓혀 남측과 맞추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측 하층 기둥을 세워 귀틀을 받치기 위한 기둥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북쪽 후면을 증축하면서 남쪽 증축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것이고, 북측 조건에 맞추어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된 완결성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북쪽 협칸이 좁은데도 우물천장으로 위계를 높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쪽 협칸에는 내진주를 세워 3평주로 한 것을 보면 실을 꾸미기 위한 가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물천장으로 꾸민 협칸에만 사면에 창방을 설치하고 있어 벽체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 나타난 죽서루는 협칸에만 있는지²⁸⁾, 협칸에서 뒷간에 걸쳐 있는지²⁹⁾, 반 칸에만 있는지³⁰⁾, 양협칸에 있는지³¹⁾ 등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이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1788년 김홍도의 그림에는 실이 반 칸 뒷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1788년 강세황의 그림에는 팔작지붕에 실이 협칸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38년 정선의 그림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보이고 뒷간도 표현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협칸에 2칸 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738년이면 북쪽 후면 증축 이전인데 팔작지붕의 정면 7칸이고 협칸에 방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1788년 이전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726년 최도문의 중창(重創) 때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것은 협칸 누하의 반원형은 아궁이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온돌방을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선(1738), 전 이병언의 금강산도첩(조선후기), 김홍도(1788), 엄치옥(19세기) 등의 그림에는 누하에 벽체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림의 주요 조망점이 오십천 강가 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점에서 그린 것으로 보아, 수목들로 인해 북측 협칸의 좁음을 읽기 어렵고, 보이는 조망점에서는 바깥쪽으로 세운 기둥이 길게 뻗은 추녀를 안전감 있게 받치며 기둥 사이로 기둥이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삼척부 객사에서 진입하는 북쪽 마당에서는, 협칸의 좁은 주칸은 인지가 잘 안되고 남쪽 뒷간은 바깥쪽에 기둥을 배열하여 안정감 있게 보인다. 남동쪽에서 보았을 때도 같이 인지되나 오히려 협칸이 좁음으로서 안정감이 보완되고 있다고 보인다.

구조는 절벽 상부의 좌우 양쪽과 절벽 쪽에 자리한 자연 석회석 암반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땅에는 석회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여 기둥을 정교하게 그랭이질하여 올리고 있다. 이는 서쪽 절벽 암반 위에 짓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그랭이질이라는 건축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층기둥은 상층기둥보다 굵고 큰 민흘림이 있고 일부는 배흘림도 나타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 기둥은 정면과 배면의 변주와 내진주는 7척으로 의도된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기둥은 1~4척 정도 길게 자연 암반에 맞추고 공포 짜임에 맞추어 치수를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기둥 굽기는 남측면 가운데 칸만 가늘게 하여 상대적으로 우주가 굽어 보이도록 하고 있다. 기둥은 민흘림과 배흘림이 있고 흘림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둥은 재목의 생김새를 고려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우고 있다. 기둥은 누하 기둥 직경을 상층보다 굵은 직

28) 1738년 정선(관동명승첩), 간송미술관, 1788년 강세황(풍악장유첩), 국립중앙박물관

29) 19세기 작가미상(금강산도권), 국립중앙박물관

30) 1788년 김홍도(금강전도), 삼성문화재단도록

31) 조선후기 (전)이병언(금강산도화첩), 국립중앙박물관

경의 기둥을 사용하고, 가운데 기둥을 가늘게 하여 우주를 꺾어 보이게 하며, 하층 기둥은 민흘림을 주면서 상층기둥은 약한 배흘림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운데 5개의 기둥은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하고 있어 5칸 규모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상층과 하층은 대부분 같은 위치에 기둥을 세우고 있으나, 북측면의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우주의 귀틀을 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치기 위해 별도로 도리칸 기둥열에 맞추어 세운 기둥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누마루는 남3협칸을 제외하고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전후면 기둥 밖으로 3자 정도를 돌출시켜 각 칸에 널 2장을 장마루의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우물마루를 둘러싸고 계자난간과 남북측면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5칸에서 6칸 그리고 7칸으로 증축하면서 외부의 경관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5칸의 벽과 창호가 없는 개방된 평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둥 위의 주두는 굽받침 없는 사절된 빗굽주두이나 크기나 옆갈의 따냄 등이 차이가 있어 증수와 증창 과정에서 구부재와 신부재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심포와 익공계통의 두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주심포는 우주를 제외한 정면(동측)과 배면(서측)의 외진주 상부에 짜여 있고, 익공은 우주를 포함하는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 있다. 보 방향 소첨차의 높이는 전면에 대첨차 아래까지 높으나 후면에 주두 하부에 맞추어져 있어 다르게 나타나기에, 전면은 익공계통의 특성을 보이고 후면은 주심포계통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심포는 내외 2출목 형태로 바깥쪽으로는 행공첨차가 결구되고, 내부 쪽으로는 도리 방향의 첨차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주심포 첨차는 도리 방향의 주심첨차와 행공첨차, 보 방향의 기둥머리에 짜인 소첨차와 주두 위에 짜인 대첨차 등이 있고, 첨차의 형태는 교두형으로 내측 소첨차는 중간에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고 다른 첨차는 사분원의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길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 방향의 대첨차는 교두형으로 내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대들보를 받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각된 보아지 형태로 변하기 이전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외1출목의 소로는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중간이 아니라 외부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보 방향 내측 소첨차는 내부에서 둔중해 보이므로 두 단으로 곡선 처리하여 대첨차까지 점승하는 듯 의장처리를 하고 있다. 주심첨차 위에 뜯장여를 설치하고 소로를 끼우면서 간격을 띄워 장혀 받친 주심도리를 설치하고, 창방 위의 소로에서 주심첨차 소로 그리고 뜯장여 위의 소로로 이어지는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두 위의 주심첨차와 보 방향 첨차를 교차하여 소로 없이 대량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량과 결구되는 뜯장여와 출목첨차 사이에는 소로를 설치하거나 소로 형상을 새겨 놓기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첨차에는 내외에 모두 공간이 새겨져 있고, 익공계통의 공포에는 기둥머리에 창방 없이 도리 방향으로 초각형 첨

차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심포식의 형식과 구성이지만 주두, 소로 그리고 침차 등의 규격이 다양하여, 고려 후기의 주심포식에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주심포식 공포와는 다르지만, 그 틀과 수법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주심포에서 익공으로 변하기 전의 특성을 갖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심포의 구성 수법과 형태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는 주심포 형식을 기본 틀로 하고, 조선시대 중기 이후와 이전의 형식과 구성 수법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익공 계통의 공포는 우주 귀포를 제외한 양쪽 측면 외진주 상부에 짜여져 남측면과 북측면에 공포는 초익공 계통이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침차의 양단부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도리를 놓고, 장혀에 직교하여 층량을 설치하고 있다. 주두 위 보뿔목은 쇠서와 같이 다듬어 초익공의 연속된 형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우주 위의 귀공포는 창방 없이 기둥머리에 익공계통과 초각한 침차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주두를 놓았으며, 그 위에 장여 받친 도리를 모두 초각한 뿔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동남쪽 우주의 장혀 뿔목은 황룡과 청룡으로 초각하고 직교하여 운문처럼 초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동쪽에서 접근하여 정면성에 대한 의장적인 처리이고, 죽서루로의 주진입은 남쪽과 북쪽으로 진입하는데, 남쪽으로 위계를 드러내는 의장적인 처리로 추정된다. 익공계통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증축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부는 외목도리를 제외하고 하중을 분배하기 위한 삼분변작의 무고주5량가 1출목으로 포대공이 잘 짜여있고 가구의 비례와 균형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포대공은 크기가 다양하여 주두의 유형과 형태와 같이 중수와 중창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3단의 장여가 도리 방향으로 건너지르게 되어 공간의 분할감을 주고 있다. 포대공을 설치하여 뜯장여를 겹쳐서 사용하는 가구법은 측면의 횡력에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하고, 현존하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주심포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증축된 틈간에 창방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익공계통으로 기존의 기둥보다 높게 설치되어 기둥머리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추정이고, 오히려 기둥열이 맞지 않고 대량보다 낮게 설치되면 비례가 달라지고 개방감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창방은 각진 장방형의 단면을 하고 있어 네모서리를 둥글린 형상의 조선 중·후기와는 달리 조선 초기 이전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고식(古式)을 보여주고 있다. 정간 동측 보머리는 처마 내밀기가 짧으므로 많이 내민 특징을 이루고 있다. 층량은 하부의 익공 쇠서와 유사한 형태로 다듬어 놓아 이익공처럼 의장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보머리 너비는 쇠서처럼 줄이지 않고 몸통과 같이 다듬고 있다. 종보 상면에는 구멍이 있어 주심포식에 나타나는 솟을합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련대공은 판재를 3단으로 겹쳐 하부에는 복화반 형태의 받침재 초각, 그 위로 당초문 형태의 초각, 상부에 파련 형태의 초각을 하고, 테두리에도 초각을 하고 있다. 복화반과 중당초문 초각에서 조산

초기의 고식(古式)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5칸이었을 경우 동쪽 정면에 1치 정도와 서쪽 배면에 1.5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고, 증축된 남측과 북측면의 기둥과 우주를 비교하면 1치 정도의 귀솟음을 두고 있어 시각보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북측 면만 상부가 하부보다 넓고 나머지 삼면은 5푼 정도의 안쏠림을 주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을 주로 하고 북2협칸 대들보 상부와 주심도리 받침장여 사이에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양측 외기도리 받침장여와 종량 사이에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심도리와 외목도리의 받침장여 사이에 순각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순각반자는 일반적으로 다포식에 많이 사용하지만 주심포 기둥 위에 사용한 특징을 보이고, 위계가 높은 부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고, 사례는 추녀보다 춤이 커서 길게 돌출하여 구조적 안정감과 형태적 의장성을 고려하고 있다. 양곡은 정간 부분에서 추녀 쪽으로 완만하게 휘어 오르다 양단부가 중앙부보다 1.5~1.9자 정도의 양곡을 하고 있다. 안허리곡은 정면 0.9자 정도이고 후면 1자 정도, 남측면 0.7자, 북측면 1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삼척 죽서루에는 삼척 죽서루에는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를 비롯한 글씨, 한시, 기문 등의 현판이 많았는데 1959년 9월 17일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유실되고 현재는 28점이 남아 있다. 우선 ‘죽서루’ 2개(이성조, 작가미상), ‘관동제일루’(이성조), ‘제일계정’(허목), ‘해선유희지소’(이규헌) 등 별호(別號)를 새긴 현판이 5개는 건물을 바라보는 동쪽을 정면으로 하면서 출입을 위한 정면을 남쪽으로 하고 있고, 내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문(記文)을 쓴 현판이 4개, 기타 내용을 담고 있는 현판이 2개 걸려 있는데, 위치는 건물의 연혁 및 중수에 관련된 기록으로 주로 좌우 2협칸에 설치되고 있고 뒷간과 제1협칸에 설치하고 있다. 허목의 죽서루기는 북쪽 협칸에 설치하였는데 북쪽 증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북쪽으로도 진입이 이루어졌거나 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문은 정조 어제시, 이율곡, 이구 등의 17개 안에 27편의 시가 들어 있다. 숙종의 어제시는 제1협칸에 설치하고 정조의 어제시는 정간에 설치하여 들어오면서 북쪽부터 위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승휴나 이구의 시는 제2협칸에 설치하고 정간에는 강정의 시가 설치되어, 5칸일 때 뒷간과 정간이 되므로 5칸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증축 후에도 이율곡, 서성, 이준민, 양정호 등의 시를 정간과 협칸에 설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증축 후에도 정간과 협칸에 설치되나 북쪽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삼척 죽서루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척 죽서루는 두타산과 태백산이 이루는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가까이는 남

산, 근산, 봉황산 등이 누각을 에워싼 형국으로 삼신산(三神山)의 선경을 느끼게 하는 경지이다. 그리고 오십천은 오십굽이나 굽이쳐 흐르다 죽서루 하부에 깎아지른 절벽에서 태극형상으로 돌아나간다. 벼랑 위에서 맑은 응벽담의 고기떼가 노는 모습은 죽서루의 색다른 풍경이다. 오십천과 죽서루 및 절벽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향유하도록 삼척 죽서루가 자리하게 되고 다시 자연과 하나 되어 풍광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누각이다.

삼척 죽서루(보물)를 포함하는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주변에는 응벽헌,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송강 정철 가사의 터표석 등이 있고, 동헌지, 관아(서별당), 연근당(죽서루 별관), 남문지, 진동루(동문루)지,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대 읍성(석성) 등의 터가 있다. 그리고 주변 바위벽에 琴石, 射壇, 觀德之所, 龍門(또는 巖門) 등의 암각자가 바위(21건), 절벽(191건) 등 212건이 남아있어 죽서루와 주변 경관에 대하여 장소의 선택과 활용 그리고 장소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관영누각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철거에도 남아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복원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삼척 죽서루와 관련된 인물은 시에 죽서루를 언급하여 창건연대가 1209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김극기, 1266년 문집 ‘동안거사집(動安居士集)’에 서루(西樓)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과 기녀 죽죽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죽서루를 세웠다는 전설과 연관된 이승휴, 1403년 폐허인 죽서루를 재건한 김효손, 1530년 죽서루의 남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허확, 1788년 죽서루의 북쪽 처마를 덧대어 지은 서탁수, 1662년 ‘죽서루기(竹西樓記)’와 ‘서별당기(西別堂記)’를 짓고, 죽서루의 연혁과 왜 관동제일루인지 그 이유를 설명한 허목, 죽서루 아래에는 방수제(防水提)를 쌓고 빙월루(氷月樓), 원풍루(願豐樓), 해선유희지소(海仙遊戯之所) 등 3개의 현판을 쓴 이규현, 1580년 「관동별곡(關東別曲)」에 죽서루와 오십천의 절경을 노래한 정철 등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어 풍류공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록을 통하여 어떻게 삼척 죽서루와 주변 풍광을 향유했는지 각 시대별 정서와 풍취를 살펴볼 수 있다.

삼척 죽서루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객사였던 진주관(眞珠館)의 부속건물이자 관아시설로 활용되었던 누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시설로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의 숙소에 딸린 접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와 지방의 양반 사대부와 시인 묵객들의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예부터 시인묵객이 찾아와 청유하면서 시 한편 남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시문이 많기

로 이름이 있다.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지리지와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비롯한 읍지 그리고 시문 등은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이 있다. 죽서루에 올라 느낀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는데 죽서루를 노래한 시는 이승휴, 정조, 율곡 등을 비롯하여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를 넘을 정도로 죽서루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이 있다. 그리고 정선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관동십경첩(關東十景帖)』, 김홍도의 『金剛四郡帖』, 강세황(姜世晃)의 『풍악장유첩(楓嶽壯遊帖)』, 허필(許泌)의 『관동팔경도병(關東八景圖屏)』, 엄치욱(嚴致旭)의 『가장첩(家藏帖)』 등의 전통회화와 관동팔경도병 등의 민화 그리고 이성조의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이규현의 ‘海仙遊戲之所’, ‘第一溪亭’등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현판 등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의 작품이 있다.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에, 죽서루를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꼽으면서 누각 아래 죽장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 죽서루라고 한 것이나, 『기언(記言)』에서 죽서루를 세울 당시 동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속에 죽장사(竹穡寺)라는 절이 있어서 죽장사의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 기원으로 추정된다.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志)』에는 죽서루의 유래를 죽장사설(竹穡寺說)과 더불어 기생 죽죽(竹竹)의 집이 누의 동쪽에 있어서 죽서루라고 하고 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이승휴가 1275년에 죽서루가 창건되었다는 것은 고려 명종연간에 활약한 김극기(金克己, 1148~1209)의 시 ‘죽서루(竹西樓)’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죽서루에 걸려 있는 한시 중 ‘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侯)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은 1266년에 이승휴가 지은 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죽서루의 이름은 ‘西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축(安軸, 1282~1348)은 ‘삼척서루(三陟西樓)’라고 부르고 있고, 이구(李玖)는 ‘삼척의 관루’로 죽서루를 처음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후 정추(鄭樞, 1333~1382), 안성(安省, 1344~1421),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죽서루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삼척 죽서루는 고려시대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죽서루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삼척 죽서루는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죽서루의 역사적인 규명과 관련된 문헌기록, 누정에서의 감상을 기록한 문학작품, 죽서루를 소재로 한 그림과 현판 등이 남아 있어 김극기의 시를 통해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당시에는 ‘西樓’로 불렸으나 고려말 14세기 중반부터 ‘竹西樓’라고 불렀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죽서루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죽서루는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죽서팔경 그리고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으뜸인 관동제일루로서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등의 터와 주변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고 있고 장소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척 죽서루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삼척 죽서루는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가 전하고, 1921년 이학규의 중수기, 1947년 홍백련의 중수기, 1971년 홍종범의 중건상량문, 1991년 김광용의 중수기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삼척 죽서루의 중창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의 위치에 1403년 김효손의 중창된 이후에 1530년 허확이 남쪽 처마를 내고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 처마를 내는 등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원위치에 증축 및 중수되어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5칸 맞배지붕을 팔작지붕으로 고치면서 남쪽 처마를 증축(增作南檐)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했을 때 누각 후면의 처마를 더 내어 증축(增作後檐)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혁을 통하여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다.

원경으로는 태백준령이 한 폭의 병풍처럼 펼쳐지고 오십천이 굽이쳐 동해로 이어지고, 중경으로는 근산(近山)과 갈야산(葛夜山), 봉황산(鳳凰山)이 솟아 있어 삼신산(三神山)의 선계(仙界)와 같고, 근경으로는 오십천(五十川)은 누각 밑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응벽담(凝碧潭)을 이루어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길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다양한 경관 요소에 대한 많은 시문 등으로 보아 죽서루는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십천을 해자로 한 감시와 방비 등의 군사적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가 다른 자연암석 위에 기둥의 높이와 위치를 다르게 설치하여 지형 조건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가운데 5개의 기둥은 비교적 균일한 치수를 하고 있어 5칸 규모에서 시작하였다고 추정된다. 남쪽으로 증축하고 남쪽을 정면으로 하였을 때 후면인 북쪽으로 다시 증축하고 있다. 북쪽 가운데 기둥은 자연 암반의 높이가 높아 귀틀을 걸기

어려우므로,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운 것은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이곳만의 특징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자연조건에 자리한 지형적인 누정으로서의 공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적인 누정으로 계획하여 조성하고 있다. 오십천의 응벽담 절벽 위에 별도의 기단이 없이 남서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 암반을 초석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인공석축 및 자연석 주초석으로 보완하고 있다. 바위로 된 길을 따라 3칸 진입공간을 통해 태백산 준령의 에워싸고 절벽에서 오십천을 내려다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진입공간을 남쪽으로의 주출입구와 북쪽을 2칸 진입 암석을 올라 부출입구를 조성하면서도 위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자연암반의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활용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칸에서 증축하면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분리와 쓰임새에 따른 주칸 구성을 하고 있고, 우주를 도리통 주심열이 아니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헐칸에서 주심포와 익공의 다른 형식을 간결하면서 간결하게 맞추고 있고, 3칸 출입구에서 층량을 대들보에 끼워 연결하고 있다. 대들보가 외목도리까지 뻗어 그 상부에 주심도리와 출목도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짜임새 그리고 세부수법 등을 통하여 증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운데 5칸은 맞배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주를 주심도리가 아니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연장되어 주심도리는 증축에서 자유로워지며 증축 전 죽서루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주심도리 열의 단부는 헛첨차에서 장혀 받친 주심도리까지 교두형으로 4단을 내어 쌓아 올린 형태가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운데 5칸은 주심포식이고 좌우뒤틀간은 익공계통으로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운데 5칸의 주심포식은 주두 하부에 헛첨차와 직교하여 창방을 장혀 폭으로 하고 있어 여말선초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주심대첨차를 통첨차로 하여 보와 직교하여 결구하고, 보방향의 내부 헛첨차 위에 살미첨차를 통첨차로 하여 보를 받치도록 하고 있어 조선 초기 형식으로 추정된다. 헛첨차를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사이에 놓아 하중을 받도록 하고 있어 주심포식 초기형식으로 추정된다. 보는 그대로 뿔목까지 빠지면서 보머리를 삼분두형식으로 하고 있어 조선 초기 형식으로 추정된다.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첨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식으로 하여 교두형으로 하고 공간을 그림으로 처리하고 있어 차이는 있지만 부석사 조사당과 비슷한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부재 등에서 조선 초기의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을 1530년에 증축하면서 장혀의 춤을 높게 하고 뿔목을 용두로 초각하고, 뒤틀간의 초익공계통은 짧은 수서의 쇠서형으로 하고 간결하게 연봉을 새기고 있다. 남쪽의 후면

인 북쪽으로 1788년 처마를 증축하면서, 이전 익공계통의 형식을 따르면서 위계가 낮게 처리하는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조선 중기 이전과 조선 중기 이후의 변화상이 혼재되어 시대변화에 따른 공포의 형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죽서루는 관아 누각의 부속건물로서 창건 이후 주변의 변화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변화의 흔적으로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건축이다. 입지환경과 건축형태 등을 통해서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으로 창건되었지만 이전의 양식과 증축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을 지닌 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척 죽서루의 예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절벽 위에 놓인 누각이라는 보여지는 조건과 자연암반이라는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절벽 쪽으로 붙여 세워, 병풍처럼 둘러선 태백산의 에워쌈을 바라보고 오십천 응벽담을 내려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한 지형적인 누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죽서루가 누정으로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지형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장소성이 경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관동팔경을 대표하는 ‘관동제일루’라는 것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오십천과 사적으로 지정된 삼척 도호부 관아 등이 자연유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누정을 통해서 태백산과 오십천의 아름다움을 절벽 위에서 조망하는 전망대를 통해 자연을 접하게 되는 누각이라고 판단된다. 즉 원경, 중경, 근경의 경관 요소를 활용한 관아의 누정으로, 접대와 향연 그리고 정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재에 대하여 신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변화의 흔적을 한 건물로 볼 수 있다. 5칸에서 증축하면서 남쪽을 진입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분리와 쓰임새에 따른 주칸 구성을 하고 있다. 5칸 맞배지붕에서 남쪽 팔작지붕을 부가한 맞배지붕으로 북쪽 팔작지붕을 부가하여 증축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기둥은 자연암반의 조건에 따라 우주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고 있고,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우고 있어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운데 5칸은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1403년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남쪽을 조선 중기 이전의 익공계통으로 증축하고, 남쪽의 후면인 북쪽을 조선 중기 이후의 익공계통의 양식으로 증축하여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심포와 익공의 결합을 창의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남측면을 주출입구로 설정하기 위해 세칸으로 구성하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반면 북측

면은 2칸으로 구성하여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로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구임을 강조하였다.

남동 우주 상부의 장여뿔목은 청룡과 황룡을 조각하여, 진입하면서 잘 보이도록 의장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식화는 증축과 같은 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17C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추정되므로 1726년 최도문에 의한 중창(重創) 때 부가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익공 위의 보머리를 쇠서 형태로 조각하여 이익공처럼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남측면 어칸 부분의 진입부에는 남측 첫번째 대량 중앙에 죽서루 현판을 걸어 놓아 출입 공간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어칸에 사용된 2개의 대량이 협칸에 사용된 대량보다 단면이 큰 것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어칸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천장을 구성하면서 기능상 연등천장이 주이고 보조적으로 눈썹천장과 순각천장이 사용되었지만, 공간적 위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물천장을 사용함으로써 계층별 사용 천장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출입과 관련하여 남·북측면에는 평난간을, 시선의 방향과 관련되는 정면과 배면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함으로써 기능적 측면과 미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간을 설치하였다.

죽서루는 주어진 지형 조건과 증축과정에서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시각 및 의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을 배열하는데 일반적으로 뒷간이 넓어보이므로, 좁게 하여 입면을 구성하는데 기둥을 놓는 자연암반의 조건에 따라 보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운데 5칸은 주칸에서 정간을 협간보다 약간 크게 잡고 뒷간은 작게 잡아 시각적으로 뒷간이 넓어 보이는 것을 보정하고 있다.

1530년 남쪽으로 처마를 증축하면서 자연암반에 최대한 기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칸과 같이 주칸을 잡고, 1788년 후면으로 처마를 증축하면서 자연 암반 때문에 우물마루 귀틀을 받는 도리칸 기둥열에 맞춘 별도의 기둥을 세우면서 남쪽과 같은 크기와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1530년과 1788년 증축에서 기둥을 외목도리선에 맞추고 있는 것은,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면 앞으로 나와 기둥이 굽어 보이도록 하고, 넓어 보이는 것을 후면의 기둥이 사이에 중첩되도록 하여 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쪽 진입에서 가운데 칸의 기둥을 약간 가늘게 해서 상대적으로 우주가 굽어보이도록 시각 보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축 과정에서 남쪽은 협칸과 같이 주칸을 잡고, 남쪽의 후면은 귀틀을 받는 별도의 하층 기둥을 세우면서 남쪽과 같은 주칸과 형식으로 설정하여 시각적인 보정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둥을 외목도리선에 맞춘 배열은 자연암반 조건만이 아니라, 주요 조망점인 동쪽에서 보면 앞으로 나와 기둥이 굽어 보이도록 하고, 후면 기둥이 넓어 보이는 것을 사이에 중첩되도록 하여 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층기둥의 민흘림 기법과 상층기둥의 배흘림 기법을 통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주의 귀솟음을 통하여 시각보정을 하고 안솔림을 통하여 모서리 기둥이 건물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보정하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응벽의 절경에 자리하여 태백산과 오십천을 조망대상으로 하는 조망 가치로서의 누정, 명승 오십천과 사적 삼척도호부 등의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집지, 자연 조건에 대한 지형적인 누정으로서의 공간특성, 증축을 통한 창의적인 세부수법과 구조적인 특성과 세부수법, 시각이나 착시 등에 대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특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삼척 죽서루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죽서루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형적인 누정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이전의 양식을 존중하고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여 다양성이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구성을 통해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혁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문학작품 및 기여도가 우수하고, 예술적인 측면에서 증축과정의 흔적이 남아 특수성, 우수성, 창의성 등이 우수하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대표성, 지역성, 특이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척 죽서루는 지형적인 특성을 이루는 오십천과 바다가 만나는 절벽 위에 지어진 중층누정으로 지형 및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적인 삼척도호부 관아지, 명승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용문바위와 성혈유적, 동헌지, 관아, 연근당, 진동루지, 토성 및 석성 등의 터와 바위 벽에 암각자 등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연관되는 장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역사 인문학적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서 죽서루 그림에 나타나는 실의 위치와 규모, 하층의 벽체 및 아궁이 등을 밝혀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의견>

삼척 죽서루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죽서루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형적인 누정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이전의 양식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여 다양성이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구성을 통해 아름다운 선경을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적인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명승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

경을 활용한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지닌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 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는 풍류공간의 산실이다.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되어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시대적 특성을 지닌다는 가치가 있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숙종과 정조의 어제시부터 시인묵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한 현존 시, 산문, 가사 등이 500여 편이 넘는 풍류공간의 산실
- 정확한 창건은 알기 어려우나 고려 중기에 활동하였던 김극기의 시를 통해 고려 중기 이전에 건립
- 이후 조선 전기에 재건되어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와 함께 기록이 잘 남아있어 누정으로 시대적 특성
- 사적인 삼척도호부관아지에서 사용하던 중층 누각으로 명승인 오십천과 단애 위 암반 그리고 멀리는 태백준령과 두타산을 원경으로 크고 작은 산을 중근경을 활용한 문화 지리적인 특성
- 삼척 죽서루는 1662년 허목의 척주지와 죽서루기, 1788년 김종언의 척주지에 서탁수가 쓴 중수기 그리고 중수기와 상량문을 통한 연혁의 명확성
-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어 그 터에 1403년 김효손의 중창, 1530년 허확이 남쪽 처마 증축, 1788년 서탁수가 북쪽 후면 처마 증축한 관동팔경의 제일루로서 장소성
- 원경, 중경, 근경의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즐기면서 접대와 향연 그리고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극적인 장면 연출
- 원지형에 원형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특성과 증축 과정에서 공간사용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는 특성
- 우주를 출목도리열에 맞추어 배열하는 과정에서 험칸에서 주심포와 익공의 다른 형식, 3칸 출입구에서 수평적인 층량을 대들보에 끼워 연결, 대들보가 외목도리까지 뻗어 그 상부에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지지 등으로 증축하고, 주심도리 열의 단부는 헛침차에서 장혀 받친 주심도리까지 교두형으로 4단을 내어 쌓아 올린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있어, 증축을 통해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는 특이성
- 가운데 5칸은 주심포식이고 좌우뒤틀간은 익공계통으로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한


특이성

- 주심포식의 주두 하부에 헛침차와 직교하여 창방을 장혀 폭으로 하고, 침차를 통침차로 보를 받치고 있고, 헛침차를 주심도리와 출목도리 사이에 놓아 하중을 받도록 하고, 보는 그대로 뺄목까지 빠지면서 보머리를 삼분두형식으로 하고, 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침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형식으로 하고 교두형에 공간을 그림으로 처리하고 등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부재 등에서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는 특성
- 관동팔경을 대표하는 ‘관동제일루’라는 것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오십천과 사적으로 지정된 삼척도호부 관아 등이 자연유산과 문화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조망가치
- 증축을 통해 주칸 구성, 지붕 형식 변화, 구재와 신재 혼용 등 이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창의적인 형식으로 이어지고 변화의 흔적을 확인
- 주심포와 익공의 결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가운데 5칸은 고려 후기 주심포식이면서 장식을 절제한 1403년 조선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남쪽을 조선 중기 이전의 익공계통으로 증축하고 남쪽의 후면인 북쪽을 조선 중기 이후의 익공계통의 양식으로 증축하여 서로 다른 공포 양식을 사용
- 다양한 천장 형식과 난간 등에서 의장성과 공간적 위계성
- 기둥 배열과 중첩, 하층기둥의 민흘림 기법과 상층기둥의 배흘림 기법, 우주의 귀솟음과 안솔림 등 주어진 지형 조건에서 증축과정에서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시각 및 의장적인 창의성
- 남쪽을 증축하면서 장혀의 춤을 높게 하고 뺄목을 용두로 초각하고, 뒤틀간의 초익공계통은 짧은 수서의 쇠서형으로 하고 간결하게 연봉을 새기는 등의 의장성


<삼척 죽서루 현판>

1) 편액(扁額)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성조-죽서루(竹西樓)/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죽서루의 정면에 걸린 '竹西樓'와 '關東第一樓' 현판은 이성조(李聖肇)의 글씨이다. 가 썼다. 이성조는 1710년(숙종 36) 11월에 삼척 부사로 왔다가 1712년(숙종 38) 10월에 장령(掌令)으로 옮겨갔다. 서체는 행서체(行書體)이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이규헌-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이 현판의 글씨는 삼척 부사를 지낸 이규헌(李奎憲)의 작품이다. 이규헌은 1835년(헌종 1) 7월에 삼척 부사로 왔다가 1839년(헌종 5)에 능주 목사로 옮겨갔다. 그는 재임동안 부세(賦稅) 감면, 유생 교육, 백성 교화에 노력하여 선정(善政)을 펼쳤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떠난 후 선정비(善政碑)와 흥학비(興學碑)를 세웠다. 재임기간이 1년 남짓인 지방 수령의 평균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 삼척부사로 재임하였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작자미상-죽서루(竹西樓) 이 현판의 글씨 '竹西樓'는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다.</p> |

| 편액사진 | 번역 |
|---|--|
|  | <p>허목(?)-제일계정(第一溪亭) 이 현판의 글씨 '제일계정(第一溪亭)'은 삼척 부사를 지낸 허목(許穆)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허목의 글씨는 아닌 듯하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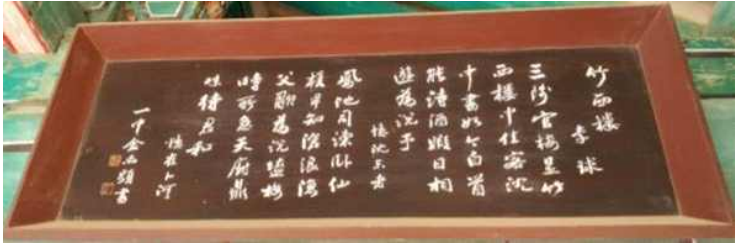
2) 제영(題詠)


| 필자 | 번역 |
|--|--|
| <p>서성-五十川韻 서성(徐滂, 1558-1631).인조반정 후 병조·호조판서 역임. 이 현판에는 그의 시 5편이 새겨져있음.</p> | <p>우보산에서 흘러내린 오십천의 물 모래는 깨끗하고 이끼는 푸르구나 구불구불 휘돌아가니 몇 구비던가 마흔일곱 번이나 휘돌아서 흐르네 깊이는 허리나 또는 무릎까지인데 돌부리들이 나의 발을 찌르는구나 때맞추어 나타난 빨래하는 여인은 얼굴이 백옥과도 같이 새하얗구나 오십천 동서쪽에 자리잡은 집들은 사립문이 깊숙한 골짜기를 가리네 마음만 같아서는 쫓아가 노닐면서 은근하게 정담을 주고받고 싶지만 춘삼월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에 한번 승낙했으니 머물지는 못하네 물길을 따라서 쓸쓸히 돌아오려니 바람이 간간이 대나무숲을 울리네</p> |
| <p>원문</p> <p>川自牛山來 沙明苔蘚綠 縈紆何盤盤 四十七回曲 深厲淺則揭 石齒嚙我足 時見浣紗女 白皙顏如玉 家住水東西 柴扉掩幽谷 我欲從之遊 微辭屢往復 佳期在桃月 一諾終不宿 沿流惆愴歸 疎風響修竹</p> | |




| 필자 | 번역 |
|--|---|
| <p>서증보-敬次/忠肅先祖板上韻 서증보(徐曾輔, 1813~?). 1870년(고종 7) 3월 삼척부사로 부임. 이 현판에는 그가 쓴 시 3편이 새겨져 있음.</p> | <p>삼가 선조 충숙공의 판상시를 차운하다 바닷가에 있는 고을의 좋은 관리가 되어 공무 끝내고 죽서루에서 한가히 책 읽네 오십천은 신선들 사는 삼천리 약수 같고 누각은 바람 시원한 오백 칸 범왕궁일세 흐르는 물은 이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바라보매 더 멋진 산봉우리 그 몇이던가 선조의 시판을 닦으니 감회 더욱 새롭고 왕고가 남긴 현산비 갈아 눈물이 나누나</p> |
| <p>원문</p> <p>敬次忠肅先祖板上韻 海上猶能做好官 竹樓公退讀書閒 仙居弱水三千里 梵宇清風五百間 逝者如斯無晝夜 望之尤美幾峯巒 己拚先祖詩多感 王考遺碑似峴山</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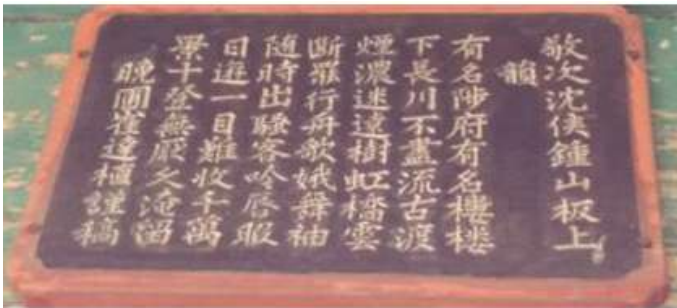
| 필자 | 번역 |
|---|---|
| <p>이구-竹西樓 이구(李球)는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생원이 되고, 후에 목사(牧使)에 이름. 이 현판에는 그가 쓴 시 ‘죽서루(竹西樓)’ 2편이 있는데, 일중 김충현의 글씨를 새겨 놓음. 하나는 심동로를 생각하며 쓴 시이고, 또 하나는 최복하를 생각하며 쓴 시임.</p> | <p>삼척의 관루는 바로 죽서루인데 누중 반가운 손님은 심중서로다 백발이면서도 시와 술을 잘하니 여가에 모여 놀면서 이야기하네 심동로를 생각하며</p> <p>봉지의 시간을 지내고 선사에 누워서 일찌기 창랑수의 어부가 뜻을 알았네 염매를 맛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니 수라간에서 그대 조리 솜씨 기다리네 최복하를 생각하며</p> |
| <p>원문</p> <p>三陟官樓是竹西 樓中嘉客沈中書 而今白首能詩酒 暇日相遊爲說予 憶沈東老</p> <p>鳳池司諫臥仙槎 早和滄浪漁父歌 爲說鹽梅時所急 天廚鼎味待君和 憶崔卜河</p> |  |


| 필자 | 번역 |
|--|--|
| <p>숙종어제(肅宗御製) 이 현판에는 조선 19대 왕인 숙종이 쓴 시 ‘죽서루(竹西樓)’와 이 시를 죽서루에 걸게 된 사유를 설명한 삼척 부사 이상성(李相成)의 글이 새겨져 있다.</p> | <p>위태로운 벼랑에 드높이 솟은 백척 누각 아침 구름 저녁 달그림자 청류에 비치고 맑고 깨끗한 물결 속에 물고기 뛰노는데 한가히 누각 난간에 기대 물새 희롱하네</p> |
| <p>원문</p> <p>碑兀層崖百尺樓 朝雲夕月影清流 粼粼波裡魚浮沒 無事凭欄狎白鷗</p> |  |


| 필자 | 번역 |
|---|--|
| <p>이준민-敬次石川 이준민(李俊民)이 1559년에 석천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와 이준민의 증손 강릉 부사 이지무가 1657년(효종 8)에 역시 같은 운자로 쓴 시, 그리고 이준민의 5대 손으로 삼척 부사를 지낸 이성조가 1711년에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 <p>삼가 석천의 시를 차운하다 세상일에는 전혀 무심한 나그네가 강호에 살겠다 사람들과 약속했지 까마득한 죽서루에 저녁노을 지니 헛되이 옛 동산에서 봄을 보내노라 1559년 음력 5월 13일 全義李俊民 전의 이씨 이준민</p> |
| 원문 |  |
| <p>敬次石川 天地無心客 江湖有約人 斜陽樓百尺 虛送故園春 己未仲夏旬三</p> | |


| 필자 | 번역 |
|---|--|
| <p>서호순-敬次藥峯先祖板上韻 1846년 삼척 부사 부임. 1847년 자기 선조 서성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 2편이 새겨져 있음.</p> | |
| 원문 | |
| <p>敬次藥峯先祖板上韻 自憐潦到未休官 晚着名區特地閑 百尺樓臨湖海上 四時人在宕台間 川流自位逢層壁 蜃氣休侵障列巒 先蹟猶傳棠下詠 後孫空醉孟陽山 宦跡圻湖舊俗流 栖遲天餉七分樓 緬惟吾祖檐帷駐 非直當年麗藻留 坐對空濶渾是畫 俯臨澄碧自疑鷗 丹砂未必求句漏 白首眞堪寄此州 丁未孟冬後孫灝淳</p> | <p>삼가 약봉 선조의 판상시에서 차운하다 늙어서도 벼슬 그만두지 못한 것 서글웠는데 늘그막에 경치 좋은 곳에서 한가롭게 지내네 까마득한 누각 호수와 바닷가에 다가가서 있고 사계절 내내 사람들은 오재공의 터에 있나니 넋물은 저절로 흘러 높다란 절벽에 부딪히고 신기루는 늘어선 산들에 막혀 침범하지 않네 선조의 자취 외려 당하제명기 율음에 전하고 후손은 맹양산에서 괜스레 술에 취해 있구나 벼슬살이의 자취는 기호의 옛 풍속에 흐르고 편히 쉬라고 하늘이 칠분루 고을에 보내셨네 돌아보면 우리 선조의 수레 머물렀던 곳인데 그때의 아름다운 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닐세 앉아서 안개 바라보자니 온 천지가 그림 같고 푸르른 오십천 내려다보니 갈매기라도 된 듯 단사를 꼭 구루산에서만 구할 필요가 있을까 늙었어도 이 고을에서 벼슬살이 할 만하구나 1847년 음력 10월 후손 호순</p> |

| 필자 | 번역 |
|---|--|
| <p>정조어제(正祖御製) 정조가 김홍도의 죽서루도를 보고 난 뒤 그 소감을 담아 지은 시가 실려 있음. 글씨는 김충현 작품.</p> | <p>바위 쪼고 절벽 깎아 누각을 세웠는데 누각 옆 푸른 바닷가에 갈매기 노니네 죽서루 있는 고을 태수 뉘집 아들인가 미녀들 가득 신고 밤새 뱃놀이 하겠네</p> |
| <p>원문</p> |  |
| <p>彫石鑄崖寄一樓 樓邊滄海海邊鷗 竹西太守誰家子 滿載紅粧卜夜遊</p> | |

| 필자 | 번역 |
|--|--|
| <p>최달식-敬次沈侯鍾山板上韻 만포(晩圃) 최달식(崔達植)이 심 부사 종산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최달식은 삼척향교의 전교(典敎)를 지냄.</p> | <p>삼가 심후 종산이 쓴 판상시를 차운하다 저 유명한 삼척부에서도 이름 난 죽서루 누각 아래 긴 오십천은 끝없이 흘러가네 나루터에 안개 끼니 먼 나무들 흐릿하고 홍교에 조각 구름 걸리자 뱃놀이 멈추네 미인 가수 춤추는 소매 때때로 휘날리고 시인은 노래하며 한가한 날 즐기고 있네 한 번에 감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절경들 수없이 올라도 싫지 않아 오래 머무르네</p> |
| <p>원문</p> | <p>만포 최달식 삼가 쓰다</p>  |
| <p>敬次沈侯鍾山板上韻 有名陟府有名樓 樓下長川不盡流 古渡煙濃迷遠樹 虹橋雲斷罷行舟 歌娥舞袖隨時出 騷客吟唇暇日遊 一目難收千萬景 十登無厭久淹留 晩圃崔達植謹稿</p> | |

| 필자 | 번역 |
|---|--|
| <p>심공저-敬次栗谷先生板上韻 심공저(沈公著)는 1804년(순조 4) 2월에 삼척 부사로 부임. 그가 1804년 율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 <p>삼가 율곡 선생의 판상시에서 차운하다 아름다운 강산에 누각 하나 우뚝 솟았는데 서늘한 골짜기 기운 사시사철 가을 같구나 깎아지른 듯한 환벽은 들쭉날쭉 솟아 있고 잡아늘인 듯한 긴 냇물 구불구불 흘러가네 몇 장의 공문서 가져왔지만 별일도 아니니 노래하며 지내는 건 근심 없애기 위함일세 연밥 따는 일엽편주는 신선 만나지 못하여 강과 바다의 비밀한 기약 백구에게 묻누나 1804년 음력 7월 하순 부사 심공저</p> |
| <p>원문 敬次栗谷先生板上韻 罨畫溪山起一樓 蒼涼洞氣四時秋 削成環壁參差聳 控引長川曲折流 數牒題來無箇事 百篇吟過寫閑愁 蓮舟未與仙人遇 江海幽期間白鷗 甲子孟秋下澣知府沈公著</p> |  |

| 필자 | 번역 |
|--|--|
| <p>양정호-竹西樓敬次栗谷先生韻 양정호는 1728년 삼척 부사 부임. 그가 1728년에 율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 <p>삼가 율곡 선생의 죽서루 시에서 차운하다 높다란 절벽에 날아갈 듯이 솟은 누각은 삼복 찌는 더위에도 가을 같이 시원하네 먼 산봉우리 아지랑이 끼어 은은한 자태 시냇물은 방초 사이로 깊고 알개 흐르네 아름다운 난간과 온갖 물색은 시의 소재 술자리 울려 퍼지는 노래에 수심 사라져 명승에서 숨어 사는 관리 절로 부끄럽고 강호와 맺은 굳은 약속 물새에게도 졌네 1728년 몹시 더운 날 부사 양정호 쓰다</p> |
| <p>원문 竹西樓敬次栗谷先生韻 蒼崖陡起架飛樓 三伏炎蒸爽似秋 遠岵浮嵐濃淡態 晴川芳草淺深流 雕欄物色添詩料 錦席絃歌散客愁 吏隱名區翻自愧 江湖一約負沙鷗 戊申流金日知府梁廷虎稿</p> |  |

| 필자 | 번역 |
|---|--|
| <p>정규형-謹次/栗谷先生板上韻 정규형(鄭奎亨)이 을곡 이이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또 낙정의 후손 정연택이 그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와 글도 있음.</p> | |
| 원문 | |
| <p>謹次栗谷先生板上韻 羸驂御却倚高樓 三伏炎天爽似秋 簾外碧峯浮遠黛 檻前蒼壁帶清流 千年勝地逢佳節 一夕奇遊洗客愁 形役半生頭欲白 幾時投綬伴沙鷗 樂靜 鄭奎亨</p> | <p>삼가 을곡선생의 판상시를 차운하다 지친 마부 돌려보내고 높은 누각에 기대어 서니 삼복 더운 날씨에 시원함이 가을 같구나 발 너머 푸른 산봉우리는 미인의 눈썹처럼 떠있고 난간 앞 푸른 절벽에는 맑은 물 빙 둘러 있네 천년 명승지에다 좋은 계절 만났으니 하루 저녁 특별한 놀이에 나그네 근심 사라지네 마음 고생 반평생에 머리가 백발이 되려 하니 어느 때 사직하고 모래 위 갈매기와 벗할까 낙정 정규형</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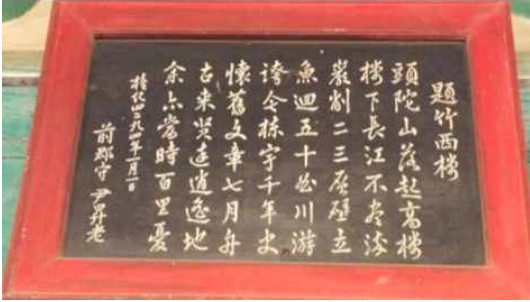
| 필자 | 번역 |
|--|---|
| <p>이승휴-陪安集使兵部陳侍郎(諱子俟) 登眞珠府西樓次板上韻 이승휴(李承休)가 안집사(安集使) 병부시랑(兵部侍郎) 진자사(陳子俟)와 함께 죽서루에 올랐다가 판상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 |
| 원문 | |
| <p>眞珠府西樓次板上韻 半空金碧駕崢嶸 掩映雲端舞棟楹 斜倚翠岩看鵲舉 俯臨丹檻數魚行 山圍平野圓成界 縣爲高樓別有名 便欲投簪聊送老 庶將螢燭助君明 李承休</p> | <p>안집사 병부시랑 진자사를 모시고 진주부 서루에 올라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높은 하늘 고운 색채 높고 험준함을 더하는데 햇빛 가린 구름조각 용마루와 기둥에서 춤추는구나 푸른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날아가는 고니 바라보고 붉은 난간 잡고 내려다보며 노니는 물고기 헤아려 보네 산은 들판을 빙 둘러싸 둥그런 경계를 만들었는데 이 고을은 높은 누각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구나 문득 벼슬 버리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 임금 현명해지기를 바라네 이승휴</p> |


| 필자 | 번역 |
|--|--|
| <p>심영경-次竹西樓板上韻 심영경(沈英慶)은 1875년 삼척 부사 부임. 죽서루 판상의 시를 차운하여 쓴 시가 새겨져 있음. 재임동안 유생 교육과 백성들의 세금 감면에 힘씀.</p> | <p>죽서루에서 판상시를 차운하다 대관령 동쪽에서 제일 가는 누각 죽서루 누각 아래로 푸른 물 도도히 흐르는구나 고요한 산 계수나무 숲에선 새들이 울고 달 밝고 거룻배에선 사람 말소리 들리네 백년토록 샘과 바위 나를 기다린 듯한데 천고의 문장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아름다운 꽃들 옛 추억 떠오르게 하는데 흰구름 보고 돌아가는 수레 잠시 멈추네</p> |
| <p>원문 次竹西樓板上韻 關東第一竹西樓 樓下溶溶碧玉流 山靜鳥啼叢桂樹 月明人語木蘭舟 百年泉石如相待 千古文章不盡遊 采采瓊華生遠思 白雲歸駕故掩留</p> | |



| 필자 | 번역 |
|--|---|
| <p>율곡 이이-竹西樓次韻 율곡이 죽서루에 있는 시를 차운하여 쓴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글씨는 일종 김충현 작품. 1558년 이이는 처가인 성주에서 안동 예안의 도산에 들러 이황을 만나 이틀 동안 학문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뒤 강릉의 외가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삼척을 지나는 길에 죽서루에 들렀을 것으로 추정됨.</p> | <p>죽서루에서 차운하다 누가 하늘 받들어 화려한 누각을 세웠나 하염없이 지나온 세월 기억할 수도 없네 멀리 들판 밖에는 수많은 산들 떠있는데 모래사장 가까이엔 맑은 물 차게 흐르네 시인은 절로 그윽한 한이 많다고 하지만 맑은 경지에 어찌 나그네 수심 일으키리 온갖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는 절벽 서쪽 물가에서 조는 물새와 놀까나</p> |
| <p>원문 竹西樓次韻 誰將天奧敞華樓 石老星移不記秋 野外千巒浮遠岫 沙邊一帶湛寒流 騷人自是多幽恨 清境何須惹客愁 會撥萬緣携籊籊 碧崖西畔弄眠鷗</p> | |



| 필자 | 번역 |
|--|--|
| <p>윤승로-題竹西樓 1933년부터 4년간 삼척 군수를 역임하였던 윤승로가 1961년에 쓴 시가 새겨져 있음.</p> | <p>죽서루를 읊다 두타산 끝자락에 높은 누각 우뚝 솟았는데 누각 아래로 긴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누나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 병풍처럼 서 있고 물고기는 오십 구비 냇물 따라 놀고 있구나 죽서루는 지금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옛 글들은 초가을 뱃놀이를 생각나게 하네 예로부터 여기는 현인 달사가 놀던 곳인데 나는 그때 삼척땅 다스릴 걱정만 하였구나 단기 4294년 1월 1일 전군수 윤승로</p> |
| <p>원문 題竹西樓 頭陀山落起高樓 樓下長江不盡流 巖削二三層壁立 魚迴五十谷川游 誇今棟宇千年史 懷舊文章七月舟 古來賢達逍遙地 余亦當時百里憂 檀紀四二九四年一月一日, 前郡守, 尹昇老</p> |  |

| 필자 | 번역 |
|---|--|
| <p>송강 정철-竹西樓 이 현판은 정철의 시 '죽서루'를 1992년 10월 9일 홍태의가 서각해 놓은 것.</p> | <p>죽서루 송강 정철 관동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척주의 누각 커다란 난간에 위태롭게 기대서니 여름 또한 가을 구나 하늘나라 서울 옥경(玉京)은 북쪽 왼편에 이웃해 있어 마음을 가다듬으니 은하수 서쪽으로 흘러가는 소리 들리네 성긴 발 걸으려 하니 빛나는 이슬 축축하고 한 마리 새조차 날지 않으니 강가의 경치 수심 가득하구나 난간 아래 외로이 떠있는 배 바다로 들려 하는데 냇숫대 올릉도 가는 갈매기 쫓아 휘두르네</p> |
| <p>원문 竹西樓 松江 鄭澈 關東仙界陟州樓 虛檻憑危夏亦秋 天上玉京隣北左 夢中銀漢聽西流 疎簾欲捲露華濕 一鳥不飛江色愁 欄下孤舟將入海 釣竿應拂鬱陵鷗</p> |  |

| 필자 | 번역 |
|--|--|
| <p>강징-次 강원도 감찰사를 지낸 강징(1466~1536)의 시 '次'와 함께 그의 6대손 설죽당 강재숙(1677~1758)과 입재 강재항(1689~1756)의 발문, 17대손 강신소의 발문이 차례로 실림. 글씨는 정향교 작품.</p> | <p>신선 사는 누각 높다란 성에 세웠는데 나그네 올라 보니 서글픈 마음 치미네 고향 돌아갈 생각 구름 같이 사라지고 높이 뜬 무지개 취한 김에 아른거리네 너른 벌판에 부는 바람은 바다로 불고 거센 물결 우뢰 같이 세차게 몰려오네 깊은 밤 떠들썩 들려오는 노래와 연주 사람들 달빛에 기대 요대에 앉아 있네 동에서 온 물색 새로운 해로 접어드니 고향 생각은 유유히 바다 멀리 보내네 생황 불고 노래하며 밤 늦도록 취하자 눈과 달의 밝은 빛이 매화나무 비치네 창안의 궤석은 아침의 붉은 해를 맞고 누각의 발과 깃발 안개 속에 나무끼네 세상밖에서 참 즐거움 얻을 수 있을까 봉래산 찾아가 신선을 찾아 볼까 하네</p> |
| <p>원문</p> <p>仙閣峯嶢插高城 客來登眺動愁情 十分歸思雲邊盡 萬丈虹光醉裏成 大野雄風吹海立 千重巨浪殷雷行 夜深歌吹喧喧地 人在瑤臺倚月明 東來物色入新年 鄉思悠悠寄海天 兩部笙歌供夜醉 雙清雪月到梅邊 窓中几席迎紅旭 樓上簾旌拂紫煙 物外眞遊如可得 欲審蓬島覓神仙</p> | |



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처리 완료한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 선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 위원회를 통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주로 환수가 결정되고, 그 동안의 용역 결과를 통해 탑과 탑비의 상태, 보존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지광국사탑 부재 33개 중 31개는 현재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보존 관리 중임.
- 금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광국사탑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재지
 -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94번지(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내)
 - 지정일 : 1962. 12. 20.
- (3) 추진경과
 - '15.~'16. : 보존처리 가결(문화재위원회), 석탑 해체 및 모르타르 제거
 - '17.~'18. : 복원석재 산지조사 및 도상복원 연구, 결실부재 신석복원
 - '19.~'20. : 결실부재 신석복원, 파손부재 접합 및 강화처리, 보존처리 완료

○ '21.~'22. : 복원 기초자료 구축(디지털 복원과 3D 샌드 프린팅 출력 후 가조립, 부재 박리현상 연구 등)

○ '23.(현재) : 지광국사탑 부재의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임시보관 및 전시

(4) 추진경과

○ 원형부재+신석재 간 접합 : 옥개석 등 19개이며, 총 77개편을 접합·복원

○ 원형부재 간 접합 : 양화 등 14개이며, 총 43개편을 접합·복원

○ 옥개석은 원형부재 18개편, 신석재 24개편을 접합·복원하였으며, 접합된 면적이 부재 표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폭탄 피해에 따른 다수의 크고 작은 균열과 원형부재와 신석재 간 물성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접합면 고장 장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과거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수용성 염은 부분적인 제거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풍화작용으로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음

라. 검토내용

(1) 석탑 복원 위치 선정

○ 1안)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부재 임시보관처, 법천사지 내 위치)

○ 2안) 원주 법천사지 승탑원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호각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원주시 발주)

- 승탑원에 복원 시 석축 및 지반 보강이 필요하며, 연약층이 확인되기 때문에 석탑 복원 후 부분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호각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2~3.9m를 굴토하여 풍화 암반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때 탑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승탑원의 지형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각 설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국립문화재연구원 검토의견

○ 1안-유적 전시관 선정) 지광국사탑의 보존현황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탑의 안정적 보존·관리·유지를 위하여 1안인 유적 전시관 복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원주시 의견

- 현재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를 완료하여 가장 훼손이 심한 옥개석 및 탑신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재들이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보존·관리함.
-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각 건립 및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함.
- 문화재로서의 가치, 112년만의 귀향 등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위치가 타당 하지만, 원위치는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탑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없음.
- 법천사지 내에 유적전시관은 설계 당시 지광국사탑과 탑비를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해 두고 건립된 전시관으로, 지광국사탑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여건상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위치는 실내(유적전시관)가 적합함.

마. 향후계획

- (‘24.01.)복원 설계 발주 / (‘24.03.)면진대 설치(원주시) / (‘24.05.)복원공사 발주 / (‘24.09.)석탑 복원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참고 1> 문화재위원회 주요 추진경과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06.20.) : 원안가결
 - 지광국사탑은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기로 함.
 - 다만, 원위치(승탑원지) 복원과 법천사지 내 전시관에 보존·전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된 후 재심의토록 함.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21.02.18.) : 원안접수
 - 지광국사탑 및 탑비 함께 '원위치(승탑지) 보존'
 - 원위치 복원을 위해서는 우수 차단 및 습기 제어 필요,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필요.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1.10.21.) : 조건부가결
 - 지광국사탑비의 경우 원 위치에서 수리하되, 해체 범위와 방안 등의 계획은 건축분과, 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세부사항 검토.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23.06.15.) : 원안접수
 - 지광국사탑 부재(31개, 옥개석과 탑신석 제외)의 임시 보관처로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정하며, 해당 부재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함.

4.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0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부결
 - 문화유산 보호방안 마련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가흥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148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m, 문화유산에서 30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고가도로) 신설
 - 1) 도로길이 : L=1.06km
 - 2) 도로폭 : 20m, 4차로
 - 3) 주요구조물 : 291m 교량 1개소

- 4) 수목식재 : 상록교목(소나무 등 3종), 낙엽교목(느티나무 등 4종) 23주
- 5) 사업예산 : 600억원
- 6) 사업기간 : '24. 9. ~ '26. 8.

라.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유산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5.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5차)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층수 높아 위압적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9.17.) : 보류
 - 현지조사, 허가사례 검토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10.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1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1.03.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1-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상세내용 불입참조)

※ 경관심의 전(접수 시)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49m²
- 건축(연)면적 : 1,260.51m²(26,519.21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 지하2층, 지상35층
- 높이 : 110.4m

=> '20년 1월 2차 자체회의 결과 보류 : 자료보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경관 심의 결과 및 자료 제출
- 신청사업과 문화재와의 관계자료(주변 현황 등) 제출

※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및 입주민의 조망권 저해 보완
- 상가외부 전면유리 설치에 따른 간판설치계획 보완
-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 재검토(그라데이션 등)

라. 현지조사의견(2020.10.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지조사 결과, 상주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신청건물 정도 높이의 건물이 없는 상황임
- 다만, 당해문화재가 공원으로 이전된 상황이고 공원과 보호각 전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임.
- 당해문화재에 대한 제한은 배후 스카이라인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제한이 유일하나, 현 상황에서는 능선과 수림대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건물에 대한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및 일반숙박시설 신축

| 구분 | 2020년 제5차 (2020. 5. 21. 부결) | 2020년 제10차 (2020. 10. 15. 부결) | 2021년 제1차 (2021. 1. 21. 부결) | 2021년 제3차 (2021. 3. 18. 부결) | 금회 신청안 (2023. 12. 21.) |
|------|--------------------------------|----------------------------------|--------------------------------|--------------------------------|---|
| 대지면적 | 2,508㎡ | 2,508㎡ | 2,508㎡ | 2,508㎡ | 2,459㎡ |
| 건축면적 | 1,520.9㎡ | 1,520.9㎡ | 1,950.0㎡ | 1,520.9㎡ | 1,702.0㎡ |
| 연면적 | 22,721.8㎡ | 22,049.6㎡ | 26,082.0㎡ | 21,712.9㎡ | 15,327.8㎡ |
| 세대수 | 138세대 | 132세대 | 153세대 | 123세대 | 395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일반숙박시설 96실) |
| 층수 | 지하 2층, 지상 27층 | 지하 2층, 지상 26층 | 지하 4층, 지상 24층 | 지하 3층, 지상 23층 | 지하 2층, 지상 14층 |
| 최고높이 | 91.8m | 81.2m | 74.4m | 71.9m | 49.2m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6.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천관전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주변에 천관전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천관전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부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4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4m
 - 사업내용 : 천관전 건립
 - 사업비 : 800백만원(지방비)
 - 건축면적 : 54.02㎡
 - 건축규모 : 지상 1층,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양식 : 사모지붕, 겹처마, 다포식
- 최고높이 : 9.3m

※ 지난 신청 대비 금회 신청 현황

| 분류 | '23.9.21. 심의 / 부결 | 금회 |
|------|--------------------------|------------------|
|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1m | 문화재에서 <u>24m</u> |
| | 대웅전에서 16m | 대웅전에서 <u>19m</u> |
| 건축면적 | 54.02㎡ | (좌동) |
| 건축규모 | 지상 1층, 평면 3×3칸 | (좌동) |
| 건축양식 | 사모지붕, 겹처마, 다포식, 중층목탑형 | (좌동) |
| 최고높이 | 10.8m | <u>9.3m</u>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7.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에 해당됨.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0.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1.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8.12.20) : 부결
 - 절토량 과다 및 토목도면 보완 필요/ 역사문화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0.19.)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원안가결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2.11.) : 원안가결
- ※ ‘20년 자체검토회의(2020.11.10.) :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46-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노유자시설 건립

| 구분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 층수 및 최고높이 | 건축구조 | 비고 |
|-------------------------|------------------------|--------|------------------------|------------------------------|----------|------------------------|
| 1차 (‘18.10.18./부결) |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신축 | 1,823㎡ | 364.13㎡ (2,836.59㎡) | 지하1층, 지상4층 / 20.86m(평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2차 (‘18.11.15./부결)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지하1층, 지상4층 / 14.91m(평지붕) | (변동없음) | |
| 3차 (‘18.12.20./부결)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76.63㎡ (1,688.88㎡) | 지하1층, 지상3층 / 10.99m(평지붕) | (변동없음) | *현지조사 : ○○○, ○○○ |
| 4차 (‘19.10.19./보류)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2,795㎡ | 520.59㎡ (1,633.49㎡) | 지하1층, 지상2층 / 10.2m(평지붕) | (변동없음) | *현지조사 : ○○○, ○○○ |
| 5차 (‘19.11.21./원안가결)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518.93㎡ (1,298.87㎡) | 지하1층, 지상2층 / 10.65m(평지붕) | (변동없음) | |
| 6차 (‘20.2.20./원안가결) | (변동없음) | (변동없음) | 518.20㎡ (1,266.84㎡) | 지하1층, 지상2층 / 10.43m(평지붕) | (변동없음) | |
| 7차 (‘20.12.17./원안가결) | 근린생활시설 신축 | 1,823㎡ | 362.97㎡ (1,392.23㎡) | 지하1층, 지상2층 / 10.12m(평지붕) | (변동없음) | 자체처리 |
| 금차 | 노유자시설 신축 | 1,822㎡ | 362.65㎡ (1,991.72㎡) | 지하1층, 지상4층 / 14.81m(경사지붕) | (변동없음) | |

※ 현상변경 허가(7차, ‘20.12.17) 대비 최고높이가 4.69m 증가, 연면적은 599.49㎡ 증가하여 재심의 요청하는 사항임.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8. 밀양향교 대성전, 명륜당 주변 허용기준 제정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3.05.01.~2023.05.22.(22일))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 밀양시장
- (2) 대상문화재 :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향교3길 19(교동)
 - 지정일 : 2020. 12. 29.
- (3) 신청내용 : 밀양향교 대성전, 「밀양향교 명륜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라. 현지조사의견(2023.12.0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밀양향교 아래 도지정문화재인 손씨고가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도지정 구역과 향교가 인접하는 구역은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해 일부 강화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추진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부.

【 허용기준 변경 전 】

| 구 분 | 허용기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
| 1구역 | ○ 개별검토 | |
| 2구역 | ○ 각 시군별로 대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 3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 4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
| 5구역 |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 통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 및 2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또는 시설물) 중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하는 것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건물 및 시설물의 건축(설치)시 동 허용기준의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당해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구역의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 구역의 기준을 적용함.(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기준 적용)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 건축물(시설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하며, 재료의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와 10층 이상의 건물은 개별심의. | |

【 허용기준 변경 후 】

| 구 분 | 허용기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
| 1구역 | ○ 개별검토 | |
| 2구역 | 2-1 | ○ 개별검토 |
| | 2-2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 2-3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 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4구역 | ○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밀양손씨고가 외 5건)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공 통 사 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했다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

9.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상현묘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보물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보물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3. 10. 5. ~ 2023. 10. 25.(20일))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 ※ 2023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 7. 20.) : 보류
 - 282전, 281대 지번의 고도높이에 대한 재검토후 재심의
- ※ 2023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 8. 17.) : 부결
 - 282전, 281대 부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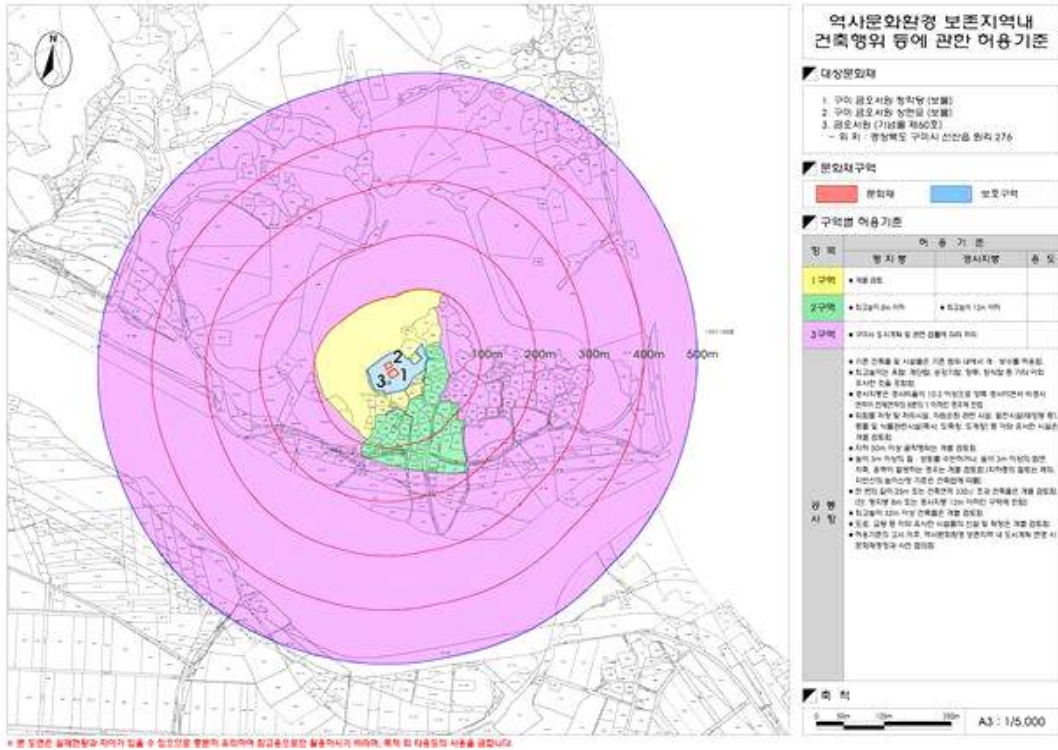
- (1) 신 청 인 : 구미시장
- (2) 대상문화재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유학길 593-31 (선산읍, 금오서원)
 - 지 정 일 : 2020. 12. 28.
- (3) 신청내용 :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라.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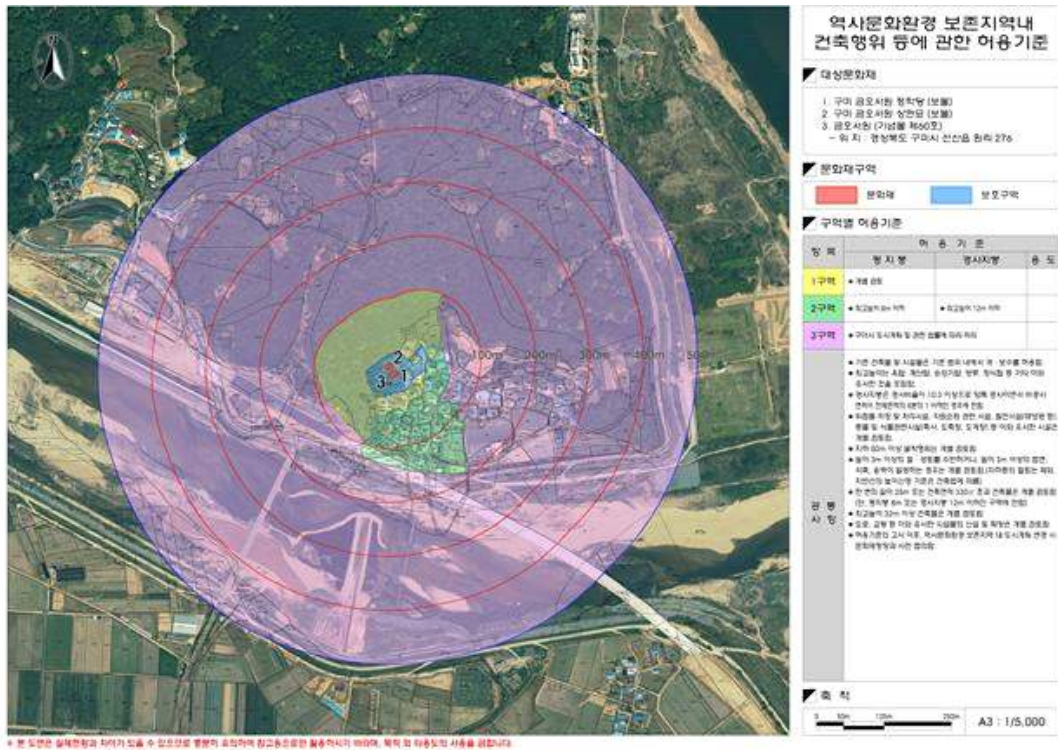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 1부.

☐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지적)】



【 지형도면(위성)】



【 범례 표 】

| 구 분 | 현상변경허용기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이하 | ○ 최고높이 12m이하 | |
| 제3구역 | ○ 구미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10.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서울 은평구 소재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 중 규제항목이 추가되는 문화유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일)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 부산 금정(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3건) : ‘23. 11. 22. ~ ’23. 12. 11.(20일)
- 부산 사상(부산 운수사 대웅전) : ‘23. 11. 29. ~ ’23. 12. 18.(20일)
- 대구 동구(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등 12건) : ‘23. 10. 19. ~ ’23. 11. 7.(20일)
- 광주 동구(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23. 12. 1. ~ ’23. 12. 20.(20일)
- 울산 울주(울주 석남사 승탑 등 3건) : ‘23. 10. 12. ~ ’23. 11. 1.(20일)
- 경기 안성(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등 4건) : ‘23. 11. 16. ~ ’23. 12. 6.(21일)
- 경기 양평(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23. 11. 29. ~ ’23. 12. 19.(21일)
- 경기 용인(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23. 11. 15. ~ ’23. 12. 5.(21일)
- 경기 이천(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 ‘23. 11. 15. ~ ’23. 12. 4.(20일)
- 경기 평택(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23. 11. 21. ~ ’23. 12. 10.(20일)
- 강원 강릉(강릉향교 대성전 등 9건) : ‘23. 10. 5. ~ ’23. 10. 25.(21일)
- 강원 고성(고성 육송정 홍교) : ‘23. 10. 4. ~ ’23. 10. 24.(21일)

- 강원 양양(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등 6건) : '23. 11. 6. ~ '23. 11. 26.(21일)
 - 강원 영월(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 '23. 9. 21. ~ '23. 10. 11.(21일)
 - 강원 철원(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23. 9. 13. ~ '23. 10. 3.(21일)
 - 강원 춘천(춘천 칠층석탑) : '23. 11. 28. ~ '23. 12. 17.(21일)
 - 강원 홍천(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등 8건) : '23. 11. 16. ~ '23. 12. 6.(21일)
- ※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건은 조정완화로 별도의 주민공람 생략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662호, '22.11.30)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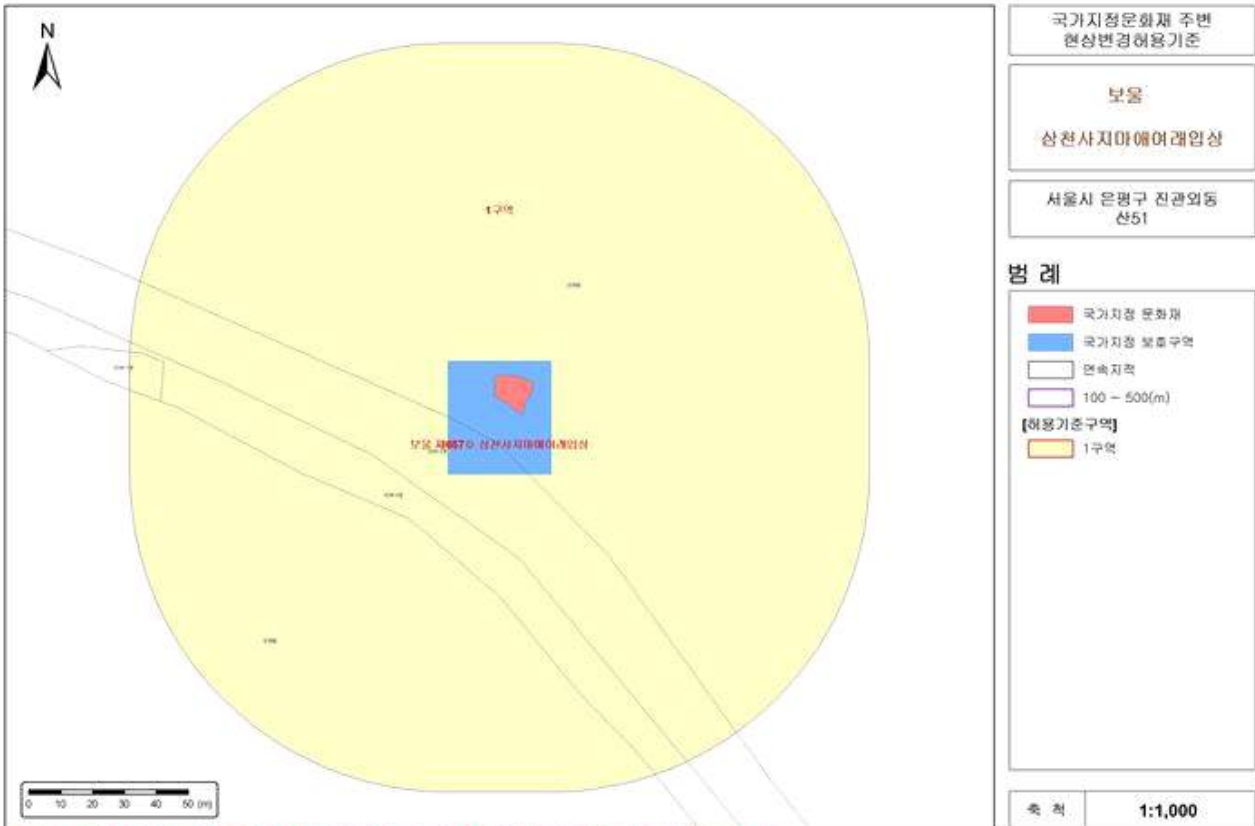
(2) 대상문화재 :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등 61건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부.

▣ 보물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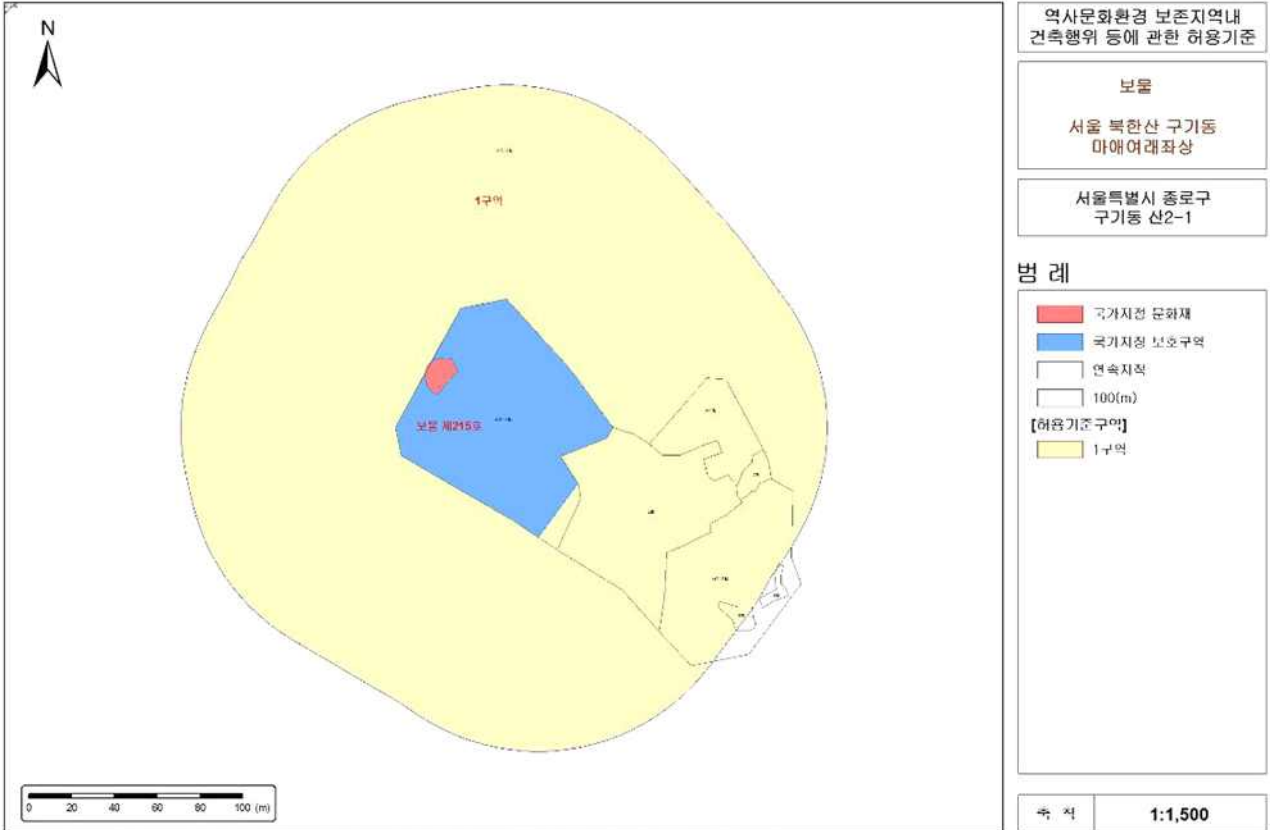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원지형 보존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 |

▣ 보물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면적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함으로써 발생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양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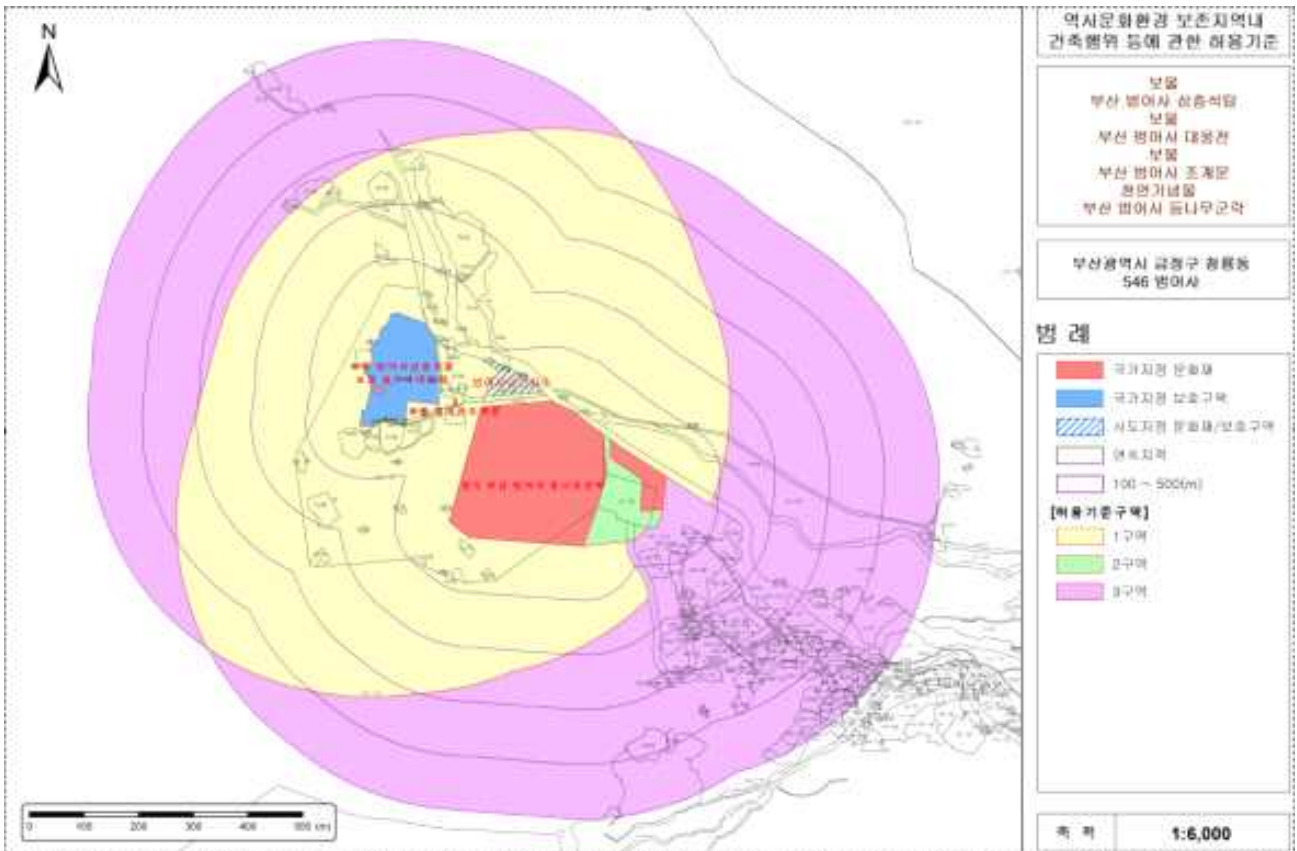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채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 |

▣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범어사 조계문”, 천연기념물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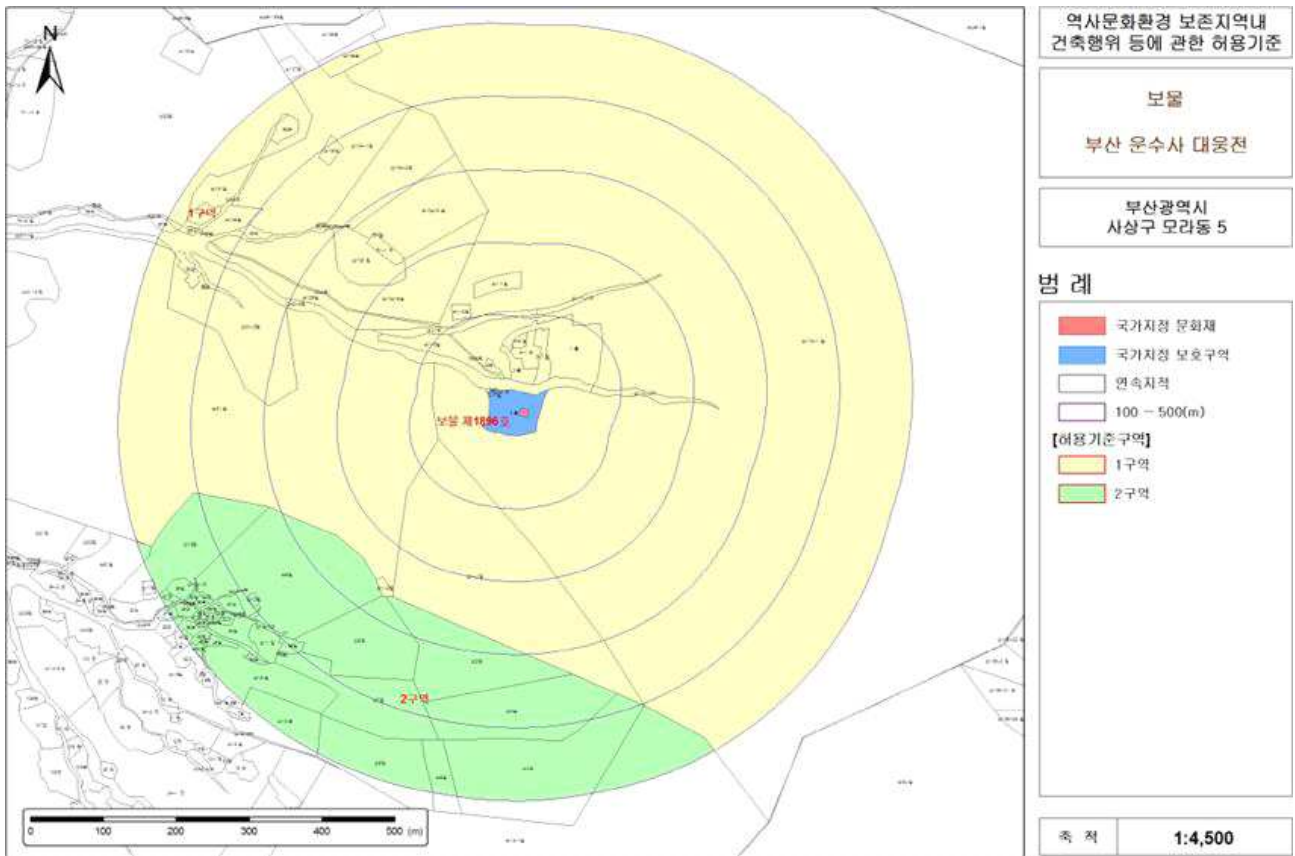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1m 이하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2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1m 이하 | |
| 제3구역 | <p>○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p> <p>-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p> | | |
| 공통사항 |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개별 검토함.</p> <p>○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단, 2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p> | | |

▣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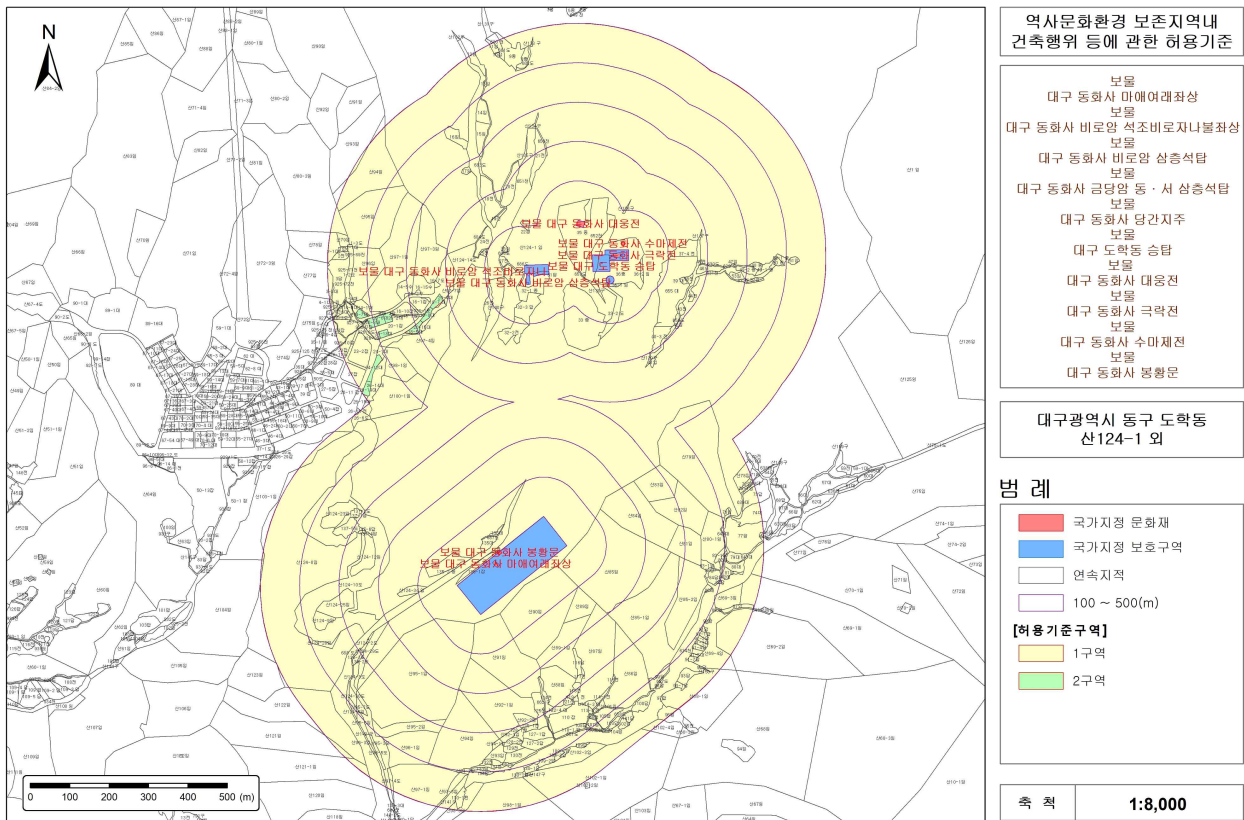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 |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대구 동화사 극락전”,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대응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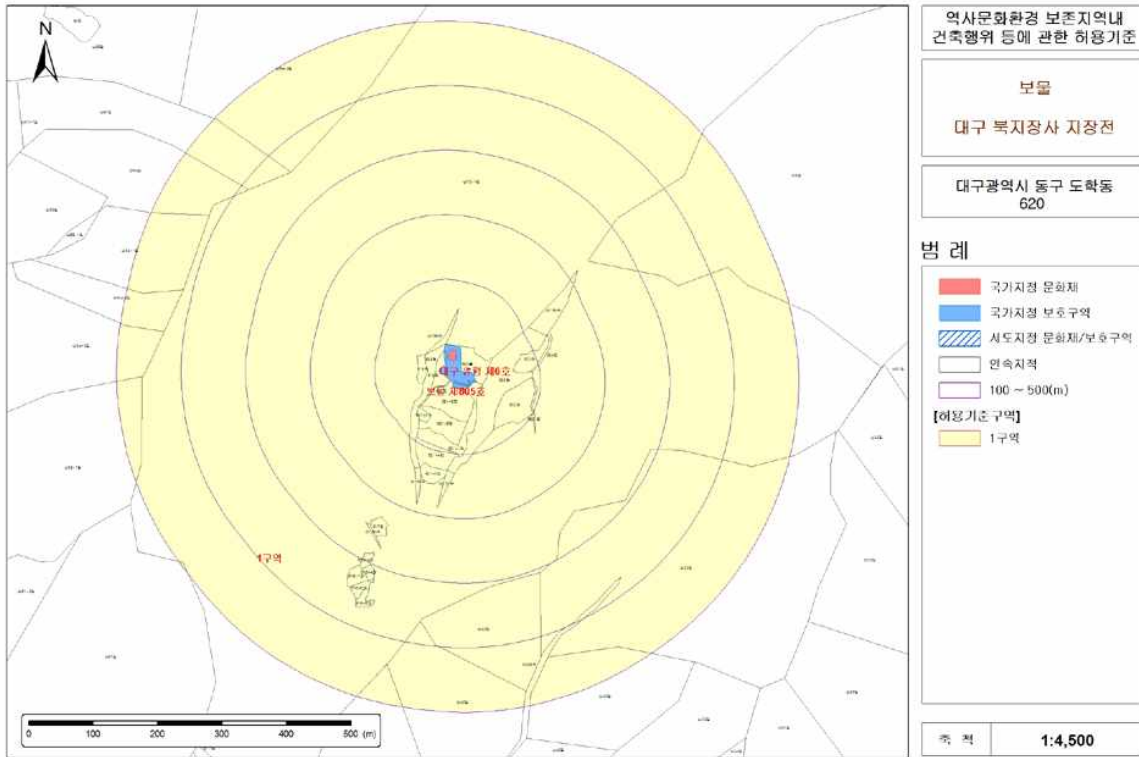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개별검토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검토(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태양광 시설은 면적 20㎡ 미만으로 설치가능(단, 2구역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대구 복지장사 지장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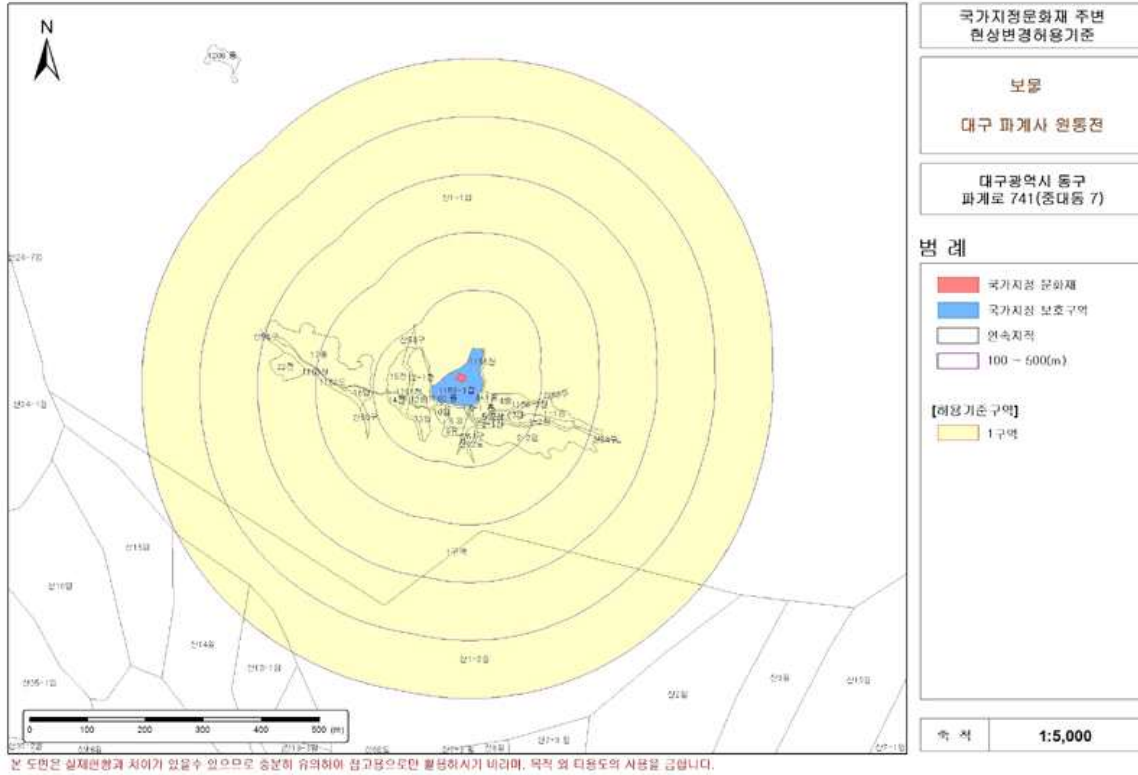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채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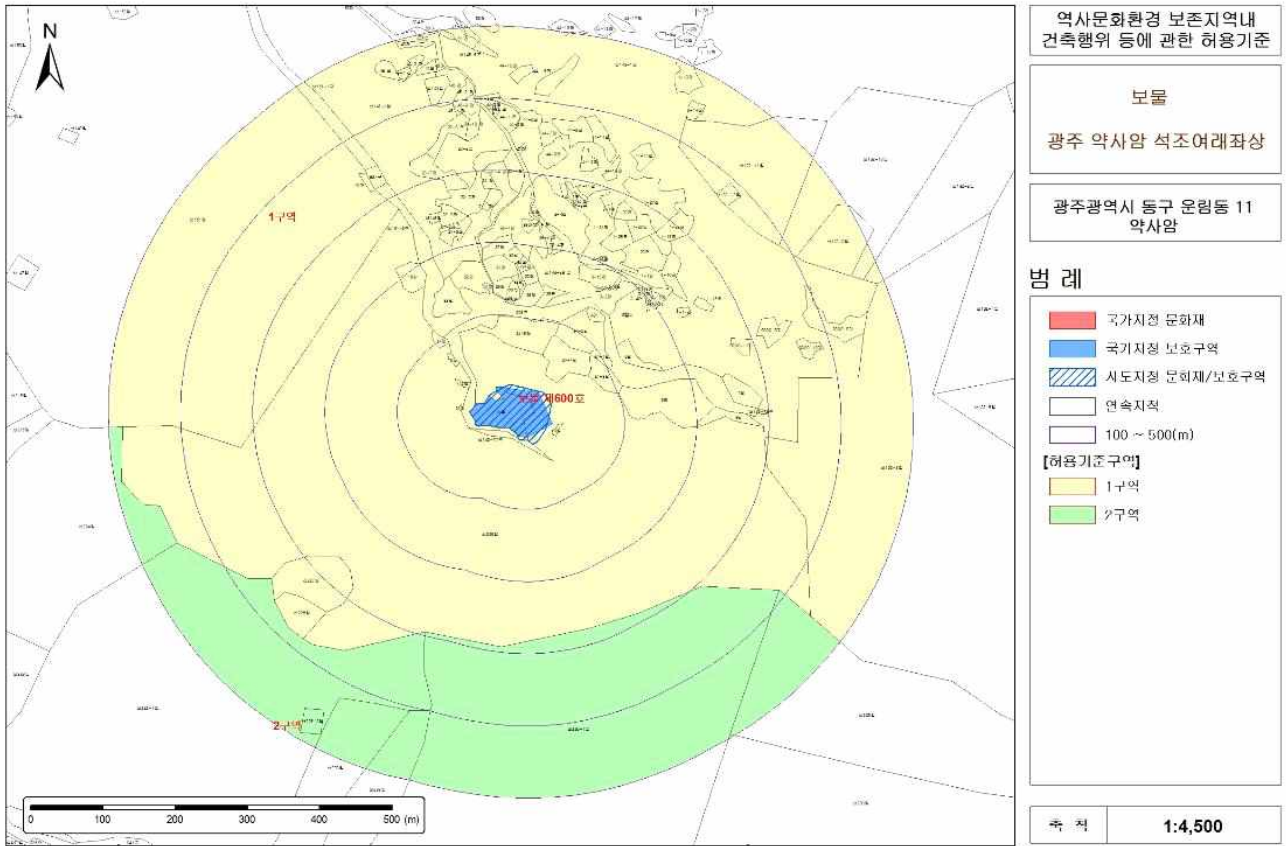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채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보물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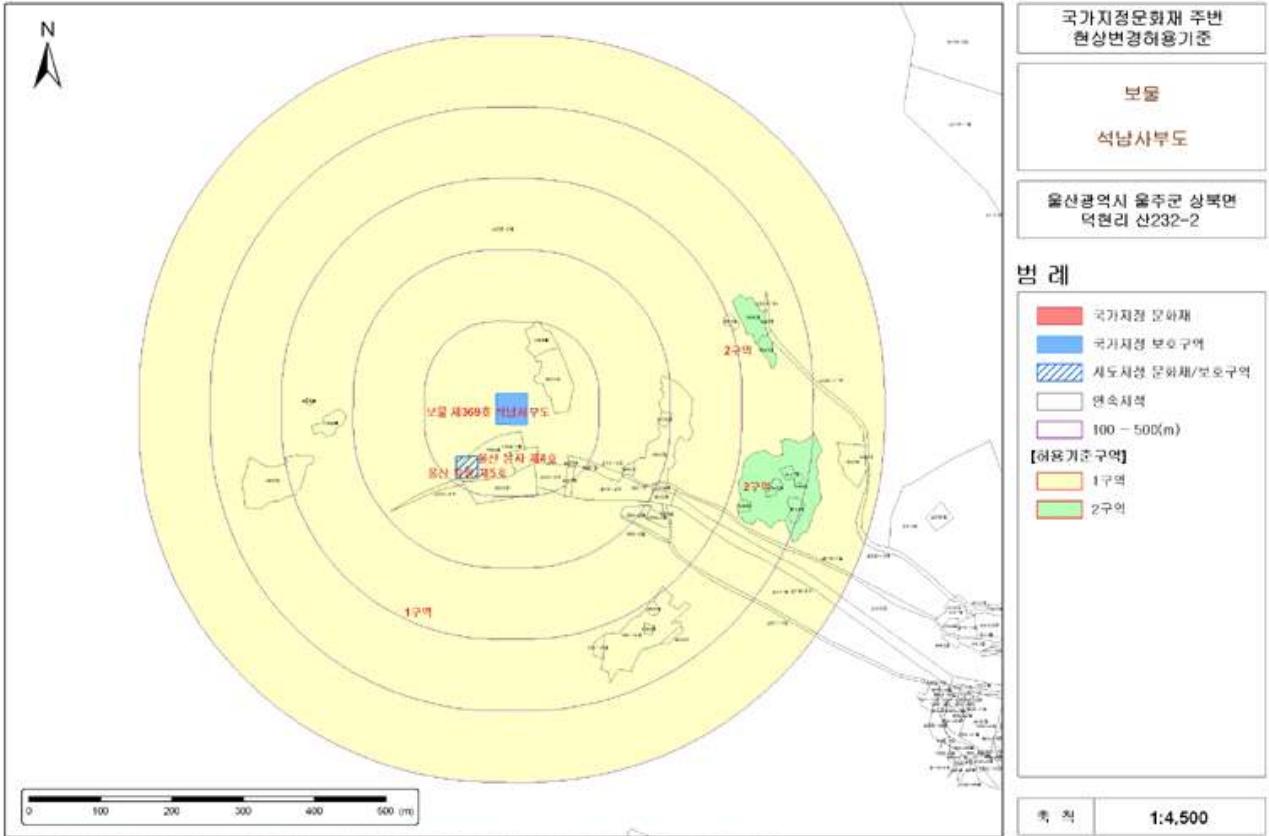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 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화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울주 석남사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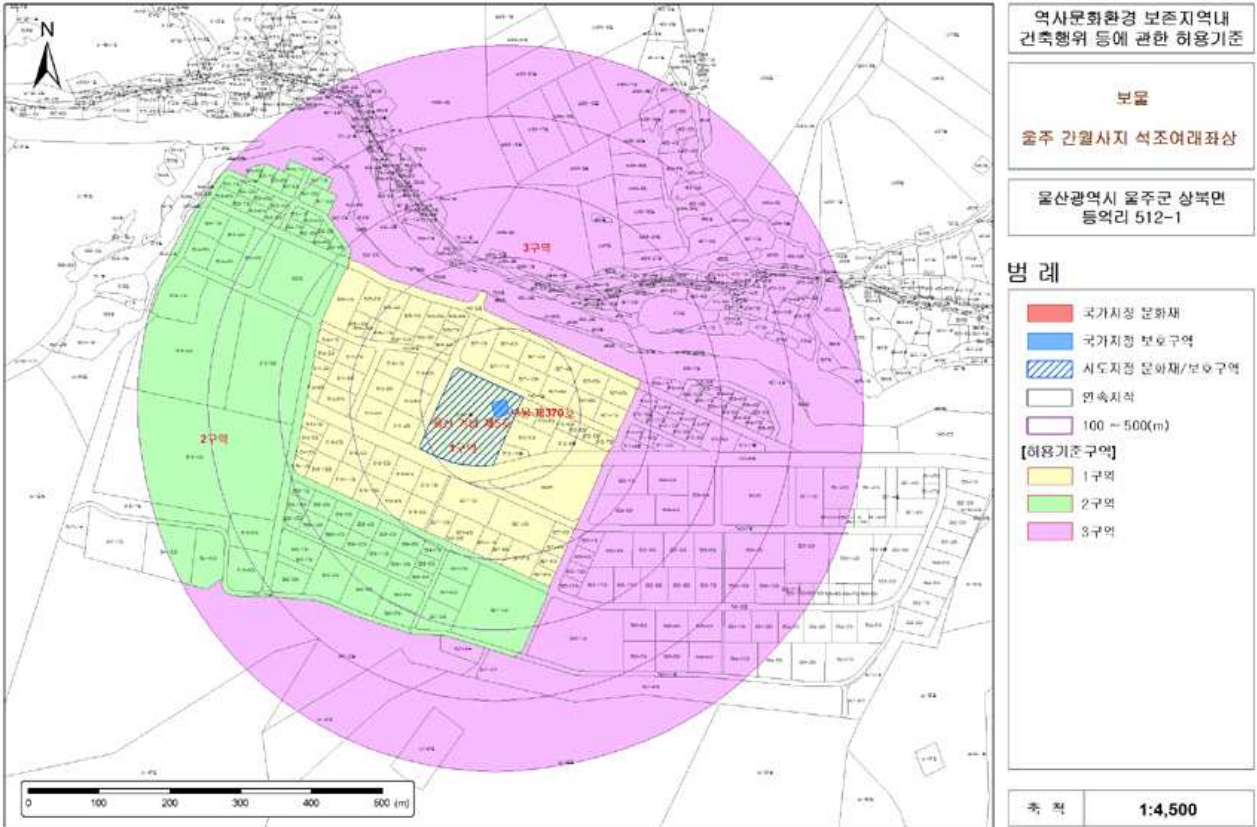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원지형 보존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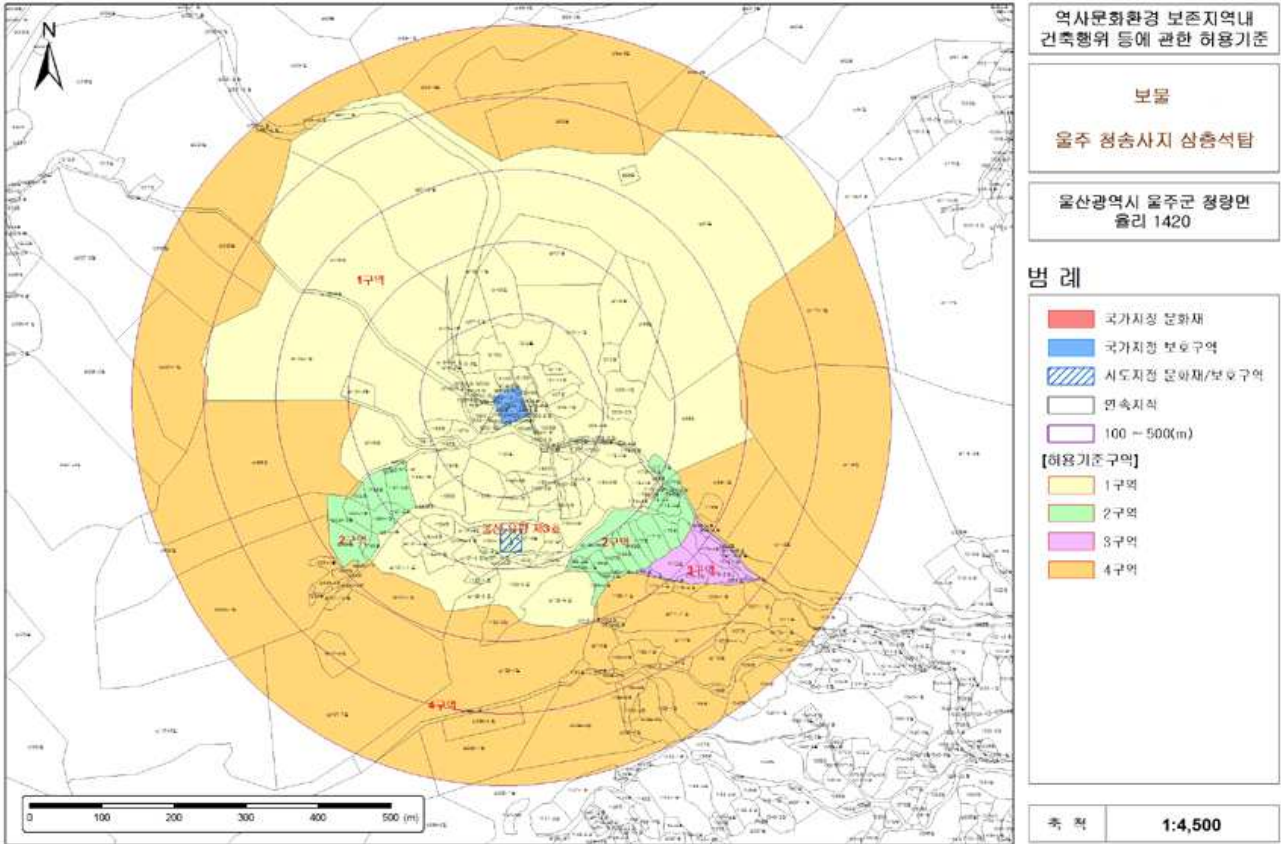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개별심의 | ○최고높이 12m이하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개별검토 | ○ 최고높이 12m이하 | |
| 제3구역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검토함.(2구역 적용)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변형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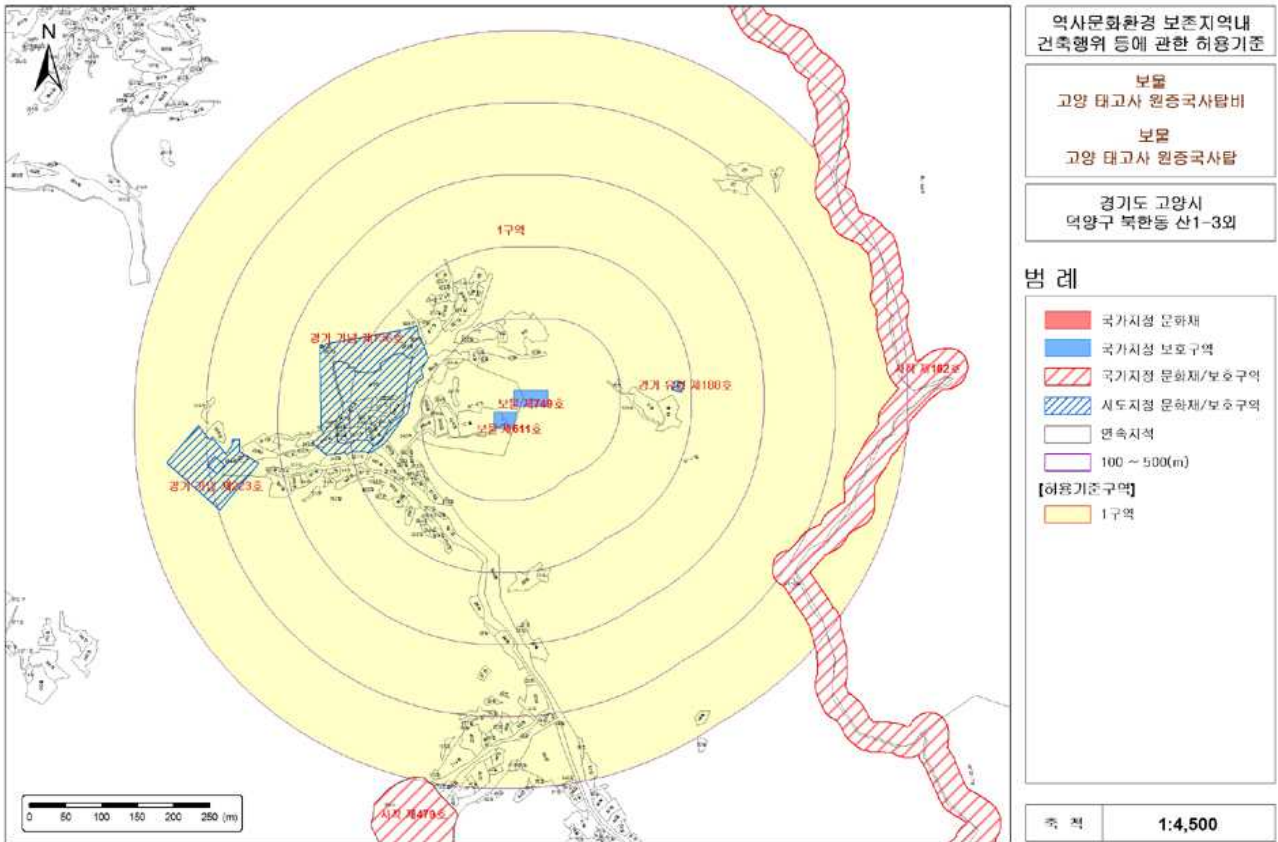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 ○ 최고높이 18m 이하 | |
| 제4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 ○ 최고높이 18m 이하 | |
| 제4구역 | <p>○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p> <p>-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p> | | |
| 공통사항 |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 | |

▣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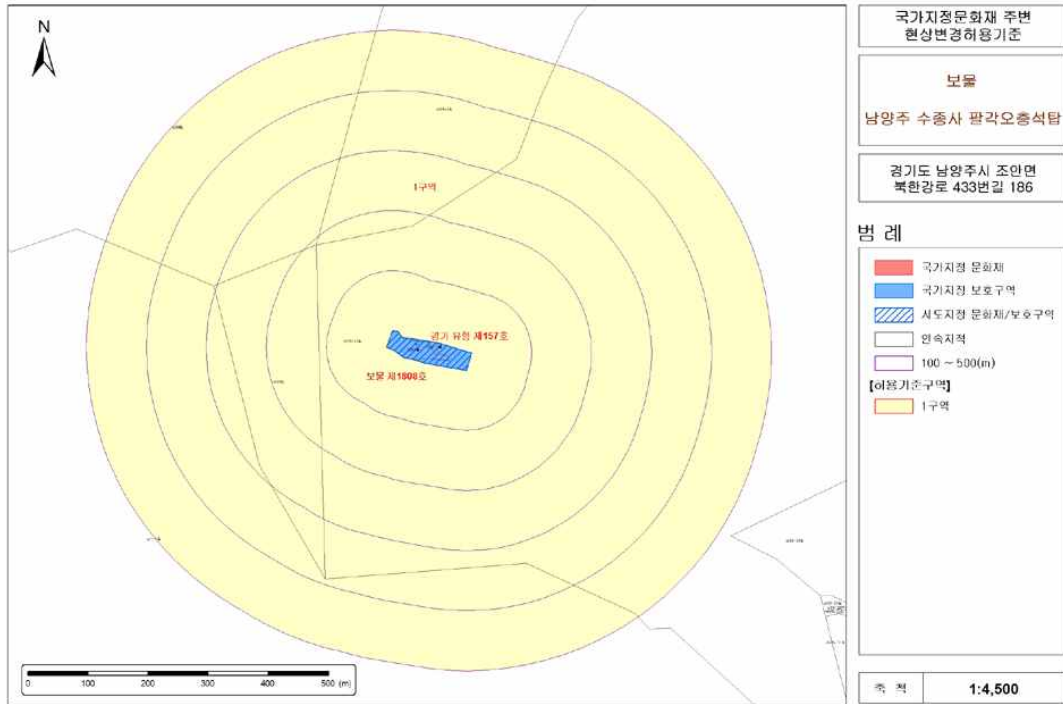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외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

▣ 보물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총분야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게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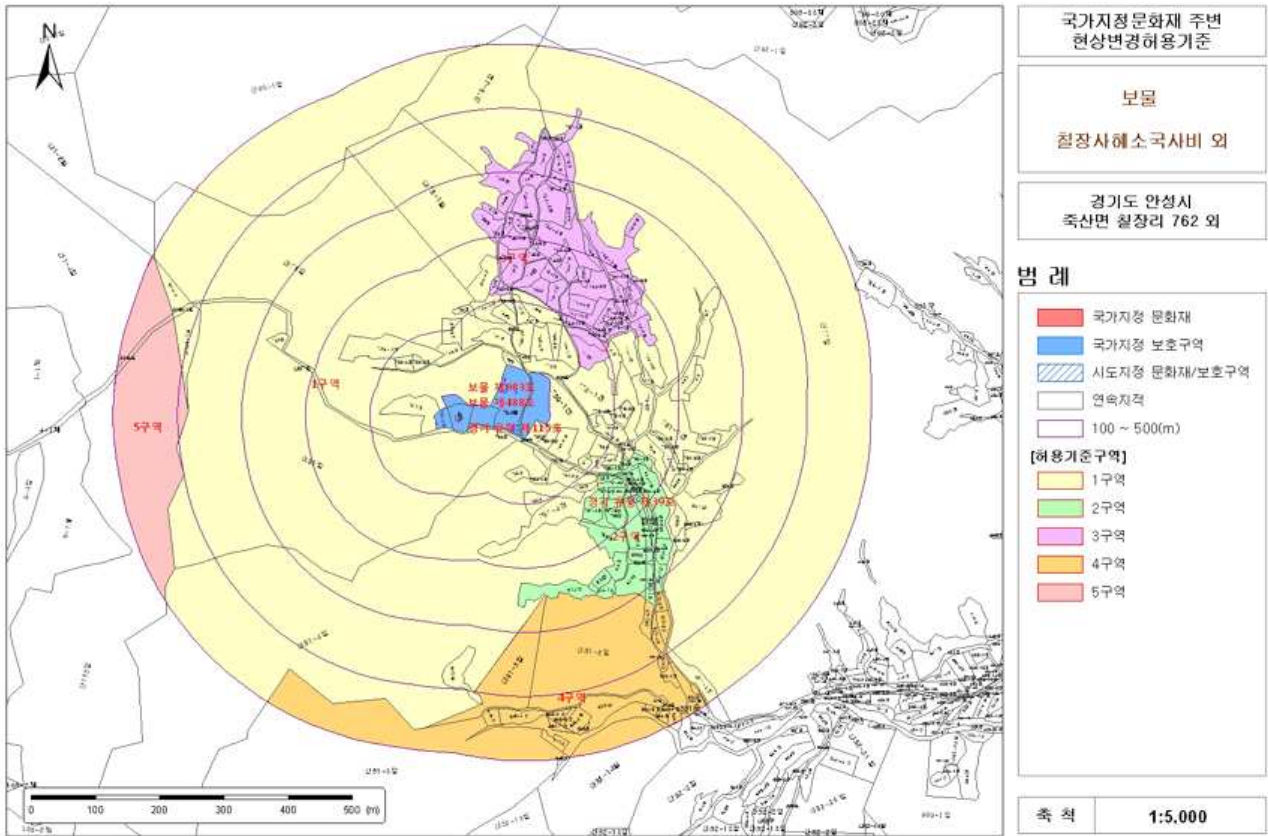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공통 사항 |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공통 사항 |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대,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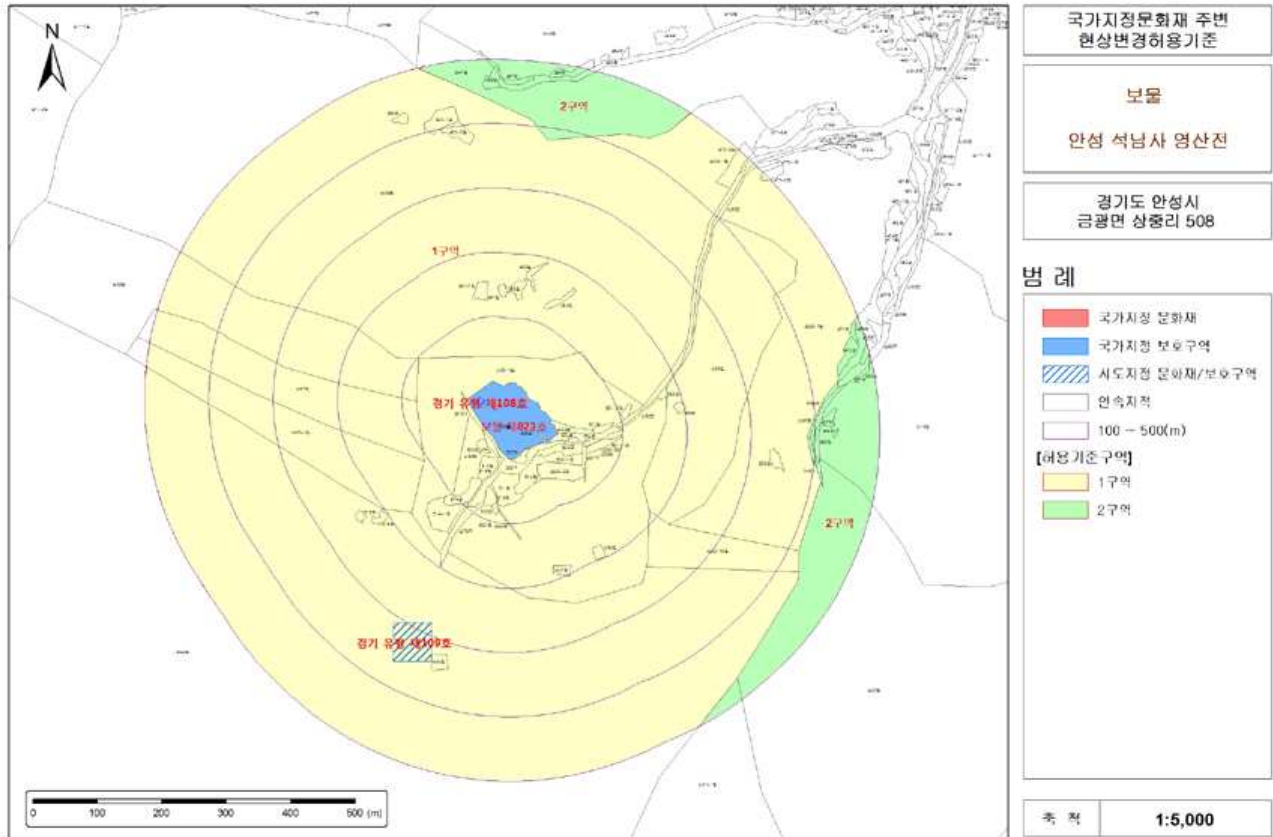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 제4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
| 제5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 제4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
| 제5구역 |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단, 제1·2·3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의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적 외 터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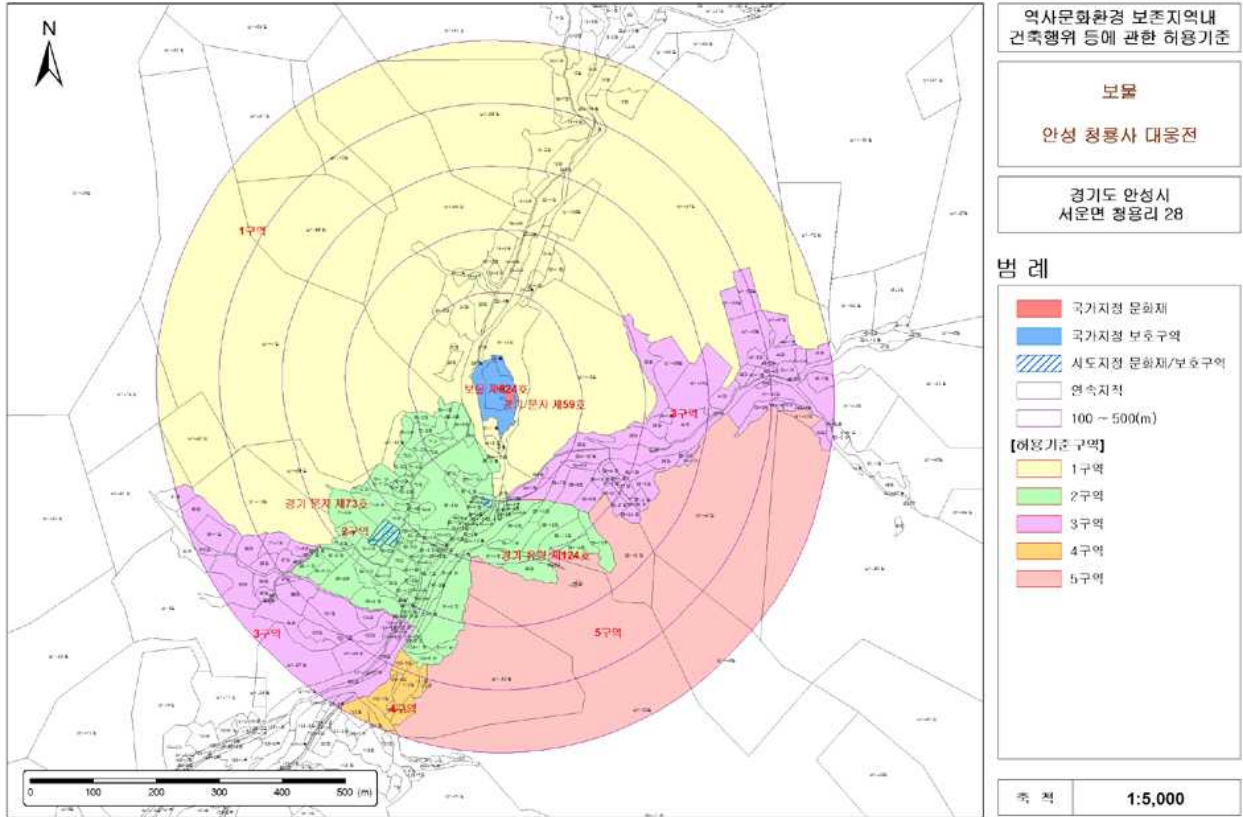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제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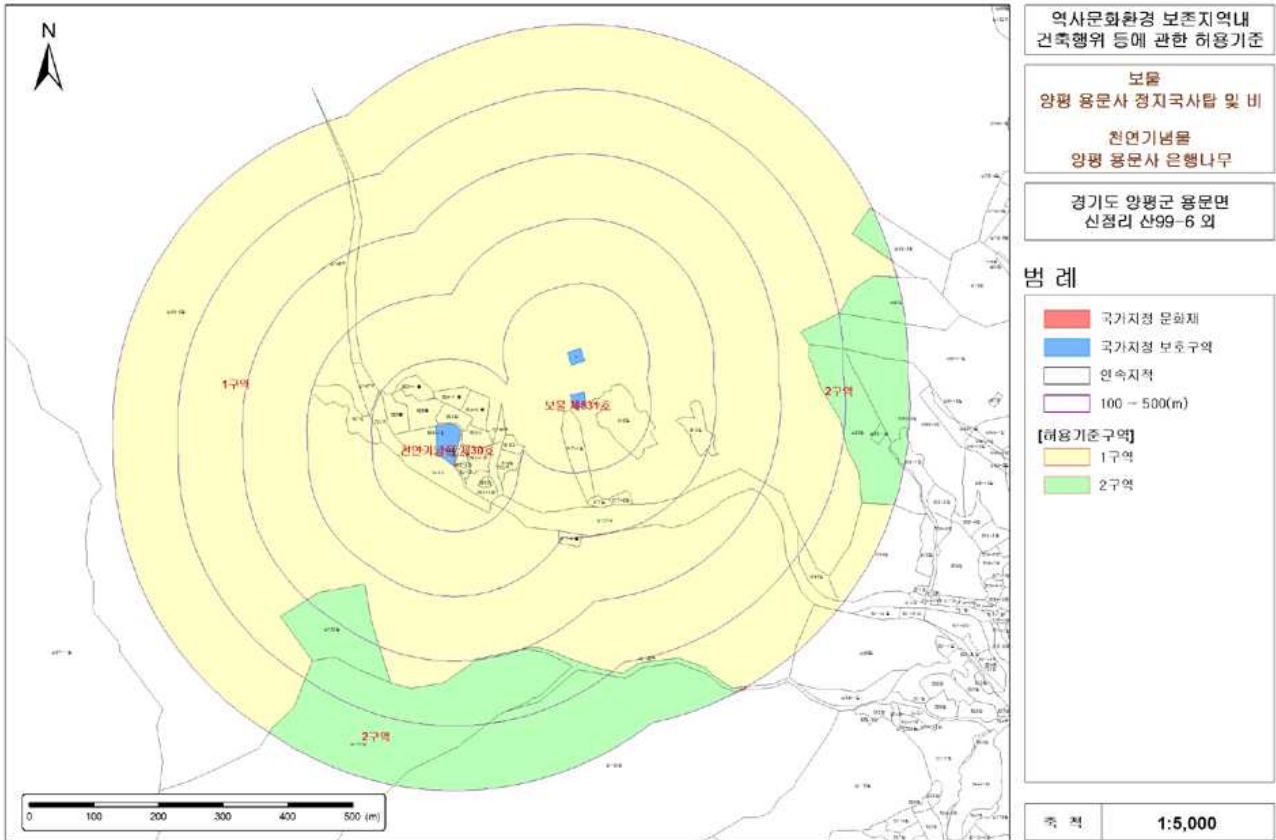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원지형 보존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 제4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
| 제5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 제4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
| 제5구역 |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또는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단, 제1·2·3구역에 한함) ○ 문화재외 조화되는 명도의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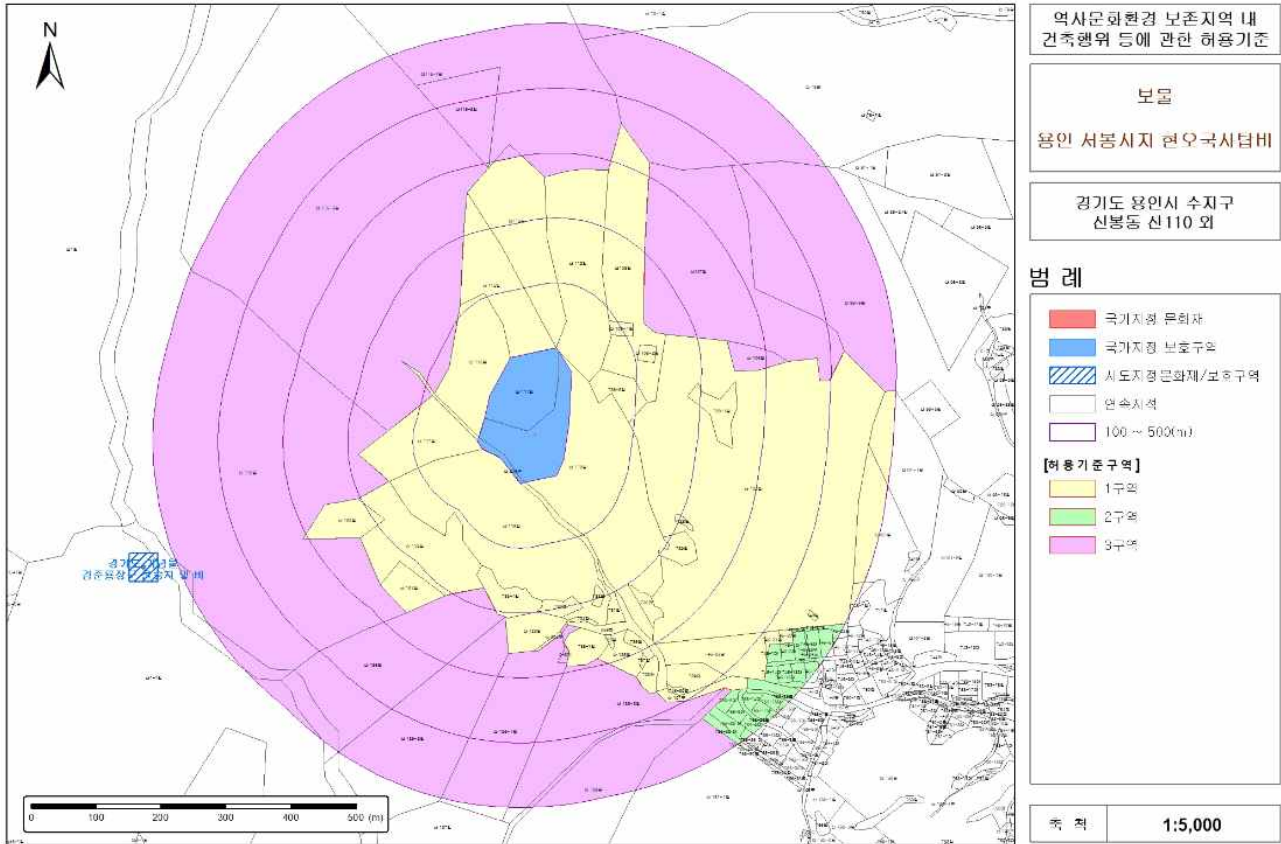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양평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제조정도로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 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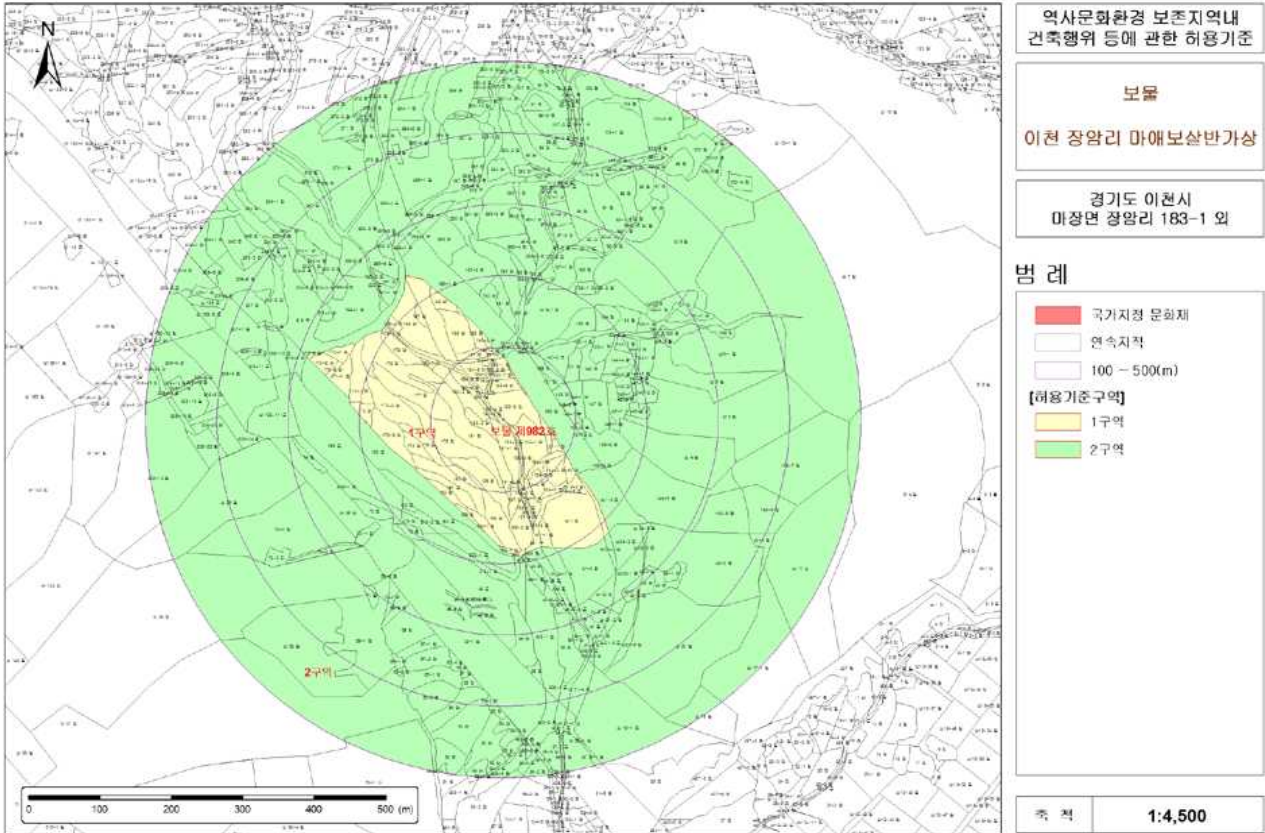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3구역 |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 검토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3구역 |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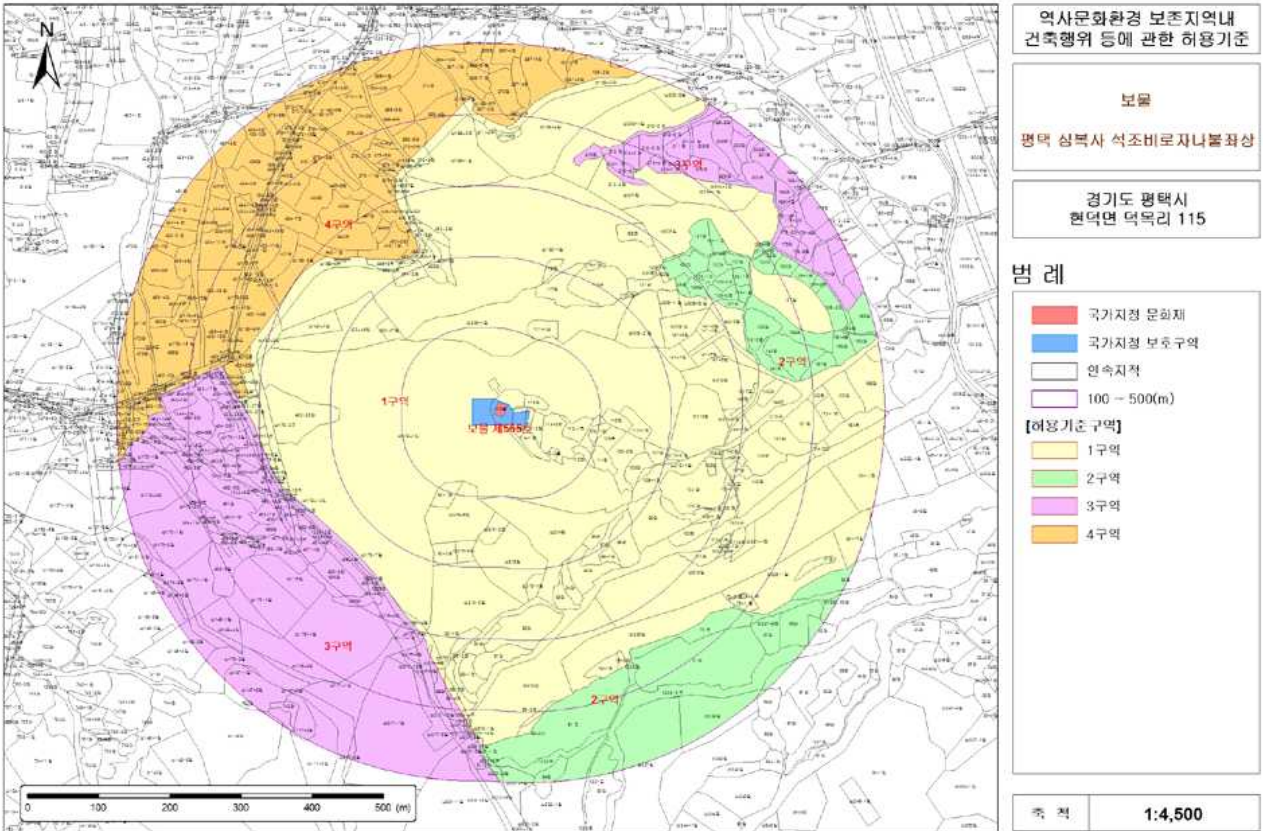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제조정도로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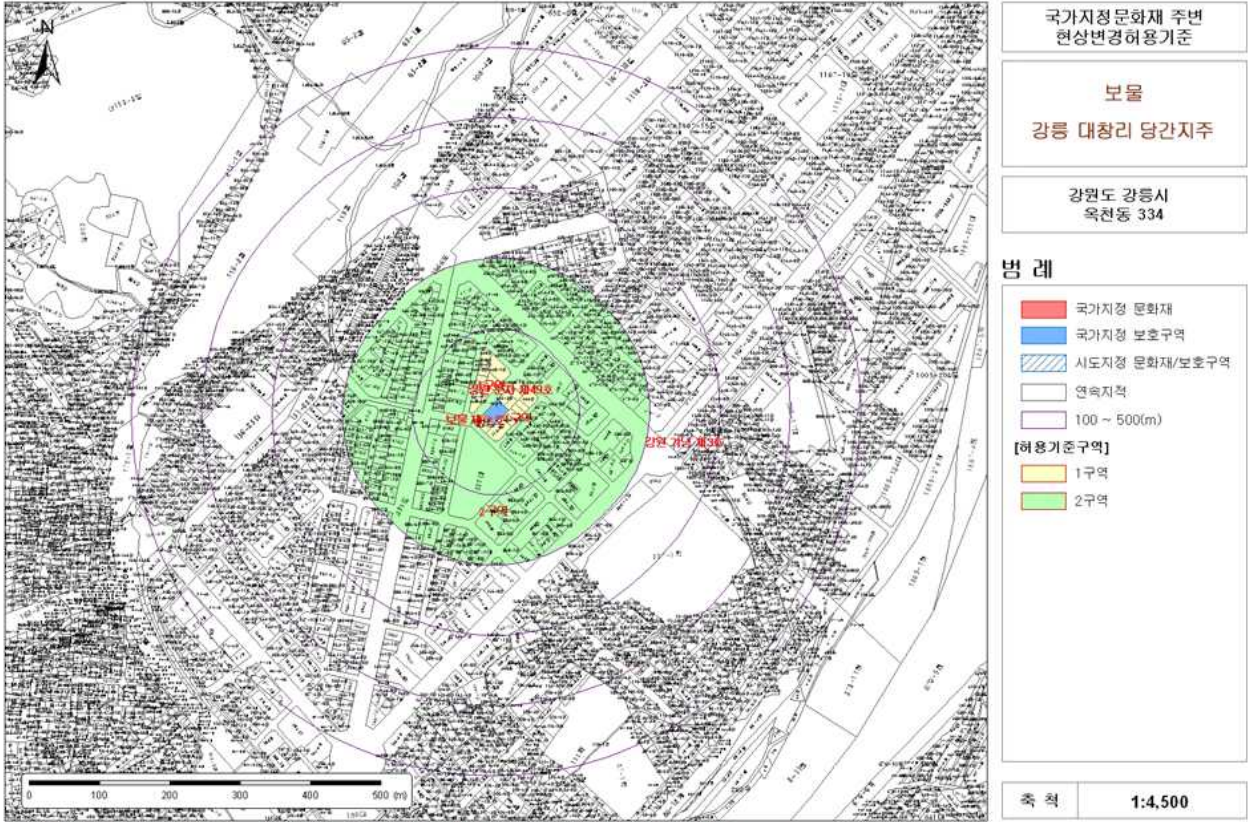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4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4구역 |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의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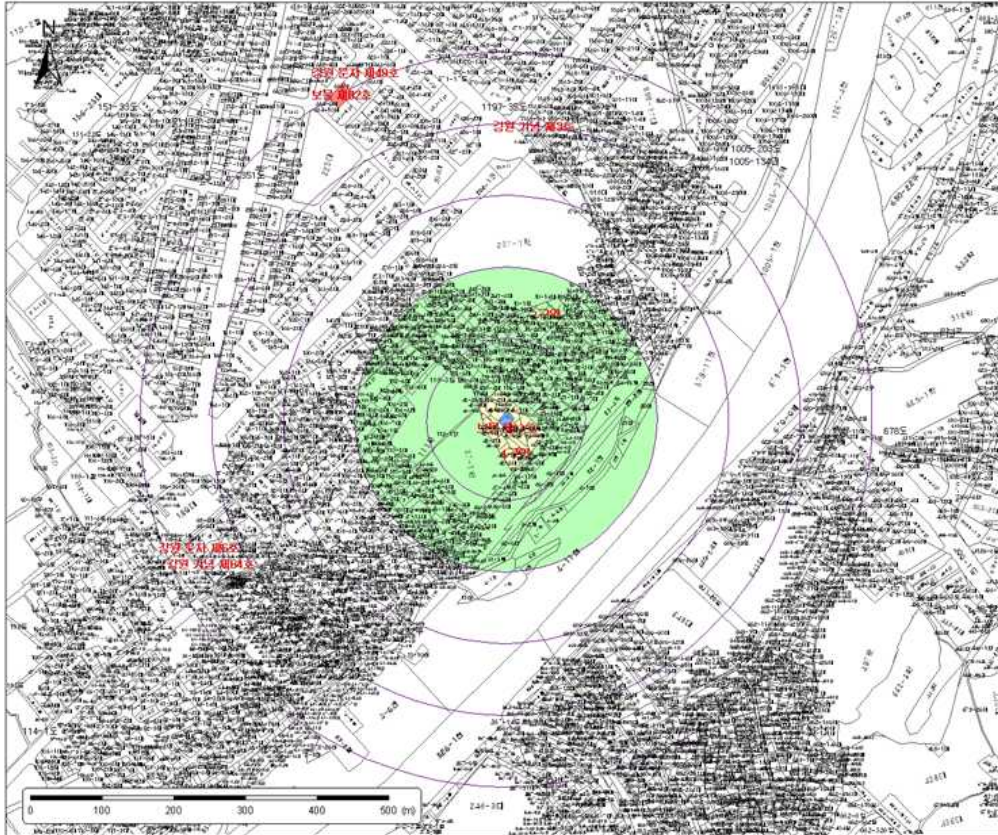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17m 이하 | ○ 최고높이 21m이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17m 이하 | ○ 최고높이 21m이하 | |
| 제2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 |
|--|----------------|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
| 보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 |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3-9 외 | |
| 범례 | |
| ■ | 국가지정 문화재 |
| ■ | 국가지정 보호구역 |
| ■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 ■ | 연속지적 |
| | 100 ~ 500(m) |
| [허용기준구역] | |
| ■ | 1구역 |
| ■ | 2구역 |
| 축척 | 1:4,500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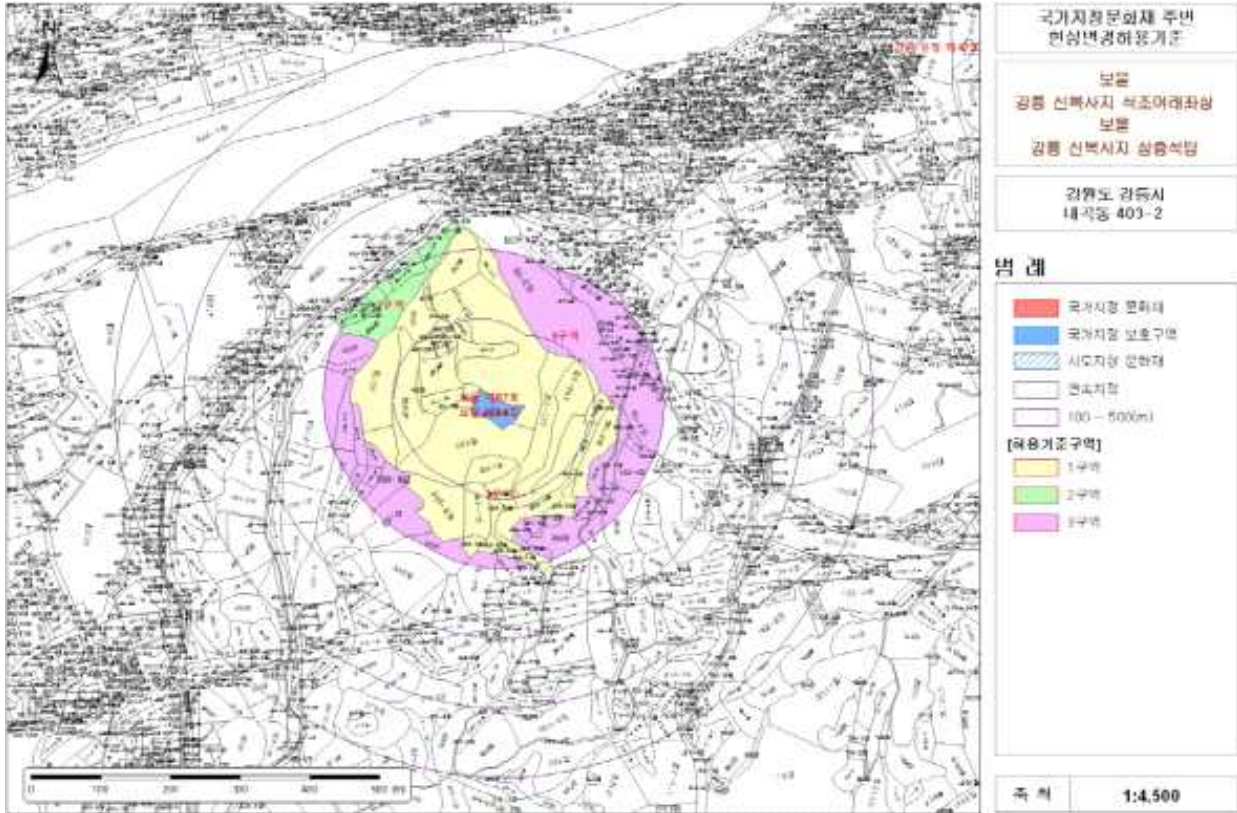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이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5m이하 | |
| 제2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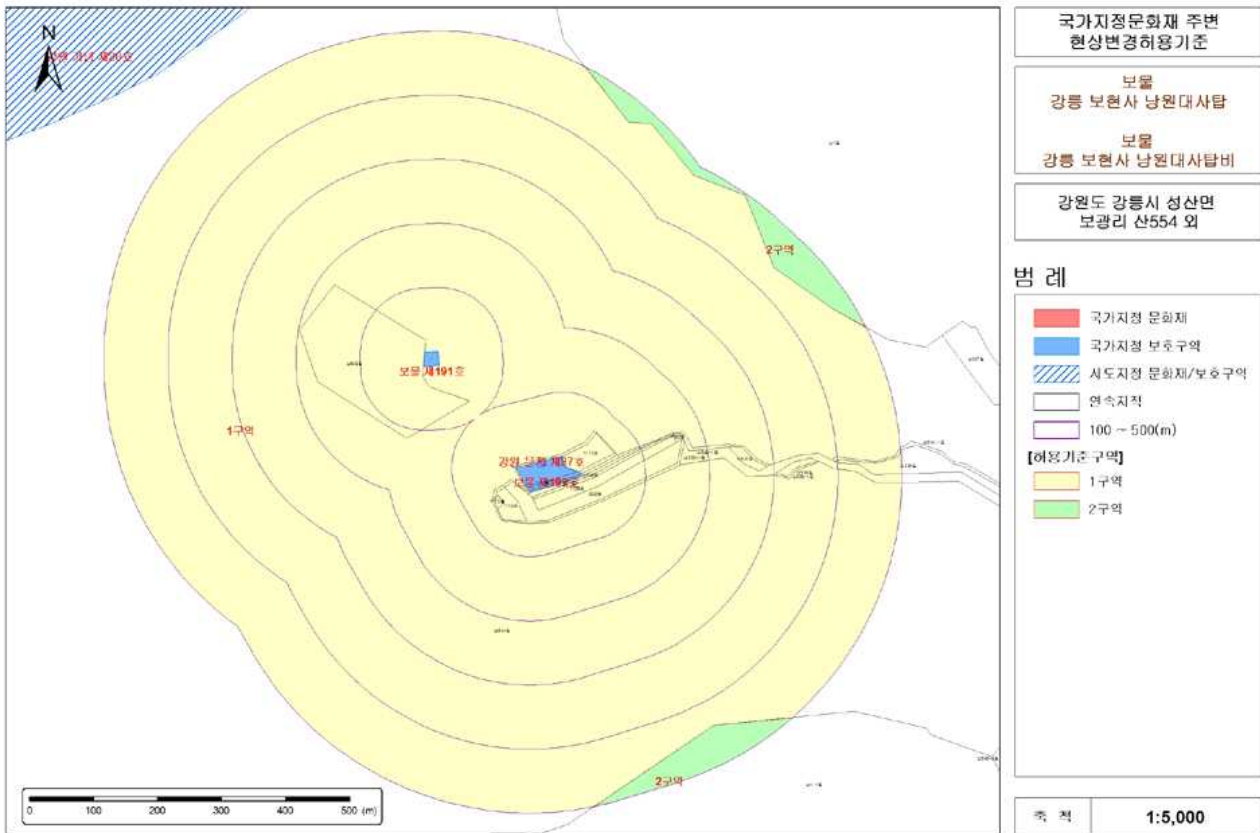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 ○ 최고높이 18m이하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 ○ 최고높이 18m 이하 | |
| 제3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전체 구역에서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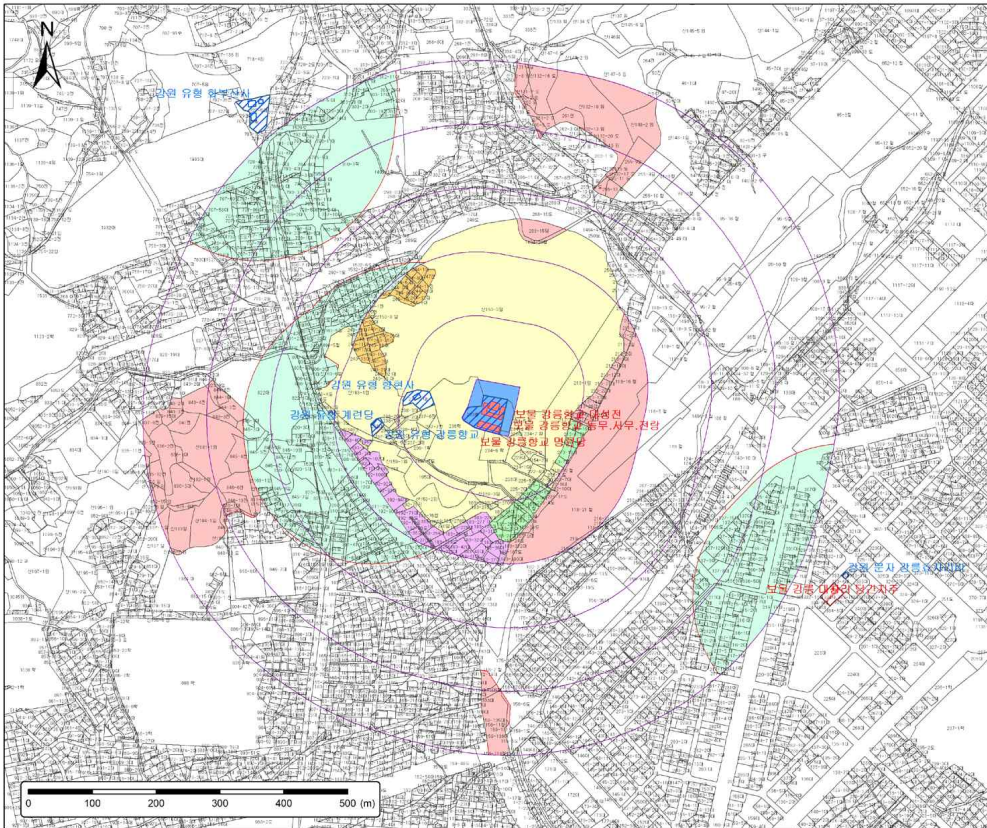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강릉향교 명륜당”,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보물 강릉향교 명륜당 보물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
| 강원도 강릉시 교동 233 외 |

| |
|--|
| 범 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
| 【허용기준구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

| | |
|-----|---------|
| 축 척 | 1:5,000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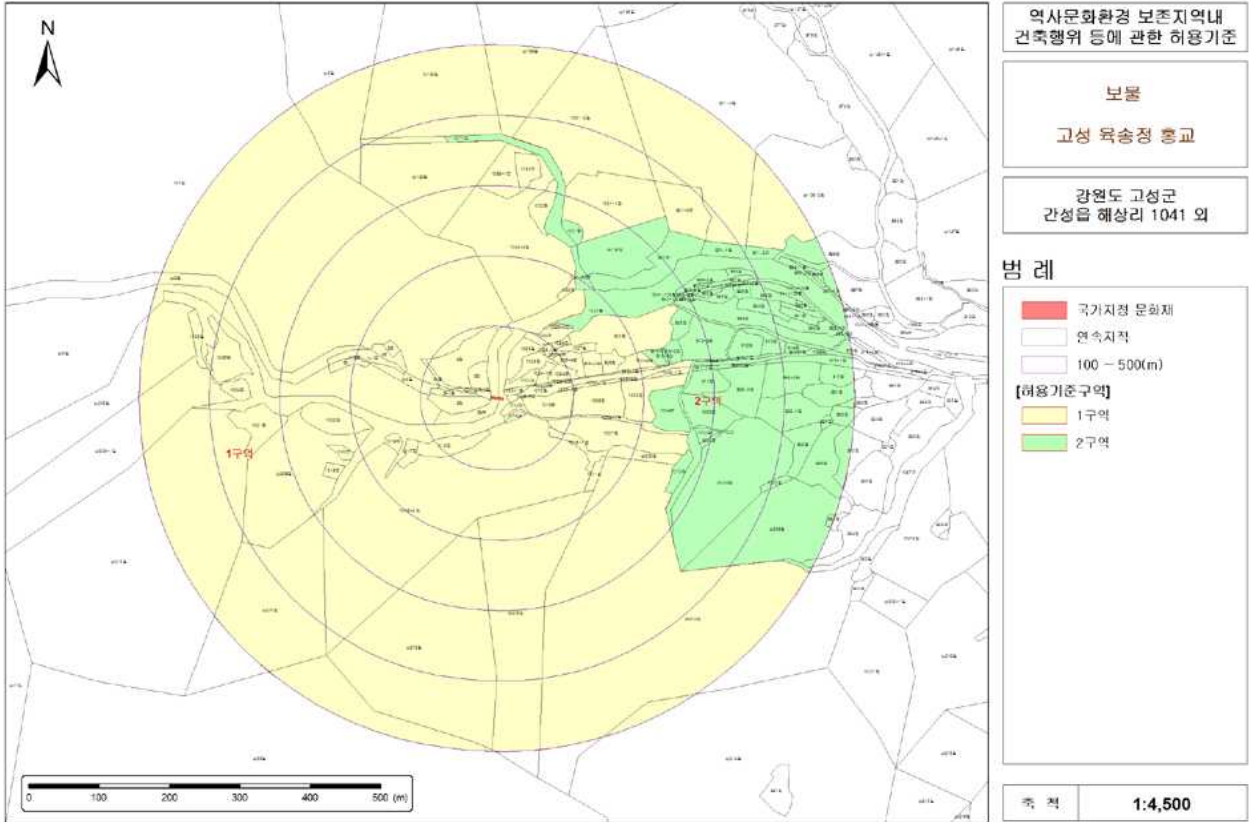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4m이하 | ○ 최고높이 18m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7m이하 | ○ 최고높이 21m이하 | |
| 제4구역 | ○ 최고높이 23m이하 | ○ 최고높이 27m이하 | |
| 제5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제6구역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강원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향현사, 유형문화재 계련당, 유형문화재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강릉 효자리비)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함(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14m이하 | ○ 최고높이 18m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7m이하 | ○ 최고높이 21m이하 | |
| 제4구역 | ○ 최고높이 23m이하 | ○ 최고높이 27m이하 | |
| 제5구역 |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제6구역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화부산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적용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함(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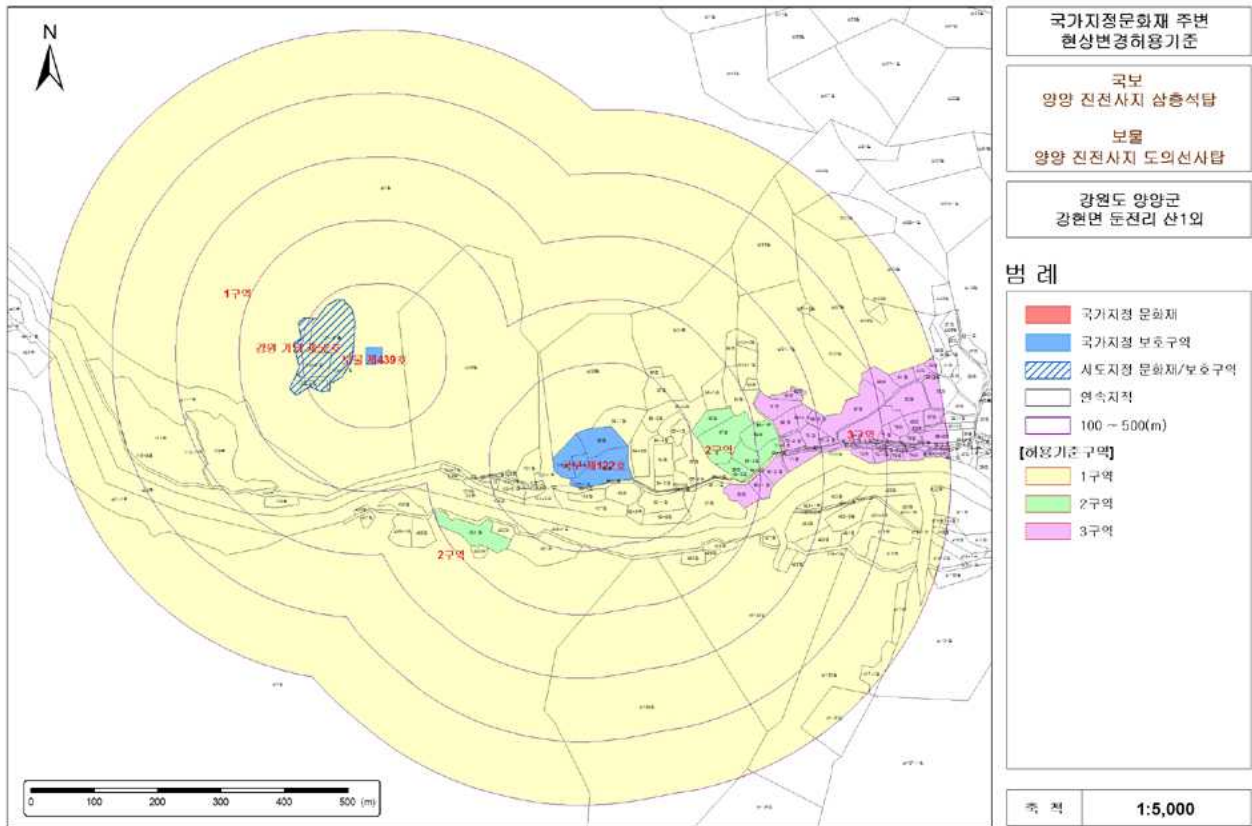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고성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p>○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p> <p>-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설치제한(전 구역)</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 | |

▣ 국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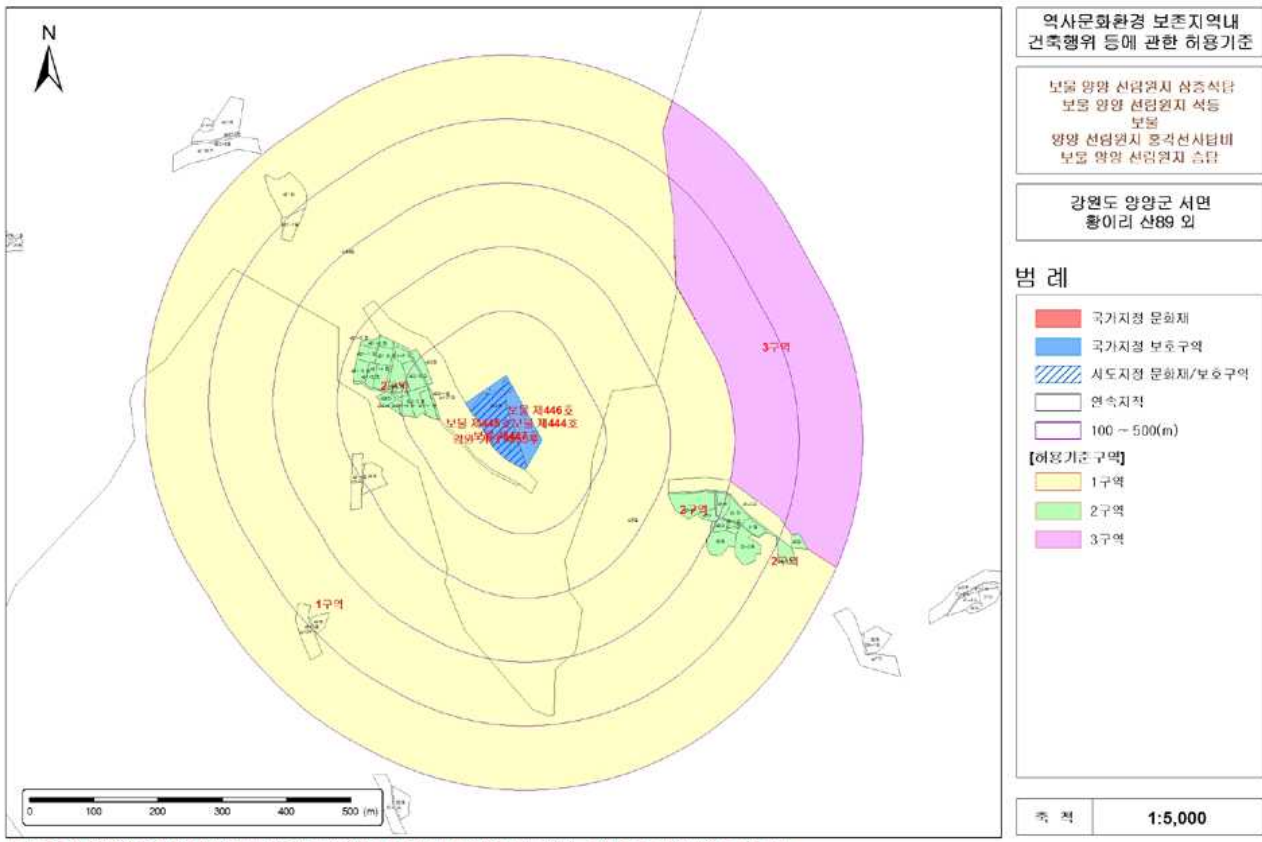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 이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 이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암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관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 석등”, “양양 선림원지 흥각선사
 탑비”, “양양 선림원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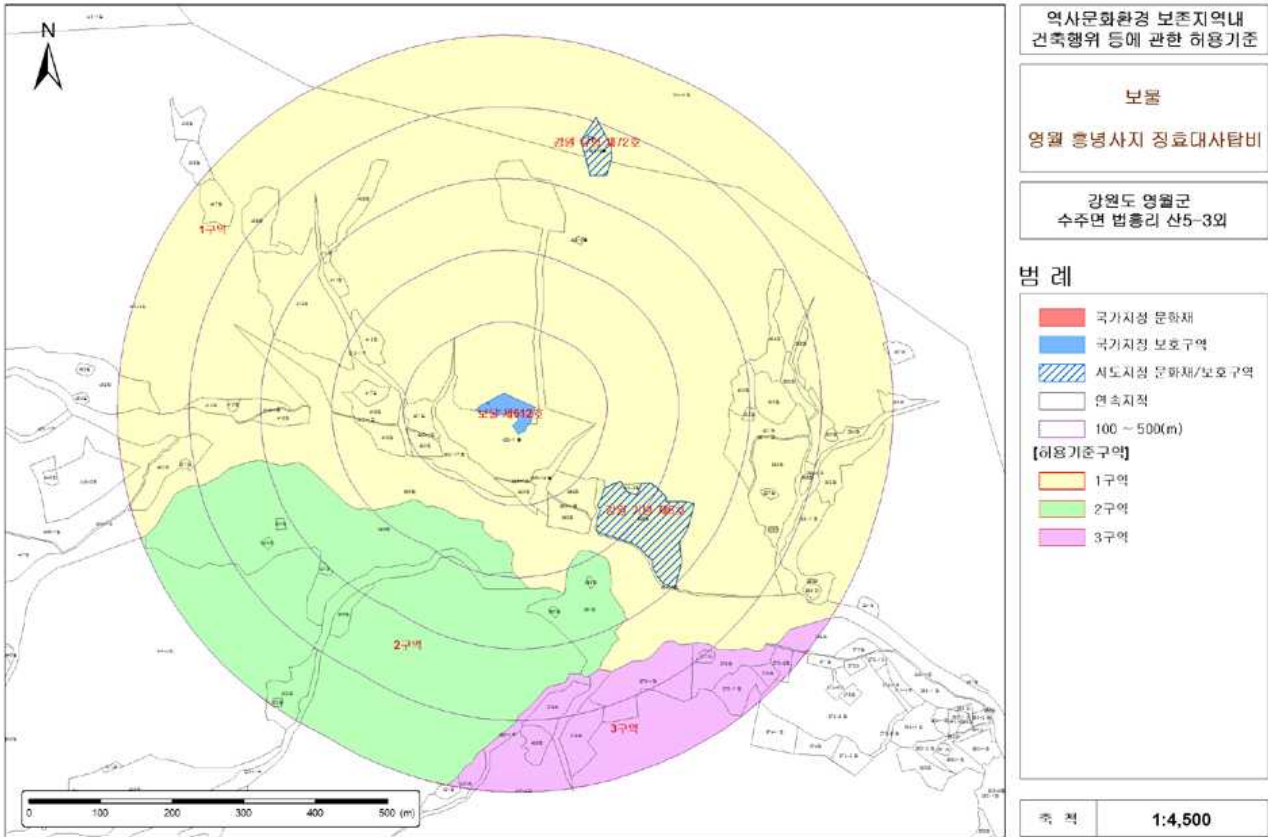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개별심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개별검토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양양군 군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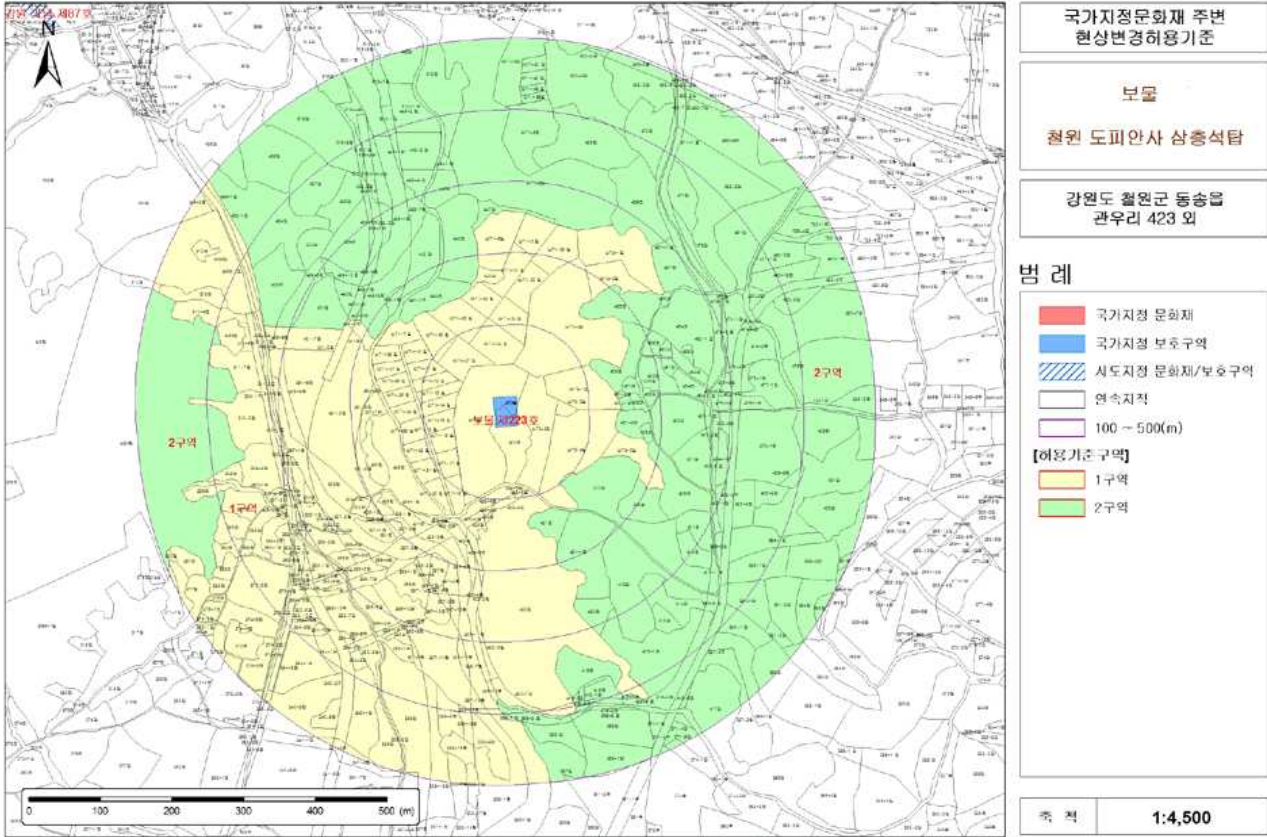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0m 이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5m 이하 | ○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 ○ 영월군 관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구역) -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설치제한(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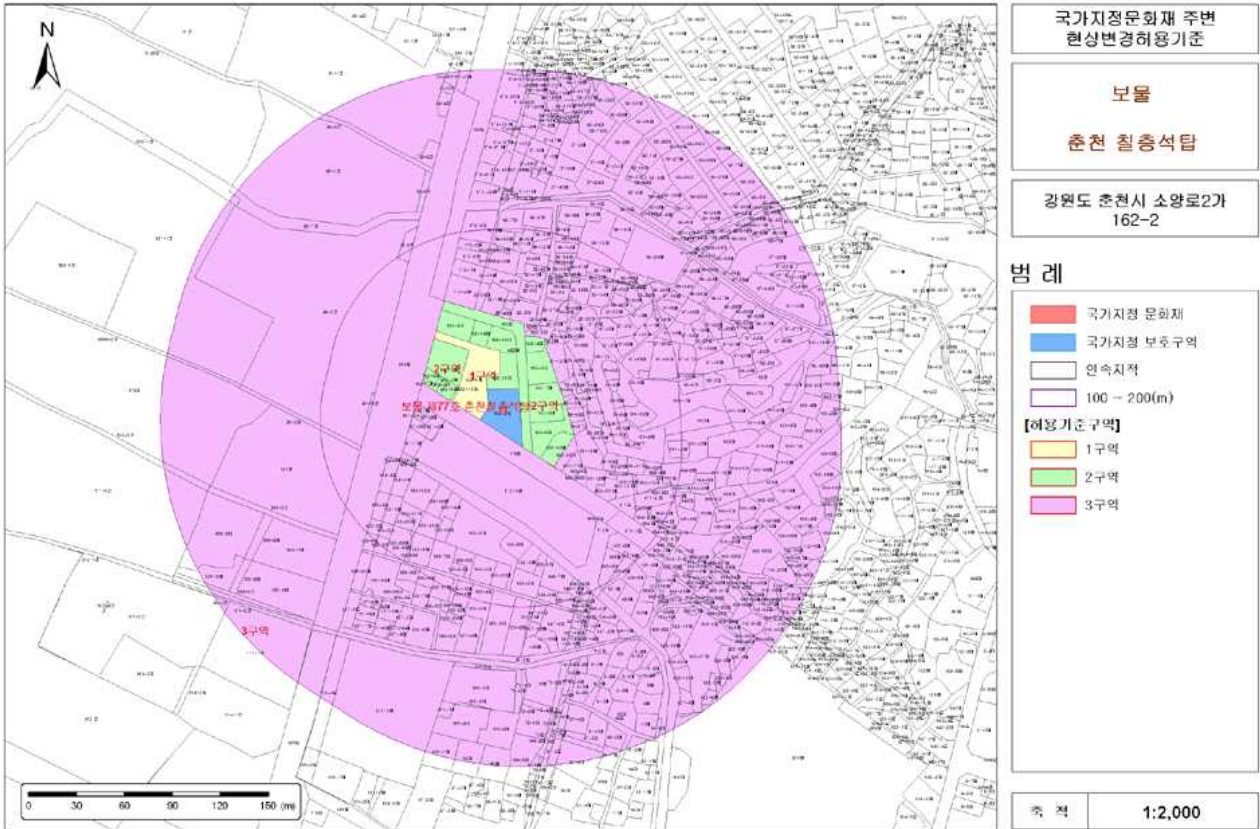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 검토 | | |
| 제2구역 | ○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춘천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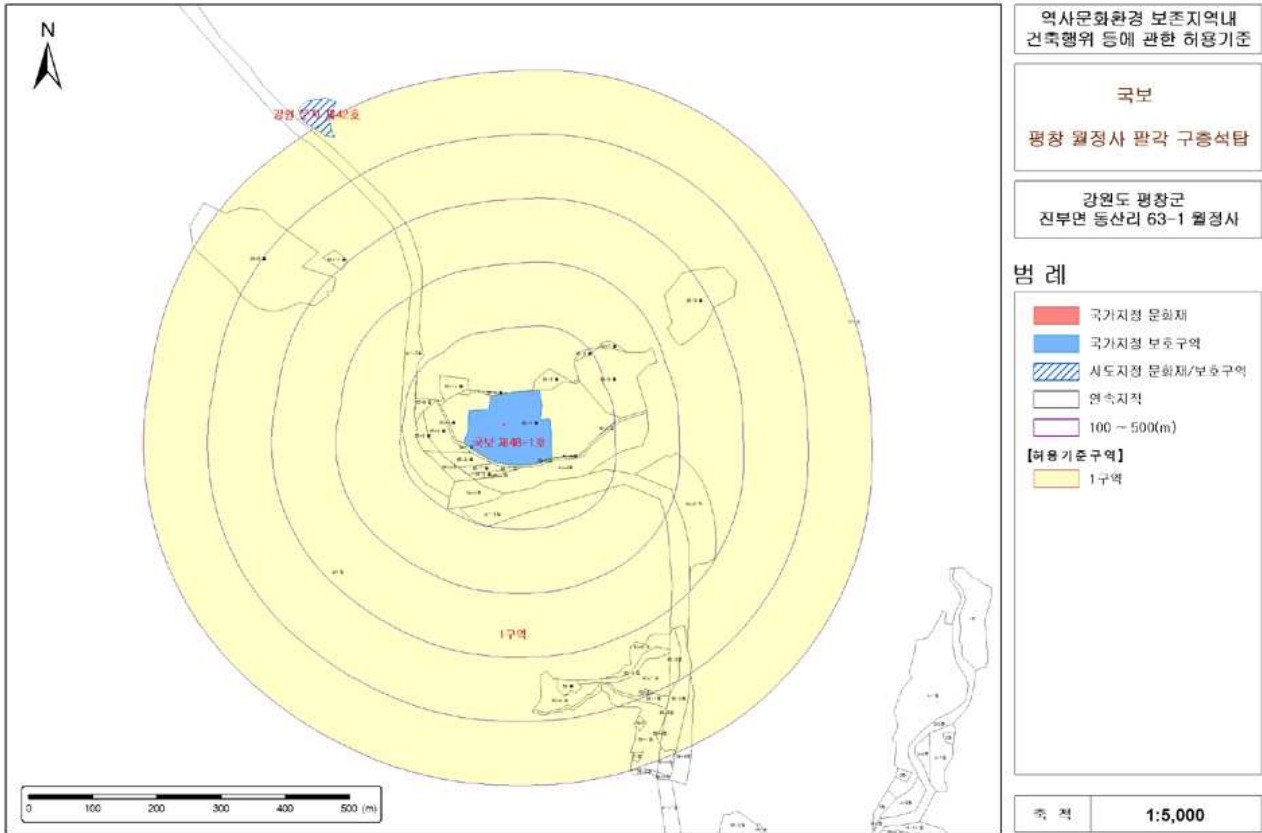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제3구역 | ○ 위봉문(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2구역 | ○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제3구역 | ○ 위봉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강원도 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

▣ 보물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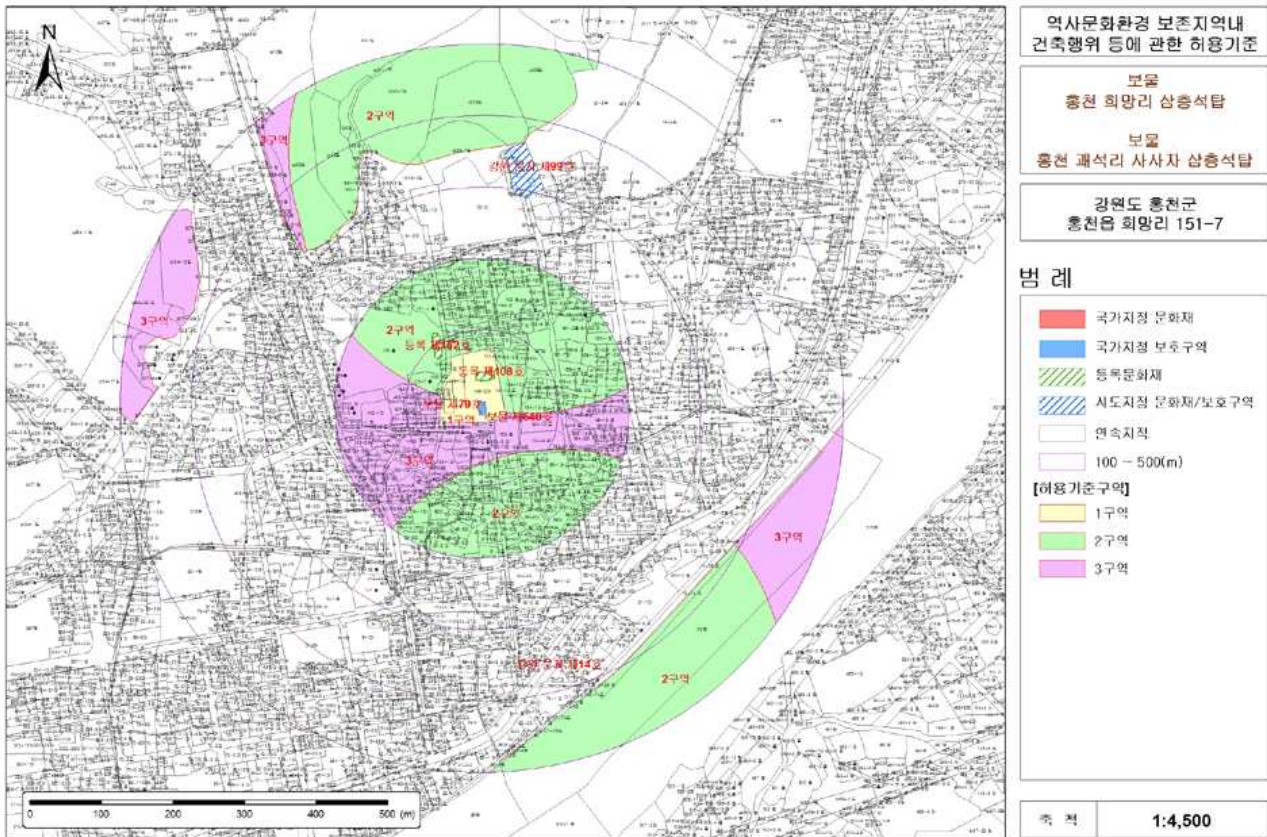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보물 “홍천 회망리 삼층석탑”, “홍천 과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다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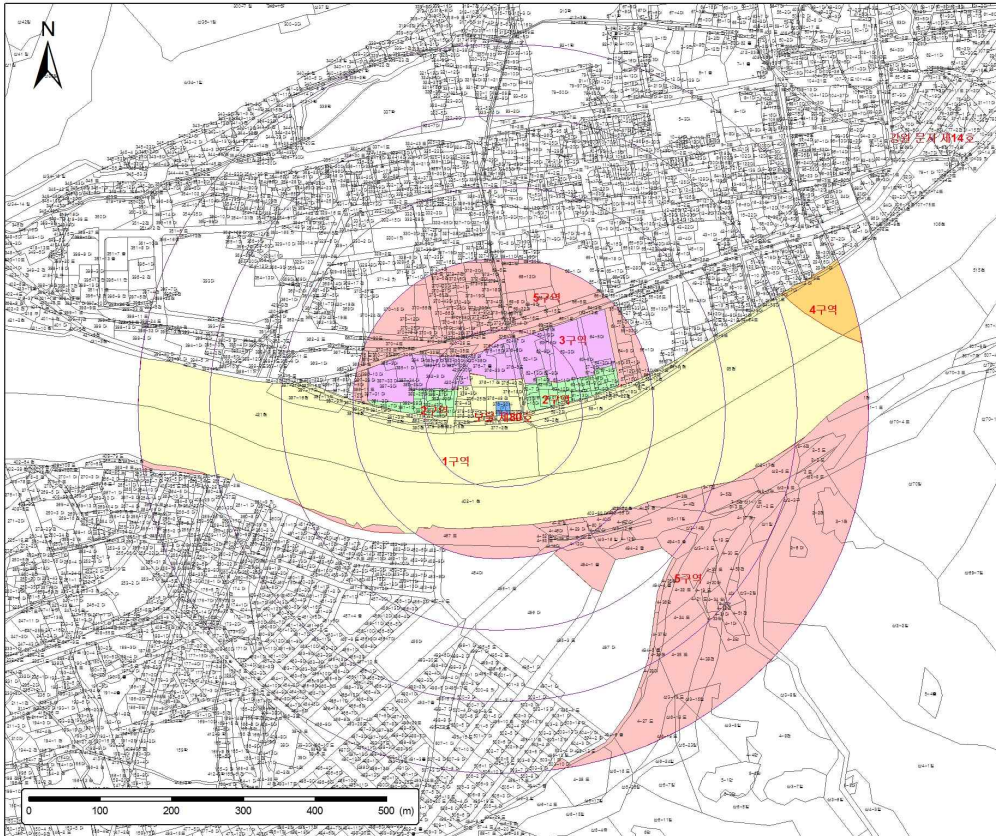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 제3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 제3구역 |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6

범례

| | |
|---|---------------|
| ■ | 국가지정 문화재 |
| ■ | 국가지정 보호구역 |
| ▨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 ▭ | 연속지적 |
| ▭ | 100 ~ 500(m) |
| 【허용기준구역】 | |
| ■ | 1구역 |
| ■ | 2구역 |
| ■ | 3구역 |
| ■ | 4구역 |
| ■ | 5구역 |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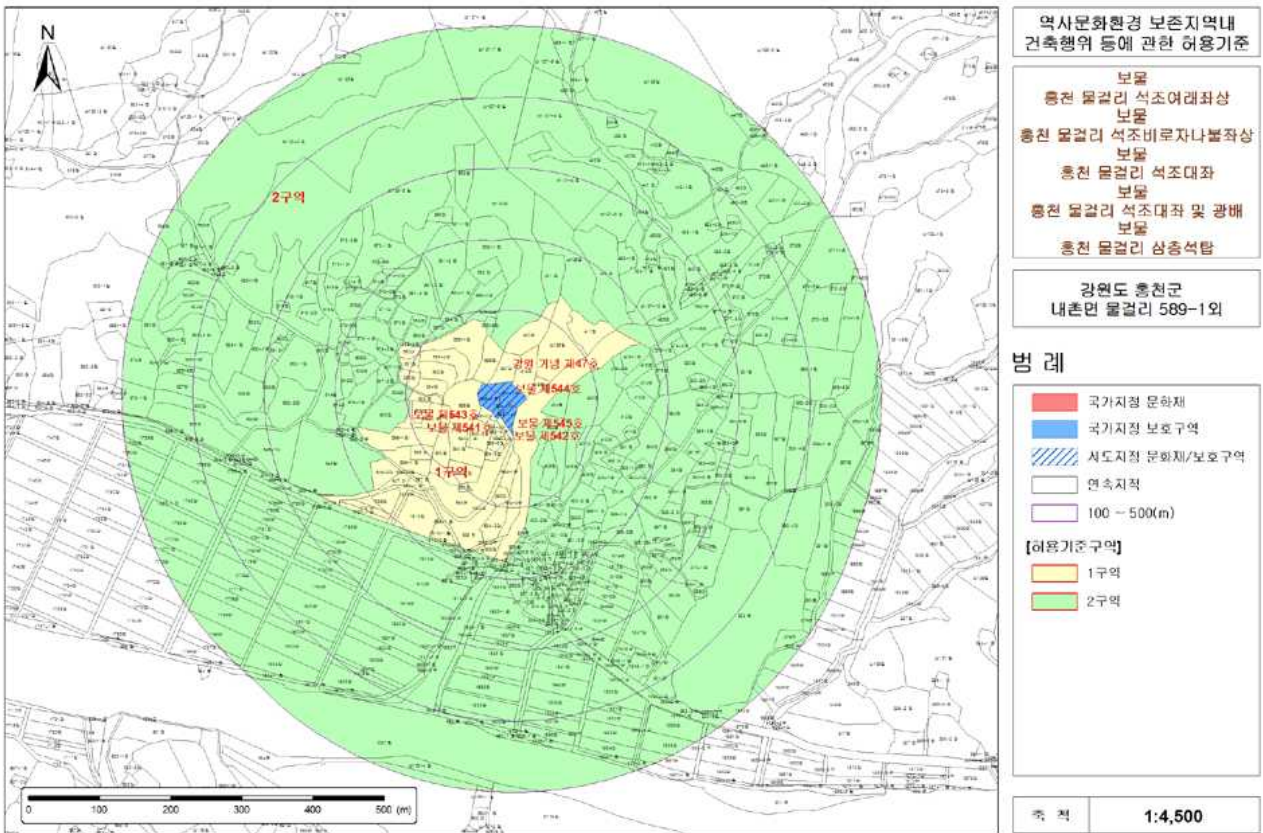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7m 이하 | ○ 최고높이 21m 이하 | |
| 제4구역 |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 제5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 검토 | | |
| 제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2m 이하 | |
| 제3구역 | ○ 최고높이 17m 이하 | ○ 최고높이 21m 이하 | |
| 제4구역 |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 제5구역 |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보물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및 광배”,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대응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심의 | | |
| 제2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가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범례 표 (변경 후) 】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제1구역 | ○ 개별검토 | | |
| 제2구역 | ○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권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권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11

11.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018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 11. 15.) : 보류
- 추가자료 검토 후 재심의
- ※ 2018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 12. 20.) : 보류
- 관계전문가 추가 조사 후 재검토
- ※ 2019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 4. 18.)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수사극락보전」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문수골길 201
 - 지정일 : 1973. 12. 2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문수골길 201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 지정면적 : 191.55m²(보호구역 1,826.6m²)
- 수량 : 1동
- 구조/형식 : 다포계 / 단층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3.05.09.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05.09. | 대상문화재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 |
| 조사자 | 성 명 | ○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소 속 | ○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 |
| | 문화재 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현재 아무런 기준이 없음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서산 문수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末寺)로서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상왕산(象王山) 서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상왕산은 산세가 코끼리의 상아와 닮아서 붙여졌다고 한다. 한편, 1619년에 한여현(韓汝賢)이 편찬한 『호산록(湖山錄)』에는 여러 짐승들 가운데 힘이 세고 으뜸인 코끼리처럼 힘이 있는 자를 상왕(象王)이라 칭한 것과 산 이름이 관련 있다고 한다. 상왕산 자락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서산 보원사지(사적), 개심사, 명종대왕 태실 등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다.

서산 문수사는 정확한 창건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금동여래좌상에서 1346년(고려 충목왕 2년)에 쓴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적어도 고려말에는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서산(瑞山)편 불우조(佛宇條)에는 “개심사(開心寺), 문수사(文殊寺), 보현사(普賢寺) 등이 함께 상왕산(象王山)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호산록(湖山錄)』을 보면 서산 문수사는 폐지되었고 30여 명이 모여 사찰을 불태우는 바람에 1동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산 문수사는 1986년 당시만 하더라도 주불전인 극락보전과 심검당(요사채)과 조사각(요사채) 등 3동만 남아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조사각을 철거하였고, 2000년에 서쪽 요사채와 산신각, 일주문을 신축하였다. 2016년에는 산신각 동쪽에 나한전을 건립하였다. 본래 극락보전 앞에는 삼층석탑이 있었으나 이 탑은 현재 산신각 앞으로 옮겨졌으며, 극락전 앞에는 새로 조성한 오층석탑을 세웠다. 현재 문수사 경내에는 극락보전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극락보전에서 봉안하고 있던 금동여래좌상은 도난을 당했으며, 복장유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유래 및 특징

1)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의 연혁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연혁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어 단편적인 내용만 확인 가능하다. 1619년의 기록인 『호산록(湖山錄)』 불우조(佛宇條)를 보면 “문수사는 폐사되고 산기슭 위 2전에 승려가 사는데, 전해져 오기를 예전에 그 절의 중이 풍속이 극악하여 30여 명이 모의하여 법당(法堂) 및 동서 선당(禪堂), 행랑(行廊), 누각(樓閣)을 하룻밤에 불사르고 전각 하나만 불에 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목부재 28점을 대상으로 연륜연대를 분석한 결과 기둥 4본, 대들보 2본, 종보 1본, 평방 2본, 보아지 1본, 도리 4본, 장여 1본, 대공 1본, 첨차 1본, 연목 1본 등 여러 부재들이 1624년 초가을부터 1630년 초봄 사이에 벌목된 목재를 이용하여 건립한 것이 확인되었다. 방사선탄소연대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1630년경에 중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집에서 발견된 목서를 보면 ‘雍正六年’ 즉 1728년(영조 4) 2월에 단집을 사나사

에서 문수사로 이동하여 중수하고 고쳐서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문수사 극락보전은 1728년에 단집을 설치하였으며 이때 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망와 중에는 ‘건륭 16년 신미 4월’이라 기록된 망와가 있어 1751년(영조 27)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극락보전 안에 있는 ‘地藏菩薩圖’는 1774년(영조 50)에 조성한 것이고, 삼세후불탱화는 1892년에 조성한 것이다. 중수기 현판을 통해 일제 강점기인 1918년에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74년에는 번와공사, 1986년에는 석축 및 기단공사가 실시되었고 1993년에 번와공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산자이상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2) 건축 특성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서 정면이 측면보다 긴 장방형 평면을 지니고 있다. 불전 중앙에는 수미단을 두고 수미단 뒤쪽에 후불벽을 두고 후불벽과 배면 사이에 공간을 구성하였다. 불전 배면에는 창호를 두어 후불벽을 향한 의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평면 구성은 조선 중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다.¹⁾ 기둥 간격은 정면 어칸이 3,739mm, 좌우 협칸은 3,424mm로 어칸이 협칸보다 1자(尺) 정도 넓게 구성하였다. 측면은 정칸이 3,034mm이고 앞뒤 퇴칸은 1,544mm 내외이다. 영조척은 약 306~307mm로 추정된다.

문수사 극락보전은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자연석으로 낮은 기단을 조성하여 건물을 세웠다.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그랭이를 하여 기둥을 세웠다. 귀기둥은 직경이 390~460mm이고 평기둥은 345~423mm로 귀기둥이 평기둥보다 약 1.5치(寸) 정도 더 굵은 것을 사용하였다. 창방은 폭이 213~221mm, 춤은 226~245mm로 폭과 춤은 1:1.1의 단면비를 보인다. 평방은 폭이 360~392mm, 춤은 178~214mm로 폭이 춤보다 2배 정도 크다.

공포는 외 2출목, 내 2출목의 다포 형식이다. 주간포는 매 칸마다 2조씩 배치하였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정면 주심첨차와 1출목첨차는 소첨차와 대첨차를 사용하였으며, 첨차는 단부를 사절하고 하부는 둥글게 깎은 교두형이다. 2출목 소첨차는 연화두형으로 조각한 첨차를 사용하였다. 정면 제공은 모두 양서형으로 하부는 연화두형으로 조각하였는데 초제공과 2제공은 상부에 연화를 조각하였고 3제공은 연봉을 조각하였다. 주상포의 경우 3제공 위에는 보머리를 봉두를 조각하고, 주간포에서는 3제공 위에 운공을 끼워넣었다. 정면의 양쪽 귀포는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평방 위에 귀방을 놓고 귀한대를 사용하여 보다 장식적으로 구성한 특징을 보여준다. 다포계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귀포에 귀한대를 설치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창원 성주사 대웅전 (1681년 중건, 1817년 대수리)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배면 공포는 정면 공포보다 장식성이 덜하다. 첨차는 모든 첨차가 단부를 사절한 교두

1) 안대환, 「조선시대 사찰 주불전에서 불단 위치와 목가구의 상관성과 시대적 변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형 첨차를 사용하였는데 공간이 새겨져 있다. 초제공은 쇠서가 없이 단부를 직절하였으며 하부는 교두형으로 처리하였다. 2제공과 3제공은 하단에 초각을 하지 않았으며 연봉과 연화를 조각하지 않은 양서형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첨차의 공간, 제공의 조각 수법 등을 볼 때 배면의 공포가 정면 공포보다 양식적으로 시기가 앞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구조는 가구는 5량 형식이다. 전·후면 기둥 상부 공포 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뜯창방과 보아지를 십자로 결구하고 주두를 올려 종보를 받도록 했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이 종도리를 받는 구조이다. 대들보는 보머리가 외목도리 바깥쪽으로 가늘게 빠져 나오면서 외목도리를 직접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주 경기전 정전(1610년)과 내신문(1610년), 청주 안심사 대웅전(1626년), 강화 전등사 약사전(17세기 중반 추정), 순천 송광사 영산전(1639년), 김제 금산사 대장전(1635년), 익산 송림사 보광전(1613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1813년)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의 구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내1출목과 내2출목 상부에 내목도리를 각각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목도리는 안쪽 마지막 출목에만 설치되며 단면이 사각형인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수사 극락보전에서는 내목도리에 모두 굴도리가 사용되어 있다.

내부 천장은 종도리 하부에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전면 종도리와 내목도리 사이에는 한 단 낮춰 층급반자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후불벽 뒤쪽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연등천장으로 개방하였다.

창호는 정면 어칸에 4분합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3분합문을 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불전 출입을 위한 외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창호는 공통적으로 하부에 궁판을 끼워 넣었는데 정면은 빗살문이고 측면은 띠살문이다. 모두 후대에 교체된 것이다. 배면에서도 창호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어칸에 창호가 있었으며, 배면 서쪽 협칸에서는 영쌍창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영쌍창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17세기 초반까지 지은 불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고식(古式) 창호이다.

단집은 보궁형(寶宮形) 단집으로서 중아자형(重亞字形)의 형태이다. 5칸x3칸이며 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포는 외 5출목의 포작으로 구성하였고 4개의 당주가 불탁과 결구하여 있다. 보궁형 단집의 상부에 보개형 단집의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보궁형 단집은 추후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미단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와 중대에는 안상 사이에 화려한 꽃과 화병을 투각하여 장엄하였다. 내부 단청에서는 종량과 종도리 뜯장혀, 주심도리, 내목도리 화반, 내목도리 뜯장혀, 반자 일부에서 17세기의 전형적인 단청 문양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 단청의 경우 중수하면서 근래까지 여러 번 개채되면서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배면의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

나의 부재로 제작한 통평고대로 되어 있어 고식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쌓고 솟마루장을 올렸으며, 내림마루는 착고 위에 3단의 적새를 설치하였다. 기와 끝단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였다. 망와는 봉황 1쌍과 희(囍)자 문양, 귀면문, 용문, 1751년명 망와 등 4종류가 확인된다.

3. 문화재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서산 문수사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금동여래좌상에서 1346년(고려 충목왕 2년)에 쓴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적어도 고려시대 말에는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19년 사찬읍지인 『호산록(湖山錄)』을 통해 사찰의 대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보인다. 극락보전은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목부재 연륜연대 측정과 방사선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1630년경에 건립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면 서쪽 협칸에 있는 영쌍창의 흔적을 통해서도 17세기 전반의 특징이 드러나며, 내부 단청에서도 고식의 수법이 확인된다. 따라서 극락보전은 사찰이 전소된 후 1630년경에 중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집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1728년에 단집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망와 중에는 ‘건륭 16년 신미 4월’이라 기록된 망와가 있어 1751년(영조 27)에 중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포는 내·외 2출목의 다포이다. 배면 공포 첨차에서는 공안이 확인되어 옛 수법을 볼 수 있으며, 초제공 하부를 교두형을 처리한 특징도 지니고 있다. 특히 내출목도리의 경우 1출목과 2출목 상부에 모두 굴도리를 설치한 것과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정면 귀포에 귀한대를 사용한 것, 배면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나의 부재인 통평고대로 처리한 것은 다른 건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공포부의 경우 정면과 배면이 다른 것, 내부 천장의 구성 등은 18세기에 중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이처럼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면서 사찰 불전이 변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있다.

<종합의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17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내부 단청, 배면의 영쌍창, 지붕 가구의 구성, 내외 2출목 공포의 구성 및 양식, 배면 통평고대 등에서 고식의 수법이 확인되며 18세기 이후 불전이 변화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맞배집임에도 불구하고 귀포에 귀한대를 사용한 것, 내출목도리의 구성 방식 등은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후대에 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축 수법이 바뀐 것은 아쉬우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밀실측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도면을 볼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체수리를 진행할 때 내출목도리의 원형 여부, 대들보 보머리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조선 중기 이후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공포부
통평고대
18세기에 설치한 단집과 묵서
배면 서협칸의 영쌍창 흔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 05. 09. | 대상문화재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소 속 | ○○○○○○○○ | 직위(직책)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 | |
| | 문화재 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 |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종합의견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신청종별 : 보물

2. 문화재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

3.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문수골길 201 (운산면, 문수사)

4. 연혁 :

문수사 창건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1973년 문화재관리국과 충남 문화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충남문화재발굴사업 당시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에서 1346년(고려 충목왕 2)에 쓴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적어도 고려 말 이전에 문수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문수사 극락보전의 연혁과 관련하여서는 문수사 극락보전의 연혁과 배치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호산록(湖山錄, 1619년)』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산(瑞山)편 불우조(佛宇條)에는 “개심사(開心寺), 문수사, 보현사(普賢寺) 등이 함께 상왕산(象王山)에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第二券之十九瑞山佛宇條「開心寺文殊寺普賢寺俱在象王山)라는 기록이 있고, 이조정랑 한여현이 쓴 읍지인 호산록에 의하면 “문수사는 폐사되고 산기슭 위 좁은 터에 두 칸 전당만 남아 있어 스님이 사는데, 전해 저 오기를 예전에……중략……도적을 몰아내기로 모의하고 30여명이 절의 당(法堂)과 동서 선당(禪堂), 행랑(行廊), 누각(樓閣)을 하루 밤에 불사르고 법당 하나만 불사르지 않았다.”(文殊寺亦爲廢寺 峽上二殿僧居自古相傳(중략) 謀去賤穴三十餘人圍立寺法堂及東西 禪堂廊樓閣一夜盡燒殿獨不燒”)라고 문수사에 들끓는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마을사람들에 의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면서 폐사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문수사는 고려말 이전에 창건되었고 17세기에 사동중정식(四棟中庭式) 산지가람이 대부분 불에 소실되며 극락보전도 이때 함께 소실되었다고 추정하거나 소실을 면한 극락보전만 남아 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현 극락보전의 창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후의 자료인 『범우고』(1793년)와 『가람고』의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존속 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1892년에는 ‘삼세불도’, ‘서산문수사 후불탱화 및 신장탱화조성기 현판’이 제작되었고 1912년 ‘해미군부산면문수사불량계기현판’, 1918년 ‘문수사중수기 현판’을 통해 한 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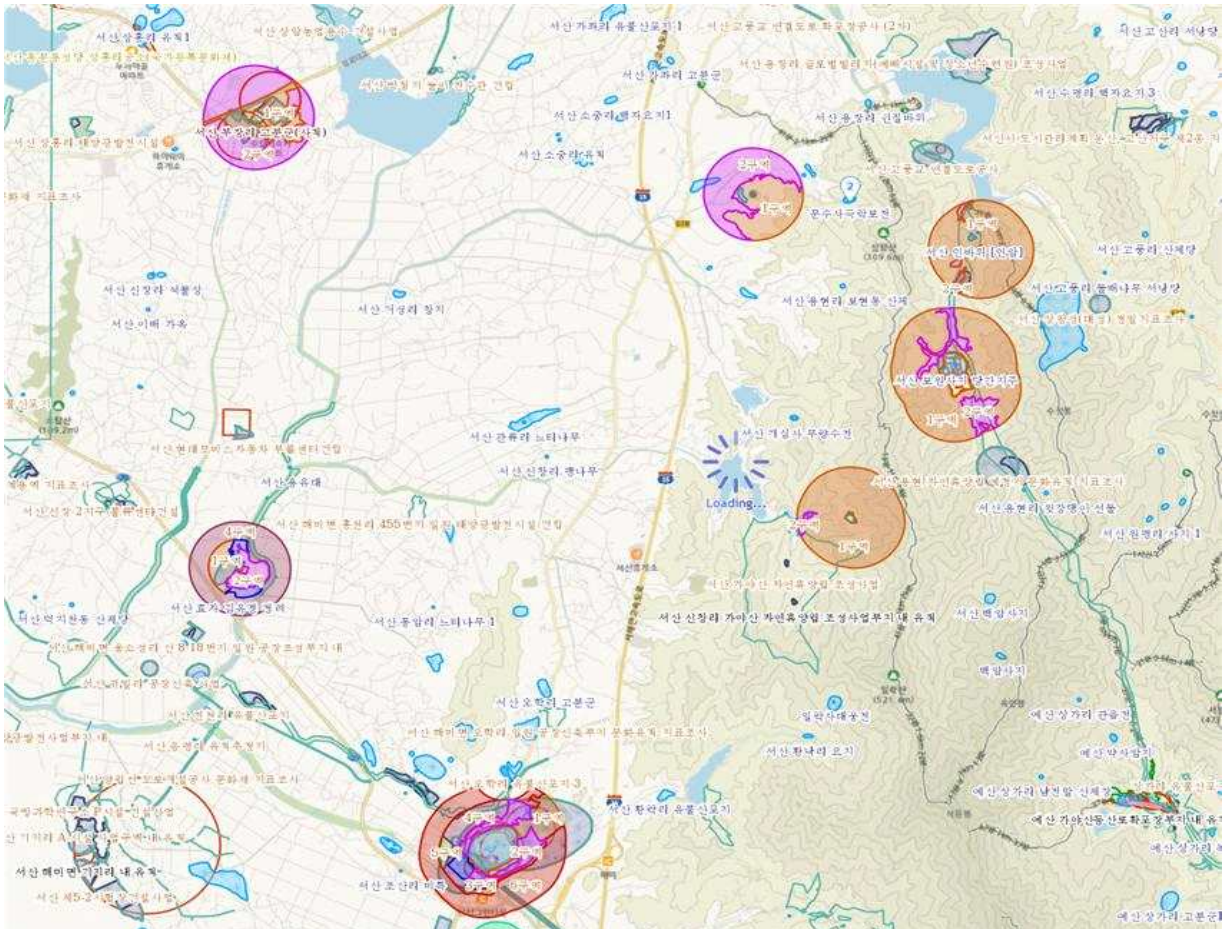
이후 근래에 들어 가람의 정면 능선 사이 계곡부를 돋우어 사역을 확장한 다음 차례로 요사채와 산신각 그리고 나한전 등을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서산 문수사(瑞山 文殊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의 말사이다. 서산시 해미면에서 시작하는 가야산맥에서 뺨어내려 그 모습이 상의 뿔과 닮아 이름 붙여진 ‘상왕산(象王山)’의 서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문수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서산 개심사,

동남쪽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가 위치하고 있다. 서산 개심사에는 개심사 대웅전(보물 제143호), 개심사명부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개심사심검당(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4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보물 제1766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보물 제1915호), 달마대사혈맥론 목판(보물 제1916호) 등이 있다. 보원사지내에는 서산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보물 제105호),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보물 제106호) 등이 있다. 계곡 아래의 약 2km 정도 서쪽으로 진입로 상에서 조금 벗어난 목장 가운데 볼록한 봉우리에 명종대왕의 태실과 태실비(보물 제1976호)가 있다.

이외에도 주변에 다수의 지정, 등록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문수사 인근 역사문화환경(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6. 건축 현황 및 특징 :

1) 공간구성

해미면에서 운산을 잇는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8km 정도 올라가다가 북동쪽 태봉리 방향 산쪽으로 2km 거리에 문수사의 경계인 일주문(一柱門)이 위치한다. 여기에서 200m 정도 산기슭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그마한 저수지를 앞에 두고 능선 사이 계곡부를 돌로 높은 축대를 쌓은 곳에 사역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고 그 북쪽 경사지에 극락보전이 남서향으로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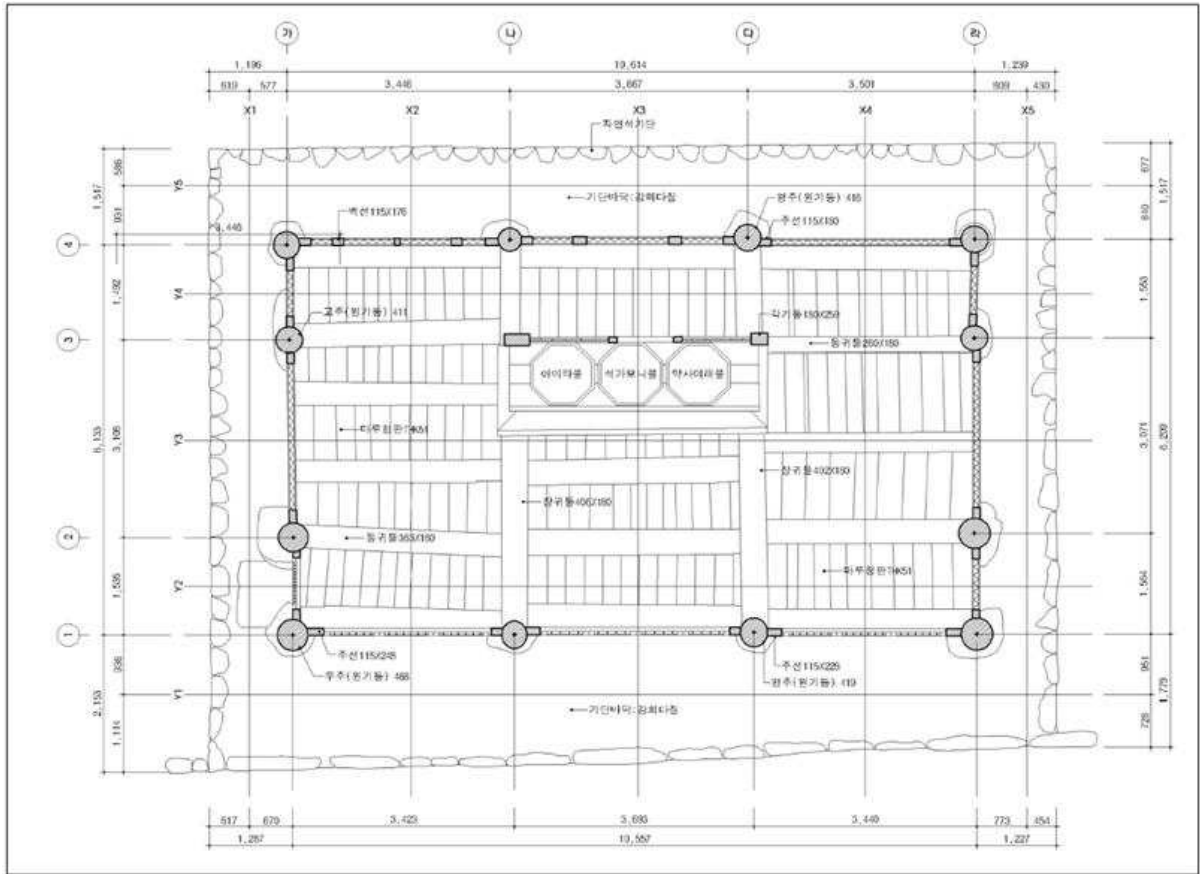
극락보전 앞에는 좌우로 나란하게 서 있는 석등과 함께 근래에 세워진 듯한 5층 석탑이 위치해 있고 동측과 서측에 각각 산신각(山神閣)과 나한전(羅漢殿) 등과 수도당, 심검당, 춘정고 등 요사 시설이 위치해 있다. 산신각 전면에는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 삼층석탑이 서 있다. 1998년 「서산시지」에 수록된 문수사 사진에는 삼층석탑이 원래 극락보전 앞에 있었으나 이후 산신각 앞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건축현황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겹처마 맞배집이다. 내부는 기둥을 두지 않은 통 칸으로 구성되며 간살의 크기를 보면 정면은 어칸이 대략 3,700mm로 3,400mm의 양 퇴칸보다 약 300mm 크게 잡아 간살을 뚜렷하게 구분하였고 측면은 어칸 3,100mm, 양 퇴칸 약 1,550mm 정도로 퇴칸을 정확하게 정칸의 반 칸 크기로 구성하였다. 측면의 이러한 방식이 나타나는 불전으로 고려시대 14세기의 수덕사 대웅전, 장곡사 상대웅전 등이 있다. 또한 화암사 극락전, 전등사 대웅전, 무량사 극락전, 환성사 대웅전 등 17

세기에 원래 기단 위에 재건된 불전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서(양재영, 2008) 문수사 극락보전의 평면 구성은 고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건 당시부터 남아있는 건물이거나 최소한 그 기초를 토대로 재건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극락보전 평면도

산 경사지 끝자락에 자연석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전면은 높고 배면과 좌우측은 그보다 낮은 외별대로 기단을 조성하여 경사지의 고저차를 해결하였는데 자연석으로 쌓은 배면 및 좌우측면과는 달리 전면은 기단 면석 형식으로 다듬은 평평한 화강석을 일정하게 세워 축조하였다.

기단 위에 막돌 덩벙주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웠으며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불단을 위치시켰다. 전면과 후면의 기둥은 모두 평주보다 우주가 약 90~160mm 정도 높게 귀솟음이 적용되었다. 맞배지붕집에서는 귀솟음이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는 5량가로 계획했으며 전후면 기둥 사이에 장통보를 올리고 4분 변작을 하여 그 위에 동자주로 종보를 받치고 판대공을 얹었다. 대들보는 정방형의 비례를 가지며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었다.

불전 정면 주칸에는 굽널 빗살문이 설치되어 여닫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칸에는 4짝 문

이 설치되어 있고 양 퇴칸에는 어칸보다 약간 폭이 넓은 3짝의 문이 달려 있어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개심사 대웅전, 화암사 극락전, 대곡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청곡사 대웅전과 창호의 수 및 구조가 흡사하여 17세기 초기의 시대적 특성과 함께 건축적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배면에는 창호가 없이 울거미만 남아 있다. 울거미에 남아있는 돌쩌귀 자국을 통해 어칸과 우 퇴칸에 각각 양개문(兩開門)과 영쌍창(楹雙窓)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락보전의 좌우 퇴칸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와 같은 영쌍창은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에서 가장 이르게 보여 조선시대 17세기 초반까지의 불전에 널리 사용되다가 그 후 18세기 이후로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 조선 중기 이전에 유행한 고식의 창호로 알려져 있다. 배면부 어칸 출입문과 양 퇴칸 영쌍창의 창호 조합 사례는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제161호, 1423, 복원형식),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제13호, 1430), 안동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조선전기),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 1605, 복원형식), 공주 갑사 대웅전(1604), 의성 대곡사 대웅전(1605, 복원형식),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보물 제178호, 1621),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보물 제608호, 17세기),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1632),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제915호, 1624),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1718),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제562호, 1635), 괴산 각연사 비로전(충북 유형문화재 제125호, 17세기초, 복원형식), 대구 파계사 원통전(보물 제1850호, 1606, 복원형식), 구미 대둔사 대웅전(보물 제1945호, 1606) 등에서 보여 역시 고려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 초반까지 쓰이던 형식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문수사 극락보전의 창건 또는 중건은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 초반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된다.

정면과 배면 상부에만 설치된 포작은 주간(柱間)에 2구씩의 간포(柱間包)와 평주(平柱) 및 우주(隅柱)상의 주상포(柱上包)와 귀포 등 각각 10기가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어 있다. 공포는 내외2출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면 공포와 달리 후면 공포는 양서형(仰舌形) 살미의 개수와 조각을 줄였고, 연화와 봉두 등 장식이 생략하여 정면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후기 양식으로 보이는 살미의 조형과 달리, 첨차는 하단을 연화형(蓮花形)으로 다듬은 주상포와 주간포의 외2출목 첨차를 제외한 내·외 모든 출목첨차가 끝부분을 직절(直截)하고 하부를 둥글게 깎은 동일한 교두형(翹頭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의 교두형 출목첨차에서 첨차 상단 모서리부를 제거한 형식으로 공안(枳眼)이 초각되어 있다. 비교적 고식의 치목 수법으로 알려진 공안이 극락보전 첨차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극락보전의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극락보전의 단청은 내외부 단청의 양상도 시기가 다른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내부의 단청의 경우 종량, 중도리 뜯장혀, 주심도리, 내목도리 화반, 등 일부 단청이 17세기 전형의 단청양식으로 보이고 외부단청의 경우 최근까지 여러 번 개체되어 내부 단청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17세기 단청양식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극락보전의 건립연대를 알려주는 자료로 ‘단집 목서’가 있다. 하나의 목서에서는 단집이 만력(萬曆) 연간(명나라 14대 황제 만력제 주익균이 사용한 연호, 1573~1619)에 제작(時萬曆○丁壬○丑月日八峯山○別家造成後世固雍正○記)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의 목서에서는 옹정 6년 무신년(1728년)에 단집을 사나사에서 문수사로 이동하여 중수 개성하였다(雍正六年戊申二月日書 蛇難寺別家文殊寺 李運重修改成)고 나타난다.

이와 같이 17세기 특징의 고식의 단청문양과 단집 연혁을 통하여 문수사 극락보전의 건립연대는 1728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7.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문수사 극락보전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창건 연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재 나타난 문헌상으로 『호산록(湖山錄)』의 기록에 등장하는 “소진을 면한 두 칸의 전당”이 현 극락보전으로 볼 경우 건축시기를 호산록의 편찬연대인 1619년보다는 앞으로 산정할 수 있고 당시 소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후대 중건 연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창호, 공포의 구성 세부에서 조선 초, 중기 기법과 양식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근 개심사 등 사찰과 유사성도 그 중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또한 단청과 목서, 연륜연대 조사를 통하여 중건 시기를 163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보수 과정에서 일부 변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선 초·중기의 건축기법 등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수사 극락보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3. 5. 9 | 대상문화재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
| | 소 속 | ○○○대학교 | 직위(직책) | 교수 |

| |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
| | 문화재 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보호물> | | |
| <보호구역> | | |

| | |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종합의견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11 월 14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 문화재 명칭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충청남도의 북서부에 돌출한 태안반도에 속한 서산시는 기후상으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다. 서산은 서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적 중요성으로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문화적으로는 가야산 주위의 이른바 「내포 지방」으로서, 충남에서 차령산맥 동남부의 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왔으며, 충남의 북서부에 돌출한 입지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인 문화재를 수없이 많이 남겼다. 특히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제307호) 등 문화재 등이 있다.

문수사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문수골길에 위치한 사찰이며,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문수골길에 위치한 서산 문수사는 서산시의 동쪽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가야 산맥의 줄기가 서북으로 뻗어 내려와 형성된 상왕산의 서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상왕산 지맥에는 입모산(笠帽山), 문수산(文珠山), 장락산(張樂山), 옥녀봉(玉女峰) 등을 이루고 있다. 서산 상왕산 동측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등이 있으며, 보원사지내에는 서산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보물 제105호),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보물 제106호) 등이 있다.

4. 연혁·유래 및 특징 :

서산 문수사의 창건연대와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문헌과 관련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수사 극락보전의 연혁과 배치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호산록 등 전해 내려오는 구전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고려시대 처음 세워진 고찰로 볼 수 있다.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의 평면은 정면 3칸 × 측면 3칸이며 각 면의 전체 길이는 정면 10,557mm, 우측면 6,209mm, 배면 10,614mm으로 면적은 약 65.32㎡이다. 평면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면과 배면이 측면보다 긴 장방형으로 건축되었다.

문수사 극락보전의 평면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으며, 정면에서 배면으로 장귀틀을 길게 설치하고 이와 직교하여 동귀틀을 설치하여 청판을 끼웠다. 수미단은 정면 정칸에 설치하였으며, 배면에서 후퇴칸 만큼 이격하여 수미단 배면에 공간을 두었으며, 출입문은 정면과 측면에 배치하였다.

문수사 극락보전은 축대 위에 기단을 두고 세워졌으며, 건물의 배면 쪽으로 다시 축대

를 쌓아 그 위로 구배를 형성하여 비탈로 이어진다. 축대는 극락보전을 포함하여 좌측의 요사와 우측의 산신각 영역까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축대에는 화계를 만들어 두단으로 하였다. 축대 위에 기단이 올려져 있으며, 사면 모두 자연석 외벌대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좌측면, 우측면, 배면은 정면보다 낮은 돌로 기단을 돌렸으므로 정면기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문수사 극락보전은 기둥은 모두 곧게 치목되어 다듬어진 형태의 직재가 사용되었으며, 민흘림기법을 사용하였다. 공포부는 정면과 배면에 주상포와 주간포를 내외2출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내외가 2출목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귀포는 4개, 주상포는 4개, 주간포는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5.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에 대한 지정가치 및 근거는 2017년 서산시가 발간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요청자료보고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그리고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 및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무엇보다도 건조물(建造物) 중 목조건축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보물로 지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① [별표1])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기초로, 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치 및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조선 중기~후기 건축기법의 변화를 한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극락보전은 1630년 초 중건되었다. 불단이 불전 중앙에 위치한 평면 구성은 조선 중기 이전 평면 특징을 나타내며, 귀솟음과 안쏠림은 조선 중기 이전 기법을 보여 준 반면 정면과 배면 공포, 귀포 장식성은 조선 후기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음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조선 중기에서부터 후기 단청의 개채시기별 변화를 내부 단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내부단청은 고식단청, 반자단청, 반자 이하의 단청, 고색 땀단청 등으로 개채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벽화는 황토바탕에 그린 고식 수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 전기 벽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다포식 공포에 맞배지붕의 불전, 단청의 머리초 주문양인 녹연화, 수미단의 지화 기법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문수골길에 위치한 사찰인 문수사가 서해안 일대

의 건축적, 예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전통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 특히 단청의 머리초 주문양인 녹화는 17세기 중건 당시 문양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희소성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예술적, 건축사적 가치를 지닌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전승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2.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나주 서성문 안 석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의 한자 표기와 관련한 금성읍지(1897년), 지방지도 나주지도(1872), 나주군읍지(1899)에서 확인되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함.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2023. 6.)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고분로 747 (반남면, 국립나주박물관)
 - 지정일 : 1963. 01. 21. / 보물지정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현행 명칭 | 변경 명칭(안) |
|------------------------------|--|
| 나주 서성문 안 석등 (羅州 西城門 안 石燈) | 나주 서 <u>성</u> 문 안 석등 (羅州 西 <u>成</u> 門 안 石燈) |

- 변경사유 :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의 한글 명칭은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행을 유지하되, ‘서성문’의 한자어 표기는 1800년대 고증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西成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고증 문헌 속 서성문 관련 주요내용

| 연번 | 고증 문헌(년도) | 서성문 관련 주요내용 |
|----|---------------------------|---------------------------|
| 1 | 나주목읍지 나주목여지승람(1816) | 서문에만 ‘영금문(暎錦門)’ 편액이 있음 |
| 2 |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1871) *지도 | 西城門 |
| 3 | 지방지도 나주지도(1872) | 西成門 |
| 4 | 금성읍지(1897) | |
| 5 | 나주군읍지(1899) | |

※ 문화재 명칭변경 이력

| 년도 | 명칭 | 비고 |
|-------------|--------------------------------------|-----------------------|
| 1963.01.21. | 보물 「나주 서문 석등 (羅州 西門 石燈)」 | 문교부 고시 제173호 |
| 2010.12.27. | 보물 「나주 서성문 안 석등 (羅州 西城門 안 石燈)」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33호 |

라. 현지조사(2023.12.05.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은 1960년 6월 2일 ‘나주 서문석등’의 명칭으로 보물 제547호로 지정(관보 제2593호)되었는데,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 명승고적천연기념물보존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1962년 1월 10일)된 이후 나주 서문석등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364호로 재지정됨.
-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2010년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시에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으로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만 하여 명칭 변경 지정 예고(2010년 11월 1일, 관보 제17373호) 중에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2010년 11월 24일)를 통해 ‘나주 서내리 석등(羅州 西內里 石燈)’ 또는 ‘나주읍성 서성문 안

석등(羅州邑城 西城門 안 石燈) 등 2가지 명칭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시기 나주시와 전라남도에는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羅州 東漸門 밖 石幢竿)’,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羅州 北望門 밖 三層石塔)’ 등 나주읍성 성문 편액의 고유 명칭을 기준으로 그 내외에 위치한 보물에 명칭을 부여했던 것으로 미루어 서성문 또한 고유명사를 사용하려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은 한자의 병기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나주지방지도(1872년), 금성읍지(1897년), 나주군읍지(1899년) 등 문헌에 의하면 서성문은 동점문(東漸門),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과 더불어 西城門이 아닌 ‘西成門’으로 판단되고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1871년)에서 서성문의 한자 표기는 오류인 것으로 보이며 나주목읍지(1816년)를 통해 더 이른 시기에 나주읍성 서문에는 영금문(映錦門)의 편액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동점문의 ‘점(漸)’은 스미다, 남고문의 ‘고(顧)’는 돌아보다, 북망문의 ‘망(望)’은 바라보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서성문의 ‘성’은 성곽의 城이 아닌 문헌상의 ‘成’이 맞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나주 서성문 안 석등도 ‘羅州 西成門 안 石燈’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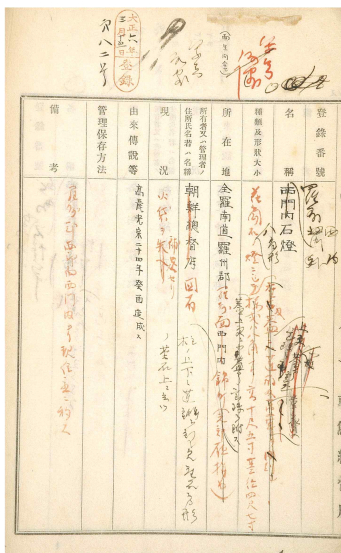
- 부결
 - 변경안에 대한 근거 부족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세부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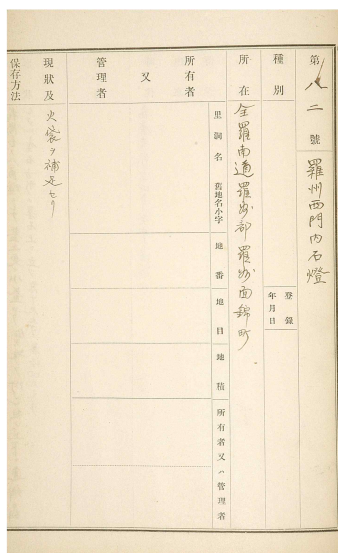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에 관한 조사보고서**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은 본래 전라남도 나주읍 서문안에 있던 것을 1929년 경복궁으로 옮겨놓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 보관되어왔다. 2017년에는 해체,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석등의 받침에 새겨져 있는 기록은 고려 선종 10년(1093)에 석등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데 통일신라시대 8각형 석등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작품으로 그 구조와 조각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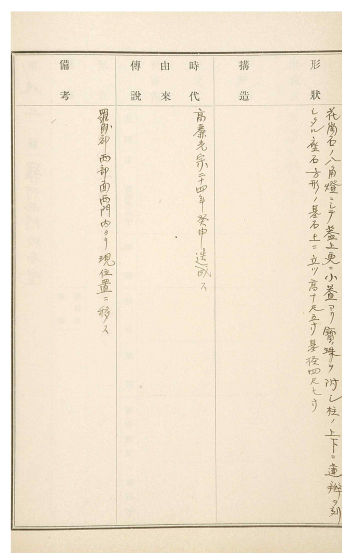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이 자주 언급된 이유는 1910년대 후반 (전라남북도 1919년, 제4차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고적조사사업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의하면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고적·유물 대장」을 통해 소개되었다. 「고적·유물 대장」은 1916년부터 작성되었고 1933년 보존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고적과 유물이 조사·등록된 대장이다. 여기에는 대장 등록을 위한 원고 및 교정본인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도 포함되어 있다. 고적조사위원회의 결의로 등록·수정된 나주 석등에 관한 원고는 「고적 및 유물 대장」에 기입되었고 그 등본(謄本)은 전라남도와 나주에 송부된 후 추가와 정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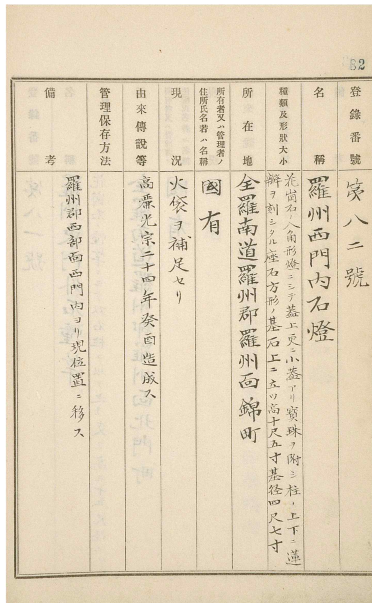
고적유물 등록원고, 1917년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F018-006-02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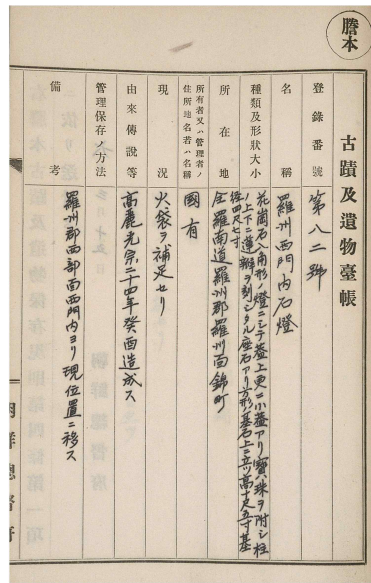
고적유물 등록원고, 1919년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F019-006-0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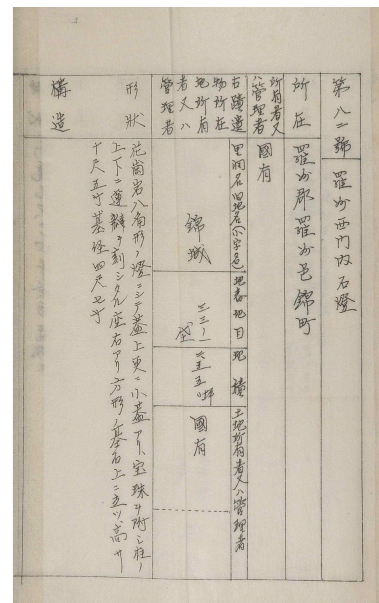
1917년 「고적유물 등록원고」에 의하면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서문내석등(西門內石燈)’의 명칭으로 등록원고에 기입되었다가 이내 ‘나주서문내석등(羅州西門內石燈)’으로 정정되어 일제강점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문서들에는 명칭 외에도 등록번호, 종류 및 형상, 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자, 현상 및 보존방법까지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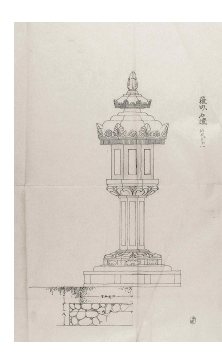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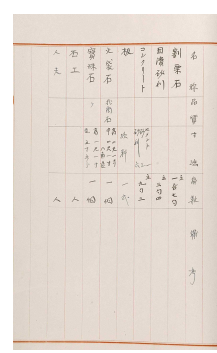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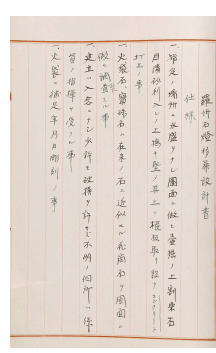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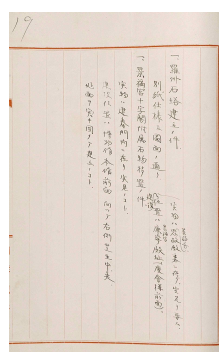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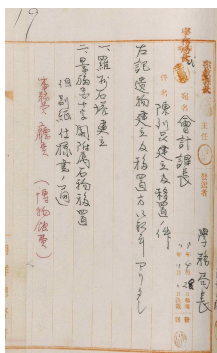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 1919년
‘나주서문내석등’으로 표기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F021-008-003-001]



고적 및 유물 대장 등본, 1919년 이후
‘나주서문내석등’으로 표기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F023-003-033-001]



각도 소재 고적 용지 조사 관계 보물고적 대장
‘나주서문내석등’으로 표기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H001-014-001-001]



다이쇼(大正)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서류 중 나주석등 이축(移築) 관련 문서, 1922년 이후
좌로부터 진열품 건립 및 이치(移置), 사양서, 나주 석등 이축(移築) 설계서, 나주 석등 도면
국립중앙박물관 [문서번호 : D012-021-003-001]

한편 1920년 발행된 「조선고적도보 7(朝鮮古蹟圖譜 七)」에도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이 조사되어 선명한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다. 다이쇼(大正) 11년도 이후 진열물품 관계 서류 중 「나주석등 이축(移築) 관련 문서」 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석등의 화사석(火舍石)과 보주

(寶珠)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화사석과 보주는 1920년대 후반, 석등이 서울로 옮겨진 이후 새로 보충된 것이다. 조선고적도보에서는 ‘나주읍내석등(羅州邑內石燈)’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전남 나주 서성문 안 석등’으로 표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고적도보7, 1920년
‘나주읍내석등(羅州邑內石燈)’으로 표기
국립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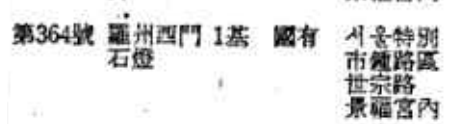
3D스캔 데이터
문화재청

「관보 제2593호」에 의하면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1960년 6월 2일 ‘나주서문석등(羅州西門石燈)’의 명칭으로 국보 제547호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위치는 경북궁 경내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1962년 1월 10일)된 이후 나주서문석등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364호로 재지정되었다.

| 국 | 번 | 명칭 | 수량 | 소재지 |
|-------|----|----------------------------------|----|-----|
| 제547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548호 | 국보 | 중흥산성상왕사지석탑 (中興山城上王寺址石塔) | 1기 | 국유 |
| 제549호 | 국보 | 분림사전경대사보살상공탑 (芬林寺前經代大佛寶月蓮華公塔) | 1기 | 국유 |
| 제550호 | 국보 | 분림사전경대사보살상공탑 (芬林寺前經代大佛寶月蓮華公塔) | 1기 | 국유 |
| 제551호 | 국보 | 월광암원통사탑비 (月光庵圓通寺塔碑) | 1기 | 국유 |
| 제552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3호 | 국보 | 법현사지장국사탑비 (法峴寺地藏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4호 | 국보 | 법현사지장국사탑비 (法峴寺地藏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5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6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7호 | 국보 | 남원사지장국사탑비 (南院寺地藏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8호 | 국보 | 법현사지장국사탑비 (法峴寺地藏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59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0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1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2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3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4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5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6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7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8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69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 제570호 | 국보 | 정토사홍법국사상탑비 (淨土寺弘法國師寶相塔碑) | 1기 | 국유 |

관보 제2593호, 1960년 6월 2일
국가기록원

| 국 | 번 | 명칭 | 수량 | 소재지 |
|-------|----|--------------------|----|-----|
| 제335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36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37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38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39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0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1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2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3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4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5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6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7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8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49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 제350호 | 국보 | 나주서문석등 (羅州西門石燈) | 1기 | 국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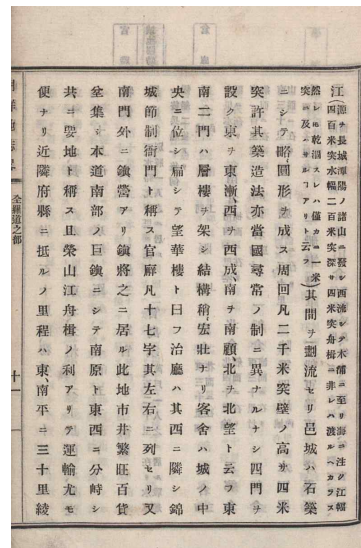
관보 제335호, 1963년 1월 21일
국가기록원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2010년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시에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으로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만 하여 명칭 변경 지정 예고(2010년 11월 1일, 관보 제17373호) 중에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2010년 11월 24일)를 통해 ‘나주 서내리 석등(羅州 西內里 石燈)’ 또는 ‘나주읍성 서성문 안 석등(羅州邑城 西城門 안 石燈)’ 등 2가지 명칭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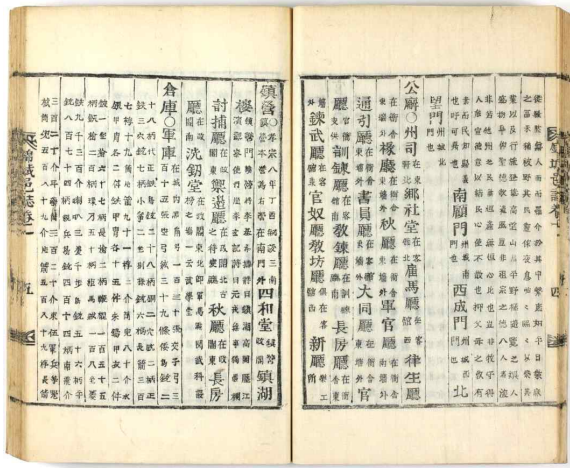
이 시기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羅州 東漸門 밖 石幢竿)’,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羅州 北望門 밖 三層石塔)’ 등 기록상 나주읍성 성문 편액의 고유 명칭을 기준으로 그 내외에 위치한 보물에 명칭을 부여했던 것으로 미루어 서성문 또한 고유명사를 사용하려 했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은 한자의 병기에 있어서 ‘成’을 ‘城’으로 오기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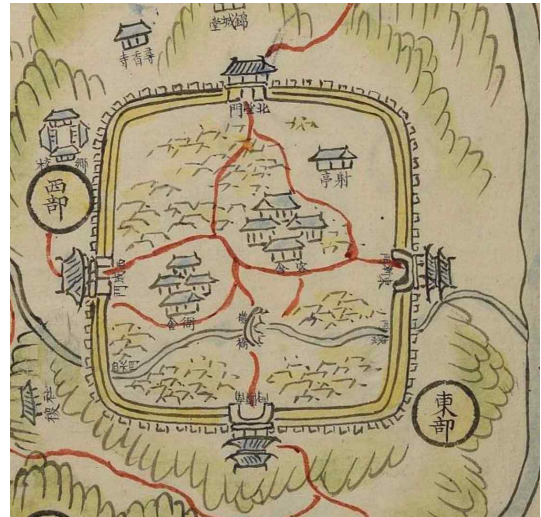
호남읍지 나주목여지승람, 1871년
‘西成門’으로 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선지지락, 1888년
‘西成門’으로 표기
대구광역시 시립중앙도서관



금성읍지, 1899년
‘西成門’으로 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나주군읍지, 1899년
‘西成門’으로 표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나주지방지도(羅州地方地圖, 1872년),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 1888년), 금성읍지(錦城邑誌, 1897년), 나주군읍지(羅州郡邑誌, 1899년) 등 문헌에 의하면 서성문은 동점문(東漸門),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과 더불어 西城門이 아닌 ‘西成門’으로 판단된다. 호남읍지나주목여지승람(湖南邑誌羅州牧輿地勝覽, 1871년)에서 서성문(西城門)의 ‘城’ 한자 표기는 단 1건만 확인되므로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나주목읍지(羅州牧邑誌, 1816년)의 기록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나주읍성 서문의 명칭이 영금문(映錦門)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1년 서성문의 복원과 동시에 걸린 영금문(映錦門)의 편액은 나주읍성의 성문 명칭이 실린 최초의 기록, 나주목읍지의 기록을 따랐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금문의 기록과 서성문의 기록에는 최대 56년의 시간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성문’이 곧 ‘영금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나주읍성과 성문의 중수기록 발굴을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나주읍성 동점문(東漸門)의 ‘점(漸)’은 스미다, 남고문(南顧門)의 ‘고(顧)’는 돌아보다, 북망문(北望門)의 ‘망(望)’은 바라보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서성문의 ‘성’은 성곽의 城이 아닌 문헌상의 ‘成’이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의 한자표기는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成門 안 石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2-013

13.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23.10.27.)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16호, 2020. 1. 30) 제6조(소위원회 운영)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은 해당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 ‘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도학동)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24-1 외 1필지
 - 문화유산과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60m(제1구역)

○ 사업내용 : 종교시설(사명대사 교육관 및 체험관) 건립

1) 대지면적 : 4,982.00m²

2) 건축면적/연면적 : 627.72m² / 2,761.31m²

3) 건폐율/용적률 : 12.48% / 16.65%

4) 용도 : 종교시설

- 지상 1층, 2층 : 기획전시실 / 지하 1층 : 휴게공간, 영상관 기계실 등

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14.35m

6)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7) 마감

- 외벽 : 노출콘크리트 문양찍기, 전통무늬창호(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 지붕 : 한식기와잇기(동와)

라. 소위원회 결과 : 조건부가결

(2023.10.2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계획안은 동화사 종합정비계획에 승인된 규모보다 작게 되어 적절하나, 아래사항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상층은 2층으로 계획되어 배산을 가릴 우려가 크므로 2층 면적은 축소가 필요함

- 동화문에서 진입할 경우 지하층의 전면이 크게 보여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수지와 최대한 이격 또는 축소하면서 지반레벨을 조정토록 함

- 동화문 진입부과 염불암 진입부 경사면을 차폐식재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등 허가신청 2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소 계 | | 21건 |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5건 | |
|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경북 영주 (○○○) | <input type="checkbox"/> 토사유출방지 사면보수 ○ 위치 :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57 * 제1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보호구역에서 약 310m) - 개별검토 ○ 내용 : 토사유출방지망 및 조경석 설치 - 사업면적 : A=275.0㎡ - 사업규모 : L=55.0m, B=5.0m - 사업기간 : '23. 10. ~ 12. - 사업예산 : 23,200천원 | 원안가결 | '23.11.27 |
|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 제주 제주 (○○○) | <input type="checkbox"/> 조명시설 정비(태양광) ○ 위치 : 제주시 서문로 용담1동 311번지 * 보호구역(문화재로부터 5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보안등 교체 - 기존 설치된 보안등 5개 교체 - 높이 : 4m | 원안가결 | '23.11.27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 경북 문경 (○○○) | <p>□ 근린생활시설(1종) 신축(변경허가)</p> <p>○ 위치 :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83번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4m 이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22년 1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1.12.)</p> <p>: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p> <p>※ '22년 4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4.11.)</p> <p>: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style="text-align: center;">현지조사 의견("22. 4. 19. ○○○ 전문위원)</p> <p>▶ 신청부지는 보호구역에서 약 200m 이격되었고, 신청지와 탑 사이에는 낮은 둔덕이 있으며, 과수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임</p> <p>▶ 신청 건물이 신축될 경우 지붕 일부가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 다만, 폐사지 추정지역임을 감안하여 시발굴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 <p>▶ 또한, 배치는 조정하여 지형 훼손을 주지 않도록 함이 좋겠음</p> </div> <p>※ '22년 5월 1차 자체검토회의 (2022.05.10.)</p> <p>: 조건부가결(건물 배치조정, 시·발굴조사 선행)</p> <p>※ 경미한 허가변경 (문경시, 2022.12.19.)</p> <p>: 원안가결(기간연장, ~23.12.31.)</p> <p>○ 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신축 1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134㎡ - 건축(연)면적 : 98.88㎡ - 층수/높이 : 1층/6.9m - 구조 : RC조(패널 위 기와패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기존 (‘22년5월1차)</th> <th style="width: 45%;">금회 (‘23년11월2차)</th> </tr> </thead> <tbody> <tr> <td>위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남동쪽으로 1.3m 이동</td> </tr> <tr> <td>석축</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L=30m, H=0.5~1.6m</td> </tr> <tr> <td>토목</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콘크리트 포장 일부 추가</td> </tr> <tr> <td>마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출콘크리트, 적벽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적벽돌</td> </tr> <tr> <td>지붕</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와판넬</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와판넬, 고정창 신설</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 구분 | 기존 (‘22년5월1차) | 금회 (‘23년11월2차) | 위치 | 남동쪽으로 1.3m 이동 | | 석축 | 없음 | L=30m, H=0.5~1.6m | 토목 | 콘크리트 포장 일부 추가 | | 마감 | 노출콘크리트, 적벽돌 | 적벽돌 | 지붕 | 기와판넬 | 기와판넬, 고정창 신설 | 기타 | 변경없음 | | 원안가결 | ‘23.11.27 |
| 구분 | 기존 (‘22년5월1차) | 금회 (‘23년11월2차)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치 | 남동쪽으로 1.3m 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축 | 없음 | L=30m, H=0.5~1.6m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 | 콘크리트 포장 일부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감 | 노출콘크리트, 적벽돌 | 적벽돌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붕 | 기와판넬 | 기와판넬, 고정창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안성향교 대성전</p> |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안성 (○○○)</p> | <p><input type="checkbox"/>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안성시 당왕동 83-11번지 외 2필지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내용 :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 13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70㎡,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6m -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 옹벽: 높이 4.5m이하, 296m · 역T형 옹벽: 높이 4.5m이하, 57m · 보강토 옹벽: 높이 4.8m이하, 495m - 사업기간: 2022.4.~2024.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존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내용 : 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 ○ 허가기간 : 2022.3.8.~2023.3.7. ○ 허가조건 : 원안가결(기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 토록 함) </div> | 원안가결 | '23.11.27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 반가상</p> |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이천 (○○○)</p> | <p><input type="checkbox"/>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208-4번지 외 2필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29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2,728㎡ - 건축면적 : 503.6㎡ - 연 면 적 : 1,478.22㎡ - 건축높이 : 14.70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성 토 량 : 2,703.41㎡ - 사업기간 : 2023.11.~2025.1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존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학원) 부지 조성 및 건물신축 ○ 허가기간 : 2022.7.12.~2023.7.11. ○ 허가조건 : 원안가결(기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 토록 함) </div> | 원안가결 | '23.11.27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p> |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 <p><input type="checkbox"/>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변경허가)</p> <p>○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 외 3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m 이격)</p> <p>- 개별검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19년 11월 자체검토회의 (2019.11.12.) : 원안가결</p> <p>※ '23년 11월 자체검토회의 (2023.11.06.) : 원안가결</p> </div> <p>○ 내용 : 팔공산 갯바위 생태탐방로 조성</p> <p>- 안내판 : 7개소(W=0.7m~3m, H=1.4m~1.8m)</p> <p>- 난간 : 로프난간 73경간(W=1.5m, H=1.2m)</p> <p>- 계단 : 목재계단 7단(W=1.2m)</p> <p>- 데크 4개소(W=1.5m,L=103m)</p> <p>- 부대공 : 토사밀림 방지대(3단, 각재형, 43경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5%;">기존(11월1차)</th> <th style="width: 45%;">금회(11월2차)</th> </tr> </thead> <tbody> <tr> <td>안내판</td> <td>8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td> <td>7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td> </tr> <tr> <td>데크</td> <td>2개소 (W=1.5m, L=66m,)</td> <td>4개소 (W=1.5m, L=103m,)</td> </tr> <tr> <td>돌계단</td> <td>1개소(27단)</td> <td>-</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2">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 | 기존(11월1차) | 금회(11월2차) | 안내판 | 8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 | 7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 데크 | 2개소 (W=1.5m, L=66m,) | 4개소 (W=1.5m, L=103m,) | 돌계단 | 1개소(27단) | - | 기타 | 변경없음 | | 원안가결 | '23.11.27 |
| | 기존(11월1차) | 금회(11월2차) | | | | | | | | | | | | | | | | | |
| 안내판 | 8개소 (종합안내판 2개소) | 7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 | | | | | | | | | | | | | | | | |
| 데크 | 2개소 (W=1.5m, L=66m,) | 4개소 (W=1.5m, L=103m,) | | | | | | | | | | | | | | | | | |
| 돌계단 | 1개소(27단)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 사상 (○○○)</p> | <p><input type="checkbox"/> 임도구조개량사업</p> <p>○ 위치 : 사상구 모라동 산110-1번지 일원</p> <p>*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0m 이상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비탈문 흠막이 시설 설치 및 노면 포장</p> <p>- 큰돌 메쌓기 : H=1.5m / 수량 425BT</p> <p>- 자갈포설, 콘크리트포장, 파형강관</p> <p>- 사업기간 : 2024. 1월 ~ 6월</p> <p>- 사업비 : 150백만원(시비)</p> | 원안가결 | '23.11.27 | | | | | | | | | | | | | | |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 전남 구례 (○○○) | <input type="checkbox"/> 천은사 진입 교량 정비 ○ 위치 :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3-8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0m 이격) ○ 내용 : 노후 한 교량 철거 후 신축 - 규모 : 길이 16m, 폭 8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마감 : 화강석 돌붙임, 석재난간, 황토 콘크리트 포장 * 공사 중 임시가도 설치(길이 22m, 폭 4m, 콘크리트포장) - 소요예산 : 7억원 - 사업기간 : 2024.3.~2024.7. | 원안가결 | '23.11.27 |
| 국보 충주 고구려비 | 충북 충주 (○○○) | <input type="checkbox"/> 일반산업단지 조성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385m 이상 이격) - 개별심의(3m절·성토, 도로개설) ○ 사업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 - 개방방식 : 민·관합동개발(충주시, 현대 산업개발, 교보증권 등) - 개발목적 : 신산업 기술을 육성하여 대단지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 면 적 : 1,698,492㎡ - 사업기간 : 2021. 09. ~ 2026. 12. | 원안가결 | '23.11.27 |
| 국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 충남 태안 (○○○) | <input type="checkbox"/> 백화산 등산로(청조루~태을암) 정비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3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등산로 정비 - 목교설치 : A=27㎡(L=18m, B=1.5m) - 목재데크 : A=33㎡(L=22m, B=1.5m) - 사업기간 : '23. 12. ~ '24. 12. - 사업예산 : 181백만원 | 원안가결 | '23.12.11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보물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 경북 성주 (○○○) | <input type="checkbox"/> 백운동 야영장 리모델링 정비 ○ 위치 : 성주시 수륜면 백운리 1833-1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8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야영장 관리동 신축 및 주변정비 - 대지면적 : 1,192㎡ - 관리동 신축 : 148㎡ - 수경시설, 데크계단, 자연석쌓기 등 | 원안가결 | '23.12.11 |
| 보물 창녕 석빙고 | 경남 창녕 (○○○) | <input type="checkbox"/> 전주 신설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93, 286-1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m 이상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전주 설치 - 한전 전주 2개 설치 - 전주 16m 2개 - 2.55m 굴착 | 원안가결 | '23.11.27 |
| 보물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응전 | 전북 고창 (○○○) |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및 전송로 설치 ○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 90번지 * (보물)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응전, (보물)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93.8m 이격) * (보물)고창 선운사 대응전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02.1m 이격) ○ 내용 : 고창 선운산 일원 등산로 통화 음영 지역 이동통신서비스 개선 - 환경친화형(소나무형) 이동통신중계기 (높이 20m) 2기 설치 - 전송로 55m 설치 (전기+광 36m, 전기 9m, 광 1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 원안가결 | '23.12.11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 | 전남 영광 (○○○) | <input type="checkbox"/>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12번지 7호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0m 이격) ○ 내용 :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사 진입로에 상사화 주제 로고라이트 조명 설치 - 길이 : 38m - 면적 : 38㎡ - 스테인리스 가로등 : 3주(높이 4.2m) - LED 조명(로고라이트) : 12개 - 사업기간 : 2023.11.~2023.12. | 원안가결 | '23.12.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 경북 울진 (○○○)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26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20m 이격) - 개별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2021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2021.6.17.) : 보류(기존건물 무허가여부 확인) ※ 2021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2021.7.15.) : 원안가결 </div> ○ 내용 : 단독주택신축(변경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기존 (21년7월)</th> <th>금회 (23년12월)</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지 면적</td> <td>305㎡</td> <td>305㎡</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60㎡</td> <td>85㎡</td> <td>25㎡ 증</td> </tr> <tr> <td>최고 높이</td> <td>5.2m</td> <td>5.5m</td> <td>0.3m 증</td> </tr> <tr> <td>지붕 마감</td> <td>샌드위치판 넬</td> <td>칼라징크</td> <td></td> </tr> <tr> <td>외부 마감</td> <td>벽체용 사이드판넬</td> <td>황토벽돌 쌓기</td> <td></td> </tr> <tr> <td>기타</td> <td colspan="3">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 구분 | 기존 (21년7월) | 금회 (23년12월) | 비고 | 대지 면적 | 305㎡ | 305㎡ | - | 건축면적 | 60㎡ | 85㎡ | 25㎡ 증 | 최고 높이 | 5.2m | 5.5m | 0.3m 증 | 지붕 마감 | 샌드위치판 넬 | 칼라징크 | | 외부 마감 | 벽체용 사이드판넬 | 황토벽돌 쌓기 | | 기타 | 변경없음 | | | 원안가결 | '23.12.11 |
| 구분 | 기존 (21년7월) | 금회 (23년12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 면적 | 305㎡ | 3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면적 | 60㎡ | 85㎡ | 25㎡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 높이 | 5.2m | 5.5m | 0.3m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붕 마감 | 샌드위치판 넬 | 칼라징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마감 | 벽체용 사이드판넬 | 황토벽돌 쌓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국보 충주 고구려비 | 충북 충주 (○○○) | <input type="checkbox"/> 농업용수 관로 공사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 *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385m 이상 이격) - 개별심의(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사업내용 : 농업용수 관로 공사 - 개방방식 : 민·관합동개발(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 - 사업목적 : 일반산업단지 농업용수 대체 시설 관로공사 - 면 적 * 터파기 : 1,403.26㎡ * 관로 신설 : 직경 800mm, 412.72㎡ - 사업기간 : 2024. 01. ~ 2025. 03. | 원안가결 | '23.12.11 |
|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 부산 사상 (○○○) | <input type="checkbox"/>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 위치 : 사상구 모라동 1241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26m 이상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 석축공사 * 바닥막이 : H0.5*W1.5, 6개소 * 큰돌 기슭막이 : H2.0, 90.9개소 - 구조물공사 * 퍼걸러 설치 : 3.0×3.0, 1개소 - 부대공사 : 목재울타리 H1.2*W1.5 - 사면보호공 : 초류종자파종 586㎡ |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행) | '23.11.27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보물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 강원 양양 (○○○) | <input type="checkbox"/> 묘사채 철거 및 승방 복원 ○ 위치 : 양양군 강현문 둔전리 산1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54m 이격) - 시도기념물 지정구역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묘사채 철거, 승방 복원 - 묘사채 : 137.35m ² - 승방복원 : 154.44m ² * 정면 7칸, 측면 2칸 * 팔작지붕(한식기와) | 조건부가결 (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 '23.11.27 |
| 국보 여수 진남관 | 전남 여수 (○○○) | <input type="checkbox"/> 여수 진남관 현판 탁본 ○ 위치 : 여주시 군자동 472번지 * 당해문화재 ○ 내용 : 여수 진남관 현판 탁본 - 목적 : 여주시립박물관 전시 유물로 확보 - 탁본대상 : 진남관 편액 등 6점 - 탁본수량 : 7벌(편액 2벌, 그 외 각 1벌씩) · 진남관 편액(327×126, 양각) : 2벌 · 중건상량문(240×64, 음각) : 1벌 · 중수기(170×36, 음각) : 1벌 · 중건지(90×56, 음각) : 1벌 · 중수감동록(65×38, 음각) : 1벌 · 중건인명록(64×37, 음각) : 1벌 - 탁본방법 : 습식 - 탁본수행 : 토문 한승찬 - 사업기간 : 11월 중(착수일로부터 7일) | 조건부가결 (현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탁본하되, 탁본 전후 사진을 제출토록 함.) | '23.12.07 |
| 보물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 경북 영주 (○○○) | <input type="checkbox"/>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위치 :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6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6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L6.5m×W3m×H3.3m |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재심의) | '23.12.11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경북 칠곡 (○○○) | <input type="checkbox"/>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6-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9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가설컨테이너(농막)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L6.0m×W3m×H2.5m |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재심의) | '23.12.11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